

국립국어원 2008-01-31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018-10

2008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연구 책임자 : 소강춘

연구 보조원 : 주경미 · 김규남

조사 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국 립 국 어 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8년도 전북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22일

연구책임자 : 소강춘

연구보조원 : 주경미

김규남

2008년
전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고창군 편-

목 차

1. 조사과정	5
1.1. 조사 지점 개관	5
1.2. 조사 진행	5
1.3. 제보자	6
1.4. 조사자	8
1.5. 전사	9
2. 전사 원칙	11
2.1. 구술 발화 전사	11
2.2. 어휘 항목 전사	11
2.3. 음운 항목 전사	12
2.4. 문법 항목 전사	12
2.5 표기 방법	12
3. 전사 자료	13
제1편 구술 발화	14
1.2. 일생 의례(이병권 1)	13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4
1.8. 세시풍속과 놀이	37
1.2. 일생 의례(이병권 2)	48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전순자)	89
1.2. 일생 의례(전순자 1)	108
1.2. 일생 의례(전순자 2)	122
1.2. 생업활동	154
제2편 어휘	163
2.1. 농경	163

2.2. 음식	168
2.3. 가옥	172
2.4. 의복	180
2.5. 민속	183
2.6. 인체	188
2.7. 육아	194
2.8. 친족	196
2.9. 동물	200
2.10. 식물	205
2.11. 자연	209
 제3편 음운	 215
3.1. 음운 체계	215
3.2. 음운 과정	220
 제4편 문법	 255
4.1. 대명사	255
4.2. 조사	257
4.3. 종결어미	259
4.4. 연결어미	261
4.5. 주체 준대	262
4.6. 시제	262
4.7. 부정	263
4.8. 사동과 피동	264
4.9. 보조용언	265
4.10. 부사	265
4.11. 관용적 표현	267

4. 제출 자료(별첨)

- 1) 전사된 지역어 조사 질문지 원본 및 제보자 조사표
- 2)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 3) 지역어 현지 조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보존용 48,000hz 웨이브 파일)
-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작업용 16,000hz 웨이브 파일, trs 전사 파일
- 5) 지역어 조사 보고서 100부 및 원본 파일
- 6) 구술발화 발간용 파일

1. 조사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조사 지역 :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방고개

무장은 조선시대 무장현이 있던 곳으로 서쪽으로는 바다에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전라남도 영광, 동쪽으로는 전라북도 정읍, 북쪽으로는 전라북도 부안에 접해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본래 전라남도이었으나 전북의 북동쪽에 위치한 금산을 충남에 넘겨주고 전남으로부터 전라북도로 이양된 지역이다.

송계리 방고개는 무장면과 해리면의 중간 지점에 있어서 장을 볼 때는 해리장을 보는 경우가 있었으나 경제, 교육 및 사회 활동의 중심지는 무장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송계리 방고개는 마을 뒤로 산이 가로막혀 있는 송계리의 가장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규모 역시 매우 작아서 네 집이 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방고개 앞으로는 크고 작은 구릉지대의 밭들과 구릉지대에 인접한 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농사를 짓고 살 만한 정도의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학교나 장에 가기 위해서는 무장까지 걸어다녔다고 하는데 80년대 초반까지도 무장, 해리 간 국도까지 걸어간 후에야 버스를 탈 수 있었다고 한다.

1.2. 조사 진행

2008년 7월 07일(월) - 7월 10일(목) 제보자 집에서 기거
7월 21일(월) - 7월 25일(금) 제보자 집에서 기거
11월 8일(토) - 11월 9일(일) 제보자 집에서 기거
12월 4일(목) 제보자 집 방문

7월 7일 9시 경에 고창문화원에서 무장 지역 노인 몇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소개 받은 후에 곧장 무장으로 갔다. 문화원 소개로 노인당에서 현재의 제보자 이병권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한 눈에 보기에 건강하고 정직하며 성실해 보이는 분이어서 그 분께 조사 취지를 말씀 드렸는데 그 분 역시 흔쾌히 조사를 허락해 주셨다.

그 분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그 날 오후에 제보자가 살아온 내력을 들었다. 제보자의 내력을 들으면서 중학교 중퇴에 군인과 경찰로 활동한 경력이 마음이 걸렸으나 이만한 제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분께 조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본격적인 조사 그 이튿날부터 시작되었다.

조사자는 주로 제보자가 스스로 그 화제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조사자가 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질문이 있어야만 협조하겠다는 처음 마음이 유지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온 결과이다. 따라서 조사자는 제보자가 스스로 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과거 조상들의 삶에 질문의 초점을 두었다.

처음 조사를 하는 동안 조사자는 제보자에게 아예 제보자의 집에서 기거하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조사를 해도 될는지 여쭙어 보았고 제보자 역시 흔쾌하게 허락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 조사 시기 동안에는 제보자의 아랫방에 기거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할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조사를 하였다. 첫날을 제외하고 날마다 할아버지 내외분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러 인근 지역으로 외출을 하였으며, 할아버지께서 무장면에 나가실 일이 있을 때는 차로 모시고 다니기도 하였다. 가족처럼 편히 지냈다.

1.3. 제보자

제 보 자 : 이병권 남 78세 고창중학교 2년 중퇴

보조 제보자 : 전순자 여 69세 무학

제보자는 방고개에서 3대를 살아왔으며 선대 역시 인근 마을에서 살아왔다. 제보자는 무장국민학교를 거쳐 고창중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중퇴하였다. 그 후 집에서 농사를 짓다가 동란 무렵 군에 입대하였다가 경찰대에 합류하여 활동한 바 있고 그 후 고향에 돌아와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살았다. 제보자는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본래 충기가 있고 부지런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네 어른으로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고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무장 지역의 노인회에 임원으로 활동해 왔다. 따라서 고창중학교 중퇴 학력과 경찰대에서의 활동 그리고 무장 노인회의 활동 등 때문에 배운 사람 그리고 동네 어른으로서의 자긍심 때문에 토속방언 화자이면서 동시에 정확한 언어 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제보자가 조사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었다. 그래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태도가 표준어 지향적이 될 때마다 녹음을 중단하고 토박이 화자들의 말투와 방언형을 주문하였고 그때마다 충분히 협조적이었다. 특히 제보자는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자리에 눕거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을 정도였다.

보조제보자 전순자 할머니는 전형적인 토속방언 화자인데 친정이 전남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어서 그런지 전라남도 억양을 가진 분이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종 이야기에 간섭을 하려고 하다가도 조사가 오랫동안 진행되는 데서 오는

피로감을 이기지 못하고 옆 방에서 쉬는 경우가 많았다.

(1) 주제보자

이름	이병권
성별	남
나이	78
출생지	전북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거주지	전북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325
선대거주지	전북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직업	농업
경력	
학력	고창고등학교 1학년
병역	
제보자 소개 과정	무장 향교에서 소개 받음
제보자의 특기 사항	지적인 능력이 있고, 총명함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발음도 매우 양호함

(2) 보조 제보자

이름	전순자
성별	여
나이	69
출생지	전북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거주지	전북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325
선대거주지	전북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직업	농업
경력	
학력	무학
병역	
제보자 소개 과정	주 제보자의 부인
제보자의 특기 사항	농사와 가사일에 밝음
제보자의 음성 특징	발음 양호함

1.4. 조사자

(1) 이름 : 소강춘(전주대학교 교수)

주경미(전주대학교 교수)

김규남(전주대학교 객원교수)

(2) 조사 일시 : 2008년 7월 7일-2008년 12월 4일

(3) 조사 장소 : 주제보자(전북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325)의 집

(4) 조사 내용 (총 49시간 50분)

TAPE 번호	파 일 명	조사항목	녹음시간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시
1	SJB_KC_01_16	구술발화	01:25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7
2	SJB_KC_02_16	어휘	01:52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8
3	SJB_KC_03_16	구술발화	00:02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8
4	SJB_KC_04_16	어휘	01:22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8
5	SJB_KC_05_16	어휘	00:07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8
6	SJB_KC_06_16	구술발화	00:03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8
7	SJB_KC_07_16	구술발화	00:01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8
8	SJB_KC_08_16	구술발화	01:23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8
9	SJB_KC_09_16	구술발화	02:03	전순자	김규남/소강춘	2008. 7. 9
10	SJB_KC_10_16	어휘	01:35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9
11	SJB_KC_11_16	어휘	01:26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9
12	SJB_KC_12_16	어휘	00:54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9
13	SJB_KC_13_16	어휘	00:28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9
14	SJB_KC_14_16	어휘	00:58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10
15	SJB_KC_15_16	어휘	01:00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10
16	SJB_KC_16_16	어휘	00:05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21
17	SJB_KC_17_16	어휘	01:01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21
18	SJB_KC_18_16	어휘	01:31	전순자	김규남/소강춘	2008. 7. 21
19	SJB_KC_19_16	구술발화	00:57	전순자	김규남/소강춘	2008. 7. 21
20	SJB_KC_20_16	어휘	01:06	전순자	김규남/소강춘	2008. 7. 21
21	SJB_KC_21_16	어휘	01:15	전순자	김규남/소강춘	2008. 7. 21
22	SJB_KC_22_16	구술발화	00:01	전순자	김규남/소강춘	2008. 7. 22
23	SJB_KC_23_16	구술발화	00:02	전순자	김규남/소강춘	2008. 7. 22
24	SJB_KC_24_16	어휘	01:53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22
25	SJB_KC_25_16	어휘	00:37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22
26	SJB_KC_26_16	구술발화	00:52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22
27	SJB_KC_27_16	어휘	01:43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22
28	SJB_KC_28_16	어휘	00:58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23

29	SJB_KC_29_16	어휘	02:20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23
30	SJB_KC_30_16	어휘	01:18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23
31	SJB_KC_31_16	어휘	00:31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24
32	SJB_KC_32_16	어휘	01:15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24
33	SJB_KC_33_16	구술발화	00:55	전순자	김규남/소강춘	2008. 7. 24
34	SJB_KC_34_16	어휘	00:49	전순자	김규남/소강춘	2008. 7. 24
35	SJB_KC_35_16	어휘	00:09	전순자	김규남/소강춘	2008. 7. 25
36	SJB_KC_36_16	어휘	01:49	전순자	김규남/소강춘	2008. 7. 25
37	SJB_KC_37_16	어휘	00:05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25
38	SJB_KC_38_16	음운	00:51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7. 25
39	SJB_KC_39_16	음운	00:27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11. 8
40	SJB_KC_40_16	구술발화	01:43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11. 8
41	SJB_KC_41_16	구술발화	00:01	이병권	김규남/소강춘	2008. 11. 8
42	SJB_KC_42_16	음운	00:55	이병권	소강춘/김규남	2008. 11. 8
43	SJB_KC_43_16	음운	01:22	이병권	소강춘/김규남	2008. 11. 9
44	SJB_KC_44_16	음운	00:22	전순자	소강춘/김규남	2008. 11. 9
45	SJB_KC_45_16	음운	01:13	이병권	소강춘/김규남	2008. 11. 9
46	SJB_KC_46_16	음운	00:16	이병권	소강춘/김규남	2008. 11. 9
47	SJB_KC_47_16	문법	00:33	이병권	소강춘/김규남	2008. 11. 9
48	SJB_KC_48_16	문법	01:35	이병권	소강춘/김규남	2008. 11. 9
49	SJB_KC_49_16	문법	00:59	이병권	소강춘/김규남	2008. 12. 4
50	SJB_KC_50_16	어휘	00:36	이병권	소강춘/김규남	2008. 12. 4
51	SJB_KC_51_16	어휘	01:26	이병권	소강춘/김규남	2008. 12. 4
52	SJB_KC_52_16	어휘	01:08	이병권	소강춘/김규남	2008. 12. 4
53	SJB_KC_53_16	문법	00:21	이병권	소강춘/김규남	2008. 12. 4

1.5. 전사

(1) 1차 전사(2007년 8월 · 10월)

구술발화: 소강춘 / 주경미

어휘: 주경미 / 소강춘

음운: 주경미

문법: 소강춘

(2) 1차 점검(2007년 10월)

구술발화: 소강춘 / 주경미

어휘: 소강춘 / 김규남

음운: 소강춘

문법: 주경미

(3) 2차 점검(2007년 11월)

구술발화: 소강춘

어휘: 소강춘

음운: 소강춘

문법: 소강춘

(4) 3차 점검(2007년 12월)

구술발화: 소강춘

어휘: 소강춘

음운: 소강춘

문법: 소강춘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

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친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 노), (+ 유)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④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3. 전사 자료

제1편 구술 발화

1.2. 일생 의례

1.2.1. 태생과 성장

10201 @ 함짜: 부터좀 여쭙보게요. 어르신 함짜가? {함자부터좀 여쭙어볼게요. 어르신 함자가?}

10201 # 이병권. {이병권}

10201 @ 여기 주소:는 어떠케 되지요? {여기 주소는 어떻게 되지요?}

10201 # 무:장 고창군 무장머니니까, 무장면 송 송계리 촌:명은 방현 모방짜 고을 현짜 방현. {무장 고창군 무장면이니까, 무장면 송계리 촌명은 방현 고을현자 방현.}

10201 @ 아:. 엔날 엔나레는 방혀니라고 부르셤판 말쓰미쥬? {아. 옛날 옛날에는 방현이라고 부르셨다는 말씀이지요?}

10201 @ 어뜨케 부르셤쎄 ... {어떻게 부르셨어 ...}

10201 # 방: 지어그 이 글짜로 인자 그 방:혀닌디 방:고개라 그랜찌 방:고개. {방 저기 이 글자로 이제 그 방현인데, 방고개라 그랬지 방고개.}

10201 @ 응. {응.}

10201 # 여가 방:고개. {여기가 방고개.}

10201 @ 응. {응.}

10201 # 근디 방헤니란:거슨 @ 응. # 유:시킨 쪼금 유식뽀다도 쫘 거시기 부는 아:넌디, 몰:라요. {그런데 방현이란 것은 @ 응. # 유식한 쪼금 유식보다도 쪼금 거시기한 분은 아는데, 몰라요.}

10201 # 방:구개 방:고개 쉬게 마레션 방:개라그러제 방:고겐디 방:개라. {방고개 방고개 쉽게 말해서는 방개라 그렇지 방고개인데 방개라.}

10201 @ 응. {응.}

10201 # 방:개라고 헨제, 부리고, 또 **글짜는 방:고겐디 방:개 방:개 그릴찌. {방개라고 했지, 부르고, 또 글자는 방고개인데 방개 방개 그랬지.}

10201 @ 지금 연세가 어떠케 되세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0201 # 예, 경오생 이룬아:흙 이룬아웁. {예, 경오생 일흔아홉 일흔아홉.}

10201 @ 먼년생이신가? {몇년생이신가?}

10201 # 어:, 그건 또:. {어, 그것은 또.}

10201 # 이룬 아:호비면 이:구년생일꺼시여. {일흔아홉이면 이구년생일 것이야.}

10201 # 왜냐허며는 내가 호저기 느저가지고, 삼:년생으로 되여이따 그마리여. {왜냐하면 내가 호적이 늦어가지고, 삼년생으로 되어있다 그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이른아호미면 삼공년생이요? 삼공 삼공년생이제 삼:공년. {일혼아홉이면 삼공년생이요? 삼공 삼공년생이지 삼공년.}

10201 @ 아니 이구년생 마자요. {아니 이구년생 맞아요.}

10201 @ 이구년생 마자요, 이구년생이나 삼공년 아: 한살 한살 우리나라가 한살 더 세니까 삼공년생. {이구년생 맞아요, 이구년생이나 삼공년 아 한살 한살 우리나라가 한살 더 세니까 삼공년생.}

10201 @ 그리고 어: 그 텃짜리는 어디세요? {그리고 어 그 텃짜리는 어디세요?}

10201 # 텃짜리가? {텃짜리가?}

10201 @ 응. {응.}

10201 # 쫘 왕겐제, 이 마으른 이 마으런디 태짜리가 아까 저 오실 때 고추: 재배 현디 인짜네. {조금 읊겼지, 이 마을은 이 마을인데 텃짜리가 아까 저 오실 때 고추 재배한데 있잖아.}

10201 @ 예. {예.}

10201 # 거가 태짜런디 거가 지빔썸는디 올보메 @ 응. # 파:오걸 히버랜써, 빈:지 비라. {거기가 텃자리인데 거기가 집 있었는데 올 봄에 @ 응. # 파옥을 해버렸어, 빈 집이라.}

10201 @ 응:. {응.}

10201 # 내가 이리 이사헐꺼등. {내가 이리 이사했거든.}

10201 @ 응. {응.}

10201 # 거가 고:가라 그마리여, 이보담 더 고가여. {거기가 고가라 그 말이야, 이보다 더 고가야.}

10201 # 그근 그건 파:괴럴 파:오걸 시케빠버리고 ... {그것은 그것은 파괴를 파옥을 시켜버리고 ...}

10201 @ 그럼 여기에 자리를 자브 # 아:, 예기라고 해야제. @ 아, 응 얼마나 되 셴썸요? 여기서 사신지는? {그러면 여기에 자리를 잡은 # 아, 여기라고 해야지. @ 아, 응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에서 사신지는?}

10201 # 나넌: 이때까지 사란썸개 칠썸구녕가늘 사란는디. {나는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칠십구년간을 살았는데.}

10201 # 월래 우리 조:부때부터 여기 사란썸따 그마리여. @ 애:. # 조부. {원래 우리 조부 때부터 여기 살았었다 그 말이야. @ 예. # 조부.}

10201 @ 애:. {예.}

10201 # 삼:대제 나까지 삼:대. {삼대지 나까지 삼대.}

10201 @ 응. {응.}

10201 # 우리 아들까지 사:대럴 여기서 사능거지. {우리 아들까지 사대를 여기에서 사는 것이지.}

10201 @ 응. {응.}

10201 # 우리 아들도 여기서 난쓰니까. {우리 아들도 여기에서 낳았으니까.}

10201 @ 그러면 삼:대 이저네는 어디에 사란썸썸요? 그 응 응개째에 사르썸썸네?
 {그러면 삼대 이전에는 어디에 살았었어요?}

10201 # 그 또 저쪽 지비서 사란째, @ 아:. # 이저네는 여: ... {그 또 저쪽 집에
 서 살았지, @ 아. # 이전에는 여 ...}

10201 # 고창 실:림면. {고창 실림면.}

10201 @ 응:. {응.}

10201 # 송천썸, 실림면. {송천에서, 실림면.}

10201 @ 그레 거기서 사시다가:: ... [그레 거기에서 사시다가 ...]

10201 # 그레 우리 하라부지때니까, 한:참 @ 한:참 # 한:참 이리고. {그레 우리
 할아버지 때니까, 한참 @ 한참 # 한참 일이고.}

10201 # 우리 징:조부때부터 여기서 사란쓰니까. {우리 증조부 때부터 여기에서
 살았으니까.}

10201 @ 애: 애. {예 예.}

10201 @ 그리고 어: 그: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썸썸요, 중학교? {그리고 어 그 학
 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중학교?}

10201 # 고창중학교. @ 고창중학교. {고창중학교. @ 고창중학교.}

10201 # 고등학교 겨우 허다가 사:변 나, 사:변 나가지고 그냥 몬:까고 그냥 중퇴
 를 해버렘제, 사학년때 사변나쓰니까. {고등학교 겨우 하다가 사변 나, 사변
 나가지고 그냥 못 가고 그냥 중퇴를 해버렸지, 사학년 때 사변 났으니까.}

10201 @ 응. {응.}

10201 # 일학년때, 고등학교 막 드러가 일학년때. {일학년 때, 고등학교 막 들어가
 일학년 때.}

10201 # 고창중학교 졸업했:꼬. {고창중학교 졸업했고.}

10201 @ 응. {응.}

10201 @ 그다메 예:, 가족 사항은 어떠케 되세요? {그 다음에 예:, 가족 사항은
 어떻게 되세요?}

10201 # 직썸 직계 가조걸 말허제 @ 직계 가족. # 부부가니고, 삼:남 사:녀. {직
 썸 직계 가족을 말하지 @ 직계 가족. # 부부간이고, 삼남 사녀.}

10201 @ 응. {응.}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1 @ 그리고 인제, 마:으레 대해서 좀 여쭙보겜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대해서 좀 여쭙어보겠습니다.}

10101 @ 이 마으레는 예: 어떤 성씨드리 주로 사세요? {이 마을에는 예 어떤 성씨들이 주로 사세요?}

10101 # 지금 현:재년 마:을압까지 인자 네:가구 인따가 하나 허무라전쓰니까, 세:가군디. {지금 현재는 마을 앞까지 이제 네 가구 있다가 하나 허물어졌으니까, 세 가구인데.}

10101 @ 응. {응.}

10101 # 정:씨허고 나라 정짜 정씨, 정:씨가 형제분 여기 살고. {정씨하고 나라 정자 정씨, 정씨가 형제분 여기 살고.}

10101 @ 응. {응.}

10101 # 이 초:노로 혈꺼시 아니라, 부락: 부라그로 해야 되까? {이 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락 부락으로 해야 될까?}

10101 @ 그러치, 부라그로 해주세요 더 조치.{그렇지, 부락으로 해주셔야 더 좋지.}

10101 # 암: 그러지, 그러면 스* {암 그렇지, 그러면 쓰*}

10101 @ 애. {예.}

10101 # 예, 둘째 청:김 @ 응. # 청:주 김씨 김씨, 박씨. {예, 둘째 청김 @ 응. # 청주 김씨, 박씨.}

10101 # 여::시제 이:씨, 정:씨. {여럿이지 이씨, 정씨.}

10101 # 주:로, 이제 그 정도며는. {주로, 이제 그 정도면.}

10101 # 그정도면 되겠씨? {그 정도면 되겠어?}

10101 @ 애:. {예.}

10101 # 최'씨. {최씨.}

10101 @ 응. {응.}

10101 # 그정도면 되겠씨? {그 정도면 되겠지?}

10101 @ 그러면 예전부터 옛날부터 이러케 각썩이 드러와서 사르센능가요? 아니면 주로 어떤 성씨가 주로 마난똥가요? 엔:나레. {그러면 예전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각 성이 들어와서 사셨는가요? 아니면 주로 어떤 성씨가 주로 많았던가요? 옛날에.}

10101 # 청:기미 마넌제, @ 응. # 김씨 청:김. {청 김이 많았지, @ 응. @ 김씨 청 김.}

10101 @ 어:, 청기::미 마난쓰면, 그 양반드리 무슨 좀 위:세를 부리거나 그러진 그러기도 헐썩나요? {어, 청 김이 많았으면, 그 양반들이 무슨 조금 위세를 부리거나 그러지는 그러기도 했었나요?}

10101 # 암:, 청:기미 위세를 부렌제, 아: 엔:나레는. {암, 청 김이 위세를 부렸지, 아 옛날에는.}

10101 # 크게머 지바니 다: 그러던 아넌찌만, 그리도 순짜가 만:코, 수짜 만코 위

세를 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제. {크게 뭐 집안이 다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숫자가 많고, 숫자가 많고 위세를 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10101 @ 응: 그러면, 그 청:기미 맨:처ومه 그 마으레 드러와 가지고 마으리 만드러전따고 볼썩인나요, 아니면 그 이저네 또 다른 성씨가 일썩나요? {응 그러면, 그 청 김이 맨 처음에 그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이전에 또 다른 성씨가 있었나요?}

10101 # 아, 청:기미 마련헸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제. {아, 청 김이 마련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10101 @ 응:. {응.}

10101 @ 그 위에 혹씨, 청:기미 처음 드러온 청김 중에서 처:음 드러온 하라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는 거기까지는 모르시지요? {그 위에 혹씨, 청 김이 처음 들어온 청 김 중에서 처음 들어온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는 거기까지는 모르시지요?}

10101 @ 그건 인자 청 청:김 그 족보나 바:야 알썩일썩요. {그건 이제 청 청 김 그 족보나 보아야 알 수 있어요.}

10101 @ 대개 보면 족보 가지고 추정을 하고, 그다메 인제 그 선대 묘:, 처:ومه 그 처:ومه 이 금방에서 썩든 그 묘, 그거 가지고 인제 그 입 이광적, 처ومه 드러오신 어르시늘 우리가 알썩 인젠드라고. {대개 보면 족보 가지고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대 묘, 처음에 그 처음에 이 금방에서 썩던 그 묘, 그것 가지고 이제 그 이 입향적, 처음에 들어오신 어르신을 우리가 알 수 있겠더라고.}

10101 # 다 그러제. {다 그렇지.}

10101 @ 예 예, 그러면 그 청:기미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무려 여쭙보도록 하께요, 나중에 기회가 다면. {예 예, 그러면 그 청 김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 여쭙어보도록 하께요, 나중에 기회가 다면.}

10102 @ 그리고 인제 여기가 마을 이름이 송계:라고 말씀하셧쥬?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마을 이름이 송계라고 말씀하셧쥬?}

10102 # 응 송:계. {응 송계.}

10102 # 송계, 송계라는 마으리 ... {송계, 송계라는 마을이 ...}

10102 # 리::명이고, @ 응. # 송계 리 명이고, 천째 여기는 제일 큰 거시기가 화사니라고 쓰여인제. {리명이고, @ 응. # 송계 리 명이고, 첫째 여기는 제일 큰 거시기가 화산이라고 쓰여 있지.}

10102 # 내:가 산 말은 방:현이고, 송계리 화사니 제일 호수가 제일 마네썩꼬. 청:기미 거가서 마:니 사람썩꼬. {내가 산 말은 방현이고, 송계리 화산이 제일 호수가 제일 많았었고, 청 김이 거기에 가서 많이 살았었고.}

10102 @ 이 금방에 사:니, 중요한 사니 아까 오시면서 말씀하셧편, 송계산 ... @ 송:림산 # 송림산. {이 근방에 산이, 중요한 산이 아까 오시면서 말씀하셧편,

송계산 ... @ 송림산 # 송림산.}

10102 @ 그리고 또 어떤 사니 인쪼? 송림산 하고, 너구리? {그리고 또 어떤 산이
있지요? 송림산 하고, 너구리?}

10102 # 아, 거그릴. {아, 거기를.}

10102 # 아까 오시면서 너구리산, @ 너구리 송장 # 너구리사니 다른 이름도 또
인쪼요? {아까 오시면서 너구리산, @ 너구리 송장 # 너구리산이 다른 이름도
또 있어요?}

10102 @ 너구리사는 왜 너구리사니래요? {너구리산은 왜 너구리산이래요?}

10102 @ 그 생각나시면 이제 말씀해주세요. {그 생각나시면 이제 말씀해주세요.}

10102 @ 예 송림산, 너구리산 이거시 이제 주로 인는 큰 사닌가요? {예 송림산,
너구리산 이것이 이제 주로 있는 큰 산인가요?}

10102 @ 요런 아페 인는 거슨 산 이르므로 이르미 인쪼요 업쪼요? {이런 앞에 있
는 것은 산 이름으로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10102 # 이건 칭:풍메. {이건 칭풍메.}

10102 @ 아::. {아.}

10102 # 칭:풍메, 칭:풍메. {칭풍메, 칭풍메.}

10102 # 또. {또.}

10102 # 지금 여기서 @ 응. # 여기서 저 촌 명을 방:고개라 헨냐하며는 ... {지금
여기서 @ 응. # 여기서 저 촌 명을 방고개라 헨냐하며는 ...}

10102 @ 응. {응.}

10102 # 여기서 약 이백미터 한 오백미터 되나, 산: 하나 너머가는데 고개가 인쪼.
{여기서 약 이백미터 한 오백미터 되나, 산 하나 넘어가는 데 고개가 있어.}

10102 # 고개가 인는디, 거기를 방:고개 재:라어거든. {고개가 있는데, 거기를 방고
개재라 하거든.}

10102 @ 예. {예.}

10102 # 방:고개재, 방:고개재, 거가 방:고개재라고거든, 여가 촌명을 따라 방:고개
재, 방:고개재. {방고개재, 방고개재, 거기가 방고개재라고 하거든, 여기가 촌
명을 따라 방고개재, 방고개재.}

10102 # 그리서 고개재, 모:방짜 고개 현짜 그리서 방:혀니라 그마리여. {그래서
고개재, 모방자 고개현자 그래서 방현이라 그 말이야.}

10102 # 방:현 방:고개재 여가 방:고개고 여가 방:고개재. {방현 방고개재 여기가
방고개고 여기가 방고개재.}

10102 @ 거기를 방고개재라고 부르는 이유가 혹씨 또 인능가요? {거기를 방고개
재라고 부르는 이유가 혹씨 또 있는가요?}

10102 # 이유는, 방고개재라고 혀는 혀능거슨 ... {이유는, 방고개자라고 하는 하는
것은 ...}

10102 @ 응. {응.}

10102 # 너머가는 재고 ... {너머가는 재고 ...}

10102 @ 그 재는 인자 알겜꼬. {그 재는 이제 알겠고.}

10102 # 응, 방고:고개기 때미네 방고깁재라구헐제. {응, 방고개기 때문에 방고개 재라고 했지.}

10102 # 그리고, @ 응. # 그미테 바로 이 우그가 전진바우가 인써, @ 응응. # 전진바우. {그리고, @ 응. # 그 밑에 바로 이 위에가 전진바위가 있어, @ 응응. # 전진바위.}

10102 # 그걸 전진바우라고 그런디. {그것을 전진바위라고 그런데.}

10102 @ 예. {예.}

10102 # 바우가 마니 일썌써, 바우가. {바위가 많이 있었어, 바위가.}

10102 # 그리서 아마 전진바우라고 그린능가비여. {그래서 아마 전진바위라고 그러는가보아.}

10102 @ 응. {응.}

10102 # 전진바우라고 그리제. 저짜그 처 우게를 전진바우라고 불러, 전진바우라고. {전진바위라고 그렇지, 저쪽의 저 위에를 전진바위라고 불러, 전진바위라고.}

10102 @ 예. {예.}

10102 @ 전지니란 말 무슨 뜨시예요? {전진이란 말 무슨 뜻이에요?}

10102 # 그니간, 여, 바우가 누넬 마:니 누어힐따에서 전진바우라고. {그러니까, 이, 바위가 눈을 많이 누어있다고 해서 전진바위라고.}

10102 @ 응. {응.}

10102 # 영, 그 바우 마:니 업써진 디를 ... {영, 그 바위 많이 없어진 데를 ...}

10102 @ 예. {예.}

10102 @ 널:꼬 팜파:난 바우 # 바우가 일제 @ 바우가? 응. {넓고 평평한 바위 # 바위가 있지 @ 바위가? 응.}

10102 @ 글고 또 이금방에는 강이나 저수지 가통게 인나요? {그리고 또 이 근방에는 강이나 저수지 같은 것이 있나요?}

10102 @ 그거시 만드러진지는 얼마나 뽕써요? {그것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10102 # 그거시 일짱시대에 마갠쓰니까. {그것이 일정 시대에 막았으니까.}

10102 @ 일짱시대 팔씨 그러머는 해방이 예:... {일정시대 팔씨 그러면 행방이 예...}

10102 # 육십삼년 되얀써? 육십 항:갑 육십일러니, 해방이 육십이년 되얀써, 육십 일년? {육십삼년 되었어? 육십 환갑 육십일년이, 해방이 육십이년 되었어, 육십일년?}

10102 # 응. 사십 사십오녀네 해방뽕쓰니까요, 지금 이천팔녀니그든. {응, 사십 사십오년에 해방되었으니까요, 지금 이천팔년이거든.}

10102 @ 험쭈로 치면 사십싸년 오십사년, 어: 사십오년, 공팔년. # 아:이 아니. @ 육십삼년 뵤네요. {험쭈로 치면 사십사년 오십사년, 어 사십오년, 공팔년. # 아 아니. @ 육십삼년 뵤었네요?}

10102 # 응 그린제, 항가비 너머쟁개 @ 육십삼년 뵤썈. # 육십삼녀니여. {응 그랬지, 환갑이 넘었으니까 @ 육십삼년 뵤어. # 육십삼년이야.}

10102 # 그양 그거시 한 육썈 한 오륙년 뵤야썈꺼시여. {그냥 그것이 한 육십 한 오륙년 뵤었을 것이야.}

10102 # 해방뵤기 저:네 이견 일뵤 일뵤때 그 마근 저수지니까. {해방뵤기 전에 이것은 일본 일제 때 그 막은 저수지니까.}

10102 @ 응 응. {응.}

10102 @ 그러면 그 화산제 물 가지고 이 들려게 다 농사질쭈 일썈젠네요? # 응. 그뵤썈 거까지. {그러면 그 화산제 물 가지고 이 들녘에 다 농사지을 수 있었겠네요?}

10102 # 다:는 아네도, 그 인자 뵤니뵤 일썈. {다:는 아니어도, 그 이제 뵤니뵤*** 있지.}

10102 @ 무슨 다뵤요? {무슨 답이요?}

10102 # 거 인자 저수지에 딸린 뵤을 뵤니뵤비라 허거든, 공개 그건 하등에. {그 이제 저수지에 딸린 뵤을 뵤니뵤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하등에.}

10102 @ 응. {응.}

10102 # 뵤니뵤비라고 허는데, 거가 딸린. {뵤니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딸린.}

10102 # 거기 인자 저수지에 딸린 그 물만 쓰는 인자 거기에 해당뵤는 인자 노니 일썈. {거기 이제 저수지에 딸린 그 물만 쓰는 이제 거기에 해당뵤는 이제 논이 있어.}

10102 # 무리 뵤 아:무거 가지가능거시 아니라, 그거뵤고 뵤니뵤비라고 허제 뵤니뵤. {물이 뵤 아무것 가져가는 것이 나니라, 그것뵤고 뵤니뵤이라고 하지 뵤니뵤.}

10102 @ 그 뵤니라는 마리 무슨 쓰시예요? {그 뵤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예요?}

10102 # 공개 거기에 소컨 뵤얼 뵤니뵤비라라고 그러거든, @ 응 저수지에 속한 # 저수지에 속한.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뵤을 뵤니뵤이라고 그러거든, @ 응, 저수지에 속한 # 저수지에 속한.}

10102 @ 응. {응.}

10102 @ 그러면 뵤니뵤비 아닌거슨 다 천수다뵤가요? {그러면 뵤니뵤이 아닌 것은 다 천수답인가요?}

10102 # 아 천수뵤비 아니라 그 무를 아 뵤쓰지. {아 천수답이 아니라 그 물을 아 뵤쓰지.}

10102 @ 뵤쓰는 물. {뵤 쓰는 물.}

10102 # 암. {암.}

10102 @ 그러면 그 다른:: 다른데서 무를 대가지고 쓰는 # 그러제. @ 응. {그러면 그 다른, 다른 데서 물을 대가지고 쓰는 @ 그렇지. @ 응.}

10102 # 천수답또 인꼬, @ 응. # 낸무털 쓰또 인꼬. {천수답도 있고, @ 응. # 냇물일 수도 있고.}

10102 @ 응. {응.}

10102 @ 이: # 그리고, @ 병풍::되라고 하는 # 평풍매 @ 평풍매, 평풍매라고 하는 거슨 이 어떠케해서 이르미 그런 평풍매라는 이르미 묻게됐나요? {이 # 그리고, @ 병풍 되라고 하는 # 평풍매 @ 평풍매, 평풍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름이 그런 평풍매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나요?}

10102 # 그건, 그건 평풍매라는 거선 아마 내가 듣건데 예:: 평풍가치 생게따해서 평풍매라고 그런디. {그건, 그건 평풍매라는 것은 아마 내가 듣건데 예 병풍 같이 생겼다고 해서 평풍매라고 그런데.}

10102 # 저 아폐가 지금 여그 저 지:리 나버릴끼 때무네 그대로는 변뎡이 만치이? {저 앞애가 지금 여기 저 길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대로는 변동이 많지?}

1010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102 # 그길 여기 썸:끼레 그 미트로가 우리 차안네 썸:끼로 요:리서 생하털 갇썸 꼬덩. {그 길 여기 셋길에 그 밑으로가 우리 처음에 셋길로 이리해서 상하를 갇썸거든.}

10102 # 그 다 나물까시여 나물깁. {그 다 나무산이야 나무산.}

10102 @ 응. {응.}

10102 # 소나무 쏘게가지고, 이 지금 인자 흰::너고 길날썸개 그러제. {소나무 속 이어 가지고, 이 지금 이제 흰하고 길이 났으니까 그렇지.}

10102 @ 응. {응.}

10102 # 아폐도 뒤여도 다 나무까시열썸, 살리미열썸. {앞에도 뒤에도 다 나무산이었어, 삼림이었어.}

10102 # 우리 온 여 길까지 히서 다 살리미열썸. {우리 온 이 길까지 해서 다 삼림이었어.}

10102 # 이 아폐로 인자 길 소로가 인썸꼬, 상하 가는 데도 인자 소로가 저:리 인썸썸. {이 앞으로 이제 길 소로가 있었고, 상하 가는 데도 이제 소로가 저리 있었지.}

10102 @ 응. {응.}

10102 # 세썸 저런 기리 읍썸꼬덩. {숫제 저런 길이 없었거든.}

1010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102 # 우 우리 나 학교 대닐때, 아 이거 길 난지가 지끔, 이 도:로 난지가 한::지금 한 읍년 칠년채 난능가. {우 우리 나 학교 다닐 때, 아 이것 길 난 지가 지금, 이 도로 난지가 한 지금 한 육년 칠년채 났는가.}

10102 @ 아 그거박게 안돼요? {아 그것밖에 안돼요?}

10102 # 아, 이렇게 인자 포장되는 지가? {아, 이렇게 이제 포장된 지가?}

10102 # 여기서 상:아까지 소재지으 통로지마는 ... {여기서 상하까지 소재지의 통로지만 ...}

10102 @ 응. {응.}

10102 # 나 그저네 저 일췌시대때. {나 그전에 저 일정시대 때.}

10102 # 응, 그리고 여기 저 구닌더리 일번 구닌더리 여가 여가 인췌췌요, 구닌더리 인췌췌. {응, 그리고 여기 저 군인들이 일본 군인들이 여기가 여기애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있었어.}

10102 # 이 집 뒤에도 마뜩뜨칸 인췌꼬, @ 그래요. # 인췌꼬. {이 집 뒤에도 마구간 있었고, @ 그래요. # 있었고.}

10102 # 일번 구닌더리 이개 사다니 한 일개 사다니 여 여 사단 봄부가 인췌췌, 일개. {일본 군인들이 이개 사단이 한 일개 사단이 여 여 사단 본부가 있었어, 일개.}

10102 @ 그래요, 그래 그러면 그:: 일본 군대 때무네 마을 싸람드리 피해를 보거나 그런 이리 인췌능가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그 일본 군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가요?}

10102 # 피해는 읍췌. {피해는 없지.}

10102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102 @ 그러면 # 피해는 읍췌췌. {그러면 # 피해는 없었어.}

10102 @ 어: 그러면 이제 서로 불리돼 인능건갑네요? {어, 그러면 이제 서로 분리되어 있었는가 보네요?}

10102 # 군대는 따로 인꼬, 주민드른 생화를 하 ... {군대는 따로 있고, 주민들은 생활을 하 ...}

10102 # 아:, 주민드른 생화를 허고, 저 우구로 막사를 진꼬, @ 응. # 나무까지 저기 저 송림산 그 밋트로 아 절췌 이용에서 구닌더리, 그 밋테로 췌뻬넌데다가 인자 그 구닌 막사를 진:꼬, 거기서 인자 생활 허고, 인자 수비릴 췌꼬. {아, 주민들은 생활을 하고, 저 위로 막사를 짓고, @ 응. # 나무까지 저기 저 송림산 그 밋으로 아 절췌 이용해서 군인들이, 그 밋으로 평평한 곳에다 이제 그 군인 막사를 짓고, 거기서 이제 생활 하고, 이제 수비를 췌고.}

10102 # 바로 이 집뻬에다 그 구닌 그저 호마 기병 기병덜, 호마 그때 구닌덜또 차가 아니고 말구루마로 실꾸 땡기구 모두 수송이 되야 인췌꼬등. {바로 이 집 뻬에다 그 군인 그저 호마 기병 기병들, 호마 그때 군인들도 차가 아니고 말 수레로 싣고 다니고 모두 수송이 되어 있었거든.}

10102 @ 그러췌. {그렇지요.}

10102 # 모든 저, 어 군속두부가통거 그냥 싱냥얼 가따 마레 실꾸 구루마로 실꾸 땡기고 읍반췌췌, 근디 저 마부까니 인췌췌요, 마부까니. {모든 저, 어 군속품 같은 것 그냥 식량을 가져다 말에 싣고 수레로 싣고 다니고 읍반췌어, 그런데

저 마구간이 있었어요, 마구간이.}

10102 # 근디. [그런데.]

10102 # 이 주민드레 피해넌 읍썰제, 피해는 읍썰. {이 주민들에 피해는 없었지, 피해는 없어.}

10102 # 그때는 내가 학교럴 느께 다니고 그리가지고. {그때는 내가 학교를 늦게 다니고 그래가지고.}

10102 # 거 화장시런 소매볼라면 여기야, 화장실 여 가서 바도 되고. {그 화장실은 소변보려면 여기야, 화장실 여기 가서 보아도 되고.}

10102 # 응, 여 화장실도 인꼬. {응, 여 화장실도 있고.}

10102 @ 그다메 예: 그 전진바우가치 사네도 이러케 그 이르미 인는 그런 바우가튼 걸뜨리 인는가요? {그 다음에 예, 그 전진바위같이 산에도 이렇게 그 이름이 있는 바위 같은 것들이 있는가요?}

10102 # 어, 판 바, 판 이름 인는 바우는 읍꼬. {어, 다른 바, 다른 이름 있는 바위는 없고.}

10102 @ 나무가튼 걸뜰, 큰:: 나무라등가 머 이런걸? {나무 같은 것들, 큰 나무라등가 뭐 이런 것?}

10102 @ 혹씨 그런데 엔'나레는 지그른 지그른 개화된 때라 어 머 귀시니 나올리도 업꼬, 그런데 엔나레 어두운 시저레는 그런 애기들 마날쨌요? {혹씨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은 지금은 개화된 따라 어 뭐 귀신이 나올 리도 없고, 그런데 옛날에 어두운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들 많았지요?}

10102 # 아:: 인제. {아, 있지.}

10102 @ 예::. {어.}

10102 # 그 큰나무가 지금도 이는데 인제, 저그저 ... {그 큰 나무가 지금도 있는데 있지, 저기 저 ...}

10102 # 화산까 화산까 팽'나무라고 약 한 ... 지금 뱅년도 더 되야쨌꺼시여. {환산에가 화산에가 팽나무라고 약 한 ... 지금 백년도 더 되었을 것이야.}

10102 # 큰:: 나무가 인썰 지금. {큰 나무가 있어 지금.}

10102 @ 응. {응.}

10102 # 지금 그 지금도 거그 인쨌꺼시여. {지금 그 지금도 거기 있을 것이야.}

10102 @ 응. {응.}

10102 # 그리구 읍썰징거선 혈피료 업꼬, 지금 현재까지 인썰야 되는데. {그리고 없어진 것은 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까지 있어야 되는데.}

10102 @ 예. {예.}

10102 @ 이 마으레서 엔날부터 그 내려오는 그:: 그 명당을 잘써가지고 머 발보글 햐따는등:: 아니면 잘못써가지고 무슨 동티가 날따는등 머 그런 # 그런거시 @ 이야기도 더 인썰나요, 엔나레? {이 마을에서 옛날부터 그 내려오는 그 그 명당을 잘 써가지고 뭐 발복을 했다는등, 아니면 잘 못 써가지고 무슨 동티가

났다는등 뭐 그런 # 그런 것이 @ 이야기도 더 있었나요, 옛날에?)

10102 # 아, 인찌만, 여기 여기에선 그런 이리 읍꼬. {아, 있지만, 여기 여기에는 그런 일이 없고.}

10102 @ 어. {어.}

10102 # 명당얼 잘몬써가지고 지바니 어쩔따느니 머, 명당얼 잘써가지고 급짜키 인자 큰 이이글 마져 재사늘 모알따든지 인자 큰사라미 날따든지 이런 거슨 읍꼬. {명당을 잘 못 써가지고 집안이 어쩔다느니 뭐, 명당을 잘 써가지고 갑자기 이제 큰 이익을 맞아 재산을 모았다든지 이제 큰 사람이 낫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10102 @ 예. {예.}

10102 @ 그래도 명당 이야기들 좀 인찌요? {그래도 명당 이야기들 좀 있지요?}

10102 # 암 터러, 이 명당 얘기가 인 ... {암, 더러, 이 명당 이야기가 있 ...}

10102 @ 혹시 그런 얘기 가운데 기억나는거 혹시 인쓰썬썬썬요? {혹시 그런 이야기 가운데 기억나는 것 혹시 있으셨어요?}

10102 # 예기서 머 ... {여기서 뭐 ...}

10102 @ 이 또 생강나시면 또 말쓰메 주시고 ... {이 또 생각나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

10103 @ 이 마으레서는 엔나레 주로 어떤 일드를 하시면서 생화를 하썬썬썬요? {이 마을에서는 옛날에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썬썬썬요?}

10103 # 천채는 이 농사진코 ... {첫째는 이 농사짓고 ...}

10103 @ 응. {응.}

10103 @ 주로 어떤 농사 ... {주로 어떤 농사 ...}

10103 # 벼농사. {벼농사.}

10103 @ 예. {예.}

10103 @ 예:전부터 그랜나요? {예전부터 그랬나요?}

10103 # 아, 예:전부터 벼농사지. {아, 예전부터 벼농사지.}

10103 @ 반농사로논? {밭농사로논?}

10103 # 반농사는 예 목좌. {밭농사는 예 목좌.}

10103 # 엔나레 그 농초네 모카들 마니 인썬썬. {옛날에 그 농촌에 목좌들 많이 있었지.}

10103 @ 예:. {예.}

10103 # 모카덜 시몽개. {목좌들 심으니까.}

10103 # 모카 심꼬. {목좌 심고.}

10103 # 내:가 형거선 ... {내가 한 것은 ...}

10103 # 반농사에 머 조:라고 수수, @ 응. # 혼차면 고구마. {밭농사에 뭐 조라고 수수, @ 응. # 한참은 고구마.}

10103 # 그 흥녀네 수화기 제일 마능거시그덩, 고구마 수화기 망코, @ 예. # 조

수수기 낭:꼬. {그 흥년에 수확이 제일 많은 것이거든, 고구마 수확이 많고,
 @ 예. # 조 수수가 남고.}

10103 # 콩파선 보통 허니까. {콩 팔은 보통 하니까.}

10103 @ 음. {응.}

10103 # 특빠리 조가통걸 마니 해가지고, 조:로 살고, 인자 고구마 캐가지고 고구마
 마릴 마니 살고. {특별히 조 같은 것 많이 해가지고, 조로 살고, 이제 고구마
 캐가지고 고구마를 많이 살고.}

10103 @ 엔나레 서:수기라고도 허능겔또 인썸쫐? {옛날에 서숙이라고도 하는 것
 도 있었지요?}

10103 # 아, 스:스기 조:제. {아, 서숙이 조지.}

10103 @ 아, 서수기 조예요? {아, 서숙이 조예요?}

10103 # 응. {응.}

10103 @ 여기서는 서수기라는 마를 마니 쓰세요, 조라고 마니 하세요? {여기서는
 서숙이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조라고 많이 하세요?}

10103 # 서:수기라고 스숙. {서숙이라고 서숙.}

10103 @ 여기서는? {여기서는?}

10103 # 아, 서수기라고. {아, 서숙이라고.}

10103 @ 지금도 서수기라는 마를 마니 쓰시능가요, 조라고 하는 마를 더러 쓰시
 능가요, 요즈메? {지금도 서숙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가요, 조라는 말을 더
 러 쓰시는가요, 요즘에?}

10103 # 쫐끔 변경되야서 한:: 보통 여자들 스:수기라고 마니 허제이. @ 지금도?
 {조금 변경되어서 한 보통 여자들 서숙이라고 많이 하지. @ 지금도?}

10103 # 지금도 예 예. {지금도 예 예.}

10103 # 궁개 그글 지금 사용 안체 읍썻개, 사용얼 안체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사용 않지 없으니까, 사용을 안 하지 지금.}

10103 @ 응. {응.}

10103 # 갱작 양코 그러기 때미네, 갱작 허면 그런 마릴 쓰는디 ... {갱작 앓고 그
 러기 때문에, 갱작하면 그런 말을 쓰는데 ...}

10103 @ 예. {예.}

10103 # 모:카도, 모카컬 미영이라고 그러제, 미영. {목화도, 목화를 무명이라고 그
 러지, 무명.}

10103 @ 그런치. {그렇지.}

10103 # 미영이라고 힐제, 미영. {무명이라고 했지, 무명.}

10103 # 지그문 모카라구레, 미영얼 말힐썻. {지금은 목화라고 그래, 무명을 말했
 어.}

10103 @ 엔나레 베 베반 # 베날코. {옛날에 베 베 날 # 베 낳고.}

10103 # 미:영배 무:영밴디 미:영배 미:영배지 미영배 난네. {무명배 무명배인데

무명배 무명배지 무명배 날았네.}

10103 # 미:영배 날코, 모시배 날코. {무명배 낳고, 모시배 낳고.}

10103 # 주로 미:영비지. {주로 무명배지.}

10103 # 그때년 미:영배 나가지고 살리멀 헐쓰니까. {그때는 무명배 낳아가지고 살림을 했으니까.}

10103 # 그거 가지고 생애털 끄려나갈써. {그것 가지고 생애를 끊어나갔어.}

10103 # 바깥에서는 논농사 하고 ... {바깥에서는 논농사 하고 ...}

10103 # 여자드런 그 주로 그 미:영배. {여자들은 그 주로 그 무명배.}

10103 @ 그 이러케 벼농사를 질러면 어떤 때는 인제 물론 혼자서 할 일도 인꼬, 가치 이러케 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마난쥬요? {그 이렇게 벼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때는 이제 물론 혼자서 할 일도 있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쥬요?}

10103 @ 그럴 때, 그 가치 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지그므로 치며는 머 게:라 등가 그런 모임가통거시 엔나레 어떤거시 # 그건 @ 인쥬어요? {그럴 때, 그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지금으로 치면 뭐 계라든가 그런 모임 같은 것이 옛날에 어떤 것이 # 그건 @ 있었어요?}

10103 # 그건, 예기년 그거시 읍, 중가네 하다 공동자거비랑거시 인쥬. {그것은, 여기는 그것이 없, 중간에 하다 공동작업이란 것이 있지.}

10103 # 게:랑거슨 읍꼬. {계란 것은 없고.}

10103 @ 응. {응.}

10103 # 인자 그 그 그거슨 여기는 그런 모:이미 읍쥬쥬. {이제 그 그 그것은 여기는 그런 모임이 없었어.}

10103 # 여기서 인자 그때 당시 김:제가튼 들:력 가튼 데는 인자 그 조지기 다 인쥬가지고 그러케 힌는디, 여기는 조지기 읍'꼬.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 김제 같은 들녘 같은 데는 이제 그 조직이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조직이 없고.}

10103 # 그냥 임부 사서, 내가 사서 인자 머 노버더가지고 이쥬쥬는디. {그냥 인부 사서, 내가 사서 이제 뭐 읍 얻어가지고 일 했었는데.}

10103 # 나중에 약간 그저 공동자거비라고, 가치 히알 공동자거비란 마리 인쥬는디, 여기는 그렇거또 벨시게 읍:꼬. {나중에 약간 그저 공동작업이라고, 같이 해야 할 공동작업이란 말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별스럽게 없고.}

10103 # 인자 임부 사서 @ 예:. # 품과리 헐 사람한테 임부 사서 갑따가 개이니 썩꾼 사서 허는, 그런거시 읍쥬쥬, 게랑거슨 읍쥬쥬. {이제 인부 사서 @ 예. # 품팔이 하는 사람에게 인부 사서 갖다가 개인이 샀꾼 사서 하는, 그런 것이 없었어, 계라는 것은 없었어.}

10103 @ 푸마시도 안허쥬쥬요? {품앗이도 안하쥬쥬요?}

10103 # 푸마시년 헐쥬, 푸마시허고, 푸마시. {품앗이는 했지, 품앗이 하고, 품앗

이.}

10103 @ 그 푸:마시를 할려면 그 푸마시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좀 이러케 왕내가 인꼬 치니고 # 아 그러제. @ 그래야 헐꺼 # 아 푸마시랑건 @ 아니예요? {그 품앗이를 하려면 그 품앗이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좀 이러케 왕래가 있고 친하고 # 아 그렇지. @ 그래야 할 껏 # 아 품앗이란 것은 @ 아니예요?}

10103 # 겨:으 자탄 사람끼리 푸마시럴 허지. {거의 같은 사람끼리 품앗이를 하지.}

10103 # 그러니까. {그러니까.}

10103 @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농사질때 도와주는 계는 업써도 가령 제사가, 상을 치룬다거나, 아니면 머 자식들 혼례를 치를려면 또 이러케 좀 서로 부조를 좀 마:니 해준다거나 ...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농사지을 때 도와주는 계는 없어도 가령 제사가, 상을 치룬다거나, 아니면 뭐 자식들 혼례를 치르려면 또 이러케 좀 서로 부조를 좀 많이 해준다거나 ...}

10103 # 그러며넌 ... {그러며는 ...}

10103 @ 그런 모임가통진 업썸썸? {그런 모임 같은 것은 없으셨어?}

10103 # 예, 계:랑거시 마이 인썸썸. {예, 계란 것이 많이 있었지.}

10103 @ 응. {응.}

10103 # 지금도 마~이 드쁜 아넹개. {지금도 많이 듣지는 안하니까.}

10103 @ 응. {응.}

10103 # 그에 회:갑계랑거시 인꼬. {그 회갑계란 것이 있고.}

10103 @ 응. {응.}

10103 # 위칭계랑거시 인꼬. {위칭계라는 것이 있고.}

10103 @ 응. {응.}

10103 # 위칭계랑거슨 부모가 당얼 상얼 당헐때, 부모상얼 당헐땐 나한테 위친 @ 응. # 위언 위치닌 인고. {위칭계라는 것은 부모가 당할 상을 당했을 때, 부모상을 당했던 나에게 위친 @ 응. # 위한 위친이 있고.}

10103 # 회갑 지그믐 인자 이 갑계랑거시 인는디, 그때는 갑계랑거시 읍꼬. [회갑 지금은 이제 이 갑계란 것이 있는데, 그때는 갑계란 것이 없고.}

10103 @ 응. {응.}

10103 # 회갑계랑거시 인썸썸. {회갑계란 것이 있었어.}

10103 @ 으. {응.}

10103 # 동:네 인자 어 이르믈 명칭얼 부체세 인자 동:네 총 동:네게가 인썸꼬 이? {동네 이제 어 이름을 명칭을 붙여서 이제 동네 총 동네게가 있었고 이?}

10103 @ 응. {응.}

10103 # 그때 인자 아여 송경 화산계랑땐지 @ 예. # 이런 동, 인자 단체든 게가 인썸꼬. {그때 이제 아 여 송경 화산계라든지 @예. # 이런 동, 이제 단체든

계가 있었고.}

10103 @ 예. {예.}

10103 # 인자 그 회갑계, 도와주는 거시 회갑, @ 응. # 자기 인자 퇴릴 만나거든, 쉬게 마러자면 요세 우리가 인자 그 어 갑계랑 아 마창가지로 그때년 갑계랑 거시 아니고 인자 회갑계라든지 ... {이제 그 회갑계, 도와주는 것이 회갑, @ 응. # 자기 이제 회갑을 만나거든, 쉽게 말하자면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어 갑계란 아 마창가지로 그때는 갑계란 것이 아니고 이제 회갑계라든지 ...}

10103 @ 예:. {예.}

10103 # 위친계라든지 ... {위친계라든지 ...}

10103 @ 예. {예.}

10103 @ 그때 회갑계를 할 때는 부모니물 회가불 위항건가요, 아니면 보니네 회가불 위항건가요? {그때 회갑계를 할 때는 보모님을 회갑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회갑을 위한 것인가요?}

10103 # 부모 회갑. {부모 회갑.}

10103 # 부모 회가이라서. {부모 회갑이라고 해서.}

10103 # 부무계털. {부모 계를.}

10103 @ 그 회갑계 말고, 혹시 그 상당헐 때 가치 도와주능건또 회갑계에서 다 가치 하 하시능가요? {그 회갑계 말고, 혹시 그 상당했을 때 같이 도와주는 것도 회갑계에서 다 같이 하시는 가요?}

10103 # 회갑계도 인찌만 그 위칭계가 또 인찌. {회갑계도 있지만 그 위친계가 또 있지.}

10103 @ 위칭계:: # 위칭계가 또 ... {위친계 # 위친계라 또 ...}

10103 @ 아 그건 인제 도라가설쓸때 # 위친계라고 @ 상을 가치, 그럼 여기서도 ... {아 그건 이제 돌아가셨을 때 # 위친계라고 @ 상을 같이, 그럼 여기서도 ...}

10103 # 회갑계는 @ 응. # 부모가 회가비 되안쓸때, 예순한살 회가비 단설때 인자 그 베푸능 거시고. {회갑계는 @ 응. # 부모가 회갑이 되었을 때, 예순한살 회갑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베푸는 것이고.}

10103 # 위칭계라고 허며는 상 당할 상얼 당헐쓸때 인자 그 도와주는 거시 위칭계. {위친계라고 하며는 상 당할 상을 당했을 때 이제 그 도와주는 것이 위친계.}

10103 @ 그레 그때 게 회갑계나 위칭계를 할 때 이러케 도늘 좀 정기저그로 모으셧능가요? {그레 그때 게 회갑계나 위친계를 할 때 이렇게 돈을 좀 정기적으로 모으셨는가요?}

10103 @ 돈가통걸 모안능가요, 아니면 이를 당헐쓸때 그냥 도와주는 걸로 끝나능가요? {돈 같은 것을 모았는가요, 아니면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10103 # 아 정년 계:호거고 인제. {아 정년 계획하고 있지.}

10103 @ 아:. {아.}

10103 # 처:메 무들때 이린당 그때 도느로 허능거시 아니라 벼, 어 벼로써 @ 아.
멤말씩 한다든지 @ 응. # 수그멀 히가지고 그 계 보증그물 만든다 그마리
여. {처음에 물을 때 일인당 그때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벼, 어 벼로써 @.
아 # 몇 말씩 한다든지 @ 응. # 수금을 해가지고 그 계 보증금을 만든다 그
말이야.}

10103 @ 응. {응.}

10103 # 만드러가지고, 먼 상얼 당헬쓸대 인자 그 수:럴 함마리라든지 수:리라든
지, 그때는 야커니까 @ 그때 # 그때년 지그 지그먼 인자 도:널 인자 개:이니
인자 부주라고 허지마넌 @ 예. # 그때년 도:노로 현 부주랑거시 읍써, 엔:나
렌. {만들어가지고, 뭇 상을 당헬쓸 때 이제 그 술을 한 말이라든지 술이라든
지, 그때는 약하니까, @ 그때 # 그때는 지금 지금은 이제 돈을 이제 개인이
이제 부조라고 하지만 @ 예. # 그때는 돈으로 한 부조라는 것이 없어, 옛날
에는.}

10103 @ 응. {응.}

10103 # 중가네 인자 도:노로 허는디, 그때년 인자 그 쉽게 마러자면 술: 천채 술.
{중간에 인자 돈으로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쉽게 말하지만 술 첫째 술.}

10103 @ 음. {음.}

10103 # 화:모랑거시 인썰썰. {화목이란 것이 있었어.}

10103 @ 화모기 머예요? {화목이 뭐예요?}

10103 # 하:목계가 또 인썰, 하목계. {화목계가 또 있어, 화목계.}

10103 @ 응. {응.}

10103 # 하목계랑거선 무시냐며는. {화목계란 것은 무엇이나 하면.}

10103 # 겨'으레 상얼 당헬쓸때 나:무럴 마리어 @ 애. # 장자걸, 한짐씩 히가지고
가. {겨울에 상을 당헬쓸 때 나무를 말이야 @ 예. # 장작을, 한 짐씩 해가지
고 가.}

10103 # 그럼 저녁:내 지금 야 어 야::가널 허그든, 인자 인자 바메 인자 사밀 출
썰이다든지, 사일 출썰이 되며넌, 다 와가지고서 인제 어디 그때년 지그먼 그
리도 여기여기 방이 여러시여, 드러갈 디가 인썰마넌, 손니미 어디 드러갈 디
가 읍써. {그럼 저녁 내내 지금 야 어 야간을 하거든, 이제 이제 밤에 이제
삼일 출상이라든지, 사일 출상이 되면, 다 와가지고서 이제 어디 그때는 지금
은 그래도 여기 여기 방이 여럿이야, 들어갈 데가 있지마는, 손님이 어디 들
어갈 데가 없어.}

10103 @ 애. {예.}

10103 # 정, 그렇게 인따 헬 썩젠 그란치만 인자 동네 싸람덜 와가지고 바게서 부
럴 노코 @ 응: # 바:덜 세운다 그 처랴럴 한다 그마리여. {정, 그러니까 있다

할 적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밖에서 불을 놓고 @
 응. # 밤을 새운다 그 철야를 한다 그 말이야.}

10103 # 글때는 춘:디 어트게 허게 부릴 놈알꼴 아니여, 그서 화:목계랑거시 인씨,
 화:목계. {그럴 때는 추운데 어떻게 하게 불을 놓아야 할 것 아니야, 그래서
 화목계란 것이 있어, 화목계.}

10103 # 불화짜 나무목짜. {불화자 나무목자.}

10103 @ 응. {응.}

10103 # 나:무럴 히다가 가지고가 다. {나무를 해다가 가지고가 다.}

10103 # 가지고 가서 부릴 노코, 저녁내 거시서 인자 처랴럴 히여. {가지고 가서
 불을 놓고, 저녁 내내 거기서 이제 철야를 해.}

10103 # 어, 술도 먹고, 인자 천채 에:: 상 당허며년 술 한동오라든지, 그때년 인자
 아직 효주가 아니고 인자 막걸리니까, 주장에서 막걸리 가따 막걸리 한동오럴
 낸다든지 디에 보낸다든지, 이 나:무지허고 그리고 또 머 머시냐. {어, 술도
 먹고, 이제 첫째 에 상을 당하면 술 한 동이라든지, 그때는 이제 아직 소주가
 아니고 이제 막걸리니까, 주조장에서 막걸리 갖다 막걸리 한 동이를 낸다든지
 들여보낸다든지, 이 나뭇짐하고 그리고 또 뭐 무엇이냐.}

10103 # 조:기, 지그먼 조기라 안 만사, 만사라구려제. {조기, 지금은 조기라 앓고
 만사, 만사라고 그러지}

10103 # 지금 글짜로년 이건 조기 만사가 조기그던. {지금 글자로는 이것은 조기
 만사가 조기거든.}

10103 # 그저네 생애 나갈때, 앞싸 그 달고 가는 그, 만사가 만채 써서 마리며이?
 {그전에 상여 나갈 때, 앞서 그 달고 가는 그, 만사가 많지 써서 말이야 이?}

10103 # 호천망그기라든지 머 인자 그 인자 문꾸를 느가지고 인자 쓰쓰자녀 이?
 {그 호천망극이라든지 뭐 이제 그 이제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제 쓰잖아 이?}

10103 @ 예예예. {예예예.}

10103 # 만사, 지그먼 그 조:기라구제 조:기이, 이 그말 조기*****, 만사럴. {마나,
 지금은 그 조기라고 하지 조기 이, 이 그 말 조기***** 만사를.}

10103 # 한 한장씩 낸다든지, 이런 만사럴 내고, 수:릴 한 동이씩 내고, 하:모걸 가
 저오고 화:목계가 인꼬, 또 하:목계랑게 별또로 인씨. {한 한 장씩 낸다든지,
 이런 만사를 내고, 술을 한 동이씩 내고, 화목을 가져오고 화목계가 있고, 도
 화목계랑 것이 별도로 있어.}

10103 @ 만사를 낸다는 건요 어르신, 만사를 자기가 써가지고 가능거요, 아니면
 배:만 가따가 주능거요? {만사를 낸다는 것은요 어르신, 만사를 자기가 써가
 지고 가는 것이요, 아니면 배만 갖다가 주는 것이요?}

10103 # 그건 물론, 자기가 물론 개인이 낼때년 @ 응. # 예 자기가 인자 어떤 인
 자 어:: 명이난테 가서 인자 받 바다서 인자 내고. {그건 물론, 자기가 물론
 개인이 낼 때는 @ 응. # 예, 자기가 이제 어떤 이제 어 명인한테 가서 이제

받 받아서 이제 내고.}

10103 # 어 그 그건 그건 인자 별또로 인자 그 참:: 쪼끔 고상허게 허능거시고, 한 부라게서 어:: 만사 한 장씩 낸다는 거슨 그냥 배만 떠다 주며는 그 상주, 상가에서 써다도 주:고, 써서 인자 하고. {어 그 그건 그건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참 조금 고상하게 하는 것이고, 한 부락에서 어 만사 한 장씩 낸다는 것은 그냥 배만 떠다 주며는 그 상주, 상가에서 써다 주고, 써서 이제 하고.}

10103 # 인자 여기서 바다가네 가따줘도 허고 그렇게 인자, 원치기 인자, 거따 인자 거:: 조:운 말로 마리어 이:, @ 응. # 인자 써서 존: 문꾸럴 써서 가다중거시 원치기라, 그리 써다 줘야허 그거시. {이제 여기서 받아다가 갖다 주어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칙이 이제, 거기에다 이제 그 좋은 말로 말이야 이, @ 응. # 이제 써서 좋은 문구를 써서 갖다 주는 것이 원칙이라, 그렇게 써다 주어야 해, 그것이.}

10104 @ 그 정월:: 딸 대보름 지낼때도 또 이러케 여러가지 일드를 마니 허셴쨌요? [그 정월달 대보름 지낼 때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지요?}

10104 # 근디 상 그때년 생이 나며는 동:네서 마리어, 계간씨라도 주:걸 한동씩 써죽, 팔쭈기랑 주걸 다 써와가지고 ... {그런데 상 그때는 상이 나며는 동네에서 마리아, 그 ***라도 죽을 한 동씩 써죽, 팔죽이랑 죽을 다 쭈어 와가지고 ...}

10104 # 그때년 인자 그 도:느로 부주가 아니라, 이 콩나물 시루다 한 시루씩 안쳐가지고 콩나무를 한 시루씩 가지구가고. {그때는 이제 그 돈으로 부조가 아니라, 이 콩나물시루에다 한 시루씩 안쳐가지고 콩나물을 한 시루씩 가지고 가고.}

10104 # 그러기도 허고, 인자 그 상 당할 썸그도 그러고 그때년 또 삼년상이그딩.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 상을 당할 적에도 그렇고 그때는 또 삼년상이거든.}

10104 @ 아! 그러. {아! 그래.}

10104 # 삼년상이기 때미네, 공개 처:메 상열 당헐쨌때년 언제 콩나무를 지러가지고 가덜 모딩개, 그냥 파쭈가던 천때 그때년 상당헐쨌때 팔쭈만 가지 이. {삼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상을 당했을 때는 언제 콩나물을 길러 가지고 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팔죽 같은 첫째 그때는 상을 당했을 때 팔죽만 가지 이.}

10104 @ 응. {응.}

10104 # 그때 한동우 써서는 그 푸마시라, 푸마시. {그때 한 동이 써서는 그 품앗이라, 품앗이.}

10104 @ 응. {응.}

10104 # 그거또 다:: 부주에 쓰능거여. {그것도 다 부조에 쓰는 것이야.}

10104 # 누 지비서 그날 팔쭈 한동우 드러와파, 그먼 다:메 그사라덜 또 팔쭈걸

쭈다주고. {누구 집에서 그 날 팔죽 한동이 들어왔다,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을 또 팔죽을 쭈다 주고.}

10104 # 인자 삼년상 인자, 소상때 대상때년 인자, 미리 날짜가 예정되야 이끼 때 미네 미리 콩너물 한시리씩 지러다가 한시리씩 주고, 이러케 지넌써. {이제 삼년상 인이제, 소상 때 대상 때는 이제, 미리 날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콩나물 한 시루씩 길러다가 한 시루씩 주고, 이렇게 지냈어.}

10104 # 그때년 도:니 드루지도 양코, 부주랑거시 그거시 부주여, 도:니 아니라. {그때는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 부조라는 것이 그것이 부조여, 돈이 아니라.}

10104 @ 야! 참! 그 정이 일써보이네요, 그 말씀 드리니까 응? {야! 참! 그 정이 있어보이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 응?}

10104 @ 도느로 하능거보다 훨씬더 # 아! 그러제, 도:니랑거슨 자기 @ 마으물 다 마서 허능거. {돈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 아! 그렇지, 돈이란 것은 자기 @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

10105 @ 이제 이 마으리 지금 여기가 크게 보며는 화사니고, 작게 보며는 방게고, # 방현 방현 @ 방게고, 방현 이러케 쓰시는데. {이제 이 마을이 지금 여기가 크게 보면 화산이고, 작게 보면 방게고, # 방현 방현 @ 방게고, 방현 이러케 쓰시는데.}

10105 @ 여기가 이제 다른 마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마을이 쯔 어떤 면에서 쯔 더 조타거나, 어떤 특정이 일따거나 이러케 인쓸 수 인쓸까요? {여기가 이제 다른 마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마을이 쯔 어떤 면에서 쯔 더 좋다거나, 어떤 특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10105 # 어뜨게 해서 이걸 일딴 이즐꺼슨 인는디, 척 보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일딴 잇을 것은 있는데, 척 보면.}

10105 # 시고레 인자 농초네 가며는 ... {시골에 이제 농촌에 가면 ...}

10105 @ 네. {예.}

10105 # 지그먼 그 읍짜네 엔나레 빈촌 반초니 일써요 이? {지금은 그 없잖아, 옛날에 빈촌 반촌이 있어요 이?}

10105 @ 그러치요. # 빈촌 응 빈초니야, 빈촌 반촌. {@ 그렇지요. # 빈촌 응 빈촌이야, 빈촌 반촌.}

10105 @ 응 응 응. {응응응.}

10105 # 뒤에넌 쯔 ... {뒤에는 쯔 ...}

10105 # 반초니라고며는 모든 행시리나 그 유학짜더리 쯔 마니 일꼬. {반촌이라고 하며는 모든 행실이나 그 유학자들이 조금 많이 있고.}

10105 @ 애 애. {예 예.}

10105 # 돈도 되고, 쯔 살리미 거시거고 그러케 행시리 쯔 다른디럴 반초니라구자녀? {돈도 되고, 쯔 살림이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행실이 쯔 다른 데를 반촌이라고 하잖아?}

10105 @ 애. {예.}

10105 # 반초년 양:반, @ 그러치. # 민초니랑건 줌:: 근디. {반촌은 양반, @ 그렇지. # 민촌이라는 것은 줌 그런데.}

10105 # 여기 그 그건 여기 반초니라고 볼썽가 일썽제. {여기 그 그것은 여기 반촌이라고 볼 수가 있었지.}

10105 @ 이 동네를? {이 동네를?}

10105 # 아니, 송계리란디가. {아니, 송계리란 데가.}

10105 @ 송계가? {송계가?}

10105 @ 어:: 그러면 송계에서 제일 가까운 민초년 어디를 민초니라고 하셧썽요?
{어, 그러면 송계에서 제일 가까운 민촌은 어디를 민촌이라고 하셧어요?}

10105 @ 서로 상대가 될마난 민촌? {서로 상대가 될 만한 민촌?}

10105 # 어:: 그건 ... {어, 그건 ...}

10105 # 지나간 이리라서 ... 허허허. {지나간 일이라서 ... 허허허.}

10105 # 구베레션 또 안 되고. {구별해서는 또 안 되고.}

10105 @ 응:: 어. {응, 어.}

10105 @ 그래도 아무튼 민촌:: 그 아무튼 방계가 방계가 예:: 반초니면, 아무튼 어딘가에 민초니 일썽썽꺼 아니예요? {그래도 아무튼 민촌, 그 아무튼 방계가 방계가 예 반촌이면, 아무튼 어딘가에 민촌이 있었을 것이 아니예요?}

10105 # 물론 일제. {물론 있지.}

10105 @ 응 응. {응 응.}

10105 # 지그문 인제 시대가 다 다 바궤서 머 그렇거 ...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다 다 바뀌어서 뭐 그런것 ...}

10105 # 으, 그저네 민촌 반초니 일썽썽요. {응, 그전에 민촌 반촌이 있었어요.}

10105 @ 응. {응.}

10105 # 일파능거만 아르신면 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10105 @ 허허허 그래요. [허허허 그래요.}

10105 @ 어:: 그러면 여기가 서당이 엔나레 일썽썽요? {어, 그러면 여기가 서당이 옛날에 있었어요?}

10105 # 일썽제. {있었지.}

10105 @ 응. {응.}

10105 @ 한 부니 가르친 서당인가요, 아니면 여리고세 서당이 일썽나요? {한 분이 가르친 서당인가요, 아니면 여러 곳에 서당이 있었나요?}

10105 # 예, 동락짜 함부니 하시고, {예, *** 한 분이 하시고.}

10105 @ 그때 어떤 부니신지 혹씨 기억나세요, 성하미랑 함짜? {그때 어떤 분이신지 혹씨 기억나세요, 성함이랑 함자?}

10105 # 가마니썽 함:짜릴 내가 이저버렌네. {가만히 있어 함자를 내가 잊어버렸네.}

10105 # 성:쥔디. {성씨인데.}

10105 @ 응. {응.}

10105 @ 어디 어떤 마으레서 오신 부니세요? {어디 어떤 마을에서 오신 분이세요?}

10105 # 여기 저, 여:: 해 월래 그 성쥔디, 송 해리 송산 성쥔디, 여기서 거주헐쥔.
{여기 저, 여 해 원래 그 성씨인데, 송 해리 송산 성씨인데, 여기서 거주했어.}

10105 @ 응. # 마리자면 송:아미란디 인쥔 송:암. {응. # 말하자면 송암이란 데 있어 송암.}

10105 @ 응. {응.}

10105 # 대고가 그냥반 선동양바니제, 선동 선동양바니라고. {택호가 그 양반 선동 양반이지, 선동 선동 양반이라고.}

10105 @ 응. {응.}

10105 @ 그러면 선동이 선동이 해리 근처에 인는 마으링가요? {그러면 선동이 선동이 해리 근처에 있는 마을인가요?}

10105 # 선동이 ... {선동이 ...}

10105 # 이 대고랑거선 촌명을 따서 @ 그러치. # 선동이라구며는 아마 해리넌 선동이 읍제, 고웅 고흥까 선동이 인따 그마리여. {이 택호라는 것은 촌명을 따서 @ 그렇지. # 선동이라고 하며는 아마 해리는 선동이 없지, 고흥 고흥에 가서 선동이 있다 그 말이야.}

10105 # 히서 인자 거:기서 고리 장가럴 허셴능가는 몰라도 선동양바니라고 그렐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리 장가를 하셨는가는 몰라도 선동 양반이라고 그렐어.}

10105 # 내가 그냥바난테서 서당을 다녔쓰니까. {내가 그 양반한테서 서당을 다녔으니까.}

10105 @ 응. {응.}

10105 # 선동양반. {선동 양반.}

10105 @ 그래 이부니 성:씨 성이시고, # 응, 대고가 @ 해리 해리에 어떤 성씨, 봉과니 어디라고요, 성씨가? {그래 이 분이 성씨 성이시고, # 영, 택호가 @ 해리 해리에 어떤 성씨, 본관이 어디라고요, 성씨가?}

10105 # 창:녕 성씨를 창:녕. {창녕 성씨를 창녕.}

10105 @ 이 여기도 마으레 그 형태가 마으레 그 모양이, 모스비나 이렇거시 엔나라고 지그마고 좀 마니 달라전파고 볼쥔 인능가요? {이 여기도 마을에 그 형태가 마을에 그 모양이, 모습이나 이런 것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가요?}

10105 # 마~:이 달라전제. {많이 달라졌지.}

10105 @ 사라메 수라등가, 기레 모양이라등가 # 길 모양도 달라지고 @ 응 # 그

건 완저니 머 길드리 다:: {사람의 수라든가, 길의 모양이라든가 # 길 모양도 달라지고 @ 응 # 그건 완전히 뭐 길들이 다.}

10105 @ 어. {응.}

10105 # 달라전썬. {달라졌어.}

10105 @ 대략 어떠케 달라전썬는지 한번 말씀해줄썬 인는거슨 머까지만 말쓰메 주시썬? {대략 어떻게 달라졌었는지 한번 말씀해줄 수 있는 것은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썬?}

10105 # 지금 여:기도, 이 뒤여가 기리 읍썬썬. {지금 여:기도, 이 뒤에가 길이 없었어.}

10105 @ 응 읍. {응 응.}

10105 # 썬 아래가 동네가 인끄덩 @ 응. # 동네가 갈라면 처: 우서 내레와가지고 요리서 이 아푸로 해서 요리서 내레왈따 그마리여. {저 아래가 동네가 있거든 @ 응. # 동네에 가려면 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리해서 이 앞으로 해서 이리해서 내려왔다 그 말이야.}

10105 # 지리 완저니 엔나라고는 지리 함번 ... {길이 완전히 옛날하고는 길이 한 번 ...}

10105 @ 그럼 요 압끼리 그 큰마으래서 이운마을로 가는 길모기언썬네? # 응 기리열썬. @ 여기가? {그럼 이 앞길이 그 큰 마을에서 이웃 마을로 가는 길목이었썬네? # 응 길이였어. @ 여기가?}

10105 @ 이쪽 뒤는 기리 업썬썬? {이쪽 뒤는 길이 없었고?}

10105 # 인:: 아, 인썬 아까 여기는 읍썬. {있 아, 있지, 아까 여기는 없었어.}

10105 @ 아 이썬그로는 업썬썬, 아::! {아 이썬으로는 없고요, 아!}

10105 @ 그러면 이 뒤는 그냥 사니열썬? {그러면 이 뒤는 그냥 산이었고?}

10105 # 응, 사니지. {응, 산이지.}

10105 # 응, 사니고, 요 아푸로도 다닐썬 인는 기리 인네. {응, 산이고, 이 앞으로 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네.}

10105 @ 그러면 이 기리 썬썬 팔래를 날:펴가지고 이애기허면, 저 아래똥네서는 지금 썬:: 아랜녀게서는 올라오자면 어디서 올라오능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썬썬 관내를 넓혀가지고 이야기하면, 저 아랫동네에서는 지금 저 아랫녘에서는 올라오자면 어디서 올라오는 것예요?}

10105 # 척: 아래제. {저기 아래지.}

10105 @ 길 이썬기 아랭가? # 아래를 가? @ 응. {길 이썬이 아래인가? # 아래를 가? @ 응.}

10105 # 채:리서 올라오지. {해리에서 올라오지.}

10105 @ 아! 해리서어::, 해리서 지그른 무장으로 가는 길모기네 여기가, 그러케 바야돼요? {아! 해리에서, 해리에서 지금은 무장으로 가는 길목이네 여기가, 그렇게 보아야 돼요?}

10105 # 무장으로 가는 길모기 아니라 무장으 기른 처기저 한기리 무장으 가는 길 모기'고. @ 아::. # 질모기고. {무장으로 가는 길목이 아니라 무장의 길은 저 기 저 큰길이 무장으로 가는 길목이고. @ 아. # 길목이고.}

10105 # 여기 단 동네로해서 동네만 다니던 기린다 ... {여기 단 동네로 해서 동네만 다니는 길인데 ...}

10105 @ 응, 그러면 타지 싸람드른 이 길로 다닐리이 업끄만, # 암:: 다닐리리 벨 시리 읍제. @ 응. {응, 그러면 타지 사람들은 이 길로 다닐 일이 없고만, # 암 다닐 일이 별로 없지. @ 응.}

10105 # 그러나 여기 인자 불:틸 인는, 특빠리 인자 그 지반, 여기 금방으 헌다면 올쭈가 인찌마는, 어 요리 갈 기런 벨라 드물제. {그러나 여기 이제 불일 있 는, 특별히 이제 이 지방, 여기 근방에 한다면 올 수가 있지마는, 어 이리 갈 길은 별로 드물지.}

10105 @ 응. {응.}

10105 # 찌:: 아페 기리 또 인씨니까 찌:리 다니지머. {저 앞에 길이 또 있으니까 저리 다니지 뭐.}

10105 @ 엔날부터 여기는 조용 조용:한 고시열컨네? {옛날부터 여기는 조용 조용 한 곳이었겠네?}

10105 # 암:: 조용하다고 ... {암 조용하다고 ...}

10105 @ 응, 주마기나 주막꺼리나 이렇겠또 업꼬? {응, 주막이나 주막거리나 이런 것도 없고?}

10105 # 그:러제, 응. {그렇지, 응.}

10105 # 주마기랑건 저가요 저가 인썰개, 고:리 가는 기리 인썰썰개. {주막이란 것 은 저기 저기에가 있으니까, 그리 가는 길이 있었으니까.}

1.8. 세시풍속과 놀이

1.8.1. 세시풍속

10801 @ 엔나레 그 여러가지 그 마을 사람드리 함께하는 그런 풍습뜨리 인썰찌 요? {옛날에 그 여러 가지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지 요?}

10801 @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월 보름까지 여러가지 품습뜨리 인썰찌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월 보름까지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었지요?}

10801 @ 여기도 좀 그런 굳깁통길. {여기도 좀 그런 곳 같은 것.}

10801 # 아::! 여기년 풍속 그런 풍스비 읍썰제. {아! 여기는 풍속 그런 풍습이 없 었지.}

10801 # 산:초니고, 첫째 그 노~악 기명기가 읊썸끼 때미네, 그런 풍스븐 읊꼬.
 {산촌이고, 첫째 그 농악 기명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풍습은 없고.}

10801 @ 응. {응.}

10801 @ 그 기명기랑전 머쵸 어르신? {그 기명기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어르신?}

10801 # 농:악. {농악.}

10801 @ 응. {응.}

10801 # 기명기라고 그럴제, 농:악, 풍:물. {기명기라고 그랬지, 농악, 풍물.}

10801 @ 그럼 기명기를 킨다고 허능가요, 헐다고 허능가요? 뭐라고 말씀하셔?
 {그럼 기명기를 킨다고 하는가요, 헐다고 하는가요? 뭐라고 말씀하셔?}

10801 # 킨다 그러지. {킨다고 그러지.}

10801 @ 기명기 킨다고? {기명기 킨다고?}

10801 # 그러면 이 기명기:: 소개는 징: 머 장고:: @ 아암!! 기명기. # 어떻거뜨리
 인썸요? {그러면 이 기명기 속에는 징 뭐 장구 @ 아암! 기명기. # 어떤 것들
 이 있어요?}

10801 @ 소:구, {소고.}

10801 # 응, 그리고 소구하고 ... {응, 그리고 소고하고 ...}

10801 # 그저 켜시기 켜시기 켜시기. {그저 뽕과리 뽕과리 뽕과리.}

10801 @ 응, # 마자면, @ 켜시기하고. {응, # 말하자면, @ 뽕과리하고.}

10801 # 상:쇠지 상:세. {상쇠지 상쇠.}

10801 @ 응 응 응. {응 응 응.}

10801 # 켜시기 켜시기. {뽕과리 뽕과리.}

10801 @ 응. {응.}

10801 # 그거뿐이지. {그것뿐이지.}

10801 # 소구, 켜시기, 징:가튼건 업 @ 암! 징 징 인썸야 되고. @ 징 이썸야 되
 고? {소고, 뽕과리, 징 같은 것은 없 @ 암! 징 징 있어야 되고. @ 징 있어야
 되고?}

10801 @ 그다메 또, 또 머가인썸? 또 그 켜시기, 징, 장::구가튼 ... {그 다음에
 또, 또 뭐가 있지? 또 그 뽕과리, 징, 장구 같은 ...}

10801 # 암! 장:구가 거기 드러가야제. {암! 장구가 거기 들어가야 하지.}

10801 # 장구 이썸야제. {장구 있어야지.}

10801 @ 응. {응.}

10801 # 징:, 장구, 인자 켜:시기, 장구, 징:, 소:구. {징, 장구, 이제 뽕과리, 장구,
 징, 소고.}

10801 @ 이거슬 다: 합피서 # 암! @ 기명기라고? # 기명기라그러지. {이것을 다
 합해서 # 암! @ 기명기라고? # 기명기라고 그러지.}

10801 @ 응 기명기라고, 그러면 이 기명기는 어터께 줌비를 하시능거예요? {@
 응 기명기라고, 그러면 이 기명기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10801 @ 마으레서 도늘 거더가지고 # 아: 기명기년 거더가지고 산. {마을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 아! 기명기는 걷어가지고 사는.}

10801 @ 어 그러면 그 마을 전체에서 도늘 거들라면 그걸또 모이미 인씨야 되건네? {아 그러면 그 마을 전체에서 돈을 걷으려면 그것도 모임이 있어야 되겠네?}

10801 # 그러제. {그렇지.}

10801 @ 어떤 모임이에요, 그거는? {어떤 모임이에요, 그것은?}

10801 # 예! 모이는 인자 그런 ... {예! 모이는 이제 그런 ...}

10801 # 애당초에 장마닐때년 인자 그 호:당 나뉘다던지 마리어, 호:당에서 건능거시고. {애당초에 장만할 때는 이제 그 호당 나눈**다든지 말이야, 호당에서 걷는 것이고.}

10801 @ 응. {응}

10801 # 인자 결:리비라고 인짜네 결:립, @ 아! # 결:리비라 개이니 가지고 땡김서 @ 응! # 그 지베 드리가서 마리어 @ 응! # 히사릴 받제 이, @ 응:! # 가서 놀:로 그거설 그때년 머시냐며년 쌀로 그냥 받꼬, 가지고 인자 자보늘 만들제. {이제 결립이라고 있잖아 결립, @ 아! # 결립이라고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 응! # 그 집에 들어가서 말이야 @ 응! # 회사를 받지 이, @ 응! # 가서 놀고 그것을 그때는 무엇이나 하면 쌀로 그냥 받고, 가지고 이제 자본을 만들지.}

10801 @ 아:! {아!}

10801 # 그러면 그 결리블 ... {그러면 그 결립을 ...}

10801 # 결:리비라고 허제. {결립이라고 하지.}

10801 @ 결 결리블 험다고해요 친다고 해요? {결 결립을 한다고 해요 친다고 해요?}

10801 # 결:립험다고 그릴제. {결립한다고 그랬지.}

10801 @ 결립험다고? {결립한다고?}

10801 # 응. {응.}

10801 @ 그럼 인자 결립험때는 꼭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보름까지만 허시는 거여? 백중때도 허시는 거여? {그럼 이제 결립할 때는 꼭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보름까지만 하시는 것어요? 백중 때도 하시는 것어요?}

10801 # 백:중땡 양코. {백중 때는 앓고.}

10801 @ 팔월 보름때도 아너지고? {팔월 보름 때도 안하지고?}

10801 # 정월 초하래 하능거시 아니라, 그거선 이 보름때 허지 보루메. {정월 초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보름 때 하지 보름에.}

10801 @ 아:! {아!}

10801 # 대보름 보루메. {대보름 보름에.}

10801 @ 응. {응.}

10801 # 열난:날부터 열난:날 @ 응. # 시작 해가지고 약 한 마::니 험뎸디년 어:
대보름때 허고. {열 나흔날부터 열 나흔날 @ 응. # 시작해가지고 약 한 많이
험뎸 데는 어 대보름 때 하고.}

10801 @ 애. {예.}

10801 # 이월 한시기라고 이제 알지? {이월 한식이라고 이제 알지?}

10801 @ 애. {예.}

10801 # 이월 한식? {이월 한식?}

10801 @ 응. {응.}

10801 # 이월 초하루 날고, 한시기라고, 이월 파룬나리라고어던, 그때까지 예 그런
노리를 허는 디가 인썸. 근대 대략 ... {이월 초하룻날을, 한식이라고, 이월 하
룻날이라고 하거든, 그때까지 예 그런 놀이를 하는 데가 있어, 근대 대략 ...}

10801 @ 대보름부터 ... {대보름부터 ...}

10801 # 암. {암.}

10801 @ 이월 이월 # 초하루 @ 초하루날까지이? {이월 이월 # 초하루 @ 초하
룻날까지?}

10801 # 초하루날. {초하룻날.}

10801 @ 보름까진 보름정도를 # 아! 그러제. @ 하이고 걸:립 한번 허면 진짜 핑
장허젠네. {보름까지는 보름정도를 # 하! 그렇지. @ 아이고 걸립 한번 하면
진짜 핑장하쥬네.}

10801 # 걸:리비랑거선 장판 인자 허고, 노년 때지 머, 느근 하제. {걸립이라는 것
은 잠깐 이제 하고, 노는 때지 뭐, 느긋하지.}

10801 @ 응, 그 그러케 오랜똥안 하며는 집뽕마다 차자댕기면서 ... 응. {응, 그
그러케 오랫동안 하며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 응.}

10801 @ 그런 거슬 업썸진 때가 언제여, 안허신 때가? {그런 것을 업어진 때가
언제에요, 안 하신 때가?}

10801 # 어 여기년 안험썸니까, 그먼 타 타부라게서 인자 그케 허는디. {어 여기
는 안험썸니까, 그 먼 타 타 부락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1.8.2. 전통 놀이

10802 # 그러고 또 주릴 댕기제 줄. {그리고 또 줄을 당기지 줄.}

10802 @ 아 아. {아 아.}

10802 @ 그건 이르미 그냥 줄댕 줄 뭐라고 불런썸? {그것은 이름이 그냥 줄당 줄
뭐라고 불렸어?}

10802 # 줄감끼라구러제. {줄감기라고 그러지.}

10802 # 그럼 인자 당:사니 인썸 당:사니, @ 예:. # 구설 치넸디년 기명기 인꼬
굳치넸 디년 당:사니 인썸 당:산. {그럼 이제 당산이 있어 당산, @ 예. # 굿

을 치는 데는 기명기 있고 굿 치는 데는 당산이 있어 당산.

10802 # 거그따 당:산제를 지내. {거기에다 당산제를 지내.}

10802 @ 응. {응.}

10802 # 열난날. {열 나흔날.}

10802 # 주털 디레가지고 @ 응. # 연날 저녀게 인자 줄치고 인자 주털 가머서
 당:사네다가 가머서 제:를 지내 제사를 지내. {줄을 드려 가지고 @ 응. # 옛
 날 저녁에 이제 줄 치고 이제 줄을 감아서 당산에다가 감아서 제를 지내, 제
 사를 지내.}

10802 @ 그렇걸 기억하시능걸 보면 여기도 줄감끼를 헐파는 뜨시네요? {그런 것
 을 기억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도 줄감기를 했다는 뜻이네요?}

10802 # 여기넌 아넌제. {여기는 안했지.}

10802 @ 다른 동네에서? {다른 동네에서?}

10802 # 저 아페서, 이썸내뜰 허니까. {저 앞에서, 이썸내뜰*** 하니까.}

10802 # 지금 풍스비 다 그러니까. {지금 풍습이 다 그러니까.}

10802 # 그때나 이제나. {그때나 이제나.}

10802 @ 응. {응.}

10802 @ 그 여기는 왜 여기는 왜 아너싱거요? {그 여기는 왜 여기는 왜 안하신
 것이요?}

10802 # 사산도 아나설써? {사산도 안하셨어?}

10802 # 사산써 엔:나레넌 헐판 말 드런는디, 이 머 구지 읍썰썰요. {사산에서 옛
 날에는 했다는 말 들었는데, 이 뭐 굳이 없었어요?}

10802 @ 아. {아.}

10802 @ 여기가 좀 점자너신 분드렁갑따. 하하하. {여기가 좀 점잖으신 분들인가
 보다. 하하하.}

10802 # 재미는 업썰썰네 ... {재미는 없었겠네 ...}

10802 @ 재미넌 업제. {재미는 없지.}

10802 # 아! 술찌기 이 부라젠 그러 그러케 재미가 업썰제. {아! 솔직히 이 부락에
 는 그런 그렇게 재미가 없었지.}

10802 # 그리고 기명기 인는, 이 마으리랑거션 다나비 잘되야. {그리고 기명기 있
 는, 이 마을이란 것은 단합이 잘 되여.}

10802 @ 그:러니까. {그러니까.}

10802 # 근디 예기넌 판**쥬부터 기명기가 읍기 때미 다나비 될쥬 인께 아닝거 거
 터. {그런데 여기는 **** 기명기가 읍기 때문에 단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10802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10802 @ 응, 그러면 그 주로 그냥 공부하고 농사짓꼬 여기 조용히 생활하썰면 부
 니지요? {응, 그러면 그 주로 그냥 공부하고 농사짓고 여기 조용히 생활하썰

던 분이지요?}

10802 # 그리고 여기에넌 인자 어:: 보:름 열난나레넌 인자 @ 응. # 자정에다 마
리여 머시 인냐며넌 @ 응. # 그거뽀거 무시라고까 ...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어 보름 열 나흘날에는 이제 @ 응. # 자정이다 말이야 무엇이 있느냐면. @
응. #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할까 ...}

10802 # 액땀한다고 부를 낱씨, 불. {액땀한다고 불을 놓았어, 불.}

10802 @ 응. {응.}

10802 # 우리드런 마리여 이, 애:덜 열난날까네서 자기 나이대로 @ 응. # 열싸런
열꾼데 부릴 논는단 이런 서리여. {우리들은 말이야 이, 애들 열 나흘날에서
자기 나이대로 @ 응. # 열살은 열꾼데 불을 놓는다는 이런 소리야.}

10802 @ 응. {응.}

10802 # 자기가 아:홉살 머거썩개 아홉뽀간디 부릴 노코. {자기가 아홉살 먹었으
니까 아홉 가운데 불을 놓고.}

10802 # 근디 그냥 불노로 가며넌 그냥 마구 다논제 인자, 월래 근다능거시여.
{그런데 그냥 불 놓으러 가며는 마구 다 놓지 이제, 원래는 그런다는 것이
야.}

10802 @ 응. {응.}

10802 # 그리고 또 불:싸우미 인씨. {그리고 또 불싸움이 있어.}

10802 @ 응. {응.}

10802 # 저쪽 동네허고 이쪽 동네허고 마리여.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말
이야.}

10802 @ 응. {응.}

10802 # 가서 부릴 따와. {가서 불을 따와.}

10802 @ 응. {응.}

10802 # 불 따오넌 그런 으:: 인자 격:투가 인썩꼬, 또 썸도허고 공장헤끄만 머.
{불 따오는 그런 으 격투가 있었고, 또 싸움도 하고 굉장했그만 뒬.}

10802 # 치고 박꼬 인자 불 따로 가고. {치고 박고 이제 불 따로 가고.}

10802 @ 허허허. {허허허.}

10802 # 그리고 가정에서넌, 보름날 아치메 @ 애. # 새보게 @ 애. {그리고 가정
에서는, 보름날 아침에 @ 예. # 새벽에 @ 예.}

10802 # 인자 열난나레 다 준비해놔따가, 그 벤 대럴 마::니 준비해다가 대나무릴
마러자면 마른데 아니라 대바티서 대럴 비어다가 이만치 싸노코, {이제 열 나
흘날에 다 준비해놓았다가, 그 벤 대나무를 많이 준비해다가 대나무를 말하자
면 마른 대가 아니라 대밭에서 대를 베다가 이만큼 싸놓고,}

10802 @ 응. {응.}

10802 # 싸노코 모:든 자 그 여러가지 나무릴 인자 곡썩 나옉걸 마리여 이, 그때
넌 인자 마러자면 머시냐 ... {싸놓고 모든 자 그 여러 가지 나무를 이제 곡썩

나오는 것을 말아야 이,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무엇이냐 ...}

10802 # 그 ... {그 ...}

10802 # 꼬:치때 가통거, 모::든 곡씩 @ 응. # 나온 그 싱노품대' @ 응. # 먹고 나문 대 @ 응. # 그거슬 모아노코 새보게 다굴무려베 인시 @ 응. # 지명 인시 아네 그때 부릴 놈. {고춧대 같은 것, 모든 곡식 @ 응. # 나온 그 식료품대 @ 응. # 먹고 남은 대 @ 응. # 그것을 모아놓고 새벽에 닭 울 무렵에 인시 @ 응. # 지명 인시 안네 그때 불을 놓아.}

10802 # 그러면 각 지베서 불롱개 그 대나무 트는 소리에 툅::탁 툅탁 그리 앵내레가지 이. {그러면 각 집에서 불을 놓으니까 그 대나무 터지는 소리에 툅탁 툅탁 그래 액이 내려가지 이.}

아마 요란:헤꼐제, 집집마다 그 대를 준비해다 놓고 불을 지르니까. {아마 요란했었지, 집집마다 그 대를 준비해다 놓고 불을 지르니까.}

10802 @ 아! 그거 새벼게 인시에 낚쥬요? {아! 그것 새벽에 인시에 놓았어요?}

10802 # 암, 그레 새보게 이러날썰능개. {암, 그레 새벽에 일어났었으니까.}

10802 @ 인시며는 지그므로 치면 한 네:시 # 다섯썤 아! 그렌제, 새보게 인난썰개 @ 네시 다섯썤에? {인시면 지금으로 치면 한 네시 # 다섯시 아! 그랬지,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 네시 다섯시에?}

10802 # 그러제. {그렇지.}

10802 @ 바메 바메 허능 그:: 달뜰때 허능거시, 초저너게 허능거시 아니고? {밤에 밤에 하는 그 달 뜰 때 하는 것이, 초저녁에 하는 것이 아니고?}

10802 # 아 거기넌, 그거선 또 인자 큰 동네넌 ... {아 거기는, 그것은 또 이제 큰 동네는 ...}

10802 @ 응. {응.}

10802 # 부락뻔로 날 그건 여기서넌 그리 아넌쓰니까. {부락별로 날 그것은 여기서는 그렇게 안했으니까.}

10802 @ 응. {응.}

10802 # 큰동넌 지금도 그럴꺼여, 지금도 허는디 인썰꺼시여. {큰 동네는 지금도 그럴 것이야, 지금도 하는 데 있을 것이야.}

10802 @ 응. {응.}

10802 # 큰:: 집뿌럴 큰:: 아조 그냥 집까통걸 큰:: 동네넌 해다가 큰 저 논는디가 아조 별또로 지정되야 인썰. {큰 짚 불을 큰 아주 그냥 집 같은 것을 큰 동네는 해다가 그 저 놓는 데가 아주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10802 # 거따가 싸노코, 그 몽구라*** 부릴 놈, 부릴 노코넌 거기서 인자 기멩기 마러자면 예 기멩기럴 치고, 농악 농악 농아걸 치고, 저녕내 보내넌 그런 마으리 인썰. {거기에다가 썰아 놓고, 그 몽구라 불을 놓아, 불을 놓고는 거기에서 이제 기멩기 말하자면 예 기멩기를 치고, 농악 농악 농악을 치고, 저녁 내 보내는 그런 마을이 있어.}

10802 # 지금도 아마 그런 마으리 인쫘꺼시여, 지금 대함민구게서 그런데가 이쫘
 거시여 지금. {지금도 아마 그런 마을이 있을 것이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런 데가 있을 것이야 지금.}

10802 @ 그렇거슬 뭐라고 하셴썬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셴어요?}

10802 # 불로리제 불로리. {불놀이 지 불놀이.}

10802 @ 불로릴 뭐라고 하셴썬 엔나레? {불놀이를 뭐라고 하셴어, 옛날에?}

10802 # 엔나레 내가 무어시 무슨 불로리라우드라? {옛날에 내가 무엇이 무슨 불
 놀이라고 하더라?}

10802 @ 망위리다등가 머 이렇걸 그런말을 썬썬요, 그런 말을 안쓰셴썬? {망월이
 라든가 뭐 이런 것을 그런 말을 썬어요, 그런 말을 안 쓰셴어?}

10802 # 으, 망:위리랑거션 인자 달 보능거시 망위리라 그마리여. {응, 망월이란
 것은 이제 달 보는 것이 망월이라 그 말이야.}

10802 @ 애, 그때 이러케 불 가치 노코 막 ... {예, 그때 이렇게 불 같이 놓고 막
 ...}

암! 그렇개 나:넌 인자 달뜨능걸 보고 인자 망위리라고 힌는디 ... {암! 그러니까 나
 는 이제 달 뜨는 것을 보고 이제 망월이라고 했는데 ...}

10802 @ 응. {응.}

10802 # 그겁뵈고 달:찌비라고 힌쫘꺼시여, 달:쫘, 여기 하고 인는 *** 달 ... {그
 것보고 달집이라고 했을 것이야, 달집, 여기 하고 있는 *** 달 ...}

10802 @ 응. {응.}

10802 # 여기서넌 그걸 벨시르게 안해서 여기넌 안네끼 때무네 덜 ... {여기서는
 그것을 별스럽게 안 해서 여기는 안했기 때문에 덜 ...}

10802 @ 그러면 이 글래에서 달찌불 헐편데는 어디까지 나가야 달찌불 볼쫘인썬
 썬? {그러면 이 근래에서 달집을 했던 데는 어디까지 나가야 달집을 볼 수
 있었어?}

10802 # 여기서넌 아닐썰, 여기넌 그런디가 업썬썰. {여기서는 안했지, 여기는 그
 런 데가 없었지.}

10802 @ 아, 그러면 저쪽 고창까지 가서야 그렇걸 볼 쫘 인썬썬요? {아, 그러면
 저쪽 고창까지 가서야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10802 # 응, @ 여기는 그냥 # 고모부가 인썬는디 그 큰 내까서 그렇걸 내가 받썬
 꼬. {응, @ 여기는 그냥 # 고모부가 있었는디 그 큰 냇가에서 그런 것을 내
 가 봤었고.}

10802 @ 고부? {고부}

10802 # 으, 고:부가튼데도 인썬꼬. {응, 고부같은 데도 있었고.}

10802 @ 예. {예.}

10802 @ 그러면 열난 열란날 새보게 그 인시에 이러케 하는 거, 그건 뭐:라고 부
 르썬썬요? 뭐헌다고 하셴썬? 이르미 뭐여 그거슨? {그러면 열 나흔날 새벽에

그 인시에 이렇게 하는 것, 그건 뭐라고 부르셨어요? 뭐 한다고 하셨어? 이름이 뭐여 그것은?}

10802 # 불자부로 대~인다고. {불잡으러 다닌다고.}

10802 @ 그냥. {그냥.}

10802 # 헐뿌리라구 헐똥가 헐썬는데. {헐불이라고 헐든가 헐었는데.}

10802 # 불른다 힌는다. {불 놓는다 했는데.}

10802 @ 아무튼 주를 주를 댄 주를 드러가지고 줄당기기 하능거슨 줄감끼 이러케 이르미 인짜나요? {아무튼 줄을 줄을 댄 줄을 드러 가지고 줄당기기 하는 것은 줄감끼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10802 @ 줄감끼. {줄감끼.}

10802@ 줄감끼 이르미 일꼬. {줄감끼 이름이 있고.}

10802 @ 달보능 거슨 망워리 이러케 이르미 인는데, # 불 논는 겐또 @ 이 이건 새며게 논 논능 거슨 이르미 머여? {달 보는 것은 망월이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 불 놓는 것도 @ 이 이것은 새벽에 놓는 놓는 것은 이름이 뭐야?}

10802 # 그거또 이쓸꺼시라 그마리여. {그것도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여.}

10802 @ 허허허. {허허허.}

10802 # 그때 하:도 어려서, 한 일쥔신타 헝거시라, 하도 어려서 헝거시라 그건 다 그렇건 업써져버린는다. {그때 하도 어려서, 한 일정시대 때 한 것이라, 하도 어려서 한 것이라 그건 다 그런 것은 없어져버렸는데.}

10802 @ 응, 그래요. {응, 그래요.}

10802 @ 아무튼, 그 다른 그 걸립치고 이렇거시 쪼끔 재미가 인썬썰랑가 몰라도, 다른 동네에 비하면 좀 심심한 ... {아무튼, 그 다른 그 걸립 치고 이런 것이 조금 재미가 있었을런지 몰라도, 다른 동네에 비하면 좀 심심한 ...}

10802 # 아:: 심심헐썬. {아, 심심했어.}

10802 @ 허허허. {허허허.}

10802 # 아:조 심심헐썬. {아주 심심했지.}

10802 @ 허허허. {허허허.}

10802 # 그리고 ... {그리고 ...}

10802 @ 응. {응}

10802 # 인자 인자 어릴쓸때 이거면 발써 어:릴쓸때 헐 이 애긴디. {이제 이제 어렸을 때 이것이면 발써 어렸을 때 한 이야기인데.}

10802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802 # 우리 인자 초등학교 되기 저네, @ 응. # 그때년 정월 설 보단도 보름썬미 더 켄썬제, 더 재미지고. {우리 이제 초등학교 되기 전에, @ 응. # 그때는 정월 설보다도 보름 썬미 더 켄썬지, 더 재미지고.}

10802 @ 아:: {아.}

10802 # 인자 정위레는 인자 그 연:노리럴 헐꼬, 연: 띠우고, @ 응. # 연 띠우머

는 인자 연 뛰다가 ... {이제 정월에는 이제 그 연 놀이를 했고, 연 띄우고,
 @ 응. # 연 띄우면 이제 연 띄우다가 ...}

10802 # 저네 연뛰다가 인자 여:닐 보로메는 인자 날려보내고 사라버리고 그리는
 다. {전에 연 띄우다가 이제 연을 보름에는 이제 날려 보내고, 살라버리고 그
 랐는데.}

10802 # 열난날 새벽게년 인나서 더위 판당소리, 드러젠나 모르건네. {열 나흔날
 새벽에는 일어나서 더위 판다는 소리, 들으셨나 모르겠네.}

10802 @ 응? {응?}

10802 # 더위 판당소리덜. {더위 판다는 소리를.}

10802 @ 드러보기는 헐는디 어트케 하능거예요? {들어 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
 는 것이지요?}

10802 # 새:보게 @ 응. # 열난날 인잡 보름날 새벽게 이? {새벽에 @ 응. # 열
 나흔날 이제 보름날 새벽이지 이?}

10802 @ 응. {응.}

10802 # 새벽게 해뜨기 저네 헐다능거시여.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한다는 것이
 야.}

10802 @ 응. {응.}

10802 # 누구 이르물 불러 @ 응. # 아무개야! 대다머면 내더위! 더위덜 팔고. {누
 구 이름을 불러 @ 응. # 아무개야! 대답하면 내더위! 더위를 팔고.}

10802 @ 응. {응.}

10802 # 그웁썰꼬, 나도 그웁쓰니까. {그랬었고, 나도 그랬으니까.}

10802 # 그리고, 새벽게 이러나서 그때년 오곡빠벌 히주넌 때 아녀, @ 애. # 보름
 나리랑거슨?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는 오곡밥을 해주는 때 아니야,
 @ 예. # 보름날이란 것은?}

10802 @ 애. {예.}

10802 # 열난날 저녁게 이제 오곡빠벌 해서 보로 보로덜 새우능거시여. {열 나흔
 날 저녁에 이제 오곡밥을 해서 보름 보름을 새우는 것이야.}

10802 @ 응. {응.}

10802 # 쉬게 마레 열난날 저녁게, 보름빠벌 인자 보름빠비라구면 오곡빠벌 해
 서, 대략 오곡빠비라면 대략 꼭 오곡빠벌 히야 하능거신디. {쉽게 말해 열 나
 혼날 저녁이지, 보름밥을 이제 보름밥이라고 하면 오곡밥을 해서, 대략 오곡
 밥이라면 대략 꼭 오곡밥을 해야 하는 것인데.}

10802 # 재산니 시워레서넌 인자 쭈시밥 ... {재산이 시골에서는 이제 수수밥 ...}

10802 @ 응. {응.}

10802 # 수수 수. {수수.}

10802 @ 응. {응.}

10802 # 응, 수수바벌 해가지고 인자 어 멍넌디. {응, 수수밥을 해가지고 이제 어

먹는데.}

10802 # 그때넌 또, 우리가 큰사람 그란넌디, 어렸을때 인자 그 바버는 조래 인짜 나 조래 @ 애 애. # 매달리고, 그걸 가지고 동네 바버드로 땡겐썬. {그때는 또, 우리가 큰 사람 그렇지 않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 밥하는 조리 있잖아 조리 @ 예 예. # 매달아 놓고, 그것을 가지고 동네 밥 얻으러 다녔어.}

10802 @ 응 응. {응 응.}

10802 # 바벌 이 지비 가서 어더다가 @ 응. # 어더다 인자 나도 그리라게서 그른 널 인썬끄만. {밥을 이 집에 가서 얻어다가 @ 응. # 얻어다 이제 나도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일 있었구만.}

10802 # 어더다가 인자 개:인짜녀, 저기 그때넌 노아미기넌 개:가 인썬, 개이고 개:치 어 인자 방아 찌끄러기 그때넌 저 절구통 그건 도:구통이라고 그릴썬, 도:구통. {얻어다가 이제 개 있잖아, 저기 그때는 놓아먹이는 개가 있어, 개하고 같이 어 이제 방아 찢는 그릇이 그때는 저 절구통 그것은 도구통이라고 그랬어, 도구통.}

10802 @ 응. {응.}

10802 # 도구통에다 인자 찢는디 방아 인자 고놈 깔고 양저서 가치 머거 개허고. {절구통에다 이제 찢는 데 방아 이제 그놈 깔고 앉아서 같이 먹어 개하고.}

10802 @ 허허허. {허허허.}

10802 # 그러며넌 맘:병통치 인자 무병장수 현다젠는디, 그렇게 죽 해며넌, 그래 꼭 그때넌 인자 보름빠벌 어더다가 새보게 그렇게 먹얼썬 @ 응. # 먹고. {그러면 만병통치 이제 무병장수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쪽 하면, 그래 꼭 그때는 이제 보름밥을 얻어다가 새벽에 그렇게 먹었지 @ 응. # 먹고.}

10802 # 또 가정에서넌 ... {또 가정에서는 ...}

10802 # 각각 짐승인는 지번 소 인넌 지번 인자 그 여러가지로 마리어 이, 밥또 노코 각각 너물. {각각 짐승 있는 집은 소 있는 집은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말 이야 이, 밥도 놓고 각각 나물.}

10802 @ 응. {응.}

10802 # 인자 오곡빠벌 해서 노코, 해서 가따 주며넌, 인자 소가 무슨 먼지 명넌 거시 인자 그해넌 풍녀니다 잘되넌 거시라 그마리어. {이제 오곡밥을 해서 놓고, 해서 가져다 주며는, 이제 소가 무슨 먼지 먹는 것이 이제 그 해는 풍년 이다, 잘되는 것이라 그 말이야.}

10802 @ 응::. {응.}

10802 # 쌀:바벌 머먼 나라기 잘되고. {쌀밥을 먹으면 나락이 잘되고.}

10802 @ 응. {응.}

10802 # 보리바벌 머그먼 또넌 인자 그런 그런 풍서리 인썬. {보리밥을 먹으면 또 는 이제 그런 그런 풍설이 있어.}

10802 @ 응. {응.}

10802 # 그리고 또 그 모등걸 너코 마리어, 바벌 모두 양재기 그레가지고넌 저는
 인자 지바페 인자 헐청가튼디 우구다가 또 바구 바구니 바구리에다가 지금
 여기 현 소리 바구리에다가 인 바구리 바구리에다 너서 노:머닌 인자 까막까
 치드리 와서 먹꼬, 이런 풍스비 인씨.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넣고 말이야,
 밥을 모두 양재기 그레가지고는 저는 이제 집 앞에 이제 헛간 같은 데 위에
 가가 또 바구 바구니 바구니에다가 지금 여기서 하는 소리 바구니에다가 이
 바구니 바구니에다 넣어서 놓으면 이제 까막까치들이 와서 먹고, 이런 풍습이
 있어.}

10802 # 보름빠벌 해서넌 그 새들 까막까치들 먹게끔 다 올레놔, 올레놔노면 와서
 머거. {보름밥을 해서는 그 새들 까막까치들 먹게끔 다 올려놓아, 올려놓으면
 와서 먹어.}

10802 @ 사람만 멍능게 아니고?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고?}

10802 # 어, 짐승덜 주고, @ 응. # 소나 그럼 소 주고. {어, 짐승들 주고, @ 응.
 # 소나 그럼 소 주고.}

10802 # 새덜 까막까치 머그라고 다 거시거고. {새들 까막까치 먹으라고 다 거시
 기하고.}

10802 @ 그 참 정이 인씨요, 그러케. {그 참 정이 있어요, 그렇게.}

10802 @ 근데 개랑 가치 멍는 이유는 왜그러?:? 허허허. {그런데 개랑 같이 먹는
 이유는 왜 그래요? 허허허.}

10802 @ 그러면 개 개 이러케 머글 때 한조게서 이러케 떠서 멍능거예요? {그러
 면 개 개 이렇게 먹을 때 한 쪽에서 이렇게 떠서 먹는 것이예요?}

10802 # 아니 개덜 주지 이. {아니 개들 주지 이.}

10802 @ 아 이러케 주고, # 주고. 어::. {아 이렇게 주고, # 주고. @ 어.}

10802 # 주고 머견째이. {주고 먹었지 이.}

10802 @ 참. {참.}

1.2. 일생 의례

1.2.1. 제보자의 성장 과정

10201 @ 그때::가 지금 초등학교 드러가야 하기 전:: 애기시쥬? {그때가 지금 초
 등학교 들어가야 하기 전 이야기시지요?}

10201 # 그러치 그러치. {그렇지 그렇지.}

10201 @ 참. {참.}

10201 @ 그때:: 그때가 이제 지금 어르신 가트머는 그때는 저쪽 # 아 화사네 사
 쉐ئل, 응개쨌? {그때, 그때가 이제 지금 어르신 같으면, 그때는 저쪽 # 아 화
 산에 사셨을, 응갯재?}

10201 # 여기여 바로 여기 ... {여기야 바로 여기 ...}

10201 @ 응개째에 사라쓸때? {응갯재 사셨을 때?}

10201 # 이 이 지베 사람 ... {이 이 집에 살았 ...}

10201 @ 아 엽 바로 여폐요? {아 옆 바로 옆에요?}

10201 # 바로 여폐쩍. {바로 옆에 집.}

10201 @ 응. {응.}

10201 @ 그때:: 인제,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를 인자 바로 드러가싱거요?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를 이제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10201 # 응. {응.}

10201 @ 초등학교를 ... {초등학교를 ...}

10201 @ 어, 초등학교 다니실때는 여기서 거러서 # 거러서 @ 어 어디까지 가싱
거여?{ {어, 초등학교 다니실 때는 걸:어서, # 걸어서 @ 어 어디까지 가싱
거여?}

10201 # 무장초등학교가 인제 ... {무장초등학교가 있지 ...}

10201 @ 무장초등학교까지 십니를? {무장초등학교까지 십리를?}

10201 # 어, 십니를 거러 다녔찌. {어, 십리를 걸어 다녔지.}

10201 @ 아치메 뎨씨에 이러나싱거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10201 # 아 그때년 요새 등교씨간 그니가니 그뎨 시가니랑건 머, 그런 일튼 안
체::, 여 보통 엽썸쓰니깐. {아 그때는 요사이 등교시간 그러니까 그뎨 시 시
간이란 것은 뉘, 그런 일찍하지는 았지, 이 보통 았었으니까.}

10201 @ 아 시가니 그러케 일튼 아네요? {아 시간이 그렇게 일찍하지는 았아요?}

10201 # 응, 일튼 안 새보근 아니여. {응, 일찍하지는 안 새벽은 아니야.}

10201 @ 어어. {어어.}

10201 # 어, 여덜씨 바니먼 한 일곱씨::쩍 밤먹꼬 인자 여그서 약, 그때년, 늘 저
하 한시간 다 양걸렁개, 한 사:십뿐 ... {어, 여덟시 반이면 한 일곱시썸 밥 먹
고 이제 여기에서 약, 그때는, 늘 저 하 한시간 다 안 걸리니까, 한 사십분
...}

10201 @ 응. {응.}

10201 @ 여기서 사십분배끼 양걸레요, 거러서? {여기서 사십분밖에 안 걸려요, 걸
어서?}

10201 # 그 어리, # 빨리 @ 빨리 애. # 그때 한오십뿐, 한시간 자부먼 허꺼시여.
{그 어린, # 빨리 @ 빨리 예, # 그때 한 오십분, 한시간 잡으면 할 것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그 여기서 그러면 한 동네에서 갈때 뎨명이나 가썸씨, 그때? {그 여기서
그러면 한 동네에서 갈 때 몇 명이나 가셨어, 그때?}

10201 # 지금 도느로 하는데, 그때년 어찌허냐면 상당히 우리 하꼬만 갈때라도,
그러며년 처 우리릴 처:매 학교 따닐때년 그냥 개이니 다닌는다. {지금 돈으

로 하는데, 그때는 어찌 하나면 상당히 우리 학교만 갈 때라도, 그러면 처 우리를 처음에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개인이 다녔는데.}

10201 @ 응. {응.}

10201 # 조금 후에는 수:짜 차꼬 마네전꼬딩. {조금 후에는 숫자가 자꾸 많아졌거든.}

10201 @ 응. {응.}

10201 # 인자 줄'반장 인쎄. {이제 줄반장 있지.}

10201 @ 응. {응.}

10201 # 줄반 인자 줄지어서, 데리고 @ 응. # 어:: 간니리 인쎄. {줄반 이제 줄지어서, 데리고, @ 응. # 간 일이 있어.}

10201 # 그건 가끔 그렌꼬. {그것은 가끔 그랬고.}

10201 # 응. 그냥 개이니 그냥 학교럴 다녔제 인자? {응, 그냥 개인이 그냥 학교를 다녔지, 이제?}

10201 # 불려감서 인자. 가자! 학교가자! 허고 인자 가고. {불러가면서 이제, 가자! 학교가자! 하고 이제 가고.}

10201 # 동:네별로 인자 그르케 갠쎄. {동네별로 이제 그렇게 갔었고.}

10201 @ 응. {응.}

10201 # 해방되기 직쎄네는 그 ... 원: 수짜가 마능개, 인자 상급쎄이 @ 응. # 모여가지고 인자, 그런 지시가 또 인쎄. {해방되기 직전에는 그 원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상급생이 @ 응. #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지시가 또 있었어.}

10201 # 어디서 모여라!구 가:치 등교허는 수가 인쎄넌디 ... [어디서 모여라!고 같이 등교하는 수가 있었는데 ...}

10201 # 그 웨에넌 인자 각짜 @ 애. # 동네싸람덜 불려서 인자 가치 가자 학교 가자! 하오면 불려가지고 인자 가치 갠쎄. {그 외에는 이제 각자 @ 예. # 동네 사람들 불려서 이제 같이 가자 학교 가자 하면 불려가지고 이제 같이 갔었어.}

10201 # 기달라서 가치 가. {기달려서 같이 가.}

10201 @ 그럼 여기서 그 무장까지 가실 때에. {그럼 여기서 그 무장까지 가실 때.}

10201 @ 그, 들러서 가는 동네드리 좀 인쎄쎄쎄, 가운데 중간 중가네? {그, 들러서 가는 동네들이 좀 있었었지요, 가운데 중간 중간에?}

10201 # 아니여 오년 기럴 다 들러갈제. {아니야 오는 길을 다 들리어 갔지.}

10201 @ 그 아네 줌, 아 우리 차타고 올 때 그 어:: {그 안에 줌, 아 우리 차 타고 올 때 그 어.}

10201 @ 그러면 그때는 이르게 끝나고 올때라든가 이런때는 혹시 해꼬지허는 애들 업::.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끝나고 올 때라든가 이런 때는 혹시 ***해꼬지하는 애들 없.}

10201 # 아 인쎄. {아 있지.}

10201 @ 허허허. {허허허.}

10201 @ **꺼튼 이레 인쓰쎄. {** 일에 있으셨.}

10201 # 응. {응.}

10201 @ 허허허. {허허허.}

10201 # 그땐 솔찌기 인자 내 이이گی릴 허자며넌 ... {그때는 솔직히 이제 내 이야
기를 하자면 ...}

10201 @ 응. {응.}

10201 # 지금 내가 참 이상해. {지금 내가 참 이상해.}

10201 # 내가 굉장히 학교덜 느께 다녔꼬던. {내가 굉장히 학교를 늦게 다녔거
든.}

10201 # 왜냐면 느께 다녔냐며넌, 가기넌 예 일곱살부터 @ 응. # 드리갈라고 힌
쎄, 학교에 갇쎄따 그 마리여. {왜냐면 늦게 다녔냐 하며는, 가기는 예 일곱살
부터 @ 응. # 들어갈라고 했어, 학교에 갇었다 그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그때넌 시험제도도 읍꼬, 근디 그때 어떠케 시허멀 또 반냐허며넌 ... {그
때는 시험제도도 없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시험을 보 보았냐하면 ...}

10201 @ 응. {응.}

10201 # 데레다노코 인자 색깔 가파노코, 이 무슨 새기냐 무슨 새기냐? 어 이르무
@ 응응. # 무러보기도 허고, 또 어, 예랑면 세가 저가 멘마리가 인는 인는디,
세마리가 인는디, 총얼 썩따그마리여 @ 응. # 근디 함마리가 떠러진다 마저
떠러질따. 그러면 뎡마리가 날라간냐, 뎡마리냐? {데려다 놓고 이제 색깔 가
쳐다 놓고, 이 무슨 색이냐 무슨 색이야? 어 이름을 @ 응응. #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 예라면 새가 저기에가 몇 마리가 있는 있는데, 세마리가 있는데,
총을 쏘았다 그 말이야 @ 응. # 그런데 한 마리가 떨어진다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 몇 마리가 나라갔냐, 몇 마리냐?}

10201 # 이 그렇거설 무러보논디, @ 허허허. # 그건 장깐 인자 그 천채 인자 색
깔 가통거 이런 일 인쎄꼬, 그런디 그 거:개 학교가 다 드리갈쎄.{이 그런 것
을 물어보논데, @ 허허허. # 그건 잠깐 이제 그 첫째 이제 색깔 같은 것 이
런 일 있었고, 그런데 그 거의 다 학교가 다 들어갔어.}

10201 @ 응. {응.}

10201 # 근:디. {그런데.}

10201 # 지금 내가 실쎄 이야기 허논디 내가 그러게 미'려넌 사람도 아널뜨라 그
마리여. {지금 내가 실제로 이야기 하는데 내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도 아니었
더라 그 말이야.}

10201 @ 그런쥬. {그렇지요.}

10201 # 나는 두버니나 떠러질쎄. {나는 두번이나 떨어졌어.}

10201 # 초등학교를 두:버니나 떠러질써. {초등학교를 두번이나 떨어졌어.}

10201 @ 그래요! {그래요!}

10201 # 그서 세번째 드리갈써. {그래서 세번째 들어갔어.}

10201 @ 아이고 저런! 그럼 일련씩 기다렌따 드리가신 거여? {아이고 저런! 그럼 일련씩 기다렸다 들어가신 거요?}

10201 # 그제, 세:번. {그러지, 세번.}

10201 @ 하이고 # 그렇게 떠'러지면 가서 서당 다니고. {@하이고 # 그러니까 떨어지면 가서 서당 다니고.}

10201 @ 응:. {응.}

10201 # 그건 나중에 알고 내가 그땐 건성인디 @ 응. # 왜 떠러전냐 그마리여. {그건 나중에 알고 내가 그때는 건성이었는데 @ 응. # 왜 떨어졌느냐 그 말 이야.}

10201 # 근디, 그거때 당시에, 우리 조분니미나 너무나 간시니 주러편 아부니미 @ 응. # 그때가 그런 이유는 인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조부님이나 너무나 관심이 줄었던 아버님이 @ 응. # 그때가 그런 이유는 있지.}

10201 # 우리 아부니미 이 약간 침착성이 음닌 양바니여. {우리 아버님이 이 약간 침착성이 없는 양반이야.}

10201 @ 응. {응.}

10201 # 주색재끼럴 조아헌 양바니여. {주색잡기를 좋아한 양반이야.}

10201 @ 어::. {어.}

10201 # 우리 조분님때년 살리미 조안썩는디, 이 양바니 순전 살리말 몰라. 수리나 자:시고, 쉬게 요세말로 도둑 노르미나 허시고, 학교 가라구며년, 그때 그 양반 학생연는디. {우리 조부님 때는 살림이 좋았었는데, 이 양반이 순전히 살림을 몰라. 술이나 자시고, 쉽게 요사이 말로 도둑 놀음이나 하시고, 학교 가라고 하며는, 그때 그 양반 학생이었는데.}

10201 # 벤또 싸주면 가지가서 그 나:무꾼더러고 응 그땐 머시냐면 썩치기나 허고, 두영치기나 하고, 학교도 양가고, 이런 양바니얼써. {도시락 싸주면 가지고 가서 그 나무꾼들하고 응 그땐 무엇이냐 하면 썩치기나 하고, 두영치나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런 양반이었어.}

10201 # 내가절, 허허허 아 해다니 아니라 사시리여 인제. {내가 저, 허허허 아 헛말이 아니라 사실이야 이제.}

10201 # 근디 우리 조분니미 참 도컨 양바니얼똥 개비지. {그런데 우리 조부님이 참 독한 양반이었던가보지.}

10201 @ 응. {응.}

10201 # 인자 그때, 일번 선생이 하나 일썩써. {이제 그때, 일본 선생이 하나 있었어.}

10201 # 모조 선생이라고 헌데, 일항년때 다님헌 선생인디. {모조 선생이라고 한

데, 일학년때 담임한 선생인데.}

10201 # 그 선생이 인자 학교에 공민학교에 인자 그 각 지방 유지드란테 마리어, 조금 시사금 시사금쫄로 어트게 학교 운영비, 그걸 바드로 땡깁든 모양이제. {그 선생이 이제 학교에 국민학교에 이제 그 각 지방 유지들에게 말이야, 조금 회사금 회사금쫄로 어떻게 학교 운영비, 그것을 받으러 다녔던 모양이지.}

10201 # 우리 조분니미 그 안드렌썬, 안 쥘썬. {우리 조부님이 그 안 드렸어, 안 쥘어.}

10201 @ 응. {응.}

10201 # 그렇게 궁거시기로 해서 그랜단 이건 드런는디, 두:버니나 떠러진썬.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그랬다는 이것은 들었는데, 두번이나 떨어졌어.}

10201 # 나보다 순::전 거시킨 사람도 다 되는데 마리어, 나만 그럴썬 궁개 맨 나만. {나보다 순전 거시기한 사람도 다 되는데 말이야, 나만 그랬어 그러니까 맨 나만.}

10201 # 시:번차 드러간는디 그도 나이가 그 열살 머거서 학교를 드러간썬꼬딩. {세번째 들어갔는데 그래도 나이가 그 열살 먹어서 학교를 들어갔었거든.}

10201 @ 응. {응.}

10201 # 어, 그도 이::부 오:후에 드러간 오후에 학교 다녀, @ 응 # 수짜가 마네 농개, 오:저네 반 인꼬 오:후반 인꼬, 오:후에 하는 이부로 안드러간썬. {어, 그래도 이부 오후에 들어간 오후에 학교 다녔어, @ 응 # 숫자가 많아놓으니까, 오전에 반 있고 오후반 있고, 오후에 하는 이부로 안 들어갔어.}

10201 # 근디 우리 그 사람 요그서 그때 솔채~이 되얀썬 한 일개바~이 함 바니나 되얀썬. {그런데 우리 그 사람 여기서 그때 상당이 되었어, 한 일개반 한 반이나 되었어.}

10201 # 그다가 나중에 인자 습:빠징개 오:저네 땡겐는디, 그런니리 일썬 그리가지고 내가 학교를 초등학교를 늑게사 드러간따 그마리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 오전에 다녔는데, 그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를 초등학교를 늑게 들어갔다 그 말이야.}

10201 @ 그러니까, 세상에! 허나 그 삼녀니나 아이고:: 심드썬겐네, 그때 어린마음에는 상처를 마니 바드썬꼰따.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러나 그 삼녀이나 아이고 힘드셨겠네, 그때 어린 마음에는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다.}

10201 # 근디 그때년 상처 바던나 헐썬 몰라도 근자 그 다:오메 인자 또 여 지비서 농거시 아니고 또 서당으 다니고. {그런데 그때는 상처 받았나 할지 몰라도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여 집에서 논 것이 아니고 또 서당에 다니고.}

10201 @ 응. {응.}

10201 # 지브가 놀고, 히서 좀 나이가 좀:: 마니 머근 편니제이. {집에가 놀고, 해서 나이가 좀 많이 먹은 편이지.}

10201 @ 그럼 서당에서는 그 소학부터 공부하셴능가요? {그럼 서당에서는 그 소

학부터 공부하셨는가요?}

10201 # 천자문부터 @ 응. # 추부, 사자소학, 하그저, 맹심보감 요로케. {천자문부터 @ 응. # 추부, 사자소학, 학의저***, 명심보감 이렇게.}

10201 @ 어 그래요. 어:: 으. {어 그래요. 어 으.}

10201 @ 그 사서삼경까지는 안 드려 # 아아. @ 가셴따고. {그 사서삼경까지는 안 들어 # 아아. @ 가셨다고.}

10201 @ 응, 그러셴꾸나. {응, 그러셨구나.}

10201 # 응, 기초 저 기초::드립써야지. {응, 기초 저 기초 들었어야지.}

10201 @ 그 조분님께서는 그러면 살리미 아::주 번창허셴쓸때는 어 어느정도까지 살리물 허셴쓰까요? {그 조부님께서는 그러면 살림이 아주 번창하셨을 때는 어 어느정도까지 살림을 하셨을까요?}

10201 # 으, 그러케넌 그러지 안코 @ 응. # 작쭈성가 허신 부닌디. {으, 그렇게는 그렇지 않고 @ 응. # 자수성가 하신 분인데.}

10201 @ 응. {응.}

10201 # 지방 머 부라:게서 유지추게 드리갠쓰니까 머 켜거시기넌 아니고. {지방 뭇 부락에서 유지 측에 들어갔으니까 뭇 큰 것은 아니고.}

10201 @ 응. {응.}

10201 # 머심텔꼬 살고, @ 응. # 머심 두연 데꾸 살고 데려다 살면 그정도 열찌. {머슴 데리고 살고, @ 응. # 머슴 두엇 데리고 살고 데려다 살면 그 정도였지.}

10201 @ 그러면 인자 어르시는 그:: 초 중학교 사항년때 아까 중퇴를 허셴따고 그 켜짜나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은 그 초 중학교 사항년 때 아까 중퇴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0201 # 응. {응.}

10201 @ 그때가 인제 사벼니 난 땡가요? {그때가 이제 사변이 난 때인가요?}

10201 # 으, 사벼니 난때라. {응, 사변이 난 때라.}

10201 @ 아! {아!}

10201 @ 그러면 인제 사변때는 인자 학교가 무늘 다닫따는 뜨싱가요? {그러면 이제 사변 때는 이제 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뜻인가요?}

10201 @ 무슨니리 인쓰셴써요, 그때 왜 중퇴를 하싱거요? # 으, 어떠헸능고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때 왜 중퇴를 하신 것이예요? # 응, 어떠했는가 하니.}

10201 @ 애. {예.}

10201 # 그때 결구게 ... {그때 결국에 ...}

10201 # 중학교털 인자 중학교때 우리가 그때 나 드리감서까지도 고창고부 사년제 에따가 오년제 @ 응. # 조러벌 하게 헤따 그마리여, 조립헸디. {중학교를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그때 나 들어가면서까지도 고창고보 사년제였다가 오년

제 @ 응. # 졸업을 하게 했다 그 말이야, 졸업했는데.}

10201 # 그때 나 드리가기까 그때 사향년 오향녀니 조리배버렌썸. {그때 나 들어
가니까 그때 사향년 오향녀니 졸업해버렸어.}

10201 @ 응 응. {응 응.}

10201 # 그리기 때미네 이랑년 인자 사망녀니 사향녀니 되야따 그마리여, @ 응
응. # 그러케 될꺼 아니여 사향년 오향녀니 이썸야 될 판인데. {그렇기 때문
에 일학년 이제 삼학년이 사향녀니 되었다 그 말이야, @ 응 응. # 그렇게 될
것 아이냐 사향년 오향녀니 있어야 될 판인데.}

10201 @ 예 예. {예 예.}

10201 # 나 사망년 중학교 사망년때분 조롭때부터 고등학생이 그때사 생긴썸. {나
삼학년 중학교 삼학년때부 졸업때부터 고등학생이 그때에야 생겼어.}

10201 @ 응::. {응.}

10201 # 그리서 중학교 조립힌는디 거기서 인자 고등학교를 이랑:녀느로 드리간따
그마리여, 그때부터 인자 고등학교 사망년제가 인썸썸. {그래서 중학교 졸업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일학년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그때부터 이
제 고등학교 삼학년제가 있었지.}

10201 @ 애. {예.}

10201 # 그리자 드르가가지고 그때:: 유기용개, 드리가가지고 유기요가 나버렌따
그마리여. {그러자 들어가가지고 그때 육이오이니까 들어가가지고 육이오가
나버렸다 그 말이야.}

10201 @ 응 응. {응 응.}

10201 # 그리가지고 어:: 어터게 되얀냐며년, 그레기 저네 유기요가 나기 저네, 가
정 행퍼니 내가 좀 미그비가지고 @ 예. # 학교럴 도저이 몬때기걸뜨라 그마
리여 @ 어::. # 그리가지고년 ... {그레가지고 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리
기 전에 육이오가 나기 전에, 가정 형편이 내가 좀 미흡해가지고 @ 예. # 학
교를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 그 말이야 @ 어 # 그레가지고는 ...}

10201 # 그래서 작파하고. {그래서 작파하고.}

10201 @ 응 응. {응 응.}

10201 # 그때 당시 그만 인자, 유아간 객찌에 인자 서울로 인자 가서 고아개보까
이런 생각 가지고. {그때 당시 그만 이제, 유학간 객찌에 이제 서울로 이제
가서 고향해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10201 # 내 그때 그 생각 어터게 헨냐며년 그때 수업료럴 어터게 마련행거설 안내
고 @ 응. # 글로써 인자 그 여비럴 히고 인자 거시기 헐라고 안 내고 그대로
인자 방학허는 판이라. {내가 그때 그 생각 어떻게 했냐하면 그때 수업료를
어떻게 마련한 것을 안 내고 @ 응. # 그것으로써 이제 그 여비를 하고 이제
거시기 하려고 안 내고 그대로 이제 방학하는 판이라.}

10201 @ 어. {어.}

10201 # 그러자 유기요가 딱 되어버렸따 그마리여. {그러자 욱이오가 딱 되어버렸
다 그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그리가지고 그냥 학교를 중단했제. {그레가지고 그냥 학교를 중단했지.}

10201 @ 응. {응.}

10201 # 그레가지고 나중에 하닐려니나 인따 그똥가 그동안 다시 보가글 헐라고
그리싱개. {그레가지고 나중에 한 일년이나 있다 그랬든가 그동안 다시 복학
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10201 @ 응. {응.}

10201 # 똑까지 아녜라고네, 고 마리 그러면 오항년 유강년 오항년때 그릴꾸나 사
항년 그 때로 다니라 근다 그 마리여. {꼭 같이 안 하려고 하네, 그 말이 그
러면 오학년 욱학년 오학년 때 그랬구나, 사학년 그 때로 다니라 한다 그 말
이야.}

10201 @ 응. {응.}

10201 # 내 동창더런 다 인자 오항녀느로 가 지금 지나걸 다 허는다. {내 동창들
은 다 이제 오학년으로 가 지금 진학을 다 하는데.}

10201 # 그리가지고 인자 그 그리저리 헤다가 그냥 작파해버렸찌, 그리서 몬 따니
고 마라버린는다. {그레가지고 이제 그 그리저리 하다가 그냥 작파해버렸지,
그래서 못 다니고 말아버렸는데.}

10201 @ 그리도 서울도 몬까시고 ... {그래도 서울도 못 가시고 ...}

10201 # 아! 유기요가 나버렸써, 마냐게 유기요가 안날따하며넌 갇쓸란지도 모르
지. {아! 욱이오가 나버렸어, 만약에 욱이오가 안 났다 하며는 갇쓸란지도 모
르지.}

10201 @ 그러면 여기도 유기요때:: 여기도 좀 여러가지로 좀 복짜판 ... {그러면
여기도 욱이오 때 여기도 좀 여러가지로 좀 복잡한 ...}

10201 # 암::! 복짜벤썰제. {암! 복잡했었지.}

10201 @ 기억 다 나신 나시나요? {기억 다 나시 나시나요?}

10201 @ 그때 여기서 하던 일. {그때 여기서 하던 일.}

10201 @ 주민 여기 지역 싸람들 중에서 빨찌산 드러가고 머 이런 일도 인썰썰요?
[주민 여기 지역 사람들 중에서 빨찌산 들어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10201 # 빨'지산도 인썰썰. {빨지산도 있었지.}

10201 @ 응. {응.}

10201 # 그때 빨지사니랑거선 지방 빨지산도 인꼬, 또 인자 @ 내려온 # 내려온
빨지산도 인꼬 그리제이. {그때 빨지산이란 것은 지방 빨지산도 있고, 또 이
제 @ 내려온 # 내려온 빨지산도 있고 그렇지.}

10201 # 근데 이 뭇 그눔: 그 여기서 더러 인썰썰 지방 빨지산님들 다 합뉴해가지
고 ... {그런데 이 무엇 그눔 여기서 더러 있었지 지방 빨지산 님들 다 합류해

가지고 ...}

10201 @ 서로 상하기도 하고 ... {서로 상하기도 하고 ...}

10201 # 암, 상한 일도 인제. {암, 상한 일도 있지.}

10201 @ 예, 이 마으레서도? {예, 이 마을에서도?}

10201 # 이 마으레서도 빨찌산드레 산 사람 인썸썸. {이 마을에서도 빨찌산들에 산 사람 있었지.}

10201 @ 사람 상하기도 헐썸썸? {사람 상하기도 했어요?}

10201 # 으, 지방으서 간 사람 @ 예예. # 인썸 인썸썸. {응, 지방에서 간 사람 @ 예예. # 있었 있었지.}

10201 @ 응, 직접 이러케 직계로 머 그니까 친 친족들 하나 그삼 자그나부지, 외삼촌 이런분들 혹시 상하신분 인썸썸썸? {응, 직접 이렇게 직계로 뭐 그러니까 친 친족들 하나 그 삼 작은아버지, 외삼촌 이런 분들 혹시 상하신분 있으세요?}

10201 # 응 그래 자 ... {응, 그래 이제 ...}

10201 # 내가 그 이를 당혈라다 참 다잉이 목표릴 헐썸::, 목미널 헐썸. {내가 그 일을 당하러다 참 다행히 목표를 했지, 목면을 했어.}

10201 @ 응. {응.}

10201 # 그러자 유기오가 딱 되야따 그마리여 @ 애. # 그리가지고 여기에 예:: {그러자 육이오가 딱 되었다 그 말이여 @ 예. # 그래가지고 여기에 예.}

10201 # 아 인자 치아니 되야끄덩, @ 으. # 으미 정치릴 헐썸 응? {아 이제 치안이 되었거든, @ 응. # 이미 정치를 했어 응?}

10201 @ 그때 치아니란 마른 # 인민공화구기 되야인썸썸. {그때 치안이란 말은 # 인민공화국이 되어있었어.}

10201 @ 응. {응.}

10201 # 어, 정치릴 헐썸. {응, 정치를 했어.}

10201 @ 응. {응.}

10201 # 그런데 어 그랜 노끼 대미네, 인자 그때 당시 그저네 단 저네, 아번니미 @ 으르신 # 이장얼 허시고, 나:넌 그때 유기오 다기 저네, 학교 다닐때 학또 대랑거시 편성이되야, 학또대 @ 응 # 응. [그런데 어 그래 놓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그전에 단 전에, 아버님이 @ 으르신 # 이장을 하시고, 나는 그때 육이오 나기 전에, 학교 다닐 때 학또대란 것이 편성이 되어, 학또대 @ 응 # 응.}

10201 # 편성이 되가지고 어, 거기에 참 ... {편성이 되어가지고 어, 거기에 참 ...}

10201 # 탄 학교서 지나곤 강세워니라넌 사라미 인썸썸.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강세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10201 # 쯤그만 헐썸썸도 그사라미 아:조. {쯤그만 했어도 그 사람이 아주.}

10201 # 그렇게 저 이부게 헐썸썸 허넌 미나:기라고 인썸썸썸, 그리고 이 대한밍

구게 그 단체년 향:너나라고 인썸꼬, 민학 향나라고 이. {그러니까 저 이북에 협조를 하는 민학이라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그 단체는 학련이라고 있었고, 민학 학련이라고 이.}

10201 @ 응. {응.}

10201 # 그렌는디 그 사라미 와가지고 학또대럴 조직허는디 ...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학도대를 조직하는데 ...}

10201 # 조지게가지고 인자 ... {조직해가지고 이제 ...}

10201 # 홀려닐 인자 그 작전 홀려닐 다녔쎄. {훈련을 이제 그 작전 훈련을 다녔어.}

10201 # 저:: 노푼 사너로 그 고창으서 뒤로 사너로 땡긴는디. {저 높은 산으로 그 고창에서 뒤로 산으로 다녔는데.}

10201 # 나도 거기에 인자 그사라만테 뽕뽕 가지고, 그사라미 경찰썸를 자기 큰집 까치 드러땡긴 사라미여. {나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한테 뽕혀 가지고, 그 사람이 경찰서를 자기 큰집같이 들어다닌 사람이야.}

10201 # 그리가지고 그때 그사라멸 따라 다녔쎄꼬던,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을 따라 다녔었거든, 다니다가.}

10201 # 나중으 학교럴 작파해버레놓개 @ 애. # 나중으 저 거 인자 유기로 이 내가지고 인자 작파히부런따 그마리여. {나중에 학교를 작파해버려 놓으니까 @ 예. # 나중에 저 그 이제 육이오로 인해가지고 이제 작파를 해버렸다 그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인자 그때년 학교럴 아직 으:: 보각떨토 양코 인자 유기가 되야버려, 그때년 학교럴 다 응 안땡긴 때라 그마리여. {이제 그때는 학교를 아직 으 복학 들도 앓고 이제 육이오가 되어버려, 그때는 학교를 다 응 안 다니는 때라 그 말이야.}

10201 # 그레머년 그때 당시 또 지방에서년 치안대라고 해가지고 ... {그랬으면 그 때 당시 또 지방에서는 치안대라고 해가지고 ...}

10201 @ 치안대. {채안대.}

10201 # 응, 치안대라고 해가지고, {응, 치안대라고 해가지고,}

10201 @ 응. {응.}

10201 # 금:무럴 썸썸, 열랑망, 금무럴. {근무를 썸어, 연락망, 근무를.}

10201 # 각 부라게 우리 인자 장소럴 딱 정에노코, 각 동네에 거 가서, 그 무신 지라리딩가 아무 금:무럴 해, 모에노코 금무럴 스넌디. {각 부락에 우리 이제 장소를 딱 정해놓고, 각 동네에 그 가서, 그 무슨 지랄이라든가 아무 근무를 해, 모아놓고 근무를 서는데.}

10201 # 인자 유기로 되기 저네 우리 아분니면 이장 부랑이럴 마툰꼬. {이제 육이오 되기 전에 우리 아버님은 이장 부락일을 맡았고.}

10201 @ 아:: {아.}

10201 # 그래가지고, 그때 또 부랑닐 바따고 허머는 또, 그 사람더리 지저건 그때라 그마리여. {그래가지고, 그때 또 부락일 보았다고 하머는 또,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때라 그 말이야.}

10201 # 공개 언제나 아부니미고 나허고 가치 응 금무털 나 땡깁개이? {그러니까 언제나 아버님하고 나하고 같이 응 근무를 나 다니니까 이?}

10201 @ 응. {응.}

10201 # 부재가네 한 동네에 방 하나털 정히노코 그 주민더리 짝 와가지고 인자 모여가지고 교대저그로 인자 @ 응. # 그 주민더리 ... {부자간에 한 동네에 방 하나를 정해놓고 그 주민들이 짝 와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교대로 이제 @ 응. # 그 주민들이 ...}

10201 # 하레닌 하레찌녀근 인자 인자 따긴자 금무털 스고나와 인스니까. {하루는 하루 저녁에는 이제 딱 이제 근무를 서고 나와 있으니까.}

10201 # 저 멀리서 인자 전지 후라시 @ 응. # 부리 바짝바짝 비치드라 그마리여. {저 멀리서 이제 전지 손전등 @ 응. # 불이 반짝반짝 비치더라 그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금서 요리 도라서드라고 그게 오드라 그마리여. {그러면서 이리 돌아서더라고 그것이 오더라 그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그레 봉개 발써 인자 분 그때년 분주소여요 분주소. {그래서 보니까 벌써 이제 분 그때는 분주소야 분주소.}

10201 # 인자 거그서 나오든 모양이라 그마리여. {이제 거기에서 나오던 모양이라 그 말이야.}

10201 # 그리서년 참 공기가 이상허기에 내가 아번니만테 인자 방에 드러가서 열라글 힐써. {그래서는 참 공기가 이상허기에 내가 아버님한테 이제 방에 들어가서 연락을 했어.}

10201 # 아마 그리서 나온 모냉이라고. {아마 그래서 나온 모양이라고.}

10201 # 그리 나가서 인자 들모그 이쌍개 오드라 그마리여. {그래 나가서 이제 들목에 있으니까 오더라 그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그때 당시년 또 인자 그 금무::허는 방시기가 '부리야!' 허고 소리칠꺼 아니여 그레 방소게서 다 아라드런써. {그때 당시는 또 이제 그 근무하는 방식이 '불이야!' 하고 소리칠 것 아니야, 그레 방속에서 다 알아들었어.}

10201 @ 응. {응.}

10201 # 그리 딱 허더니 나털 보더~이 발써 날 지목허드라 그마리여, 딱 잡떠니 인자 모여인은 실래 방아:느로 가더니, 봉개 아번니미 거가 이쌍개 아번니털 인자 또 잡뜨라 그마리여. {그래 딱 하더니 나를 보더니, 벌써 날 지목하더라

그 말이야, 딱 잡더니 이제 모여 있는 실내 방안으로 가더니, 보니까 아버님이 거기에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이제 또 잡더라 그 말이야.}

10201 @ 애. {예.}

10201 # 나와가지고넌 인자 무꺼가지고, 새내끼 무꺼가지고 인자 분 즘 그날째너게 인자 분주소까지 가넌 파니라 그마리여. {나와가지고는 이제 묶어가지고, 새끼로 묶어가지고 이제 분 분 그날 저녁에 이제 분주소까지 가는 판이라 그 말이야.}

10201 @ 치안대에 자퍼가신거요? {치안대에 잡혀가신 거예요?}

10201 # 응, 치안대. {응, 치안대.}

10201 @ 치안대한테? {치안대한테?}

10201 # 마니 그치 암 저 분주소 @ 응응. # 분:서 인자 마러자면 지그무로 허자면 지서제 지서. {말이 그렇지 암 저 분주소 @ 응응. # 분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자면 지서지 지서.}

10201 @ 그러니까. {그러니까.}

10201 # 용케 가다 쥐길찌 아란따 그마리여. {용케 가다 죽일지 알았다 그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그 가다 쥐기는 디가 일썤썤. {그 가다가 죽이는 데가 있었어.}

10201 @ 예 예 # 그디 아조. {예 예 # 그렇지 아주.}

10201 # 지역그서 쥐긴 디가. {지역에서 죽이는 데가.}

10201 @ 치안대라면 지금 구닌 아니여 군인 우리나라 구닌? {치안대라면 지금 군인 아니야 군인 우리나라 군인?}

10201 # 구니니 아니가 그저느 분주소 @ 아아 분주소. # 라니까 분주소 @ 어어. # 분주소 분주소 @ 예예. {군인이 아니라 그전에 분주소 @ 아아 분주소. # 라니까 분주소 @ 어어. # 분주소 분주소 @ 예예.}

10201 @ 아이구! {아이고!}

10201 # 인자 겨우 도중에 사살 양코 인자 분주소까지 드르갈써. {이제 겨우 도중에 사살 앓고 이제 분주소까지 들어갔어.}

10201 @ 아! 다행이네. {아! 다행이네.}

10201 # 어, 분주소까지 드르강개 발써 그때 분주소 소:장이 머라공고니, 아 아무개 드르오냐고 마리어이? {어, 분주소까지 들어가니까 벌써 그때 분주소 소장 이 뭐라고 하는가하니, 아 아무개 들어오냐고 말이야 이?}

10201 @ 아 아셴쓰니까. {아 아셨으니까.}

10201 # 아 인자 나넌 양코, 아번님보고 인자 가면서 나중에 혼자 분주소다 느:코넌 유치장 소그다 느쿠넌 와가지고 인자, 아! 아무개넌 이장허면서 부랑미널 착뻑히먹꼬 마리어이 이 부랑미널 마니 착뻑걸 허고 몯쌀게 만드려따고 마리어 그런 죄가 일따고 마 앵 어그지로 하드라 그마리여. {아 이제 나는 앓고,

아버님보고 이제 가면서 나중에 혼자 분주소에다 넣어놓고는 유치장 속에다 넣고는 와가지고 이제, 아! 아무개는 이장하면서 부락민을 착복해먹고 말이야 이 부락민을 많이 착복을 하고 못 살게 만들었다고 말이야, 그런 죄가 있다고 마 에 **어거지로 하더라 그 말이야.}

10201 # 그리 드르가보니까 거:기서도 드르강개 발써 어 어떤 인자 내가 아난 사람 두 형제가니 드루완넌디, 그부니도 지저글 당헌 사라미라 그마리여. {그리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도 들어가니까 벌써 어 어떤 이제 내가 아는 사람 두 형제간이 들어왔는데, 그분도 지적을 당한 사람이라 그 말이야.}

10201 # 금배 지나가넌디 한 저녁 한 열두시쯤 너몽개 ... {금방 지나가는데 한 저녁 한 열두시쯤 넘으니까 ...}

10201 # 인자 분주소지귀니 인자 인자 산 결싸대가 일꺼등 인자, 쥐기는 그때 한 참 쥐기는 때라 그마리여. {이제 분주소 직원이 이제 이제 산 결사대가 있거든 이제, 죽이는 그때 한참 죽이는 때라 그 말이야.}

10201 # 딱 드러오더~이 딱 하나 데리꼬 나가드만. {딱 들어오더니 딱 하나 데리고 나가더만.}

10201 # 그렇게 그 참 동생이 아 심도 조코 아조 거시건 사라미여. {그러니까 그 참 동생이 아 힘도 좋고 아주 거시기한 사람이야.}

10201 # 아 우리 형님 인자 중넌다고 마리여이. {아 우리 형님 이제 죽는다고 말이야 이.}

10201 # 예, 이러고 이썩개 그냥 벌써 데리쿠 가데~이, 나 인자 가따 읍썰버렐제이. {예,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벌써 데리고 가더니, 나 이제 갖다 없애버렸지 이.}

10201 # 델꾸가서 읍썰버리고 한:참 한시간 이상 이썩개 한시간도 더 이썰제이. {데리고 가서 없애버리고 한참 한 시간 이상 있으니까 한 시간도 더 있었지 이.}

10201 # 공개 또 두루와 또 두루와서넌 그 사라멸 자버간단 마리여, 인자 동생. {그러니까 또 들어와 또 들어와서는 그 사람을 잡아간단 말이야, 이제 동생.}

10201 @ 아. {아.}

10201 # 공개 동생이 인자 발써 나가문 중넌디 마리여 갈라굴꺼시여 인자, 씨잘떼기 읍는 인자 발 최후 바라기제.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벌써 나가면 죽는데 말이야, 가려고 할 것이야 이제, 쓸데없는 이제 발 최후 발악이지.}

10201 # 음, 베기다 대고 양갈라고 형개, 그냥 그 창때 총개머리 그냥 대창으로 그냥 마구 그냥 해면서 데꼬 나가드만, 나가니까 인자 그 사무실 일짜네 그 나가는데 부추장에서 나가면 인자 거 사무실 일꼬. {음, 벽에다 대고 안 가려고 하니까, 그냥 그 창대 총개머리 그냥 대창으로 그냥 마구 그냥 하면서 데리고 나가더만, 나가니까 인자 그 사무실 있잖아, 그 나가는 데 유치장에서 나가면 이제 그 사무실 있고.}

10201 # 인자 무꼴라 허꼴 아니여 이, 데꼬 갈라고 공개 그 튀어버런써. {이제 묵으려고 할 것 아니야 이,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 튀어버렸어.}

10201 @ 아! {아!}

10201 # 튀어버링개 그 뒤에 아 공개 튀여로 가년 인자 그 도망가년 데가 인써, 그 지서 그때 인자 지서 튀여로 가년데가 인써. {튀어버리니까 그 뒤에 아 그러니까 뒤로 가는 이제 그 도망가는 데가 있어, 그 지서 그때 이제 지서 뒤로 가는 데가 있어.}

10201 @ 응. {응.}

10201 # 아깐 주근디까지 인끄만, 거그서 그냥 총쏘리가 나드만, 그 사라면 거그서 주거버런는 모양이구. @ 아이쿠!{아까 죽은 데까지 있그만, 거기서 그냥 총쏘리가 나더만, 그 사람은 거기에서 죽어버렸던 모양이고. @ 아이고!}

10201 # 그러자 저러자 허다가 인자 그때년 인자 나역씨도 우라부지나 나나 인자 인재년 숨버니 마레 내가 아닝가 내가 아닝가 인자 절저거고 인는 판닌디. {그러자 저러자 하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나 역시도 우리 아버지나 나나 이제 이제는 순번이 말이야 내가 아닝가 내가 아닝가 이제 전전하고 있는 판인 데.}

10201 # 나리 새버런써, 나리 새버링개. {날이 새버렸어, 날이 새버리니까.}

10201 # 그러자 우리 지비서년 모르제 우리 조분님도 계시는디. {그러나 우리 집에서는 모르지 우리 조부님도 계시는데.}

10201 # 인자 나:중에서 인자 아란써. {이제 나중에야 이제 알았어.}

10201 # 알고년, 그때도 인자 나허고 인자 아버지 드러가 인쓰니까. {알고는, 그때도 이제 나하고 이제 아버지 들어가 있으니까.}

10201 # 인자 무장과 인자 그 분주소 거시기 인자, 어트게 인자 클 아:르미 인썰 꼴 아니여. {이제 무장에가 이제 그 분주소 거시기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알음이 있을 것 아니야.}

10201 # 인자 조분님 도라가세서 누구보고 이애기허고 누구허고 이애기 현다 이런 판닌디. {이제 조부님 돌아가셔서 누구보고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이야기 한다 이런 판인 데.}

10201 # 그때 당시에 분주소 소장이 인자 교대허년 판니라 그마리여. {그때 당시에 분주소 소장이 이제 교대하는 판이라 그 말이야.}

10201 @ 예. {예.}

10201 # 그리머년 그 교대허는 분주소 소장언 아부지허고, 어 형님허고 그 조부 조분니머고, 인자 아조 친저런 사이고, 아부지허고도 친저런 사이라 그말이여.{그러면 그 교대하는 분주소 소장은 아버지하고, 어 형님하고 그 조부 조부님하고, 이제 아주 친절한 사이고, 아버지하고도 친절한 사이라 그 말이야.}

10201 # 그부니 분주소 소장으로 드론 때라 그마리여. {그분이 분주소 소장으로 들어온 때라 그 말이야.}

10201 # 그 여야튼 나 역시도 그날 저녁에 안주건썰개 좌우간 무슨 인자 그 사유가 인쓰꺼시고, 인자 그 요세말로 문:썰 이 조:사랑거시 이썰꼐 아녀? {그 여야튼 나 역시도 그날 저녁에 안 죽었으니까 좌우간 무슨 이제 그 사유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 요사이 말로 문초 이 조사란 것이 있을 것 아니야?}

10201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01 # 인자 조그문 오느른 영 기대할 꺼시다, 난 아무 죄가 업썰요. {이제 조금은 오늘은 영 기대할 것이다, 난 아무 죄가 없어요.}

10201 # 아버지는 그 인자 이장헌 죄라도 인찌마넌, 나넌 머 아무런 죄도 음넌 사라미라 그마리여, 그때 수무살 머걸꾸나. {아버지는 그 이제 이장헌 죄라도 있지마는, 나는 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야, 그대 스무살 먹었구나.}

10201 # 오테~이 한 분주소 소:워니 인자 오더니 나보고 처:리 아 누가 오, 썸:리가보라고. {오더니 한 분주소 소원이 이제 오더니 나보고 저리 아 누가 오, 저리 가보라고.}

10201 # 강개 거기 인자 그 한 쉬게마러자면 분주소 지귀니제이, 하나 인뜨만 갠떠니. {가니까 거기 이제 그 한 쉽게 말하자면 분주소 직원이지 이, 하나 있더만 갔더니.}

10201 # 나보고 그러 강세워니란 사라머고 멘빠니나 열라걸 허고 그렌썸냐고 마리여. {나보고 그래 강세원이란 사람하고 몇 번이나 연락을 하고 그랬었냐고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그 열라건 이리 읍끄덩. {그 연락한 일이 없거든.}

10201 @ 응. {응.}

10201 # 또 인따 할찌라도 상과니 읍꼬. {또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고.}

10201 # 아 열라헌 이리 읍따고 마리여 형개, 귀통머리 한번 썰리드만 그짐말헌다고 마리여. {아 연락한 일이 없다고 말이야 하니까, **귀통머리 한번 때리더만 거짓말한다고 말이야.}

10201 # 그러테~이 어찌 대:허넌 거시 조끔 따뜰헤. {그러더니 어찌 대하는 것이 조금 따뜰헤.}

10201 @ 응. {응.}

10201 # 그정도가 아닐꺼신디. {그 정도가 아닐 것인데.}

10201 @ 응. {응.}

10201 # 그러데이 저 분주소 소장실, 분주소 소장실로 가라고 마리여. {그러더니 저 분주소 소장실, 분주소 소장실로 가라고 말이야.}

10201 # 그길로 떠만 강개 아번니미 거가 서인뜨라 그마리여. {그 길로 갔더니만 가니까 아버님이 거기가 서있더라 그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근디, 예:: {그런데, 예 ...}

10201 # 그전 소장하고 인자 분주소가 교체하는 파니여. {그전 소장하고 이제 분주소가 교체하는 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아버지 친구가 거가 안절뜨라 그마리여. {아버지 친구가 거기에가 앉아있더라 그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그전 소장언 판 디가 인꼬. {그전 소장은 다른 데가 있고.}

10201 @ 응. {응.}

10201 # 소장 자리에 그 사라미 그리멘서 나중예닌, 이 그대로, 즈그가 현 결과 큰 가오가 업 읍따고 마리어이, 그러더니 나가가지고 우리으 어 아군게 협조될 마니 허고. 열:여리 나와달라고 마리어. {소장 자리에 그 사람이 그리멘서 나중예는, 이 그대로, 자기가 한 결과 큰 과오가 없 없다고 말이야, 그러더니 나가가지고 우리의 어 아군에게 협조를 많이 하고. 열렬히 나와달라고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그리멘서 나가라고 마리어인 @ 참:: # *** {그리멘서 나가라고 말이야 이, @ 참,}

10201 # 그리가지고 {그래가지고}

10201 # 참, 우리 아분니미 잘인제. {참, 우리 아버님이 잘 했지.}

10201 @ 참::! {참!}

10201 # 그리가지고 인자 살았쨌는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었는데.}

10201 @ 참! {참!}

10201 @ 지난 얘기니까 그러치이 그때는 ... {지난 이야기니까 그렇지 그때는 ...}

10201 # 아 그래가지고년 학교고 머시고 인자 상과니읍제이, 그그때년 정신도 없고 또. {아 그래가지고는 학교고 무엇이고 이제 상관이 없지 이, 그때는 정신도 없고 또.}

10201 @ 응. {응.}

10201 # 가정이 또 이러케 되고 ... {가정이 또 이렇게 되고 ...}

10201 @ 애. {예.}

10201 @ 그:: 그리구 나서 그때가 지금 어:: 치안::니 치아니 드러온 때가 그때가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 # 가을 @ 가으리 그무려비쥬? {그, 그리고 나서 그때가 지금 어 치안이 치안이 들어온 때가 그때가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 # 가을 @ 가을 그 무렵이지요?}

10201 # 어, 가으레사. {응, 가을에.}

10201 @ 가으레 그렷쨌쨌요? {가을에 그렸었지요?}

10201 @ 그리고 인제 나:간 때는 또 언제요? {그리고 이제 나간 때는 또 언제

요?}

10201 # 어, 그리가지고 또 유기요 나:가지고 그해:: 또 두루와끄덩, 그해 또 이?

{어, 그래가지고 또 육이오 나가지고 그해 또 들어왔거든, 그해 또 이?}

10201 @ 응. {응.}

10201 # 예:: 일싸후퇴때, 일싸후퇴때가 인제. {예, 일사후퇴 때, 일사후퇴 때가 있지.}

10201 @ 응응응. {응응응.}

10201 # 일싸후퇴지. {일사후퇴지.}

10201 # 또 인자 징격해 해서 해갈꼬, 어, 빨찌산 다 올라갈제이, 올라가서 또 떠러진놈 인꼬 인자 인따가. {또 이제 징격해 해서 해가지고, 어, 빨찌산 다 올라갔지 이, 올라가서 또 떨어진 놈 있고 이제 있다가.}

10201 @ 애. {예.}

10201 # 그때 당시 ... {그때 당시 ...}

10201 # 여 학또대랑게 또 조직되얀쎄. {이 학또대라는 것이 또 조직되었어.}

10201 @ 음, 학또대. {응, 학또대.}

10201 # 학또대. {학또대.}

10201 @ 음. {응.}

10201 # 그리서, 어: 그레자 아 그러자 ... {그래서, 어 그러자 아 그러자 ...}

10201 # 인자 그때년 일싸후퇴가 인꼬 인자 나중에 징격헐쓸때, 그때. {이제 그때는 일사후퇴가 있고 이제 나중에 징격했을 때, 그때.}

10201 # 구시월따른:: 되얀쓰꺼시여, 한 시월, 시월딸 시이월딸 썸 되야쓰꺼시여. {구시월달은 되었을 것이야, 한 시월, 시월달 십이월달 썸 되었을 것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그때 또, 인자 우리 대함밍구기 두루왈짜네. {그때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왔잖아.}

10201 @ 응. {응.}

10201 # 두루와가지고 또 주두널 또 헤따 그마리여. {들어와가지고 또 주둔을 또 했다 그 말이야.}

10201 @ 음. {응.}

10201 # 그렇개년 그때년 또 그냥 다: 피안댕긴다고 날::리를 펴, 공개 예기년 바메년 공산당이요, 나제년 대함밍구기라 그마리여.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냥 다 피난 다닌다고 난리를 펴, 그러니까 여기는 밤에는 공산당이요, 낮에는 대한민국이라 그 말이야.}

10201 # 나:제 인자 경찰쎄 인자 지권덜 인자 전투대덜 완따가 드러가면 또 바:메년 또 인자 빨찌산더리 와가지고 그냥 날리럴 쳐버리고, @ 응. # 이런때라 그마리여. {낮에 이제 경찰서 이제 직원들 이제 전투대들 왔다가 들어가면 또 밤에는 또 이제 빨찌산들이 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쳐버리고, @ 응. # 이런

때라 그 말이야.}

10201 # 공개 그리구 인자 또 빨쪼만 아르먼 다: 피해라고 도망가라고 마리어, 공개 다: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빨지산만 알면 다 피해라고 도망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 도망가라고.}

10201 # 그리가지고넌 이 지방싸람더리 무장언 마러자면 수보기 되얏찌마넌 이 시골 이이른르런 그럼 나제넌 그냥 도망허제이. {그래가지고는 이 지방사람들이 무장은 말하자면 수복이 되었지마는 이 시골 이런 데는 그러면 낮에는 그냥 도망하지.}

10201 @ 음. {응.}

10201 # 나즌 다 피란나가. {낮에는 다 피난 나가.}

10201 @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서?}

10201 # 나무깍찌로넌 사네로 그냥 마구 그냥 가라곤 여기 인떨 모데 공개 빨찌산 더리 와가지곤. {비탈진 산으로 그냥 마구 그냥 가라고 여기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빨지산들이 와가지고는.}

10201 @ 응. {응.}

10201 # 반:쪼 나가제. {반쪼 나가지.}

10201 # 그른디 그러게 허넌디, 우리 조분니미 절:때로 나가지 말라, 그때넌 한참 누와 누와쉴 때그만, 나가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조부님이 절대로 나가지 말라, 그때는 한참 눈 봐 눈 왔을 때그만, 나가지 말라.}

10201 # 공개 인자 어디가 빨찌사니 와파:: 인자 마러자면 경찰관더리 전투대더리 왁파 허며넌 다: 그냥 나가라고 형거여.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빨지산이 왔다 이제 말하자면 경찰관들이 전투대들이 왔다 하며는 다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야.}

10201 @ 응. {응.}

10201 # 절:때 몬나가게 조분님 말쓰미, 그때 어뜨게 헨냐며넌 집터메 지벌 한텀 썩 가따노코 새내키럴 파라. {절대 못 나가게 조부님 말씀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쫓덤에 쫓을 한 덩씩 갖다 놓고 새끼를 파라.}

10201 @ 응. {응.}

10201 # 그리가지고 인자 우무튼 인자 그 경찰관덜 오면서 그냥 총 그냥 빵 쏘면서 인자 그 췌고 다닐 때거덜.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제 그 경찰관들 오면서 그냥 총 그냥 빵 쏘면서 이제 그 쏘고 다닐 때거든.}

10201 @ 응. {응.}

10201 # 그냥 새내키럴 꼬고 인썰개, 짹:: 짹:: 경찰과니 전투대더리 나왁뜨라 그 마리어. {그냥 새끼를 꼬고 있으니까, 짹 짹 경찰관이 전투대들이 나왔더라 그 말이야.}

10201 @ 음. {음.}

10201 # 나와서넌. {나와서는.}

10201 # 그때도 참 경찰관덜또 그냥 모조건 그냥 인년사람언 그냥 데리고 갑쟁개.
 {그때도 참 경찰관들도 그냥 무조건 그냥 있는 사람은 그냥 데리고 갔으니까.}

10201 # 그 나도 인자 재폐가지고 인자 가서, 또 인자 그때년 또 가가지곤 영또**
 인자 가가지고선 인자 쥐긴 때도 인꼬 경찰관덜또. {그 나도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가서, 또 이제 그때는 또 가가지고 ** 이제 가가지고서는 이제 죽인 때
 도 있고, 경찰관들도.}

10201 # 마냐게 어쩔따고허면 쥐긴 때도 인고, 용케 쥐기든 양코 여기서 한 서넛
 스:싱가 텔꾸가서년 인자 데려다가 지서에다 또 유치될 시키제이? {만약에 어
 쩔다고 하면 죽인 때도 있고, 용케 죽이든 양고 여기서 한 서넛 셋인가 데리
 고 가서는 이제 데려다가 지서에다 또 유치를 시키지 이?}

10201 @ 응. {응.}

10201 # 한 일쭤일간 거가 인썸따 그마리여. {한 일쭤일간 거기가 있었다 그 말이
 야.}

10201 @ 응. {응.}

10201 # 나중에는 취주혜받썸들 아무 혐의가 읍끼때미네 ... {나중에는 취조해보았
 던들 아무 혐의가 없기 때문에 ...}

10201 @ 응. {응.}

10201 # 내가 나와가지고 인자 학또대가 인는다, @ 응. # 인자 공개 인자 구창중
 동창놈드리 와가지고 인자 학또대덜 조지게가지고 인자, 학또대랑거설 그리서
 거기서 인자 학또대덜 드르갑썸. {나가 나와가지고 이제 학도대가 있는데, @
 응. #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창중 동창놈들이 와가지고 이제 학도대를 조직해
 가지고 이제, 학도대란 것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도대를 들어갔어.}

10201 @ 예. {예.}

10201 # 인자 학또대덜 드르가가지고, 학또대 생활하면서 인자 또 작썸널 가치,
 경찰과니나 전투대원드른 전투대원, 또 인자 학또대원 다넌짜네. {이제 학도
 대를 들어가가지고, 학도대 생활하면서 이제 또 작전을 같이, 경찰관이나 전
 투대원들은 전투대원, 또 이제 학도대원 다넌잖아.}

10201 @ 응. {응.}

10201 # 어, 그리가지고 참! 가서 사람 쥐기능거또 보고, 가튼 서에 가지고 그때년
 우리넌 총두 읍썸 그냥 학교로 인자 섬발때로 그 경찰관더리나 가::치 인자
 집만 아르케 중게 또 학또대원니라 한 뱅밍만 해도 ... {어, 그래가지고 참!
 가서 사람 죽이는 것도 보고, 같은 서에 가지고 그때는 우리는 총도 없이 그
 냥 학교로 이제 선발대로 그 경찰관들이나 같이 이제 집만 가르쳐 주니까 또
 학도대원이라 하는 *** 해도 ...}

10201 # 그리가지고 여러썸 받넌디, 그러고 땡기다가 나중에 인자 일싸후퇴때 또
 인자 진:주로 마리어이, 다: 인자 절문 사람덜 그냥 썸러서 가넌 때가 인썸짜

너. {그래가지고 여러 꼴 보았는데,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일사후퇴 때 또 이제 진주로 말이야 이, 다 이제 젊은 사람들 그냥 쓸어서 가는 때가 있었잖아.}

10201 # 그때 어 나가서 인자 그 절문사라 멀 두르와 다 텔꾸가 데따 농개 너도 가
라능거시여. {그때 어 나가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 들어와 다 데라고 가, 데
려다 놓으니까 너도 가라는 것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그때 인자, 학도대도 인자 좀 큰사람덜 싹 가찌 가:치 인자 어 진:주까지
감따완써. {그때 이제, 학도대도 이제 좀 큰 사람들 싹 갔지 같이 이제 어 진
주까지 갔다 왔어.}

10201 # 진:주까지 못 묻까고 도로 도라와버렐제. {진주까지 못 못 가고 도로 돌
아와버렸지.}

10201 @ 아::. {아.}

10201 # 그 안도라운 사람 꺼들도 신체검사에 합꺼건 애들. {그 안 돌아온 사람
것들도 신체검사에 합격한 애들.}

10201 # 아 구니네도 가버리고, 나언 그냥 가다가 묻까게 생게서 도망해서 그냥
도라와버리고. {아 군인에도 가버리고, 나는 그냥 가다가 못 가게 생겨서 도
망해서 그냥 돌아와버리고.}

10201 @ 응. {응.}

10201 @ 참, 여러세상 사십니다. {참, 여러 세상 사십니다.}

10201 # 그리서 그때 시비월 음:녁 운녁 음려그로날써. {그래서 그때 십이월 음력
음력 음력으로 났어.}

10201 # 한달간 아무래도 슬딸 그믐날 지부로 드르왈쓰니까. {한달간 아무래도 선
달 그믐날 집으로 들어왔으니까.}

10201 @ 그러면 여기서 선딸그믐날이면, 시비월따레 출발헤따가 @ 아! 시월따레
시비월따레 도라오셤건네. {그러면 여기서 선달 그믐날이면, 십일월달에 출
발했다가 @ 아! 십일월달에 # 십일월달에 돌아오셨겠네.}

10201 @ 도라오시면서는 이러케 머 특빠리 어려운 이를 당하시거나 ... {돌아오시
면서는 이렇게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시거나 ...}

10201 # 큰:어려운 이른 안당힐제. {큰 어려운 일은 안 당했지.}

10201 @ 응. {응.}

10201 @ 그럼 바비랑은 어떠케 해결하셤쎄요, 오실? {그럼 방이랑은 어떻게 해결
하셤어요, 오실 때?}

10201 # 올때? {올 때?}

10201 @ 응. {응.}

10201 # 올때년, 갈때년 인자 인소레가지고 @ 응. # 인자 인소레가지고 여그서

정:음꺼서, 정음씨 바:메 나서가지고, 고창씨 바메 나서가지고 정:음씨 하룻짜
녁 자고, 거러서 가니까. {올 때는, 갈 때는 이제 인솔해가지고 @ 응. # 이제
인솔해가지고 여기서 정음 가서, 정음에서 밤에 나서가지고, 고창에서 밤에
나서가지고 정음에서 하루저녁 자고, 걸어서 가니까.}

10201 @ 응. {응.}

10201 # 정음씨 또 전주 안산동까지 히가지고, 그때 어느 학교빵인가 거가서 자
고, 거그서 자고 임실, 또 임실까지 자고. {정음에서 또 전주 완산동까지 해가
지고, 그때 어느 학교 방인가 거기 가서 자고, 거기서 자고 임실, 또 임실 가
서 자고.}

10201 @ 응. {응.}

10201 # 나:면, 나면까지 움봉 또 움봉가서 자고. {남원, 남원 가서 움봉 또 움봉
가서 자고.}

10201 # 거그서 또 인자 함양, 산청 ... {거기서 또 이제 함양, 산청 ...}

10201 @ 응, 어:: 히야! {응, 어 히야!}

10201 # 가다가 인자 어:: 움봉까지 가가지고넌 거그서 배치릴 해가지고 바번 잘
머걸썬. {가다가 이제 어 움봉까지 가가지고는 거기서 배치를 해가지고 밥은
잘 먹었어.}

10201 @ 응. {응.}

10201 # 인자 하망으로 드리감서보통 그냥 또 인자 수라장이였썬. {이제 함양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또 이제 수라장이었어.}

10201 @ 그러체. {그렇지.}

10201 # 그렇게 왜냐하며넌 인자 또 일싸 또 다시 평택까지 왁따넌 그런 머시 인
썰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또 일사 또 다시 평택까지 왔다는 그런 무엇
이 있었어.}

10201 @ 응. {응.}

10201 # 평택까지 몰고 올라갔썬. {평택까지 몰고 올라갔지.}

10201 @ 응. {응.}

10201 # 그러기 때미네 인자 압씨 가던 사람더리 어찌 이상하게 오년 사람도 인
꼬, 이미 그냥 인솔짜도 읍씨져버리고 그냥 공개, 개:이니 그냥 마구 가다봉
개, 가다가 저물면 드르가 동네 드르가서 뽕 어'더먹고, 또 가고. {그렇기 때
문에 이제 앞서 가던 사람들이 어찌 이상하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이미 그냥
인솔자도 없어져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마구 가다보니까, 가다가
저물면 들어가 동네 들어가서 밥 얻어먹고, 또 가고.}

10201 # 가다가 진:주 다 가가지고 거운 가가지고넌 몰까걸썬. {가다가 진주 다
가가지고 거의 가가지고는 못 가겠어.}

10201 # 그건 너기서도 인자 우리 자근아버지랑 메'시 한 대여서시 간는다. {그것
은 여기서도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랑 뗏이 한 대여섯이 갔는데.}

10201 @ 응. {응.}

10201 # 묻까견따고, 묻까고 그레가지고. {못 가겠다고, 못 가고 그레 가지고.}

10201 # 그때 다시 인자 되도라서 오년 파닌디. {그때 다시 이제 되돌아서 오는 판인데.}

10201 # 거그서 어디로 완냐, 하동으로히서 되도라오닌디. {거기서 이디로 왔냐, 하동으로 해서 되돌아오는데.}

10201 @ 야! {야!}

10201 # 인자, 하동 지내서 어딩가년 모르켤까만, 거그 드르간 드르가판 마리어. {이제, 하동 지나서 어딘가는 모르겠그만, 거기 들어가 들어갔단 말이야.}

10201 # 바미던 인자 동네로 드르가양개, 이장 반장 차저 드르가서. {밤이면 이제 동네로 들어가야 하니까, 이장 반장 찾아 들어가서.}

10201 @ 응. {응.}

10201 # 인자 아궁개** 웬저 그때년 어떠케 헨냐며년, 진주에 가다가 제이궁미니 라고 그때 그릴 그리쓸꺼시여. {이제, 아 그러니까 왜 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진주에 가다가 제이국민이라고 그때 그랬 그랬을 것이야.}

10201 @ 응. {응.}

10201 # 신체검사에 떠:러저가지고 @ 응. # 건강이 안조아가지고 지비로 도라가 다 이리 온다고 마리어. {신체검사에 떨어져가지고 @ 응. #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 이리 온다고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그러케 형개 잘:: 배치럴 잘 해주드만, 10201 @ 응. # 배치럴 잘 히줘서 먹고 허는디, 거기서 처:메 드르간는디. {그렇게 하니까 잘 배치를 잘 해주더만, @ 응. # 배치를 잘 해줘서 먹고 하는데, 거기서 처음에 들어갔는데.}

10201 # 함버는 그 동네가 참! 어떤 그 이튼날 아치메 어떤 쪼그만 한 여남사리나 나마 머근 애가 집썬 집썬 열컬레, 그거보고 한 주기라고 허거등, 열컬레릴 가지고 와서, 다 나눠준다 그마리어. {한번은 그 동네가 참! 어떤 그 이튼날 아침에 어떤 조그만 한 여남은살이나 나마 먹은 아이가 쥔신 쥔신 열컬레, 그 것보고 한 죽이라고 하거든, 열컬레를 가지고 와서, 다 나누어준다 그 말이야.}

10201 # 공개 시니 그만 한 이시빌가늘 거:러썩개 @ 그러치. # 다 떠러저버리, 나 운동화 ***** 다 떠러저버리고 양발도 다 떠러저버리고 그냥 이리 버렐썩. {그러니까 신이 그만 한 이십일간을 걸었으니까 @ 그렇지. # 다 떨어져버리, 나 운동화 ***** 다 떨어져버리고 양발도 다 떨어져버리고 그냥 이래 버렸어.}

10201 # 공개 서로 사라굴꼐 아니여. {그러니까 서로 살라고 할 것 아니야.}

10201 @ 응. {응.}

10201 # 예, 공개 이걸 살꺼시 아니고 이 ... {예, 그러니까 이것 살 것이 아니고

이 ...}

10201 # 그때 근 한 칠십노이니 노:이니 아들하나 이걸 말려네 난ندي 이러케 적
써늘 현다능거시여. {그대 근 한 칠십 노인이 노인이 아들 하나 이것을 말년
에 낳았는데 이렇게 적선을 한다는 것이야.}

10201 @ 아! {아!}

10201 # 바벌 항:그르설 한사람 바벌 허라구면 두사람 밥 허고, 어 이레가 적써늘
아 한 일주일가널 이러케 집씨늘 사면서 항커리씩 다 준다 그마리여. {밥을
한 그릇을 한 사람 밥을 하라고 하면 두 사람 밥 하고, 어 이렇게 적선을 아
한 일주일간을 이렇게 집신을 삼아서 한컬레씩 다 준다 그 말이야.}

10201 # 그서 거그서 집썬 항커리 얻 싱꼬, 아 거그서 또 오넌디. {그래서 거기서
집썬 한컬레 얻어 싱고, 아 거기서 또 오는데.}

10201 # 또 한 동네 드르강개 또 거가서 그르케 이애기힐제, 신체검사에 떠러저가
지고 온다궁개, 어딘디 걸 지서로 인자 보고렐 해야한다능거시여. {또 한 동
네 들어가니까 또 거기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신체검사에 떨어져가지고 온
다고 하니까, 어딘데 그 지서로 이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야.}

10201 # 이걸 지서에서 알며넌 이걸 거:짐말 힌ندي 마리여. {이것 지서에서 알면
이것 거짓말 했는데 말이야.}

10201 # 그나 여하튼 거그서 저녁 어더먹꼬넌 인자 합쭈그로 인자 큰 회:과내서
잠 자고 인넌디. {그러나 하여튼 거기서 저녁 얻어먹고는 이제 합숙으로 이제
큰 회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10201 # 이장 반장이 인자 가서 지서에 가서 보고 허고 올란다고 올라 ... {이장
반장이 이제 가서 지서에 가서 보고 하고 오겠다고 올라 ...}

10201 # 그럼 보고허라고. {그러면 보고 하라고.}

10201 # 아, 그러데이 물론 지서에 오며넌 인자 이걸 도망온다능거시 틀림음넌디,
아 그러데~이 가따오더니 마리여 머라공고니. {아, 그러더니 물론 지서에서
오며는 이제 이것은 도망온다는 것이 틀림없는데, 아 그러더니 갔다 오더니
말이야 뭐라고 하는가 하니.}

10201 # 예, 그분들 잘 대접해서 잘 보내라고. {예, 그분들 잘 대접해서 잘 보내라
고.}

10201 # 아: 이소리렐 드룽개, 아 인자 머 인자 문제 읍뜨라 그마리여. {아 이 소
리를 들으니까, 아 이제 뭐 이제 문제없더라 그 말이야.}

10201 # 인자 거그서보톤 맘:노코 인자 오넌 파니제. {이제 거기서부터는 마음 놓
고 오는 판이지.}

10201 @ 응. {응.}

10201 # 오다가 저물며넌 인잔 지서로 드러가. {오다가 저물면 이제 지서로 들어
가.}

10201 @ 응. {응.}

10201 # 어디 배치히도라고. {어디 배치해달라고.}

10201 @ 음. {응.}

10201 # 그럼 지서에서 인자 이장 동네다 배치해가지고 거그서 인자 아침 저녁 어더먹꼬 나중애 하루종:일 걸꼬. {그러면 지서에서 이제 이장 동네에다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침 저녁 얻어먹고 나중애 하루 종일 걸고.}

10201 # 또 인자 오다가 인자 나중에는 인자 또 인자 인꼬리 나가지고넌 점:심까지 또 어더먹꼬 완제. {또 이제 오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는 점심까지 또 얻어먹고 왔지.}

10201 @ 흐흐. {흐흐.}

10201 # 이래가지고 슬딸그:음날 여기 완넌디. {이래 가지고 선달그믐날 여기 왔는데.}

10201 @ 허허허. {허허허.}

10201 # 이 이 금방썬도 사라멸 데리다가 마:이 주게버렘꼬딩. {이 이 근방에서도 사람을 데리다가 많이 죽여 버렸거든.}

10201 # 그웁썬는데 그러자, 여:기 저기서 드룽개, 그때 당시 와가지고넌 내 바레 그양 어리미 드러부런썬. {그랬었는데 그러자, 여기 저기서 들으니까, 그때 당시 와가지고는 내 발에 그냥 어름이 들어버렸어.}

10201 @ 응. {응.}

10201 # 슬딸그믐날 지나가지고 한 두달 일파가, 그 아네 이자 동:네서 며 아번니 멀 또 추천히가지고, 부랑니릴 타하마니 살쭈가 일파 @ 응. # 그리자 그냥바니 인자 무장으루 드러가가지고 소재지 드러가가지고 인자 와따가따 이장방 그러고 인넌디. {선달그믐날 지나가지고 한 두달 있다가, 그 안에 이제 동네에서 뭐 아버님을 또 추천해가지고, 부락 일을 타야만이 살 수가 있다 @ 영. #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무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소재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왔다갔다 이장방 그러고 있는데.}

10201 # 하레 썬너그넌 그냥 며덜 가파 여기 주게버렘썬. {하루 저녁에는 그냥 몇을 갖다 여기서 죽여 버렸어.}

10201 # 그리구 아번니면 여가서 드러오시든 안체, 나제만 드로고, 바메넌 무장가서 자고. {그리고 아버님은 여기에 가서 들어오시든 않지, 낮에만 들어오고, 밤에는 무장 가서 자고.}

10201 # 그 소리릴 들꼬넌 몸썬겄따고. {그 소리를 듣고는 못쓰겠다고.}

10201 # 그리가지고넌 우리집 식꾸덜 썬 데리고 무장으 드르갈썬. {그래가지고는 우리집 식구들 썬 데리고 무장으로 들어갔어.}

10201 @ 응. {응.}

10201 # 여기는 인자, 하라버지허고 조부 조부몬님 노:인양반 둘:만 여파 게시라고 허고넌, 우리 자근집 식꾸덜 썬:: 텔꾸가가지고 무장 한참 인썬제.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하고 조부 조부모님 노인 양반 둘만 여기에다 게시라고 하고는,

우리 작은집 식구들 싹 데리고 가가지고 무장 한참 있었지.}

10201 @ 응. {응.}

10201 # 그리가지고 한참 무장써 살다가 ... {그래가지고 한참 무장에서 살다가 ...}

10201 # 되간는디 그날 저녁게 빨찌산러리 드와가지고 손까지 나락까지 싹: 머글
곁 싹 가지고 가버렘써. {다시 갔는데 그날 저녁에 빨찌산들이 들어와 가지고
술까지, 나락까지 싹 먹을 것 싹 가지고 가버렸어.}

10201 # 마냐게 그안 그날 안갠씨며넌 그냥 @ 잘못뵈을찌도 # 어: 잘못되얌쎄.
{만약에 그 그날 안 갔으면 그냥 @ 잘 못 되었을지도... # 잘 못 되었지.}

10201 # 근디 가미, 우리 아번니미 무장까 인끼 때미네 당여니 그 가족떨 여가 인
끄덩. {그런데 감히, 우리 아버님이 무장가 있기 때문에 당연이 그 가족들이
여기 있거든.}

10201 @ 으. {응.}

10201 # 마냐 하나 그 싹 주거버렘씨면 안심혀지마넌 하나 쥐게받뜯들 지기도 피
해가 인끼 때미네, 요:건 인자 목쩌건 우리 아분니민디, 아:분니멀 거시 머 해
꼬지할 머 안해농개, 이 미테싸람덜 해꼬지 혈쑤가 읍끄덩, 그리가지고 무장
까가 드르가가지고 참 부지헐쎄. 그레 우리지번 아이 참 머 희생당헌 사라미
읍시 지낸쎄요. {마약 하나 그 싹 죽어버렸으면 안심하지마는 하나 죽여보았
던들 자기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목적은 우리 아버님인데, 아버
님을 거시 뵈 해꼬지할 뵈 한 해농으니까, 이 밑에 사람들 해꼬지 할 수가 없
거든, 그래가지고 무장가서 들어가 가지고 참 부지를 했지.}

10201 @ 아이고 그냥 ... {아이고 그냥.}

10201 @ 부랭중 다행이네요. # 아:: 부랭중 다행이제. {불행 중 다행이네요. # 아,
불행 중 다행이지.}

10201 @ 그 그저네 더글 마니 싸으션능갑따. {그 그전에 덕을 많이 쌓으셨는가보
다.}

10201 # 그때 당시 내가 바리 어르미 드리가지고 어디 가도 모더고 상당이 애로가
인쎄써. {그때 당시 내가 발에 얼음이 들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상당
히 애로가 있었어.}

10201 @ 응:. {응.}

10201 # 그때 인자 무장 가가지고. {그때 이제 무장에 가가지고.}

10201 # 우리가 또 내성찌기기 때미네 ... {우리가 또 내성적이기 때문에 ...}

10201 @ 응:. {응.}

10201 # 운:동연 잘힌는디 어찌기 그 내성찌기연쎄써. {운동은 잘했는데, 어떻게
그 내성적이었었어.}

10201 # 인자 초등학교 인자 교:원시험 채용한다고 마리어. {이제 초등학교 이제
교원 시험 채용한다고 말이야.}

10201 @ 응:.

10201 # 교원시허멸 보로 간넌디. {교원 시험을 보러 갔는데.}

10201 # 그때 우리 지방에서 서넛 갇썰찌. {그때 우리 지방에서 서넛이 갇썰찌.}

10201 # 또: 그때도 근디 그때 내가 ... {또, 그때도 그런데 그때 내가 ...}

10201 # 신체검사 임물고사에 떠러전썰 틀렷찌. {신체검사, 인물고사에 떨어졌어, 틀렷지.}

10201 # 그때 그냥 아:파가지고, 먼 실력또 실려기지만 먼 머들 다지 여 다소 떠드러보고 히야는디, 그런거시가 업썰개 그냥 느다답썰 그냥 서류만 내가지고 갇썰따 그마리여. {그때 그냥 아파가지고, 먼 실력도 실려이지만 먼 뭇을 다 여 다소 떠들어보고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느다없이 그냥 서류만 내가지고 갇썰따 그 말이야.}

10201 # 근디 거개 다 돼안는디 나만 또 떠러전네. {그런데 거의 다 되었는데 나만 또 떨어졌네.}

10201 # 머냐 그때 한번 실패헐썰꼬. {뭐냐 그때 한번 실패했었고.}

10201 # 그러고는 갈쭈락 인자 받거지기 때무네, 그런 실력까지고 인자, 그:때 어트게 드러갈따 허며는 조금 교편생활 헤:쓸런지도 모르지. {그렇게하고는 갈쭈락 이제 밝아지기 때문에, 그런 실력까지고 이제, 그때 어떻게 들어갔다 하면 조금 교편생활 했을런지도 모르지.}

10201 # 나:허고 가뜰 사람드른 마:니 교편생활 계속 헐:썰에. {나하고 갔던 사람들은 많이 교편생활 계속 했지.}

10201 # 그 후로 인자 그릴따가. {그 후로 이제 그랬다가.}

10201 # 경:차리 재피갈썰 경:차레. {경찰에 잡혀갔어, 경찰에.}

10201 @ 아! 그러썰꾸나. {아! 그러셨구나.}

10201 # 경차레 드러가가지고, 그때도 또 하: 참. [경찰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도 또 하 참.}

10201 # 사:낙찌구 전:투대로만 다넬찌 또. {산악지구 전투대로만 다녔지 또.}

10201 @ 응: {응.}

10201 # 토벨작전. {토벌작전.}

10201 @ 응 응. {응 응.}

10201 # 그리서 아까 내가 언:진가 그린는디 지:난 장:수 거가 마니 주거땅거. {그래서 아까 내가 언젠가 그랬는데, 진안 장수 거기가 많이 죽었다는 것.}

10201 @ 얘: {예.}

10201 # 오륙년간. {오륙년간.}

10201 @ 응. {응.}

10201 # 수물한 사례 가가지고 수물일고베 드루왈썰개. {스물한 살에 가가지고, 스물일곱에 들어왔으니까.}

10201 @ 응: {응.}

10201 # 다이다가 나도 겨:우 발령을 바다가지고, 정:읍씨에 와가지고 정:읍씨 이
 년 근무허다가. {다니가가, 나도 겨우 발령을 받아가지고, 정읍서에 와가지고
 정읍에서 이년 근무하다가.}

10201 @ 응. {응.}

10201 # 그때 어:트게 되안냐면 또 다니면서.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또 다니
 면서.}

10201 # 여:네 생년너리를 인자 위조히가지고 주민등로걸 인자 경차레 인쓰멘서
 주민등로걸 가지고 땡젠따 그 마리어:. {연해 생년월일을 이제 위조해가지고
 주민등록을 이제 경찰에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다녔다 그 말이야.}

10201 # 나중에 좀 발견, 인자 질:씨가 채핑개 인자 가:먼서리 일씨 가지고. {나중
 에 좀 발견, 이제 질서가 잡히니까 이제 감원설이 있어 가지고.}

10201 @ 응. {응.}

10201 # 가:먼 대상에 걸려버런씨. {감원 대상에 걸려버렸어.}

10201 @ 아:. {아.}

10201 # 그리가지고 정읍씨 이:년, 일년 한 땡개월 헐쭈로 이년 근무허다 또 가:먼
 대상에 걸리가지고 가:머니 되야버렌제. {그래가지고 정읍에서 이년, 일년 한
 몇개월 헐쭈로 이년 근무하다 또 감원 대상에 걸려가지고 감원이 되여버렸
 지.}

10201 @ 응. {응.}

10201 # 가:먼 되야가지고 그때사 지비 와가지고 수물일고베 지비 와가지고, 수물
 야다레 겨론허고, 쪽:. {감원되어가지고 그때에 집에 와가지고 스물일곱에 집
 에 와가지고, 스물여덟에 결혼하고, 쪽.}

10201 @ 그 후로 여기서 인제 사신 #살게 되얏따마리어 농사질코. {그 후로 여기
 서 이제 사신... # 살게 되었다는 말이야. 농사짓고.}

10201 # 그때 당시 요건니:이리라면, 용:역 그때 구니네 양가가지고, 재정도 나보
 다 낫코. {그때 당시 용언이 일이라면, 용역 그때 군인에 안 가가지고, 재정도
 나보다 낫고.}

10201 # 대학교릴, 여 점북때릴 오:녕간 다녀쉴꺼시여. {대학교를, 이 전북대를 오
 년간 다녔을 것이야.}

10201 # 조립 아:너고 또 다녔씨. {졸업 안하고 또 다녔어.}

10201 @ 응:. {응.}

10201 # 연장해가지고. {연장해가지고.}

10201 # 아마 그릴따군 쏘리 드런씨. {아마 그랬다고 하는 소리 들었어.}

10201 # 그릴쉴 꺼시여. {그랬을 것이야.}

10201 # 그리가지고 어디 취지글 모팅개. {그래가지고 어디 취직을 못하니까.}

10201 # 참 벨로 아:년 일 업씨 그 사람도 이를 헛 헛 사라미제. {참 별로 안 한
 일 없이 그 사람도 일을 한 한 사람이지.}

10201 # 그리가지고 나중에 ... {그래가지고 나중에 ...}

10201 # 예: 잘 정부 인자 그, 병역빠비 그리 되야가지고 인자 자수하고, 국토방위 대랑가 뭘 더 인썸썸. {예, 잘 정부 이제 그, 병역법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자수하고, 국토방위대란가 뭘 뵈이 있었어.}

10201 # 두:달간. {두달간.}

10201 # 거 갈따오며는 구닌 봉무기간 면:제해준다능거여. {거기 갔다오면 군인 복무기간 면제해준다는 것이야.}

10201 # 나보고 가자고 허드만, 가치 가세. {나모가 가지고 하더만, 같이 가세.}

10201 # 내:가 인자 가서, 자네 대학교라도 다녀스면 가따 여망이라도 인찌마는, 인제는 난 그런 여망도 어:꼬 뭘, 작파해볼라네. {내가 이제 가서, 자네는 대학교라도 다녔으면 갔다 여망이라도 있지만, 이제는 나는 그런 여망도 없고 뭘, 작파해버리겠네.}

10201 # 나:는 양가고 그대로 그냥. {나는 안 가고 그대로 그냥.}

10201 @ 응. {응.}

10201 # 응. {응.}

10201 # 농사지코 지금. {농하짓고 지금.}

10201 # 그 사람 가따와가지고 이:년간. {그 사람 갔다와가지고 이년간.}

10201 # 아니 이:년가니 두:달간 갈따와서, 그때 인자, 인자 구닌 봉무기간 마치고 인자, 병:녁 으무럴 다: 헐따고, 그 그리서, 그러케 되야 뽈쓰꺼시여. {아니, 이년간 아니, 두달간 갔다와서, 그때 이제, 이제 군인 복무기간 마치고 이제, 병역 의무를 다 했다고, 그 그래서, 그렇게 되었 되었을 것이야.}

10201 # 그리가지고 인자 어트게 어트게 취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취직해가지고.}

10201 @ 응. {응.}

10201 # 남성:고 인자 금무허다가. {남성고, 이제 근무하다가.}

10201 # 더 오래 사라야 헐꺼신디 그 사라미. {더 오래 살아야 할 것인데 그 사람이.}

10201 # 갇썸. {갇어.}

10201 @ 응. {응.}

10201 # 참, 점:자년 얌'저년 사라민디. {참, 점잖은 암전한 사람인데.}

10201 # 우리가 지금 오늘 날짜를 ... {우리가 지금 오늘 날자를 ...}

10201 @ 허허허허. {하하하하.}

10201 # 그래서 외지 생화를 한... 음, 한 오년 칠:년... {그래서 외 생활을 한 ... 음, 한 오년 칠년 ...}

10201 # 한 음:년 힐썸 음:년. {한 육년 했어, 육년.}

10201 @ 음:년 정도. {육년 정도.}

10201 @ 그 후로는 인제 계속 여기서 사는 ... 농사만 ... {그 후로는 이제 계속

여기에서 사는 ... 노사만 ...}

10201 # 사실 말 힌짜나 농작도 벨로 읍꼬, 그때 이, 마저가지고 그냥. {사실 말
했잖아 농작도 별로 없고, 그때 이, 맞아가지고 그냥.}

10201 # 가진 ... {갖인 ...}

10201 # 그래도. {그래도.}

10201 @ 자제부는 칠남매를 두셴는데 어떠케 다: 여우셴썬요. 그 농사로. {자제분
은 칠남매를 두셴는데 어떻게 다 여우셴어. 그 농사로.}

10201 # 응. 다 여윌썬. {응. 다 여윌어.}

10201 # 그 여우니라고 욱:뽀제:에. {그 여우느라고 욱봤지.}

10201 # 그리서 갈:치도 다 모더고. {그래서 가르치지고 다 못하고.}

10201 @ 응. {응.}

10201 # 응. {응.}

10201 # 인자 고등학교, 아들 세:노미지마는, 크:나들 두채아들 점문대 보내고, 썬:
채아덜만 점북대 나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아들 세놈이지만, 큰아들 둘째
아들 전문대 보내고, 셋째아들만 전북대 나와가지고.}

10201 # 그때 바로 가가 조금 공부를 잘 헐썬, 때 가가지고. {그때 바로 그 아이
가 조금 공부를 잘 했어, 전북대 가가지고.}

10201 # 할:라기업. {한라기업.}

10201 @ 응, 건설회사? {응, 건설회사?}

10201 # 건설회사 아니고 부품회사. {건설회사 아니고, 부품회사.}

10201 # 안:성가 인따가. {안성에 있다가.}

10201 # 이. {이.}

10201 # 대전 가따, 대전썬 그 회사가 그런타너게. {대전 갔다, 대전에서 그 회사
가 그렇지 않하니까.}

10201 # 강원도 원주가서 인따가. {강원도 원주에 가서 있다가.}

10201 @ 응. {응.}

10201 # 장:년 유월마레 유월따레. {작년 유월달에 유월달에.}

10201 # 인도로 갈꾸만, 인도로. {인도로 갔그만, 인도로.}

10201 # 인도 지사에 거 가가지고, 거그 금무허고 인는다. {인도 지사에 그 가가
지고, 거기 근무하고 있는데.}

10201 # 아덜 두런 다 부산 까 일썬. {아들 둘은 다 부산에 가서 있어.}

10201 @ 응. {응.}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부사느로 중학교 마치고 부사느로 갈따니까요, 그 사람 생가기 갑짜기
나네. {부산으로 중학교 마치고 부산으로 갔다니까, 그 사람 생각이 갑짜기

나네.}

10201 # 크게 기억나. {크게 기억나.}

10201 # 한 또 역시 가가지고 지가 그때 인자 중하걸 마치고 @ 예:. # 또 역시
고등학교까지 어트게 마'치고 ... {한 또 역시 가가지고 지가 그때 이제 중학
을 마치고 @ 예. # 또 역시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마치고 ...}

10201 @ 혼자서 그러케 하신거여? {혼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0201 # 네. {예.}

10201 # 그리고 머 ... {그리고 뭐 ...}

10201 # 인자 그래가지고 기공:: 이럴 배왕썬요. {이제 그래가지고 기공 일을 배웠
어요.}

10201 @ 야::! {야!}

10201 # 그리가지고 기공사 일 허다가 인자 자기가 경:영일 허고. {그래가지고 기
공사 일 하다가 이제 자기가 경영을 하고.}

10201 @ 예. {예.}

10201 # 그 지금 부사네 예, 기공 여납폐가 인끄덩, @ 응응응. # 그래가지고 인자
참 거그서 ... {그 지금 부산에 예, 기공 연합회가 있거든, @ 응응응. # 그래
가지고 이제 참 거기서 ...}

10201 # 뭐 여 여기서 호남에서 머쳐 혼자 가가지고 거그서 참 채금자까지 허고,
**까지 허고 그저 그대:로 인자 그대로 유지허고 인썬요. {뭐 여, 여기서 호남
에서 먼저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참 책임자까지 하고, **까지 하고, 그저 그
대로 이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10201 # 기공소털 채레가지고 기공소까지 허고 ... {기공소를 차려가지고 기공소까
지 하고 ...}

10201 @ 아::! {야!}

10201 # 그 인자, 그저는 개인 기공소가 일뜨니 지그면 그냥 또 종합 ... {그 이제,
그전에 개인 기공소가 있더니, 지금은 그냥 또 종합 ...}

10201 @ 응::. {응.}

10201 # 기공소가 일뜨만. {기공소가 있더만.}

10201 @ 그러체 애. {그렇지 예.}

10201 # 거기서 인자 한 칠팔십명 데리고 그 ... {거기서 이제 한 칠팔십명 데리고
그 ...}

10201 @ 칠팔십명? {칠팔십명?}

10201 # 예. {예.}

10201 # 으, 기공 은 ... {응, 기공은 ...}

10201 @ 그럼 크나든님도 거기서 이라시는 거예요? {그럼 큰아드님도 거기서 일
하시는 것이지요?}

10201 # 아! 그란체. {아! 그렇지 않지.}

10201 # 저 별또 또 인자 @ 또. # 어 개인 거시건건 인제. {저 별도로 또 제 @ 또. # 어, 개인 거시기한 것은 있지.}

10201 @ 아이고! {아이고!}

10201 # 정년 마즌 동생, 그 정년 퇴직할 헛썸. {정년 맞은 동생, 그 정년퇴직을 했어.}

10201 @ 아, 동생부는? {아, 동생분은?}

10201 # 어, 그래가지고 인자 개:이니 팔리럴 채리고 인제, 기공소럴. {응,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이 관리를 차리고 있지, 기공소를.}

10201 @ 아. {아.}

10201 # 공개 여그덜 지덜 개인썸그로 인자 기공소럴 채리고. {그러니까 여기들 자기들 개인적으로 이제 기공소를 차리고.}

10201 @ 그럼 크나든님도 그:: 동생분 영향을 바다서 # 아, 영향얼 바다가지고 그러지 이. @ 그러케 하신거네요? 어. {그러면 큰아드님도 그 동생분 영향을 받아서 # 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이.}

10201 # 최고 학부년 안나완쓰도 만자면 @ 응. # 기공파 {최고 학부는 안 나왔지만 말하나면 @ 응. # 기공파.}

10201 @ 응, 부사네서? {응, 부산에서?}

10201 # 으, 부산썸. {응. 부산에서.}

10201 # 중국까지 가따와가지고 인자 그 사어벌 동생이 마러자면 둘따. {중국까지 갔다와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동생이 말하자면 둘 다.}

10201 @ 그거 도니 팬찬타고 하더라고. {그것 돈이 팬찮다고 하더라고.}

10201 # 애, 그거:이 마 그 버:리는 팬차년 모양인디 @ 응응응. # 건강상 그거시 축:: 안저서만 그걸 허고인쓰니까 그거 썸 머 ... {예, 그것이 뭐 그 벌이는 팬찮은 모양인제, @ 응응응. # 건강상 그것이 썸 앓아서만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썸 뭐 ...}

10201 @ 그러쵸 그러기는 허지마는 버리로는 팬차능건 # 애. # 가터라고. {그러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벌이로는 팬찮은 것 # 예, 같더라구요.}

10201 # 기 *** 내 동생, 참 기공 허고 인제. {기 *** 내 동생, 참 기공하고 있지.}

10201 @ 응. {응.}

10201 # 내 아덜 그러제 둘, 두 세시나 기공어벌 허고 인제. {내 아들 그렇지 둘, 둘 셋이니 기공업을 하고 있지.}

10201 @ 그러니까. {그러니까.}

10201 # 어. {응.}

10201 @ 아치메 오늘 아치메 사진 보면서 사시른 아이구! 그냥 보는 검마느로도 # 또 이따 봉개 또. {아침에 오늘 아침에 사진 보면서 사실은 아이구!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 또 있다 보니까 또.}

10201 # 우리 두:채 또 그런 성께기 인썸. {우리 둘째 또 그런 성격이 있어.}

10201 @ 응::. {응.}

10201 # 어떤 나:서가지고, @ 응. # 채김자 안 자기가 아페서 그런 그, 어:떠게
히가지고 또. {어떤 나서가지고, @ 응. # 책임자 안 자기가 앞에서 그런 그,
어떻게 해가지고 또.}

10201 # 어: 기공 여나뵈 지금 회장으로 인제. {응, 기공 연합회 지금 회장으로 있
지.}

10201 @ 어. {응.}

10201 # 그거또 이상하게 되냐씨. @ 부사네서? 응. {그것도 이상하게 되었어.
@ 부산에서? # 응.}

10201 # 네, 인자 기공:: 그거또 선출허드만, @ 어. # 투표대로. {예, 이제 기공
그것도 선출하더만, @ 영. # 투표대로.}

10201 # 다 기공:사더리. {다 기공사들이.}

10201 @ 그:려요. {그래요.}

10201 # 그레가지고 또 선추레가지고 회:장지걸 만꼬 인썸개. {그레가지고 또 선
출해가지고 회장직을 맞고 있으니까.}

10201 # 그걸 볼라 머덜 볼라, 좀 바뿌제. {그것을 볼라, 뭇을 볼라, 좀 바쁘지.}

10201 # 그렇걸 또 성께기 또 그런 성께기 또 인썸. {그런 것을 또 성격이 또 그
런 성격이 또 있어.}

10201 # 지기 성언 그런 성께기 아난디. {자기 형은 그런 성격이 아난데.}

10201 # 또 한동안 또 이: 호:남 ... {또 한동안 또 이 호남 ...}

10201 @ 사진좀 보면서, 사지를 가져오께요 저방에 인떠만. {사진 좀 보면서, 사
진을 가져 올께요, 저 방에 있더만.}

10201 # 그 또 한동안언 또 호:남 향우회 예: 회장얼 또 허고 인제. {그 또 한동안
은 또 호남 향우회 예, 회장을 또 하고 있지.}

10201 # 가가? {그 애가?}

10201 # 허다가 그건 내노코 인자 기공 여나뵈 지금 회장이지. {하다가 그것은 내
놓고 이제 기공 연합회 지금 회장이지.}

10201 @ 이 양반? {이 양반?}

10201 # 응, 야가. {응, 그 아이가.}

10201 # 이 내 또 훨 크나고, 이건 내 세채고 ... {이 내 또 큰애고, 이것은 내 셋
째이고 ...}

10201 @ 허허허. {허허허.}

10201 @ 임물도 다: 그냥 휘:너지고, 아이고. {인물도 다 그냥 흰하시고, 아이고.}

10201 # 그리서 내가 이 @ 보면 볼썽로 즐거워. {그래서 내가 이 @ 보면 볼썽
즐거워.}

10201 # 내가 그 담:배럴 끈 워니니 또 인제. {내가 그 담배를 끊은 원인이 또 있

지.}

10201 @ 아! {아!}

10201 # 그전부터 아 인자 담배릴 꼬너야겄따. {그전부터 아 이제 담배를 끊어야 겠다.}

10201 @ 응. {응.}

10201 # 내가 찡피해서 다 예기서 먼 그거 하:급초 피능겄또 그러코 ... {내가 찡 피해서 다 여기서 뭘 그거 하급초 피우는 것도 그렇고 ...}

10201 @ 응. {응.}

10201 # 내가 인제 이걸 이 고:급 땀배, @ 응응응. # 필 정도가 된다며년 그런 행 폐니 일씨며년 오:심 너머서 그런 생가겄 가전써. {내가 이제 그것을 이 고급 담배, @ 응응응. # 피울 정도가 된다면 그런 형편에 있으면, 오십 넘어서 그 런 생각을 가졌어.}

10201 @ 예. {예.}

10201 # 피리: 허고 인따가 아:무리도 안되겄뜨라 그마리여, 피안. {피우리라 하고 있다가 아무리해도 안 되겄더라 그 말이야, 피면.}

10201 @ 응.

10201 # 절초릴 안돼, 내 담배릴 몽꿔겄써. {절초를 안 돼, 내 담배를 못 끊겄어.}

10201 @ 응. {응.}

10201 # 근디 함버년 고등학교 인자 지나겄 허넌디 @ 응. {그런데 한 번은 고등 학교 이제 진학을 하는데 @ 응.}

10201 # 학교서 통지가 완뜨라 그마리여. {학교에서 통지가 왔더라 그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인자 중학교릴 마치고, 그 학교에서 어! 예기서 인자 시골 학교니까 판디 로 가감시 @ 응. # 맨뻔 나보고 오라게서 여따 지나겄 시키쑈 시키쑈, 다님 선생이 이런 일도 일쑤꼬.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그 학교에서 어! 여기에서 이제 시골 학교니까 다른 곳으로 갈까봐 @ 응. # 몇 번 나보고 오라고 해서 여기에다 진학을 시키세요 시키세요, 담임선생이 이런 일도 있었어.}

10201 @ 예. {예.}

10201 # 그 인자 고등학교 인자 그러 그러 그러 기양 내 행폐니도 나 행폐니 몽뵈 제, 판 데로 갈 행폐니 몽뵈ㅈ. {그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래 그래 그래 그냥 내 형편에도 나 형편이 못 되지, 다른 곳으로 갈 형편이 못 돼.}

10201 @ 응. {응.}

10201 # 지방에서, # 2 행이나 또 판데로 보내까미. {지방에서 # 2 행어나 또 다 른 곳으로 보낼까봐.}

10201 @ 응. {응.}

10201 # 그 인자 고등학교릴 지낙 헐넌디. {그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 했는데.}

10201 # 시겄 보내 완넌디, 어! 함번 교:장이 오라게서 통지릴 해서 간떠니. {소식

을 보내 왔는데, 어! 한번 교장이 오라고 해서 통지를 해서 갔더니.)

10201 @ 응. {응.}

10201 # 인자 두:털 가따 인자 장학생 수여시걸 한다 그마리여. {이제 둘을 가져다 이제 장학생 수여식을 한다 그 말이야.}

10201 # 그러면서 인자 삼년간, 공개 인자 드러간는디 인자 장학꼬멸 받게 되야인 씨. {그러면서 이제 삼년간,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있어.}

10201 @ 참:: {참.}

10201 #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10201 # 그래서 그걸 다 @ 삼년간? # 애. {그래서 그것을 다 @ 삼년간? # 예.}

10201 # 그날 그해 그해만. {그날 그해 그해만.}

10201 @ 응. {응.}

10201 # 가게 생긴따 그마리여. {가게 생겼다 그 말이야.}

10201 # 근디 또 인자 인자 친구가 인제, 그 사람하 가:하고 두:리. {그런데 또 이제 이제 친구가 있지, 그 사람하고 그 애 하고 둘이.}

10201 @ 응. {응.}

10201 # 인자 허넌디, 가마니 그걸 교장선생니만테 추앙얼 허고, 야가 참 공부도 잘허고 성실허고 근다고. {이제 하는데, 가만히 그것을 교장선생님한테 추앙을 하고, 이 애가 참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그런다고.}

10201 # 그 교장이 누구냐며넌 나으 일련 섬배열씨. {그 교장이 누구냐 하면 내 일련 선배였어.}

10201 @ 응:: # 고창고 꼭 일련 섬배. @ 응. {응. # 고창고 꼭 일련 선배. @ 응.}

10201 # 근데 치:니 허던 안는 폐넌디 내 또 차이가 일끼 때무네. {그런데 친하게 하지는 않는 편인데, 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201 @ 응. {응.}

10201 # 그 사람 다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까지 간, 학교 교장인디. {그 사람 다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대학까지 간, 학교 교장인데.}

10201 @ 응. {응.}

10201 # 인자 친구넌 아녀도 그 사라미 섬밴디 이:넌 섬배열씨. {이제 친구는 아니어도, 그 사람이 선밴데 이넌 선배였어.}

10201 @ 응. {응.}

10201 # 공개 그때, 예! 장학꼬멸 타년거설 보고 도라서 오넌디. {그러니까 그때, 예! 장학금을 타는 것을 보고 돌아서 오는데.}

10201 # 가고럴 힘제 내가. {각오를 했지 내가.}

10201 @ 응응. {응응.}

10201 # 허! 도와는 못쫄찌언정 마리여 이, @ 응. # 그 씨넌 못펼찌언정, 이 씨잘

떠엄넌, 이 연초랑거선 백:캐무해허거던, 이거시 피어받뜯들 한 습판::제기제.
{허! 도와는 못 줄지언정 말이야 이, @ 응. # 그 씨는 못 될지언정, 이 쓸데
없는, 이 연초라는 것은 백해무익하거든, 이것이 피워보았던들 한 습관적이
지.}

10201 # 그리서 그때부터 담뱃 켜느리.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으리.}

10201 # 차라리 그걸 가지고 허다모데 공채기라도 하나 다 사준다든지 마리어 이?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하다못해 공책이라도 하나 사준다든지 말이야 이?}

10201 @ 응. {응.}

10201 # 내가 담배라 허다모데 땅:거라도 협조해질마넌 그런 늘 대치기 마:으미라
도 일써야 허겔뜨라 그마리어. {내가 담배라 하다못해 다른 것이라도 협주해
줄만한 그런 늘 대책이 마음이라도 있어야 하겠더라 그 말이야.}

10201 # 그래 그 담배릴 끈는다. {그래 그 담배를 끊는다.}

10201 # 그리가지고 그때 콩코, 해:리에 불리리 인썸따 그마리어. {그래가지고 그
때 끊고, 해리에 불 일이 있었다 그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그때 인자 불리리 인썸는다, 그때 지검씨 인자 부사:닝가 갇쓸때고, @
응. # 근디 그때 또 어, 가가지고 그때 머시냐며넌, 인자 갑:계가 인썸가지고
거게:: 자녀 계론시기라고 저 참서글 모더게서, 내가 대:리로 참서건 때라 그
마리어. {그때 이제 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 이제 부산인가 갔을
때고, @ 응. # 그런데 그때 또 어, 가가지고 그때 무엇이내 하면, 이제 갑계
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녀 결혼식이라고 저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내가 대
리로 참석한 때라 그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근디 강개 아넌 사람도 인꼬 그런디, 인자 천 순서가, 인자 만나며넌 술
짜썸 아니면 담배한대 피라고 이런 인자 그거시 인사거던. {그런데 가니까 아
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첫 순서가, 이제 만나면 술좌석 아니면 담배 한
대 피우라고 이런 이제 그것이 인사거든.}

10201 # 서로 그런디 그때부터 담배릴 끈끼 시작헐써. {서로 그런 그때부터 담배
를 끊기 시작했어.}

10201 @ 야::! {아!}

10201 # 거 누가 담배릴 귀:너드라고, 뜯떨 양코. {그 누가 담배를 권하더라도, 듣
지를 앓고.}

10201 # 그래 지비안트로 완썸요. {그래 집으로 왔어요.}

10201 # 하:따! 도라오넌디 몯빠우겔써. {아따! 돌아오는데 몯 배기겠어.}

10201 # 어, 중되기 되ㄴ가지고 이건 담배릴 꼭 피야썸건넌디. {어, 중독이 되어가
지고 이것은 담배를 꼭 피워썸야 겠는데.}

10201 # 그런디 자우간 가고럴 헐따 그마리어. {그런데 좌우간 각오를 했다 그 말

이야.}

10201 # 그건 내 월래 또 승:껴기 저너그 담:배럴 담배까어고 라이타어고 머리다 두고 피넨 사라미여. {그것은 내 원래 또 성격이 저녁에 담배를 담배를 담배 갑하고 라이터하고 머리에다 두고 피는 사람이야.}

10201 # 그레머넌 내가 수맹이 찰롭틈니다 이. {그러면 내가 수명이 짧습니다, 이.}

10201 @ 예. {예.}

10201 # 너무나도 공상이 마네서 @ 응::. # 아버지어고 잘 때, 아버지 게:실 때도, 내 나가서 자다가 담배를 피넨 사라미여. {너무나도 공상이 많아서 @ 응. # 아버지하고 잘 때, 아버지 게실 때도 내가 나가서 자다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야.}

10201 @ 어. {어.}

10201 # 자미 아노:치가. {잠이 안 오니까.}

10201 @ 어::. {어.}

10201 # 이걸 찌걸 인자 기아지벌 질따가 ... {이것 저것 이제 기와집을 짓다가 ...}

10201 # 그마만치 지:그밍개 자멸 잘자요. {그마만치 지금이니까 잠을 잘 자요.}

10201 # 절물 때 더 못 잔제, 자미 아놔. {젊을 때 더 못 잤지, 잠이 안 와.}

10201 @ 응. {응.}

10201 # 모등걸 내 압길, 내가 이러케 되ㄴ다파능거, 이걸 생가걸 때, @ 응. # 가정이 워낙 참 쪼달리기 때미네. {모든 것을 내 앞길,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 이걸 생각을 할 때, @ 응. # 가정이 워낙 참 쪼달리기 때문에.}

10201 @ 응. {응.}

10201 # 저너게도 꼭 담배집까걸 내 노코 피:지 담배까걸. {저녁에도 꼭 담배집 콧을 내 놓고 피지, 담배갑을.}

10201 @ 근디 아: 이놈 담배가, 또 안식구나 일씨면 또 무시라도 허면 인자, 지금 담배 끄는 사람드런 벨:걸 다 ㄴ:떨 가따노코도 끈:네 먼 은:다넌 노코 기렌디. {그런데 아 이놈 담배가, 또 안식구나 있으면 또 무엇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담배 끊는 사람들은 별것을 다 껌을 갖다놓고도 끊네, 뭘 은단을 놓고 그랬는데.}

10201 # 이거 그때 농초네 허다모데 어, 쿵:이라도 보까서 마리여 이, 그거라도 집 찍꺼리고 이렐씨면 씨건는다. {이것 그때 농촌에 하다못해 어, 쿵이라도 볍아서 말이야 이, 그것이라도 집적거리고 이랬으면 쓰겠는데.}

10201 # 아: 이건 이건 텅:: 비연는다, 혼자 이쓰니까. {아! 이것은 이것은 텅 비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10201 # 뽕뽕닐 일라따 드레다 머털 하나 머글꺼 머글꺼 인능가 엄능가 도라댕기 다가 자고 인자. {몇 번을 일어났다 들었다 무엇을 하나 먹을 것 먹을 것 있

는가 없는가 돌아다니다가 자고 이제.}

10201 # 자멸 켜기 자야넌디, 안저씨머넌 그냥 미치겠써. {잠을 세게 자야하는데, 앓아있으면 그냥 미치겠써.}

10201 # 그래선 머 정심뽕헐쓰면 도라다니제 차라리. {그래서는 뭐 정신병이었으면 돌아다니지 차라리.}

10201 # 시간썰그로 그냥 도라다녀. {시간적으로 그냥 돌아다녀.}

10201 # 이리가지고 일쭤일가넌 견딜따 그마리여. {이래 가지고 일쭤인 간을 견뎌다 그 말이야.}

10201 # 아 그리서 견뎌는디, @ 허허허. # 견디곤 일쭤일간 지냉개 쪼끔 날떠만. {아 그래서 견뎌는데, @ 허허허. # 견디고는 일쭤일 간 지내니까 조금 낱더만.}

10201 # 근디 담배릴 끄니면서 그때 단:사라면 나이트릴 드러어 내버리고, 피:던 담배릴 그냥 뿌서버리고 내:이리고 아조 그릴따넌디 나넌 절때 그레겍 업써. {그런데 담배를 뚫으면서 그때 다른 사람은 라이터를 들어 내버리고, 피던 담배를 그냥 부서버리고 내버리고, 아주 그랬다는데 나는 절대 그런 법 없어.}

10201 @ 응. {응.}

10201 # 담:배 그:대로 가지고 다녔쎄요. {담배 그대로 가지고 다녔어요.}

10201 @ 야:!! {야!}

10201 # 저너그도 그저 노코자고, 왜냐하며넌 그걸도 읊쓰면 더ersi겠떠라 그마리여. {저녁에도 그저 놓고 자고, 왜냐하면 그것도 없으면 더하겠떠라 그 말이야.}

10201 # 와서 필라고 이러설따가 아! 그냥 주저앙꼬. {와서 피려고 일어섰다가 아! 그냥 주저 앓고.}

10201 @ 응. {응.}

10201 # 담:배릴 태:서 무런따가 도로 노코, @ 응. # 어:디 나갈때 꼭 담배릴 느코댕쎄씨. {담배를 태워서 물었다가 다시 놓고, @ 응. # 어디 나갈 때 꼭 담배를 넣고 다녔어.}

10201 # 2 허허허. {허허허.}

10201 # 느코 땡:임서 끄넌써. {넣고 다니면서 뚫었어.}

10201 @ 하하하. {하하하.}

10201 # 내안자 그레기 여그 싸람덜, 나넌 담:배릴 가지고 땡김선 끄넌따. {내 이제 그렇기에 여기 사람들, 나는 담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뚫었다.}

10201 # 지가 끈꺼시 참 마:으미 그냥 금방 이시면 일씨야 더 살건넌디. {제가 뚫을 것이, 참 마음이 그냥 금방 있으면 있어야 더 살겠는데.}

10201 # 그리서 담:배, 내가 냄:새라도 만꼬 그냥 내려노코 그냥 다 땡겨여. {그래서 담배, 내가 냄새라도 맞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다 땡 것이야.}

10201 # 이래가지고 나넌 담:배 가지고 땡김서 담배릴 끄넌써. {이래 가지고 나는

담배 가지고 다니면서 담배를 끊었어.}

10201 @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10201 # 그리서 인자 담배릴 끄닌는다.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었는데.}

10201 # 가장 그때 담배 끄너지고 더걸 봉거선, 그때 당시 우리 안식구가 네조 양어로 음 어 전주 예:수병어네서 수수릴 때라 그마리여. {가장 그때 담배 끊 어가지고 덕을 본 것은, 그때 당시 우리 안식구가 뇌종양으로 음 어 전주 예 수병원에서 수술할 때라 그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그런데, 가:장 조용거시, 거개 가도로 온 사람덜 보걸 배우자가 마리어 보호자더리, 그냥: 하:장시레 가서 담배 피우고 여:가도 담배 피우고 그냥 썬 그러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거기에 가족으로 온 사람들 보기 배우자가 말이야 보호자들이, 그냥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우고, 여기 가도 담배 피우고 그냥 현 그러니까.}

10201 # 근디 나넌 그런 거시 읍썬뜨라 그마리여 끄너지릴쓰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이 없었더라 그 말이야 끊어버렸으니까.}

10201 @ 응. {응.}

10201 # 그개 함번 참 큰 더글 보고 @ 응. # 거기에넌 인자 신경얼 안쓰니까. {그개 한 번 참 큰 덕을 보고 @ 응. # 거기에는 이제 신경을 안 쓰니까.}

10201 # 아! 이럴썬는다. {아! 이랬었는데.}

10201 # 2 그때 나 육개월배끼는 못산다겐썬요. {그때 나 육개월밖에는 못 산다고 했어요.}

10201 @ 세:상에! {세상에!}

10201 # 그리가지고 ... {그래 가지고 ...}

10201 # 2 이:심 이십너니 넘언넌디. {이십 이십년이 넘었는데.}

10201 # 야! {야!}

10201 # 2 하하하하. {하하하하.}

10201 # 일:년 그리서 한 # 2 이십너니 너면썬. # 일:개월 일개월 치료릴 받꼬. {일년 그래서 한 # 이십년이 넘었어. # 일개월 일개월 치료를 받고.}

10201 # 음넉, 양:넉 ... {음력, 양력 ...}

10201 # 2 그렇게 육개월도 못산단 소리릴 듣꼬넌 나넌, # 시비월 삼시빌날 퇴원 썰 썰. # 2 그때넌 늬:물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육개월도 못 산다는 소리를 듣고는 나는, # 십이월 삼십일날 퇴원을 했지. # 2 그때는 눈물 나오더라고.}

10201 # 2 내가 육개월배끼 못산다구 # 시비릴 시비릴 퇴원허넌디. {내가 육개월 밖에 못 산다고 # 십이월 십이월 퇴원하는데.}

10201 # 인자 처으메넌 이:: 그거시 그러더만, 인자 거 ... {이제 처음에는 이 그것이 그렇더만, 이제 그 ...}

10201 # 그 머리릴 그건 무:시라고 허냐, 밑딸 치료릴 허네티. {그 머리를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냐, 몇 달 치료를 하는데.}

10201 # 먼: 치료라고허제? {뭔 치료라고 하지?}

10201 @ 에말아이? {엠알아이?}

10201 # 에말아이넨 차자지이고. {엠알아이는 ***고.}

10201 @ 응. {응.}

10201 # 도중으 그 저 하! 이런 병시니 ... {도중에 그 저 하! 이런 병신이 ...}

10201 @ 항암 ... {항암 ...}

10201 # 항암치료릴 허네티. {항암 치료를 하는데.}

10201 # 방:사전 치료 @ 응응응 # 그걸 히안다는 거여. {방사전 치료 @ 응응응. #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야.}

10201 # 그리머 저 나오넨디 또 방:을 어더야 헐다 그마리여. {그러면 저 나오는데 또 방을 얻어야 한다 그 말이야.}

10201 # 저::그 인자, 봄비가 지나갈 참인디, 으그 여그서 그까지 땡길쭈도 읍꼬. {저기 이제, 봄비가 지나갈 참인데, 여기 여기서 거기까지 다닐 수도 없고.}

10201 # 방얼 어더야 허넨, 흘 채우고 히야 한단 쏘 드러따 그마리여. {방을 얻어야 하는, *흘 채우고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야.}

10201 # 방 어꼬, 거그서 인자 방사전 치료릴, 그때넨 항:암치료가 아니라 방:사전 치료라구렐쎄. {방 얻고, 거기서 이제 방사전 치료를, 그때는 항암치료가 아니라 방사전치료라고 그랬어.}

10201 @ 응. {응.}

10201 # 어이! 나:중에 퇴원헌날, 퇴원허라군디 그걸또 퇴위늘 모:더게 생겐따 그마리여, 그리서는. {어이! 나중에 퇴원한 날, 퇴원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퇴원을 못하게 생겼다 그 말이야, 그래서는.}

10201 # 그때 돈, 그때또너로 오:마넢잉가 담당 과장얼 가따 쥘쎄. {그때 돈, 그때 돈으로 오만원인가 담당 과장을 갖다 쥘어.}

10201 @ 응. {응.}

10201 # 일쭈일검만 더 치료릴 받게 헤달라. {일주일 간만 더 치료를 받게 해 달라.}

10201 @ 응. {응.}

10201 # 그리가지고는 그때똥 오:마너넢 인자 쥘꼬만. {그래가지고는 그때 돈 오만원을 이제 주었그만.}

10201 @ 응. {응.}

10201 # 그러고 인자 일쭈일간 더: 연기릴 힘쎄. {그리고 이제 일주일 간 더 연기를 했지.}

10201 # 그때 담당 과장 슬가장 참 잘 만났쎄쎄요. {그때 담당 과장 설 과장 참 잘 만났어요.}

10201 # 아 그리가지고년 인자 퇴언 혈쩌게, 지비서 한 처으매년 일:쭈마네 지비가 인따가, 일쭈일마네 함번씩 오라구더~이, 나중에 인자 보:름마네 옹개, 아! 그말만 드러도 ... {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퇴원할 적에, 집에서 한 처음에는 일주일만에 집에 가 있다가, 일주일만에 한번씩 오라고 하더니, 나중에 이제 보름만에 오니까, 아! 그 말만 들어도 ...}

10201 @ 응. {응.}

10201 # 어 갠찬게따니, 아! 그럼 갠차너걸따구 해가지고, 움:년 hing페너 거 방얼 어더야 되제, 땡김선 날:마다 거저 항:암치료 인자년 방:사전치료 바들쭈가 읍뜨라 그마리여. {어 팬참졌다고 하니, 아! 그럼 팬참졌다고 해가지고, 없는 평편에 그 방을 얻어야 되지, 다니면서 날마다 그 항암치료 이제는 방사선치료 받을 수가 없더라 그 말이야.}

10201 # 그리가지고 지비럴 안완쭈떠여, 완넌디. {그래가지고 집에를 안 왔습디여, 왔는데.}

10201 # 그렇게 거름도 겨:우 걸:째. {그러니까 걸음도 겨우 걷지.}

10201 # 근디, 지금가트며년 거러오꺼시오. {그런데, 지금 같으면 걸어올 것ियो.}

10201 # 오면 차로 옹개, 무장썰년 인자 택씨럴 타고 와야할 파닌디. {오면 차로 오니까, 무장에서는 이제 택시를 타고 와야 할 판인데.}

10201 # 그럴 형:페니 몬떠거덩. {그럴 형편이 못 되거든.}

10201 # 전주서 인자, 그 교통퍼네 인자 차럴 타고, 일반 차럴 타고 인자 무장까지 오면, 거그서 거러:온다 그마리라. {전주에서 이제, 그 교통편에 이제 차를 타고, 일반 차를 타고 이제 무장까지 오면, 거기서 걸어온다 그 말이야.}

10201 # 겨:우 인자 지팽이를 집꼬 거러간다 그마리여 @ 아이구! {겨우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간다 그 말이야. @ 아이구!}

10201 # 지그미야 어디가드니 겨:러올꺼시오. {지금이야 어디 가든지 걸어올 것이여.}

10201 # 그리기도 허고 또, # 2 내가 모동개 업꼬도 오고 업꼬도 오고 그랜썰. # 치료 받따가 받따가 그땐 날 쏸땐 조운:디. {그렇기도 하고 또, # 2 내가 못 오니까 업고도 오고, 업고도 오고 그랬어. # 치료 받다가 받다가 그때는 날 좋은 때는 좋은데.}

10201 # 그땐 이걸 도:로가 지리 진디고, 아조 포장 아년 비포장 도론디 마리여. {그때는 이것 도로가 길이 진 데고, 아주 포장 안한 비포장도로인데 말이야.}

10201 @ 응. {응.}

10201 # 어:썰 거러댕기도 모더지 인자 시아네 거 빨걱빨 눈 녹꼬 허면 그냥, 한 다리 지연디, 하이구! 데리고 오넌디 거러올쭈 인능가. {어썰 걸어 다니지도 못하지 이제 시한에 그 벌걱벌걱 눈 녹고 하면 그냥, *** **, 아이고! 데리고 오는데 걸어올 수 있는가.}

10201 # 이런디 가트면 머 손잡꼬라도 충:부니 거러오제. {이런데 같으면 뭐 손잡

고라도 충분히 걸어오지.}

10201 @ 응. {응.}

10201 # 그때 겨으린디 누:넌 와따가 인자 노공개 사람 땡깡개 질척질척 그냥 이
이 모양인디. {그때 겨울인데 눈은 왔다가 이제 녹으니까 사람 다니니까 질척
질척 느양 이 이 모양인데.}

10201 # 어! 아:푼사라미 한 덩이 짹:떼기 지구 땡긴 사라미 올쑤 일까디. {어! 아
픈 사람이 한 덩이 작대기 지고 다니는 사람이 올 수 있간데.}

10201 # 그리서 인자 붙잡꼬, 겨우 머덜때넌 다 이불만해서 인자 건너오고 이를
땡겐는디, 그때 다 전주서 다니면서 거:러서 무장까지 땡게 거:러가지고 차타
고 전주까지 땡김서 치료릴 바달쏘. {그래서 이제 붙잡고, 겨우 땡할 때는 다
이불만 해서 이제 건너오고 일을 다녔는데, 그때 다 전주에서 다니면서 걸어
서 무장까지 다녀 걸어가지고 차타고 전주까지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소.}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1 @ 서, 성, 성하미, 어터게 되시쥬? {성함이 어떻게 되시쥬?}

10101 # 저요? @ 예. {저요? 예.}

10101 # 예. 복췌짜에 수풍님짜예요. 기, 김.{예. 복 복 자에 수풍 림 자예요. 김.}

10101 @ 그리고, 여기 주소가 어티게 되요? 여기 주소가?{그리고, 여기 주소가 어
떻게 되요? 여기 주소가?}

10101 # 여기 주소요? @ 예. {여기 주소요? 예.}

10101 # 전북 고창군 무장면 양공니 미륵싸요. {전북 고창군 무장면 양곡리 미륵
싸요.}

10101 # 여 미륵싸가 업썸는디 여가 절 생기고 시방 미륵싸가 이썸요.{여기 미륵
사가 없었는데, 여기에 절 생기고 지금 미륵사가 있어요.}

10101 # 옛날버터 인는 그 미릉님, 돌 미릉니미 이썸요. 여가. {옛날부터 있는 그
미륵님, 돌미륵님이 있어요, 여기가.}

10101 @ 그래요? # 예, 저라네 저 쪼게가. 그걸로 해서 거가 시방 저리 생겨썸
요.{그래요? 예. 절 안에 저 쪽에가. 그것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절이 생겼어
요.}

10101 # 근디, 그 참 돌미륵님도 신기해요.{그런데, 그 참 돌미륵님도 신기해요.}

10101 # 내가 인자 그 얘기도 허께.{내가 이제 그 이야기도 할게.}

10101 # 고창군 무장면 양공니.{고창군 무장면 양곡리.}

10101 # 저네는 그 미륵싸라고 안 지꼬 여그를 미륵똥이라고 지어썸요. 미릉님 이
때서 미륵똥이라고. 근디 인자는 미륵싸루 되야썸요.{전에는 그 미륵사라고

안 짓고 여기를 미륵동이라고 지었어요. 미륵님 있다고 해서 미륵동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미륵사로 되었어요.}

10101 @ 지금 연세는? 아까.{지금 연세는? 아까...}

10101 # 육십치리오. 이모생.{육십칠이에요. 임오생.}

10101 @ 아까 함짜가, 함짜가 어티게 되신다구 그래쨌?{아까, 함자가, 함자가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지요?}

10101 # 저요? @ 예, 복썸짜에다? # 수풀림짜유. @ 수풀림짜.{저요? 예, 복 복자에다? 수풀 림 자요. 수풀 림 자.}

10101 @ 성씨는, 성씨는 김? # 김, 예. 김해 김씨.{성씨는, 성씨는 김? 김, 예. 김해 김 씨.}

10101 @ 아까 하시던 말씀 해 주시죠? {아까 하시던 말씀 해 주시죠}

10101 # 그냥 거시기 해서 해도 될까요? {그냥, 거시기 해서 해도 될까요?}

10101 @ 그냥 퍼나나게, 그냥, 예, 퍼나나게 허시면 되요.{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 편안하게 하시면 되요.}

10103 # 이 동네 그 가난헌 사라미 부자 된 걸로, 그 얘기로, 잉? {이 동네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 걸로. 그 얘기로.}

10103 # 참 한, 여, 우리 미륵싸 마으레가요, 한 가난헌 부니 이씨씨요.{참, 한, 여, 우리 미륵사 마을에 한 가난한 분이 있었어요.}

10103 # 그 부는, 저 도산, 내산 사르셔, 사르셔씨요.{그 분은 저 도산, 내산 사셔, 사셨어요.}

10103 # 내산 사르션는디, 가난형게 아주머니는 이 옹구방더기, 옹구반데기, 옹지르반데기 거그에다가 저슬 바더요. 저 신원씨 나오는 저슬요.{내산 사셨는데, 가난하니까 아주머니는 이 옹기그릇, 거기에다가 젓갈을 받아요. 저 신원에서 나오는 젓갈을요.}

10103 # 저슬 바드머는, 옹나리는, 지그몬 비느루 봉지에다가 싸쥐찌마는, 저슬 바드면, 생물 가튼거, 조개 가튼 거 깐 거 그런거슬 인자 시장에서 사게되머는 옹날 집끄랭이가 이씨요. 지푸라글 한 가운데 째매가지고 요로케 꺼꺼서 요로케 허머는 오므데 해지거든요.그러면 거그다가 고 조개 산 거슬 부서쥐요, 다머쥐요. {젓갈을 받으면은, 옛날에는, 지금은 비닐 봉지에 싸주지마는, 젓갈을 받으면, 생물 같은 거, 조개 같은 거, 깐 것, 그런 것을 이제 시장에서 사게 되머는, 옛날 짬이 있어요. 짬을 한 가운데 묶은 뒤에 이렇게 꺾어서 요렇게 하면은 오목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조개 산 것을 부어쥐요. 담아쥐요.}

10103 # 그러면 잘몬 따드무면, 잘몬 따머주머는 술 잡쭈꼬 가꼬는 하라버지든, 워디 다 빠져버리고 오고, 술술 빠져빠리고 오고.{그러면 잘못 담아주머는 술 잡쭈고 가지고 오는 할아버지든, 어디 다 빠뜨리고 오고, 술술 빠뜨리고 오고.}

10103 # 그라는 하라버지는 조케 잘 가꼬시는 하라버지도 이꼬.{그렇지 않은 할아버지는 좋게 잘 가지고 오시는 할아버지도 있고.}

10103 # 그런 장사를 해썬요.{그런 장사를 했어요.}

10103 # 그리 장사를 허고 오머는 하라부지는 아우 술찌비 안저서 그 투전, 하토를 허신당게, 하토가 아니라 투저를 허신당게요. 이르게 찌드라능거 이썬요. {그래, 장사를 하고 오면은 할아버지는 아 술집에 앉아서 그 투전, 화토를 하신다니까, 화토가 아니라 투전을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길죽한 것 있어요.}

10103 # 이만치 널벽, 이만치 안 넓꼬, 이 소노배기보다는 쪼끔 널븐디 이르게 지드란헌, 투전이여, 투전.{이만큼 넓은, 이만큼 안 넓고, 이 손 넓이보다는 조금 넓은데, 이렇게 길다란, 투전이야, 투전.}

10103 # 지그문 하투고 근디, 그거뽕고는 엔나레는 투저니락 해썬. 그거를 허셔요.{지금은 화투고 그런데, 그것보고는 옛날에는 투전이라고 했어.}

10103 # 그러구 안찌쓰며는, 부이니, 세상에 나무라도 허고, 드레가 곡썬기라도 가꾸고 허머는 살꺈, 저러고 한 거시 어너 누가 바블 메겨주건느냐고 그러고 형게.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부인이, 세상에 나무라도 하고 들에가 곡식이라도 가꾸고 하머는 살 꺈. 저렇게 하면 어느 누가 밥을 먹여주겠느냐고, 그러고 하니까.}

10103 # 거 친척뽕 한 부니, 여자가 코꾸녀기 저러케 별썬하면 보기 음는 거시라고, 저런 여자가 머시 잘쌀건느냐고.{그 친척벌 되는 한 분이, 여자가 콧구멍이 저렇게 넓으면 복이 없는 것이라고, 저런 여자가 무엇이 잘 살겠느냐고.}

10103 # 그럼서는 머시락 허머는 그 말만 고지드꼬 거 투전 허던 아저씨는 지비 가서 내두룩 간대기고 장에 가서 장보고 돈 하푸니나 버러가꼬 오는 그 냥바늘 가서 투드려대요. {그러면서 무엇이랴 하면은, 그 말만 끝이듣고 그 투전 하던 아저씨는 집에 가서, 내내 간 넣고 장에 가서 장 보고 돈 한푼이나 벌여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을 가서 두들겨 패요.}

10103 @ 카~하이고 저런! {하이고, 저런!}

10103 # 투드려대. 그래도 엔나레는 나가지를 모더고 사러썬요.{두들겨 패. 그래도 옛날에는 나가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10103 # 그러고 살다가 인자 그 부니 도라가셔썬요. 아저씨가요, 잉?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저씨가요.}

10103 # 도라가싱게, 아들 그 지비가 형제고, 따리 사명젠가 형젠가 이썬썬요.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그 집에 형제이고, 딸이 삼 형제인가 형제인가 있었어요.}

10103 # 그러는디, 아드룬 내나 배를 못 채워중게 배가, 배부르게 바블 몬메깁게, 보리바비라도. 너무지비로 인자 깔땀사리를 보내썬요.{그러는데, 아들은 내내 배를 못 채워주니까, 배가, 배부르게 밥을 못 먹이니까, 보리밥이라도, 남의 집으로 이제 꼴머슴으로 보냈어요.}

10103 # 깔땀사리가 소 풀 비어다주고, 푸를 비어가꼬오면 소가 엔나레는 그 푸를

먹꼬 커짜나요, 사러짜나요.{꿀머슴은 소 풀을 베어다주고, 풀을 베어오면 소가 옛날에는 그 풀을 먹고 컸잖아요, 살았잖아요.}

10103 # 그렇게 인자 그 깔땀사리를 보내서 육개월 똥아는 밤만 어더먹꼬 살고, 육개월 똥아는 나락 항 가마니에서 반절, 반 가마니 그 누물 중게, 그놈도 오고 감땅가치 가파서, 옌나래는 이 기계도 업썰게,도구통으로다 이르게 찌어서, 도구통으다 찌어서 그놈을 가꼬 바대서 식꾸끼리 머글 때, {그렇게 이제 그 꿀머슴을 보내서 육 개월 동안은 밥만 얻어먹고 살고, 육 개월 동안에는 나락 한 가마니에서 반절, 반 가마니, 그것을 주니까, 그것을 바로 가지고 와서, 옛날에는 이 기계도 없으니까, 절구통에 이렇게 찼어서, 절구통에다 찼어서, 그것을 가지고 받아서 식꾸끼리 먹을 때,}

10103 # 그 마는 행보글 누려때요. 우리도 이르게 쌀밥 한 꼬니 멍는 때가 이따허고. {그 많은 행복을 누렸대요. 우리도 이렇게 쌀밥 한 끼니 먹는 때가 있다 하고.}

10103 # 저는 지비서, 거그 지비서 깔땀사리 해주고 바블 머거도 싸리라도 쪼까서꺼진 노물 멍넌디, 엄마나 동생이나 누나나는 그도 몬머거.{저는 집에서, 거기 집에서 꿀머슴 해주고 밥을 먹어도 쌀이라도 조금 섞어진 것을 먹는데, 엄마나 동생이나 누나는 그것도 못 먹어.}

10103 # 보리 가라가지고, 여 옌날 매똥에다가 가라가지고, 그놈 죽 꼬려가지고 글로 머는 해요, 꼬녀글 머는,{보리 갈아가지고, 옛날 맷돌에다가 갈아가지고, 그것을 죽 끓여가지고, 그것으로 굶는 것은 면해요. 끼니는 면하는.}

10103 # 그렇게 어린 그 애기가 그거슬 험서도, 그거시 그러케 부모마메 걸렬뜬가 바요.{그러니까 어린애가 그것을 하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부모마음에 걸렸던 가봐요.}

10103 # 그렇게 그 지비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생일을 쉰다든지 해서 머 떠까튼 거슬 허면뇨, 주머는 몬멍는대요.{그러니까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생일을 쉰다든지 해서 뭐 떡 같은 것을 하면은, 주머는 못 먹는대요.}

10103 # 몬머꼬, 이 한 마을 상게 몬머꼬 나두고 이씨머는, 너 아무개야 어찌 떠간명냐 형게, 예, 쫘 이따 머글라고요.{못 먹고, 이 한 마을에 사니까 못 먹고 놔두고 있으면은, 너 아무개야 어찌 떡 안 먹느냐, 하니까, 예, 쫘 이따가 먹으려고요.}

10103 # 그러면 그 주인네, 그 지비서 눈치를 알고, 너 엄마 생각 나서 그러지, 내가 더 주께 머거라, 그러머는 그도 안 머근대요.{그러면 그 주인네, 그 집에서 눈치를 알고, 너 엄마 생각 나서 그러지, 내가 더 줄게, 먹어라, 그러면, 그래도 안 먹는대요.}

10103 # 그러면 인자 거그다 조까 더 보태서인자 이르게 싸 주머는 그놈을 가파서 즈그 엄마하고 즈그 동생들허고 멍는 거시 그르케 자기 마메 감지덕진 행때요.{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서 이제 이렇게 싸 주머는 그 놈을

가지고 와서 자기 엄마하고 자기 동생들하고 먹는 거시 그렇게 자기 마음에 감지덕지 했대요.}

10103 # 그리고 사는디, 인자 나중에는, 그리고 살다가 삼년 차는 가서 사는디, 살 고나게 나락 세 가마니를 바던는디, 삼년차 삼서는.{그리고 사는데, 이제 나중 에는, 그리고 살다가 삼 년 채를 사는데, 살고 나니까 벼 세 가마니를 받았는 데, 삼 년 채를 살면서는.}

10103 # 즈그 엄마가 어트게 삼년차 삼서 나락 세 가마니를 중게, 그애는 그냥 나 락도 기냥 지게에다가 기냥 이르게 이만씩 무꾼 노를 열따바를 지라고, 지구 땡기야고.{자기 엄마가 어떻게 삼 년 채 살면서 나락 세 가마니를 주주니까, 그애는 그냥 벼도 그냥 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만씩 묶은 놈을 열 다발을 지라고, 지고 다녀야 하고.}

10103 # 이리 그만치 더 억썌요.{일이 그만큼 더 억세요.}

10103 # 그거슬 보고 즈그 엄마가 바테 가서 나무 받 새로 범서 바꾸영탱이 양거 서 우러때요.{그것을 보고 자기 엄마가 밭에 가서 남의밭 새로 벌면서 밭구석 에 앉아서 울었대요.}

10103 # 내가 뭘 보갈머리 업씨 느그를 나가지고, 느 고상을 이르게 시키는구나. 그리고 즈그 엄마가 바를 빠더노코 울어때요.{내가 뭘 복이 없이 너희를 낳아 가지고, 너 고생을 이렇게 시키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밭을 뺨고 울었 대요.}

10103 # 그리고 산 지비, 인자 그지비서 소양치 한 마리를 중게, 소 새끼 한 마리 를 중게, 그놈을 가따 키워썌요.{그렇게 하고 산 집이, 이제 그 집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주니까, 소 새끼 한 마리를 주니까, 그놈을 가져다가 키워어요.}

10103 # 그때는 인자 나무지를 깔땀사리를 앙가고.{그때는 이제 남의 집으로 풀머 슴을 안 가고.}

10103 # 동네서 인자 이두 허라거면 품파리 험서, 그누물 키워서 일년 키우고, 이 년 키우머는 소는 큰 소가 돼요.{동네서 이제 일을 오라고 하면 품팔이 하면 서, 그놈을 키워서 일 년 키우고, 이 년 키우면은 소는 큰 소가 돼요.}

10103 # 풀만 메겨서 키고 이르게 인자, 그 보리쌀도 찢 저, 그때는 나락또 낄 저, 그르케 해서 머겨서, 푸를 머기고 해서 키머는 이 년 키머는 소가 큰 소가 돼 요.{풀만 먹여서 키우고, 이렇게 이제 그 보리쌀도 찢은 겨, 그때는 나락도 찢 은 겨, 그렇게 해서 먹여서, 풀을 먹이고 해서 기우면은 이 년 키우면은 소가 큰 소가 돼요.}

10103 # 어, 암소는 이 년 켜서, 잘 키머는 새끼를 배게 되고요. 순소는 이 년 키 머는 아주 기양 부사리가 되야요.{어, 암소는 이 년 키워서, 잘 키우면은 새끼 를 배게 되고요. 수소는 이 년 키우면은 아주 부사리가 되어요.}

10103 # 부사리. {부사리}

10103 @ 부사리가 뭐여?{부사리가 뭐예요?}

10103 # 소. 남자소, 머시매소. 그런 소보고는요 크면 기냥 숯쏘, 지금은 숯쫑아지라고도 허는디 그때는 부사리라 했쎄요. 부사리. 숯쏘보고 부사리라고.{소. 남자소, 머슴애소. 그런 소보고는요, 그면 그냥 수소, 지금은 수송아지라고도 하는데, 그 때는 부사리라 했어요. 부사리. 수소보고 부사리라고.}

10103 @ 왜 부사리라고 불러?{왜 부사리라고 불러요?}

10103 # 그렇게 숯쫑게 숯쏘라고는 허는디, 숯쏘가 거시기, 성 성지리 괴팍허자나요. 사람도 떠받꼬 기양 억세요. 그렇게 부사리라 했쎄요.{그러니까 수소이니까 수소라고는 하는데, 수소가 거시기 성 성질이 괴팍하잖아요. 사람도 떠받꼬 그냥 억세요. 그러니까 부사리라고 했어요.}

10103 # 그러케 부사리라 해가지고 인자 그러코 키는디, 한 해 가따 낀 노미 다행히 채수이씨 그 지비로 중계 그 지비서 가서 켜네가 인저 이 녀는 키고 또 소새끼 한 마리를 주고, 그 큰 소를 가져가쎄요.{그렇게 부사리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키우는데, 한 해 가져다가 키운 놈이 다행히 채수가 있어 그 집으로 주니까 그 집에 가서, 주인네가 이제 이 녀는 키우고 또 소새끼 한 마리를 주고, 그 큰 소를 가져갔어요.}

10103 # 가져강게, 그 소양치를 또 키어요. 이 녀늘. 이 녀늘 킹게, 그러자 이 년 낀놈 싸그로 소양치를 한 마리 그 켜네집쎄 쫑쎄요.{가져가니까, 그 송아지를 또 키워요. 이 녀를. 이 녀를 키우니까, 그러자 이 년 키운 샅으로 송아지를 한 마리 그 주인집에서 쫑어요.}

10103 # 그렇게 천 암소는 천 새끼 난 노를 그 낀 지비다 주는 거야요.{그러니까 첫 암소는 첫 새끼 난 놈을 그 키운 집에다 주는 거예요.}

10103 @ 음. 그런걸 뭐라구래요?{음.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10103 # 그, 그 씨압쎄요. 씨압쎄. 예. 씨압쎄.{그, 그 씨앗소요. 씨앗소. 예. 씨앗소.}

10103 # 그르케 인자 키 키어가지고 인저 중계 그누를 바더서 그르케 헐는디, 또 한 마리를 킹게, 나무야 한 마리 가따 키어줄 놈 키고 또 자기야 그 새끼 한 마리 바든 놈허고 형게, 키는 사라믄 두 마리도 키자나요.{그렇게 이제 키워가지고 이제 주니까 그 놈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또 한 마리를 키우니까, 남의 것 한 마리 가져다가 키워줄 놈 키우고 또 자기가 그 새끼 한 마리 받은 놈하고 하니까. 키우는 사람은 두 마리도 키우잖아요.}

10103 # 그리서 키어가지고 이 녀늘 킹게. 자기소 암소 준 놈도 이 녀를 킹게 새끼를 가져쎄요.{그래서 키워가지고 이 녀를 키우니까. 자기소 암소 준 놈도 이 녀를 키우니까 새끼를 가졌어요.}

10103 # 그러고 인자 또 나미야 준 놈 그놈 이 녀늘 키우쎄게 그 사라믄 주:야고, 그 사라믄 중계 그 사라미 또 인자 소양치를 한 마리 또 주어쎄요. 그렇게 일 트름 사 년마네 소가 두어, 두 마리 돼쎄. 소가.{그러고 이제 또 남이 준 놈 그 놈 이 녀를 키웠으니까 그 사람을 주어야 하고, 그 사람을 주니까 그 사람

이 또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 년 만에 소가 두어, 두 마리 됐죠. 소가.}

10103 # 소가 두 마리 되야쎄요. 그렇게 그 지비서 그 소를 딸꼭딸꼭 파라서 먹고 쓰고 해쓰머는 그 보라미 업짜나요. {소가 두 마리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 소를 딸꼭딸꼭 팔아서 먹고 쓰고 했으면은 그 보람이 없잖아요.}

10103 # 근디 엄마가 어트케 각시를 헌 엄만가, 그걸 소늘 안 대고 자꾸 늘려요.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작심을 한 엄마인가, 그것을 손을 안 대고 자꾸 늘려요.}

10103 # 그러다봉게 인자 또 소를 또 가따 키여요. 그러면 너무 소 한 마리 가따 키는 놈허고 자기 소새끼 두 마리허고, 세 마리를 켜요.{{그러다보니까 이제 또 소를 또 가져다가 키워요. 그러면 남의 소 한 마리 가져다 키우는 놈하고 자기 소새끼 두 마리하고, 세 마리를 키워요.}}

10330 # 세 마리를 킹게, 이런 들까세, 논뚜렁에 푸리 업쎄요. 어치케 푸를 비어다가 머기는지 푸리 업쎄요.{세 마리를 키우니까, 이런 들에, 논뚜렁에 풀이 없어요. 어찌나 풀을 베어다가 먹이는지 물이 없어요.}

10103 # 그르케 해가지고 그 사라미 그르케 소로, 씨압쏘를 키어 가지고 인자, 한참 그 사람도 인자 나이가 머거서 크고, 청년이 되고, 그 소로 너므 씨압쏘로 해서 부자를 일구었쎄요.{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소로, 씨앗소로 키워 가지고 이제, 한참 그 사람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크고, 청년이 되고, 그 소로 남의 씨앗소로 해서 부자를 일구었어요.}

10103 # 그렇게 인자 그르케 함서 인자 동네에서 인자 소킴서 품 팔고 뒤편고 어찌고 어찌고 허는 노른 나라그로 보태고 어찌고 히가꼬, 시골 농초네서 인자 열 썸짜리 계를 해요. 나락계를.{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소 키우면서 품 팔고 무엇하고, 어찌고 어찌고 하는 놈은 나라으로 보태고 어찌고 해가지고, 시골 농촌에서 이제 열 썸짜리 계를 해요. 나락계를.}

10103 # 그럼 거기다 나락계를 드리요. 열썸짜리를 들 썸계, 일 너네는 처으메 드리갈 썸계는 나락 한 서를 내요, 두 가마이를 내요.{그러면 거기에다 나락계를 들어요. 열 썸짜리를 들 적에, 일 년에는 처음에 들어갈 적에는 나락 한 섬을 내요. 두 가마니를 내요.}

10103 # 그러면 두 번째 드리갈 썸계는 썸 주러요, 나라기 두 가마이가 다 안 대고.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갈 적에는 썸 줄어요. 나락이, 두 가마니가 다 안 되고.}

10103 # 인저 세번째 드리갈 썸계도 썸 나라기 주러요. 그래가지고 칠 녀늘 느머는, 칠 년차에는 끝뻐 자브머는 열 썸을 타요. 열 썸을.{인저 세번째 들어갈 적에도 썸 나락이 줄어요. 그래가지고 칠 년을 넣으면은, 칠 년차에는 끝뻐 잡으면은 열 섬을 타요. 열 섬을}

10103 # 그렇게 소 키고, 고놈 나락 열 썸짜리 계 느코, 고놈 타서 인자 또 부자

마이로 인자 그 때는 인자 열써프로 인자 세꺼리를 낚요.{그러니까 소 키우고, 그놈 나락 열 섬 짜리 계 넣고, 그놈 타서 이제 또 부자처럼 이제 그 때는 이제 열 섬으로 이제 이자쌀을 놓아요.}

10103 # 세꺼리가 지그믐 이자락 허는디 그때는 세꺼리락 해썌요. 썸썌꺼리. 그때는.{세꺼리가 지금은 이자라고 하는데 그 때는 세꺼리라 했어요. 곱썌꺼리. 그 때는}

10103 # 그르케 이자를 마이 준다히서 썸썌꺼리.{그렇게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곱썌꺼리.}

10103 # 그르케 그르케 인자 생화를 하다가 봉계, 논도 사지고, 고 계 탕계, 나락 계 탕계, 논도 사지고, 소도 또 땀빠리 땡계 인저 논 살 찌게는 그 소 인자 인넌 놈, 또 소양치 널 놈 냉겨노코 소도 팔고 해가지고 논도 사고, 사썌 사고, 예, 그래썌요.{그렇게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논도 사게되고, 그 계 타니까, 나락계 타니까, 논도 사게 되고, 소도 또 몇 마리 되니까 이제 논 살 적에는 그 소, 이제 있는 놈, 또 송아지 널 놈 남겨놓고 소도 팔고 해가지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예, 그랬어요.}

10103 # 그래가지고 인자는 부자가 되야썌요.{그래가지고 이제는 부자가 되었어요.}

10103 # 근디 그 어머니가 지금 사라썌디 지금, 팔썌 메신가 모르건네, 팔썌세신가, 메신가 모르거네요. 토끼띠여요.{그런데 그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신데, 지금 팔썌 몇인가 모르썌네, 팔썌셋인가, 몇인가 모르썌네요. 토끼띠예요.}

10103 # 우리집 아저씨허고 동가빈디. 토끼띠디. 그 양반 지금도 사라계시는디.{우리집 아저씨하고 동갑인데. 토끼띠인데. 그 양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10103 # 메뉴리를 어더는디 또 메뉴리도 생전 화장허고 위디가서 히뚝뻘뚝 나두게 도라댕이는 버비 업썌요.{며느리를 얻었는데 또 며느리도 생전 화장하고 어디가서 왔다갔다 돌아다니는 법이 없어요.}

10103 # 지비서 먹꼬 일빠키는 몰라요. 시어머니허고 일.{집에서 먹고 일밖에는 몰라요. 시어머니하고 일.}

10103 # 그러면 또 신량은 기계 가꼬 보미면 농 갈로 가고 받 갈로 가고 논 또 물 노면 노타리 치고, 받또 또 초벌 가라노면 안댕계, 두벌 초벌 노타리 치고, 두벌 노타리 쳐서 너무 종자 느케 다 해주고.{그러면 또 신량은 기계 가지고 봄이면 논 갈러 가고 밭 갈러 가고, 논 또 물 넣으면 노타리 치고, 밭도 또 초벌 갈아 놓으면 안 되니까, 두벌 초벌 노타리 치고, 두벌 노타리 쳐서 남들이 종자 넣게 다 해주고.}

10103 # 그리서 논도 인자 또 그르케 다 두벌 노타리 쳐노머는 또 인자 모시를 때는 모심는 기계 가꼬 모, 이앙기, 모 심는 기계로 모를 시머요.{그래서 논도 이제 또 그렇게 다 두벌 노타리 쳐 놓으면은 또 이제 모 심을 때는 모심는 기계 가지고 모, 이앙기, 모 심는 기계로 모를 심어요.}

- 10103 # 그러머는 장녀네는 한 마지기에 농 가라서 노타리 해주는디 사만 워늘 바다썩요. 근디 올해는 올라서 기름값 올르고 헨따고 오만 워늘 바다요.{그러면 은 작년에는 한 마지기에 논 갈아서 노타리를 해주는 데 사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올라서 기름값 오르고 했다고 오만 원을 받아요.}
- 10103 # 그렇게 우리 논 일곱 마지기 하고 받 쪼끔 허고 허는디, 장녀네 도니 업 써서 못 주고 모타가꼬 중게 딱 백 오만 워니 나가드라고.{그러니까 우리 논 일곱 마지기 하고 밭 조금 하고 하는데, 작년에 돈이 없어서 못 주고 모아서 주니까 딱 백오만 원이 나가더라고.}
- 10103 # 근디 오래도 논 일곱 마지기 가라썩게 그눔도 일곱 마지기깁게, 오마원씩, 오치리 삼시보, 삼시보마원 아닌가요.{그런데 올해도 논 일곱 마지기 갈았으니까 그 놈도 일곱 마지기이니까, 오만 원씩, 오칠이 삼십오, 삼십오만 원 아닌가요?}
- 10103 # 또 심는 싹도 한 마지기 이마뉘닝게 십싸마뉘녀요. 노느로 드러간 노미. {또 심는 싹도 한 마지기 이만 원이니까 십사만 원이에요. 논으로 들어간 것이.}
- 10103 # 거그서 인자 기름값 이썩. 농약값 이썩.{거기에 이제 기름값 있지. 농약값 있지.}
- 10103 # 모짜리 혈라면 지가, 내가 인자 이려고 아프고, 지금은 다들 호글 사다 형게 또 흑 사서 히야지, 모짜리 험서부터 약 사서 띠여서 해야지.{못자리 하려면 제가, 내가 이제 이려고 아프고, 지금은 다들 흙을 사다 하니까 또 흙 사서 해야지. 못자리 하면서부터 약 사서 띠어서 해야지.}
- 10103 # 지금 농사져야 그리 다 드러가버리지 아무꺼또 업써요.{지금 농사 지어야 거기로 다 들어가버리지 아무것도 없어요.}
- 10103 # 그래가지고 그지비가 시방 아들 하나 인는디, 자근아들 하나 인는디, 자근아들또 워서 서울썩 산대요.{그래가지고 그 집이 지금 아들 하나 있는데, 작은아들 하나 있는데, 작은아들도 어디서, 서울에서 산대요.}
- 10103 # 헨디 이지비가 시방 서울따가 집 싹판 말 아파트 싹판 말도 인꼬, 어찌고 허는디, 그거야 내가 현실썩그로 누네로 가서 안 보고, 그 집 사람들한테 직접 나 이려고이려고 헨디 서울썩 아파트라도 뭇시라도 싹썩, 이 마를 안 드러 썩니 내가 그거슬 하긴을 모대요. 근디 부자여요.{그런데 이 집이 지금 서울에 집을 샀다는 말, 아파트 샀다는 말도 있고, 어찌고 하는데, 그거야 내가 현실적으로 눈으로 가서 안 보고, 그 집 사람들한테 직접 나 이려고이려고 한테 서울에서 아파트라도 뭇이랴도 샀어, 이 말을 안 들었으니 내가 그것을 확인을 못해요. 그런데 부자예요.}
- 10103 # 일도 그냥 바테 비누리를 칠라면뇨. 아덜, 메누리, 시어머니, 그리고 서이가요. 그러면 한 조가 되야요. {일도, 그냥 밭에 비닐을 치려면요. 아들, 며느리, 시어머니, 그렇게 셋이 가요. 그러면 한 조가 되어요.}

10103 # 시어머니는 비누리 다부진 도롱탱이, 이르게 통을 끄서요. 그러머는 아들
허고 메누리허고는 여그서 인자 이르게 호글 떠놔. 그러면 비누리가 썬지자나
요. {시어머니는 비닐 말린 도롱탱이, 이렇게 통을 끌어요. 그러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흙을 떠놓아. 그러면 비닐이 썬지잖아
요.}

10103 # 너무식꾸 델 꺼시 업써요. 저그끼리 다 해버려요.{남의 식구 델 것이 없
어요. 자기들끼리 다 해버려요.}

10103 @ 세상에, 얼마나 조아.{세상에. 얼마나 좋아.}

10103 # 근디 엄마가 올해부터는 이른 허기는 해도, 얼굴도 조코, 이른 허기는 허
는디, 인자 쪼끔 제운다거시더라고. 인자 쪼까 힘드러.{그런데 엄마가 올해부
터는 일은 하기는 해도, 얼굴도 좋고, 일은 하기는 하는데, 이제 조금 힘에 겹
다고 하시더라고. 이제 조금 힘들어.}

10103 # 아이고 그만 허쇼. 그만 허시고 인자 쪼 꽤허게 살다가 도라가시씨요. 건
강허게. {아이고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시고 이제 좀 편하게 살다가 돌아가세
요. 건강하게.}

10103 # 아이구, 그리도 이를 자정 메누리는 헌디 나는 어찌케 육썬 멀쩡허니 노
코 보기만 해, 해야대. 그냥바니 그래요.{아이고, 그래도 일을 며느리는 하느
데 나는 어떻게 육썬 멀쩡하니 놓고 보기만 해, 해야 돼. 그 양반이 그래요.}

10103 @ 지금 야든 가까이 되셨따면서?{지금 여든 가까이 되셨다면?}

10103 # 야든 너먼써요. {여든 넘었어.}

10103 # 토끼명게, 시방 야든세신가? 야든 메신가 될꺼애요. 예, 그러신 부니여.
{토끼 떠이니까, 지금 여든셋인가? 여든 몇인가 될 거예요. 예, 그러신 분이예
요.}

10103 # 그르케 해서 시방 부자가 되여. 궁게 그르케 가난헌디.{그렇게 해서 시방
부자가 되여.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데.}

10103 # 두고 바라, 느가 잘싼가 내가 잘싼가 두고 바라 헌 지비는 내려가씨요.
이 지비는 올라가고. {두고 봐라, 네가 잘 사는가 내가 잘 사는가 두고 봐라
한 집은 내려갔어요. 이 집은 올라가고.}

10103 # 그렇게 사라미 내가 지금 생화리 녀너거다그 그케 막담 지어서 단언는 마
를 헐 쭈가 업뜨라고요. 어느 때 어쩔 쭈를 모룽게.{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지
금 생활이 넉넉하다고 그렇게 막담 지어서 단언하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
요. 어느 때 어떻게 될 줄을 모르니까.}

10103 # 참 그지비가 그르케 해서. 근디 내가 보던때는 참 영아가라.{참 그 집이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 참 영악한 것이라.}

10103 # 그 그 집빈도 그러고, 요 뒤 한 지비도, 이 요 뒤꼍 한 지비도, 아버지도
또 트, 술만 먹꼬, 쿵양팽양 허고 형게, {그 그집에서도 그러고, 요 뒤 한 집
도, 이 요 뒷꼍 한 집도, 아버지도 또 술만 먹고, 쿵이야팍이야 하고 하니까.}

- 10103 # 어디 선사네 히사 모시머는 그 아들 테꾸가서 모쪼까 떠기라도 모쪼까 어더줄라고 테꾸 가고.{어디 선산에 시제 모시면은 그 아들 데리고 가서 뭐 조금 떡이라도 뭐 조금 얻어주려고 데리고 가고}
- 10103 # 아버지가 나무일 가머는 그 집 일 간 지비를 애기드리 따러가요. 밥 어더머글라구.{아버지가 남의 집에 일 가면은 그 집, 일 간 집예를 아기들이 따러가요. 밥 얻어 먹으려고.}
- 10103 # 그러머는 그 일허는 주인네집씨는 아그드리 하나만 오면 조치마는 둘씩 따라오머는 허겔썬요. {그러면은 그 일하는 주인네 집에서는 아이들이 하나만 오면은 좋지마는 둘씩 따라오면은 하겠어요.}
- 10103 # 그러면 둘씩 따라가머는 그 일 허는디 얼마나 아빠나가 그 바블 제대로 먹겔썬요? 문먹찌, 그 애기들 메길라고.{그러면 둘씩 따라가면은 그 일 하는 데 얼마나 아빠가 그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못 먹지. 그 아기들 먹이려고.}
- 10103 # 그러던 집 애기더니 지그문 다 돈 버턴썬. 부자요. 부자.{그러던 집 아이들이 지금은 다 돈 벌었어. 부자요. 부자.}
- 10103 # 그러는 거슬 보머는. 참 부자요. 그리서 내가 참, 참 새 부자 난다. 옛날 부자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인자 새 부자 난다. 그러쥬.{그러는 것을 보면은 참 부자요. 그래서 내가 참, 참 새 부자 난다. 옛날 부자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새 부자 난다. 그러쥬.}
- 10103 @ 그런 사람들 일써야 가난허게 사려도 용기가 생기지. 음?{그런 사람들 있어야 가난허게 살아도 용기가 생기지. 음?}
- 10105 # 여그요, 요 요, 지금 올라오는디 그 저라페 그 지비도요. 가는 우리 고모의, 우리 친고모의 소닌디.{여기요, 요 요 지금 올라오는 데, 그 절 앞 에 그 집도요. 그 애는 우리 고모의, 우리 친고모의 손인데.}
- 10105 # 가도 어려서 아버지가 도라가셨썬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라가셨는디{그 아이도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 10105 # 이 중학교를 다니냐 못 다니냐 그 판국에 노연는디, 즈그 매향이 어즈게 던지 너는 내가 서두러서라도 중학교를 보내지, 그래가지구 해리중학교를 나왔썬요.{이 중학교를 다니냐 못 다니냐 그 판국에 놓였는데, 그 매향이 어떻게하던지 너는 내가 도와서라도 중학교를 보내지, 그래 가지고 해리중학교를 나왔어요.}
- 10105 해리중학교를 나와가꼬 고등학교 갈 능러기 업썬요. {해리중학교를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갈 능력이 없어요.}
- 10105 # 그렇게 어린 거시 학교를 가따오머는 쟁 내려노코, 이르게 보리 달달 가라서 땀포레다 간 놈 그노를 물 붙꼬 끄리다가, 그 느를 느서 끄리머는, 옛날 그거시 보리 풀떼주기여요.{그러니까 어린 것이 학교를 갔다오면은 책 내려놓고, 이렇게 보리 달달 갈아서 땀돌에다 간 것 그것을 물 붓고 끓이다가, 그것을 넣어서 끓이면은 옛날 그것이 보리풀떼죽이에요.}

- 10105 # 그노를 머거, 건데기도 업씨 멸궁만 이르게 빼거니 끼린노를. 먹꼬는 이를 해요.{그것을 먹어, 건더기도 없이 국물만 이렇게 멸거니 끓인 것을, 먹고는 일을 해요.}
- 10105 # 그러는디 도늘 벌고 어치게 해야 쓰건느디, 어치게 헐 쭈가 업승게 누지비 인자 부잔짹 이를 가머는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돈을 벌고 어떻게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 집에, 이제 부잣집 일을 가면은 그래요.}
- 10105 # 어른드른 나라글 가시레 열무씨글 지고 다녀요. 근디 야는 에렇게 열무를 못썰요. 일곱 문또 지고 여든 문또 지고 그래요. {어른들은 나락을 가을에 열 못썰을 지고 다녀요. 그런데 이 애는 어리니까 열 못을 못 썰요. 일곱 못도 지고 여덟 못도 지고 그래요.}
- 10105 # 그러머는, 으른들 나오기 저네 저는 바블 일찍 즈그 집씨 먹꼬 가요. 먹꼬 가가지고 으른들 나오기 저네 두 버늘 미리서 저다 봐요. 두버늘.{그러면 어른들 나오기 전에 저는 밥을 일찍 자기 집에서 먹고 가요. 먹고 가서 어른들 나오기 전에 두 번을 미리 지어다 놓아요.}
- 10105 # 두 버늘 저다 노코, 그러고 나면 인자 어른들 열 문씩 지고 땡기는 느미저 여들 문씩 지고 땡겨도 보충이 안 되겄썬요? {두 번을 저다 놓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른들 열 문씩 지고 다니는 것이 저 여들 문씩 지고 다녀도 보충이 되지 않겠어요?}
- 10105 # 그러면 그르케 저다 노코는, 이거는 진짜 현시리예요. 예, 저다 노코는 또 그래요, 인자 어른들 인자 찬 때, 술 먹꼬 담배 피고 허면 쉬는 시가니 이짜 나요, 어른드른.{그러면 그렇게 저다 놓고는, 이것은 진짜 현실이에요. 예, 저다 놓고는 또 그래요. 이제 어른들 이제 찬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면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 10105 # 그러면 저는 술도 안 먹꼬 담배도 안 피고 그렇게 후딱딱 찬밥 한 수꾸락 떠 먹꼬는 어른들 썰씨가네 또 저다 봐요. 또 저다 봐.{그러면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러니까 후딱딱 찬밥 한 숟가락 떠 먹고는 어른들 썰 시간에 또 저다 놓아요. 또 저다 봐.}
- 10105 # 나지 그르케 허고, 즈엄때 차메 그르케 허고 허머는 어른들 저다 논는 문쭈보단 가가 저온 문쭈가 더 마내요.{낮에 그렇게 하고, 점심때 참에 그렇게 하고 하면은 어른들 저다 놓는 못 수보다 그 애가 저 온 못 수가 더 많아요.}
- 10105 # 그렇게 그 주인네 지비서 어른들 품씩 허고 똑가치 줘요.{그러니까 그 주인네 집에서 어른들 품샅하고 똑같이 줘요.}
- 10105 # 너는 쪼간해도 니 정신상태도 그만치 조아꼬 니가 힘드러서 그 보충을 다 해썬게 어른 품씩 바다라 허고{너는 조그만해도 네 정신상태도 그만큼 좋았고 네가 힘들어서 그 보충을 다 했으니까 어른 품샅 받아라 하고.}
- 10105 # 인자 그러면 인자 그 부자씨비서 도니로만 그때는 엔나른 품싸글 주는 거

시 아니라 쌀도 주고, 보리쌀도 주고, 그런 곡식이로도 주머는, 그 될 쑤 떠부
꼬도 더 떠부서 준대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부잣집에서 돈으로만 그때는
옛날에는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쌀도 주고, 보리쌀도 주고, 그런 곡식으로
도 주면은, 그 뒷수 떠붓고도 더 떠부어 준대요.}

10105 # 니 허는 거시 고마웁게 더 떠부섄따. 그럼서 더 떠부서 준대요.{내가 하
는 거시 고마우니까 더 떠부었다. 그러면서 더 떠서 부어 준대요.}

10105 # 아, 그래가지고 논도 사고, 이 마을도 가가 인자 또 새부자 난다 해서, 행
는디, 어트게 해서 가가 인자 동네 이장을 해요. 이 마을 이장을.{아, 그래가
지고 논도 사고, 이 마을도 그애가 이제 또 새 부자 난다 해서, 했는데, 어떻
게 해서 그 애가 이제 동네 이장을 해요. 이 마을 이장을.}

10105 # 이 마을 이장을 허는디, 어트게 해서 인자 주택짜그미 나왓뚜가 바요, 새
로 집 진는 주택짜그미.{이 마을 이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주택자금
이 나왔던가 봐요. 새로 집 짓는 주택자금이지.}

10105 # 그렇게 그때는 인자 저도 교회 양댕길땡게, 누가 와서 봉게, 칠년 아네는
이 지비 암꼰또 손 대지 말고 그대로 사라야 이 보글 지키제 어따 손 대면
안댄다거더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도 교회 안 다닐 때이니까, 누가
와서 보니까, 칠 년 안에는 이 집에 아무 것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살아야 이
복을 지키지 어디에다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더래요.}

10105 # 그랜는디, 주택짜그미 나옴게. 즈그 지븐 인저 옛날집 담찌베다가 스리또
만 영거서 살고 아래채도 지가 또닥꺼려서 창고도 지꼬 돼지막 까튼거또 지
가 또닥꺼려서 지꼬, 여가 이꼬 저가 이꼬 저가 이꼬 형게, 풀베기 시룽게 누
가 그랜땡가베 {그랬는데, 주택자금이 나오니까, 자기 집은 이제 옛날집 담집
에다가 슬레이트만 얹어서 살고, 아래채도 자기가 또닥꺼려서 창고도 짓고 돼
지막 같은 것도 자기가 또닥꺼려서 짓고,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
고 하니까, 풀보기 싫으니까 누가 그랬던가봐.}

10105 # 아이, 기버마, 느그집 거시기 주택짜금 지어가꼬 그 등싸레 지비나 지어
라 그렇게, 귀가 인자 쌀고대썰요.{아이, 기범아. 너희집 거시기 주택자금 받
아서 그 김에 집이나 지어라, 그러니까 귀가 이제 술깃했어요.}

10105 # 쌀고대가꼬 인자 그 주택짜그를 바더서 지블 질라고 그렇게, 어떤 양반
니, 그 양반 보고는 자기 오시고 뭐시고 다 당시니 가꼬 땡긴다고 이르믄 짐
빠리락 헐썰요, 별명을.{술깃해서 이제 그 주택자금을 받아서 집을 지려고 그
러니까, 어떤 양반이, 그 양반 보고는 자기 옷이고 무엇이고 다 당신이 가지
고 다닌다고 이름을 짐바리라고 했어요, 별명을.}

10105 # 근데 그 사라미 뭘 보능가 와썰요. 아 우리 지비는 이르게 다 점시를
먹고난 차미라 디털 바비 엮꼬, 이미티 내려가면 집 찢는디 거그 가머는 바블
잡썰 거시오, 어더 잡썰 텅게, 거그가 조까 밥 쪼까 어더잡썰쇼. 그렇게.{그런
데 그 사람이 무엇을 보능가 왔어요. 아, 우리 집은 이렇게 다 점심을 먹고

난 참이라 드릴 밥이 없고, 이 밑에 내려가면 집 짓는데, 거기에 가면은 밥을 잡술 것ियो. 얻어 잡술 수 있을 터이니까 거기에 가 조금, 밥 조금 얻어 잡 수시오, 그러니까.}

10105 # 그 냥바니 바블 요로코 드려도 다 잡수는 냥바니어요. 식타미 마네. 그래 가꼬 다 잡수는 냥바닌디, 거그 가서 인자 채려서 인자 어더머그러 댕기는 냥바니라고 워따 가따 중게 인자 거 어디 한쪽 구영텅이 마광이서 그 바블 머 견썌요.{그 양반이 밥을 이렇게 드려도 다 잡숫는 양반이어요. 식탐이 많아. 그래가지고 다 잡숫는 양반인데, 거기 가서 이제 차려서 이제 얻어먹으러 다니는 양반이라고 어디에다 가져다 주니까 이제, 거 어디 한쪽 구석 마당에서 그 밥을 먹었어요.}

10105 # 먹꼬는 인자 지블 질라고 집터 짜리를 이려고 재. 쟁게 그 냥바니, 어이 그짜그로 부치면 안 되네. 그 짜그로 부치면 안 댕게 요짜그로 부치소. 부치시오. 그 짜그는 안 되요. 그렇게.{먹고는 이제 집을 지려고 집터 자리를 이려고 재. 재니까 그 양반이, 어이 그 쪽으로 붙이면 안 되네. 그 쪽으로 부치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붙이소. 붙이시오. 그 쪽은 안 돼요. 그러니까.}

10105 # 이임혈꺼 바비나 어더 머거씨면 빨리 가거나 하재. 먼 잔소리여. 집 찢는 그 사라미, 밥 어더머거씨면 빨리 가거나 하지, 뭇 잔소리여. 그렇게, 어허잉, 두고 보제, 그 짜그로 부치면 안 존디. 그래썌요.{이 양반, 밥이나 얻어먹었으면 빨리 가거나 하지, 뭇 잔소리여. 집 짓는 그 사람이, 밥 얻어먹었으면 빨리 가거나 하지, 뭇 잔소리여. 그러니까, 어허잉, 두고 보지, 그 쪽으로 붙이면 안 좋은데, 그랬어요.}

10105 # 근디 인저 그 쪼그로 부쳐서 그 지블 지언썌. 절 저테. 그 지블 지언는디, 지꼬 나서 인자 그 뒤어로 또 인자 주방을 헐라고 거그를 팡게, 아이고 먼 빼따구,{그런데 이제 그 쪽으로 붙여서 그 집을 지었어. 절 곁에. 그 집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이제 그 뒤어로 또 이제 주방을 하려고 거기를 파니까, 아이고, 뭇 빼다귀가}

10105 # 나도 우리 바테를 갈라다가 그지비 그늘 미테 양거서 조까 쉬양건는디 먼 빼따구, 이마넌 빼따구가 나오더라구요.{나도 우리 밭에를 가려고 그 집에 그늘 밑에 앉아서 조금 쉬어앉았는데, 뭇 빼다귀, 이만한 빼다귀가 나오더라구요.}

10105 # 그렇게 아 그노를 이르게 쥐고서 훌떡 땡김서, 뭇누무 개뺨따구가 나와, 그럼서 이르게 훌떡 땡기더라구요. 궁게 그거시 개뺨따구가 아니라 사람 뺨따구연땡가봐요.{그러니까 아 그것을 이렇게 쥐고 훌떡 당기면서, 뭇놈의 개뺨다귀가 나와, 그러면서 이렇게 훌떡 당기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뺨다귀가 아니라 아니라 사람 뺨따귀였던가 봐요.}

10105 # 그래서인자 그거또 안 존디다가 그 집 진꼬 삼 년 몰까서 주거버런네요.
@ 그 남자가? # 예, 삼년 몰까서 주견썌요.{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좋은데다

가 그 집 짓고 삼 년 못 가서 죽어버렸네요. 그 남자가? 예, 삼 년 못 가서 죽었어요.}

10105 # 아잉, 뭐더러 저리 두곤, 즈그 엄마가 인자 조개를 자브러 간다정게 저도 조개를 캐로 간다고, {아니, 뭐하러 저리 두고, 자기 엄마가 이제 조개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조개를 캐러 간다고.}

10105 # 영광 장예를, 소 팔로 가는 사라만 따라가서 장예를 가따 와가꼬는 거그서 술 한 잔 머근 지메 지 오도바이 타고 비루 푸대, 저 비누리 푸대에다가 호미 담고, 지 오도바이 타고 그러고 가다가, {영광 장예, 소 팔러 가는 사람만 따라가서 장예를 갔다 와가지고는 거기서 술 한 잔 먹은 김에 자기 오도바이 타고 비료 푸대, 저 비릴 푸대에다가 호미 담고, 자기 오도바이 타고 그러고 가다가,}

10105 # 궁게 인자 수레 그랜쫌. 도로 가에 가면 이르케 산 내려지면 이르케 거시기 완벼글 친 자리가 이짜나요, 이르케 노픈 사는. 거그다 어치게 해서 지가 기양 오도바이로 바더가꼬는 @ 혼자? # 예. {그러니까 이제 술에 그랬쫌. 도로 가에 가면 이렇게 산 내려지면 이렇게 거시기 벅을 친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산은. 거기에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그냥 오도바이로 받아갖고는. 혼자? 예.}

10105 # 노네로 쓰러징게 논, 쪼그서 본 사람드리 아이, 병워네 안 가도 괜찬허건냐고, 그렇게, 괜찬허겄따고, 허겄따고, 그래가꼬는 지비를 와썬요.{논으로 쓰러지니까 논, 저기서 본 사람들이 아이 병원에 안 가도 괜찮겠냐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래갖고는 집예를 왔어요.}

10105 # 이거시 언젠가는 어디로 나와요? 안 나오쫌? {이것이 언젠가는 어디로 나와요? 안 나오쫌?}

10105@ 안 나와요 안 나와. 아이,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아이,안 나와, 안 나와.}

10105 # 인자 지비를 와썬요. 지비를 와서 봉게, 그때 바로 이일구 차로 병워네라도 가썬도 모리는데, 와서 봉게 피가 너머와요, 이베서.{이제 집예를 왔어요. 집예를 와서 보니까, 그때 바로 일일구 차로 병원에라도 갔어도 모르는데, 와서 보니까 피가 넘어와요, 입에서.}

10105 # 피가 너머웅게 애기들이 쫄망쫄망헌디,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형게, 피가 너머오고 형게 이상허다 허고, 아빠 아프다 형게, 아그드리 처가찌비 여가 이썬게 저그 외할매한테로 기벼를 해썬요. {피가 넘어오니까 아이들이 올망중말한테,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하니까, 피가 넘어오고 하니까 이상하다 하고, 아빠 아프다 하니까, 아이들이 처가집이 여기에 있으니까 제 외할머니한테로 기별을 했어요.}

10105 # 즈그 부이는 수박 짜거블 가꼬. 돈 벌러, 수박 여나르고 차에다 시러 주고 허는 거, 그 이를 간는다.{제 부인은 수박 작업을 갖고. 돈 벌러, 수박 이

어 나르고 차에다 실어 주고 하는 거, 그 일을 샀는데.}

10105 # 아이 수박 짜거블 가꼬, 즈그 엄마는 조개 자브러 가꼬, 근디 와서 봉게 그르케 생깁게, 인제 즈그 장모가 와서 봉게, 피를 쏟꼬 뒤시게 생깁게, 그때 서인자 이일구 차를 불런땅가 그래가꼬, 간 거시 고창뽕워네로 강게, 안 된다고 큰 병워네로 가라경게 전주 예수뽕워네로 가써. 전주 예수뽕워네로 간는디.{아이 수박 작업을 샀고, 자기 엄마는 조개 잡으로 샀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제 장모가 와서 보니까, 피를 쏟고 무엇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일구 차를 불렀다나, 그래서, 간 것이 고창병원으로 가니까, 안 된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니까 전주 예수병원으로 갔어. 전주 예수병원으로 갔는데.}

10105 # 나는 저 오리 말캉해서 인자 고추를 이르케, 시방 얼마 안 닥쳐, 칠월따레, 음력 칠월따링게 곧 닥치네요, 기일도. 이르케 고추를 따듬꼬 인는디, 아 어찌 자꾸 바께만 나가고 시퍼요. {나는 저 날씨가 맑아서 이제 고추를 이르게, 시방 얼마 안 닥쳐, 칠월 달에, 음력 칠월 달이니까 곧 닥치네요, 기일도. 이렇게 고추를 다듬고 있는데, 아 어찌 자꾸 밖에만 나가고 싶어요.}

10105 # 그리서는, 여그서 요리해서 바께 여그를 나강게 동네 아줌마 두리 서서는 그려. 아이고 제차니 엄마 기버미는 오도바이 사고 나따요. 어이고 어찌다 몬 사고라요. 아이고 사고 난는디 고창 뽕워네 강게 큰 병워네로 가라고 해서 어디 큰 병워네로 가따요, 그래요.{그래서는 여기서 요렇게 해서 밖에 여기를 나가니까, 동네 아주머니 둘이 서서는 그래. 아이고 제찬이 엄마 기범이는 오도바이 사고 났대요. 어이고 어찌다, 뭘 사고래요. 아이고 사고 났는데, 고창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어디 큰 병원으로 갔대요, 그래요. }

10105 # 그러는디, 수영이 어매는 수박짜집 간다고 간는디, 어쩡가 몰라, 워디가 인는지를 몰라. 그리서, 아녀, 거 거시기네 집 전화뽕호 채게 나와쥬게 그리 전화해야여.{그러는데, 수인 엄마는 수박작업 간다고 샀는데, 어쩡가 몰라,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아녀, 거 거시기네 집 전화번호 책에 나왔으니까 그리로 전화해야 해.}

10105 # 그리고 인자 전화뽕호 채글 뜨더봉게, 나도 가시미 떨러가꼬 기냥 몬 차꺼쥬요. 그리서 아그들뽕고 아이, 김은종이를 차저바라, 김은종이. 김은종이를 차즈면 그리 전화허면 아마 이쥬팅게, 어디가 인따는 거슬 알팅게 차즈랑게, 아그드리 차저서 전화 놀러라, 할미 전화도 몬놀르거따.{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책을 떠들어보니까, 나도 가슴이 떨려서 그냥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아이, 김은종이를 찾아바라, 김은종이. 김은종이를 찾으면 그리 전화하면 아마 있을 테니까, 어디가 있다는 것을 알테니까 찾으라니까, 아이들이 찾아서, 전화 놀러라, 할미 전화도 못 누르겠다.}

10105 # 궁게 전화를 눌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형게 그집 아저씨가 바더. 아저씨 거 수영이 엄마 이쥬? 궁게, 예.{그러니까 전화를 눌러주더라고요. 그

래서 전화를 하니까 그집 아저씨가 받아. 아저씨 거기 수영이 엄마 있죠? 그러니까, 예.}

10105 # 얼릉 조까 바까 주쇼. 궁게 바까 줘요. 어이, 얼릉 지베 오소. 왜? 아이 얼릉 와바, 얼릉 와보면 양게. 아 궁게 말을 히야 가제.{얼른 좀 바꿔 주쇼. 그러니까 바꿔 줘요. 어이, 얼른 집에 오소. 왜? 아이 얼른 와 봐. 얼른 와보면 아니까. 아, 그러니까 말을 해야 가지.}

10105 # 수영이 아빠가 오도바이로 조금 다쳤는디 병워네 가쌍게 얼릉 오소. 그렇게 인자 와썬요. 오고 즈그 엄마도 조개를 캐가꼬 오고. {수영이 아빠가 오도바이로 조금 다쳤는데 병원에 갔으니까 얼른 오소. 그러니까 이제 왔어요. 오고 자기 엄마도 조개를 캐갖고 오고.}

10105 # 그래서 조개 보타리를 내려노꺼덩. 성님, 얼릉 온 빠꼬 탄 오스로 가라이버. 흥 무더쌍게 얼릉 가라이버.{그래서 조개 보타리를 내려놓거든. 형님 얼른 옷 벗고 탄 옷으로 갈아입어. 흥 묻었으니까 얼른 갈아입어.}

10105 # 왜? 허니께. 아이 얼릉 가라이버, 시누가 말 허면 드려. 아이, 드를 말 이꼬 안 드를 말 이찌 뭐더게, 나 조개 까야여. 그리서 아이고 조개가 그런거 아닝게 이까진노므꺼 저리 치 노코 어서 혀.{왜? 하니까. 아이 얼른 갈아입어. 시누가 말 하면 들어. 아이, 들을 말 있고 안 들을 말 있지 무엇하게, 나 조개 까야해. 그래서, 아이고, 조개가 급한 거 아니니까 이까짓거 저리 치워 놓고 어서 해.}

10105 # 아 궁게 갈키줘. 그서, 수영이 아빠가 오도바이 사고 나서 병워네 가쌍. 어서 히영게. 방빠다글 드러눕떠니 우리요 기양. 울 단계가 아닝게 어서 빨리 이러나. 빨리 이러나 그래가꼬는.{아 그러니까 가르쳐 줘. 그래서, 수영이 아빠가 오도바이 사고 나서 병원에 갔어. 어서 해, 그러니까. 방바닥에 드러눕떠니 울어요, 그냥. 울 단계가 아니니까 어서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래가지고.}

10105 # 인자 택씨가 불러쌍게 인자 와썬요. 그서 나도 타고, 거 우리 형님도 타고, 거 주근, 아픈 사람 부인도 타고, 인자 그러꼬 서이 타고 가는디.{이제 택시가 불렀으니까 이제 왔어요. 그래서 나도 타고, 거 우리 형님도 타고, 거 죽은, 아픈 사람 부인도 타고, 이제 그렇게 셋이 타고 가는데.}

10105 # 가다가 생가정게 고창을 들릴 피료가 업꼬, 전주로 갈따정게, 전주 예수뽕워닐팅게, 예수뽕워니라 헨다쏘리 기벼리 와쌍게.{가다가 생각하니까 고창을 들릴 필요가 없고. 전주로 갔다고 하니까. 전주 예수병원일테니까,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소리 기별이 왔으니까.}

10105 # 정읍 까 약국 아페다 차를 대라개썬요. 약국 아페 차를 대라. 기사님 대쥬. 그러고는, 거그서 내가 내려가서 진정제를 사썬요. {정읍 가서 약국 앞에 다 차를 대라고 했어요. 약국 앞에 차를 대라. 기사님 댕쥬. 그러고는, 거기서 내가 내려가서 진정제를 샀어요.}

- 10105 # 메겨야 쓰거써. 기암허고들 거식 허까 시퍼서, 진정제를 사서 중게, 어매도 츠메는 안 명는다거더니 자꾸 중게 엄마는 머거요. {먹어야 되겠어. 기절하고들 할까 싶어서, 진정제를 사서 주니까, 엄마는 처음에는 안 먹는다고 하더니 자꾸 주니까 엄마는 먹어요.}
- 10105 # 근디, 그 부이는 중게, 시궁차 중게는 그냥 내 소늘 탁 쳐버리고는 안 먹더라구요. 진정제 약글.{그런데 그 부인은 주니까 그냥 내 손을 탁 쳐버리고는 안 먹더라구요. 진정제 약을.}
- 10105 # 그러더니 부인은 관개기 기냥 그걸 보고는 쓰러져 버리고 어매는 거시기 약글 머거서 근지 어쩐지 팬찬허고,{그러더니 부인은 그것을 보고는 쓰러져 버리고, 엄마는 거시기 약을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팬참고.}
- 10105 # 거 여폐를 드러강게. 시방 저지베 사라요, 저 저 시퍼렁 쓰레또 지비, @ 어, 여 바로 아페? # 예, 저그 큰누나가.{거 옆에를 들어가니까. 시방 저 집에 살아요, 저 시퍼런 슬레이트집이. 어, 여 바로 앞예? 예, 제 큰누나가.}
- 10105 # 위메, 즈그 큰누나가 불쩍 뛰면 이만치 드러가따 그양 톡 주저안꼬, 펄쩍 뛰어서 이만큼 내가따 펍 주저안꼬. 시상은 뭐더고 인자 와, 뭐더고 인자 와, 허는다.{위메, 제 큰 누나가 펄쩍 뛰면 이만큼 들어갔다 그냥 톡 주저않고, 펄쩍 뛰어서 이만큼 내갔다 펍 주저않고. 세상에, 뭐하고 이제 와, 뭐하고 이제 와, 하는데.}
- 10105 # 거그서 보기에 아이고 크닐 나따, 주거는갑따, 그러고는 가시미 콩닥콩닥허고 가떠니, 그때 인자 산소호흡기 꼬바노코 거식 허는다.{거기서 보기에, 아이고 큰일 났다, 죽었는가보다. 그러고는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갔더니, 그때 이제 산소호흡기 뽑아놓고 거시기 하는데.}
- 10105 # 거그서 인자 또 으디 더 큰 병워네루 가자개서, 큰 병워네루 가가지구, 수술하고 어째구 해써도 열매 못쌀구 주건써요.{거기서 이제 또 어디 더 큰 병원으로 가자고 해서,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수술하고 어찌고 했어도 열매 못 살고 죽었어요.}
- 10105 # 근디 돈 버러노코 집 저러케 조케 지어노코 주거버링게 뭐대요. 돈 한 푼 늘 가꼬 가요, 절문 나이에, 그때 쉬은 살도 못먹꼬 주건씨니 뭐대요. {그런데 돈 벌어놓고 집 저렇게 좋게 지어놓고 죽어버렸으니 뭣해요. 돈 한 푼을 갖고 가요, 젊은 나이에, 그때 쉰 살도 못 먹고 죽었으니 뭣해요.}
- 10105 @ 그거시 그 주택짜금 나와가지고 지블 잘못 드러서 그렇가?{그거시 그 주택자금 나와가지고집을 잘못 들여서 그런가?}
- 10105 # 몰라요. 인자 안 믿는 사람드른 윤이 안 마진 때 그르케 지블 손대지 마라거고, 질찌 마라고 현는다 지서서 마리 집 지꼬 삼 년 넘끼가 어렵다는 거시다, 그래따 그러는다, 그거 누가 알꺼애요. 모르지.{몰라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윤이 안 맞은 때 그렇게 집을 손대지 말라고 하고, 짓지 말라고 했는데 지어서, 말이 집 짓고 삼 년 넘끼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 누가 알 것이에요? 모르지.}

10105 # 그렇게 나메 말도 드를 때는 드리야 허는디, 그 사람 마를 너무 무시해 가지고 그랜는지 어쨌는지 어찌 편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말도 들을 때는 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너무 무시해 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어찌 켜는지를 몰라요.}

10105 # 딸도 업씨 머시매만 서시열꺼든뇨. 주근 사라미, 아들만 서신디. 이르게 인자 쫄망쫄망허지, 아들만 서신디. 딸도 없이 남자애만 셋이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아들만 셋인데. 이렇게 이제 올망쫄망하지, 아들만 셋인데.}

10105 # 그렇게 인자 아드리 죽꼬 낭게, 대꾼연후, 갈리게, 저 게웅기 가튼 거또, 거시기 농허베서 거식, 저거 바더, 용자 바더서 해꼬, 집까튼거또 용자 받꼬 뒤편고 형게, 그렇거 저렇거 헐라면 농허베서고 워서고 아예 인자 대주가 업 썩게 부이늘 불러 대자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죽고 나니까, 경운기 같은 것도, 거시기 농협에서 저거 받아, 용자 받아서 했고, 집 같은 것도 용자 받고 뒹하고 하니까, 그런거 저런거 하려면 농협에서고 어디서고 이제 대주가 없으니까 부인을 불러대잖아요.}

10105 # 그리서인자 그런디 가따오고 어찌고 허머는 시어메가 그양 야다니여, 나 도라 땡긴다고.{그래서 이제 그런데 갔다오고 어찌고 하면은 시어머니가 그양 야단이며, 나돌아 다닌다고.}

10105 # 그래가지고 시어마이하고 등갈라가지고, 메누리허고 시어마이허고 한테 살도 아너고 시방 따로 살고 이짜너.{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등돌려가지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지도 않고 시방 따로 살고 있잖아.}

10105 # 아, 참. 아 어트게 안 되는 지븐 또 그르케 안 되기도 허고?{아 참, 아 어떻게 안 되는 집은 또 그렇게 안 되기도 하고?}

10105 # 예, 그러케 노력 해서 버런는디, 그러케 노력개서 벌고, 그양 그렇게 거거 우리 형니미 너무 읍따가 이쨌게 그양 너무 권세를 부러썩요.{예, 그렇게 노력 해서 벌었는데, 그렇게 노력 해서 벌고, 그양 그러니까, 거기 우리 형님이 너무 없다가 있으니까 그양 너무 권세를 부렸어요.}

10105 # 그러케 그때는 쟁기로 논 갈고, 소로 모라서 농갈땐데 논 갈러 가머는, 그 쪼끔 보고 참 한 번 해 주자고, 할 이를 골로 안 가거썩요? 그렇게 라면허고 술허고를 가따 그집따 줘요.{그러케 그때는 쟁기로 논 갈고, 소를 몰아서 논 갈 때인데 논 갈러 가면은, 그 좀 보고 참 한 번 해 주자고, 할 일을 골로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라면하고 술하고를 갖다 그 집에다 줘요.}

10105 # 그러면 라면 조까 끼리고 술 이눔허고 해서 머그쇼. 그럼 우리 뒤편 바테가 이래서 돈 버러가꼬 오께.{그러면 라면 좀 끓이고 술 이눔하고 해서 먹으쇼. 그러면 우리 무슨 밭에 가 일 해서 돈 벌어갖고 올게.}

10105 # 그거시 그 주근 사람 어때가 소늘 여그다 딱 집꼬는, 그렇게 즈그 돈만 크제 일헌 사라븐 사람도 아니대여? 느그 먹꼬 허거나 말거나 해라 허고 느

그는 그러고 땡기고, 그러고 무시하고 땡기고 그런다고. 그 권세라 그르케 대대요.{그것이 그 죽은 사람 엄마가 손을 여기에다 딱 집고, 그러니까 자기 돈만 크지 일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요? 네가 먹고 하거나 말거라 해라 하고, 너희는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무시하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 권세라 그렇게 크대요.}

10105 # 그러더니 그양 그 권세가 어디로 드러가버리고, 쥐구녀기 어디냐 허고 사라, 지금. 그 양반도 시방 야든 너머썬요.{그러더니 그양 그 권;가 어디로 들어가버리고, 쥐구멍이 어디냐 하고 살아, 지금. 그 양반도 시방 여든 넘었어 요.}

10105 @ 다 공부네 그제. 그 얘기가 다 공부여.{다 공부네, 그제. 그 얘기가 다 공부여.}

10105 # 경허미지. @ 어, 그러니까. # 경험.{경험이지. 어, 그러니까. 경험.}

10105 # 저 여그서 삼서 이르게 누니로 보고 현실썬그로 제깁 경허미라고는 그런 경험배끼 업썬. {저 여기서 살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겪은 경험이라고는 그런 경험밖에 없어.}

10105 # 가난히서 몬먹꼬 몬넙고 산 그런 경험. 그리도 또 가난해서 그르케 해도 몬먹꼬 사, 몬먹꼬 사라도 자기 준때가 업썬 산 사라몬 지금까지도 평생 고생을 허고, 자기 준때를 시고 아늘 신 사라몬 이르게 올라서 살고 그래요.{가난해서 못 먹고 못 입고 산 그런 경험. 그래도 또 가난해서 그렇게 해도 못 먹고 사, 못 먹고 살아도 자기 좃대가 없이 산 사람은 지금까지도 평생 고생을 하고, 자기 좃대를 세우고 안을 세운 사람은 이렇게 올라서 살고 그래요.}

10105 # 도늘 버러서 부자 되야서 살고, 그건 그래요.{돈을 벌어서 부자 되어서 살고, 그건 그래요.}

10105 # 그렇게 지금도 아이네프네 뭐시네 해도, 아이네프 다 저서 내가 몬 썰게 생기면, 내가 어트게 구즌 일 해야, 이 생가글 버리고 막노동도 허고 구진 일도 허고 허면 다 살 썬 이썬요, 그러는데.{그러니까 지금도 아이엠에프네 뭐네 해도, 아이엠에프 다 저서 내가 못 살게 생기면, 내가 어떻게 궂은 일 해, 이 생각을 버리고 막노동도 하고, 궂은 일도 하고 하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는데.}

1.2. 일생 의례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우리지비 시방 시째아드리, 우리집 아저씨 아드리여요. 우리집 아저씨 아들, 시째아드린다. 가가 학교를 나올때게 내가 가서 봉게 머글 꺼또 어꼬 식꾸가 아홉 썬꾼가 뎌 썬꾼가 된다.{우리집에 시방 셋째아들이, 우리집 아저씨

아들이예요. 우리집 아저씨 아들, 셋째아들인데, 그 애가 학교를 나올 적에 내가 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식구가 아홉 식구인가 몇 식구가 되는데.}

10201 # 혼합쪽쌀, 보리쌀 너코 싸려고 서꺼진 거 조금씩 팔머는, 조금 바벌 허먼 뇨, 식구대로 박끄르글 이르게 쭈르르르 뉘요.{혼합곡식쌀, 보리쌀 넣고 쌀하고 섞어진 거 조금씩 사면은, 조금 밥을 하면요, 식구대로 밥그릇을 이렇게 주르르르 뉘요.}

10201 # 노코는 인자 이르게 바블 다므머는, 아버지는 조금 잡썩도 이해를 형게 뉘노코, 이때 크나는 아그드른 한 수꾸락 더 머거야지. 커낭게.{농고는 이제 이렇게 밥을 담으면은, 아버지는 조금 잡썩도 이해를 하니까 놓아놓고, 이때 커나가는 아이들은 한 숟가락 더 먹어야지. 커나가니까.}

10201 # 그러다보면 또 미테 자근노믄 쪼게 들 다머져.{그러다보면 또 밑에 작은 놈은 조금 덜 담아져.}

10201 # 이런 소리도 드런네요. 거시기. 츠메 강게 애기드리 아홉쌀 머건는디 엄마라고 아내요. 엄마라고 아녀고, 서기허고 서기리성한테는 이쁨바들라고야잉 밥또 마니 주고, 우리는 밥또 쟈까 준다잉. 그래요.{이런 소리도 들었네요. 처음에 가니까 아이들이 아홉살 먹었는데 엄마라고 안 해요. 엄마라고 안 하고, 석이하고, 서길이 형한테는 예쁨 받으려고 밥도 많이 주고, 우리는 밥도 조금 준다. 그래요.}

10201 # 너가 언젠가는 철들면 그거슬 깨달른 때가 이꼰찌. 그르케 해서 인자 그르케 바블 주다가, 담따 보머는 뉘던때는 내 바븐 업썩요.{네가 언젠가는 철들면 그것을 깨달른 때가 있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밥을 주다가, 담다 보면은 어떤 때는 내 밥은 없어요.}

10201 # 업쓰면 인자 소티 누룽지라도 쪼까 홀터먹꼬 장예를 가까 허머는, 그러다 저러다 어찌다가 보머는 즈그드른 얼른 밥 먹꼬 나는 인자 늘게 인저 밥 차비를 허머는, 누른밥 내가, 딸 하나 인는디, 따리 하나 이썩썩요, 큰딸허고, 큰따른 나가서 살고, 딸 하나 인는 거, 열뚜살쟁이가 내가 누룽지 머그게 그래요.{없으면 이제 술에 누룽지라도 조금 훑어먹고 장예를 갈까 하면은, 그러다저러다 어찌다가 보면은 자기들은 얼른 밥 먹고 나는 이제 늦게 이제 밥 차비를 하면은, 누른밥 내가, 딸 하나 있는데, 딸이 하나 있었어요, 큰딸하고, 큰딸은 나가서 살고, 딸 하나 있는 거, 열두 살쟁이가, 내가 누룽지 먹을게, 그래요.}

10201 # 그러면 인자 그때는 나는 인자 누룽지 천신도 모대. 모더고 인제 시장을 가요.{그러면 이제 그때는 나는 이제 누룽지 차지도 못해. 못하고 이제 시장을 가요.}

10201 # 가서 쌀을 파라서 이르게 쌀 보따리를 여나르고 뉘더고 그러고 허고 나머는 그때만 해도 돈 삼시버니 아까서 주 간 그르글 몬 싸머겸썩요. {가서 쌀을 팔아서 이렇게 쌀 보따리를 이어나르고 뉘하고 그러고 하고 나면은, 그때만

해도 돈 삼십 원이 아까워서 죽 한 그릇을 못 사먹었어요.}

10201 # 그러머는 시버너치나 이시버너치 여슬 사요. 여슬 사면, 우리 친정어머니는 주글 안 잡쑹게, 죽또 못 먹꼬, 여슬 사면 인자, 죽 한 그릇깁씨 삼시버너치나 히서 여슬 사머는, 옴나레 이르케 가랑열 이르케 빼가꼬 이르케 쏼놈, 그런놈도 주고, 요만쓰거게 짜른 놈도 주고 허면, 열 그노드로 거시기를 때워요.{그러면은 십 원어치나 이십원 어치 엿을 사요. 엿을 사면, 우리 친정어머니는 죽을 안 잡수니까, 죽도 못 먹고, 엿을 사면 이제, 죽 한 그릇 값이 삼십 원어치나 해서 엿을 사면은, 옛날에 이렇게 가랑열 이렇게 빼갓고 꼬은 것, 그런 것도 주고, 요만씩 하게 짧은 것은 주고 하면, 엿 그것으로 거시기를 때워요.}

10201 # 정식, 정식, 아침부터 때워요. 때우고 우리 제의성이, 가를 나는 해, 가든 해에 애기를 나가지고 업꼬, 그러고 땡기면, 업꼬 장이를 보고 이쓰머는 하루 점드락 업꼬 이쓰면 애기가 발똥거리도 수부기 분는 때도 이꼬. {점심, 점심, 아침부터 때워요. 때우고 우리 형님이, 그애를 나는 해, 가든 해에 애기를 나가지고 업고, 그러고 다니면, 업고 장을 보고 있으면은 하루 저물도록 업고 있으면 아기가 발등도 수북히 붓는 때도 있고.}

10201 # 엄마가 무어슬 제대로 안 머그니 모유가 나유? 그누문 배고파서 우는 때도 이꼬, 그러면 우유라도 머그면 애기가 우유를 바더드려서 지가 사리 찌면 허든디, 애기가 우유를 못빠더드려요.{엄마가 무엇을 제대로 안 먹으니 모유가 나와요? 그 놈은 배고파서 우는 때도 있고, 그러면 우유라도 먹으면 아기가 우유를 받아들여서 제가 살이 찌면 하는데, 아기가 우유를 못 받아들여요.}

10201 # 썩이루 소화도 못 시키고 대변이루 나오고, 위에로 토해 버리고, 그래 지금도 그거시 걸려서, 지금도 그르케 보면 안씨러요.{생으로 소화도 못 시키고 대변으로 나오고, 위에로 토해 버리고. 그래 지금도 그것이 걸려서, 지금도 그렇게 보면 안스러워요.}

10201 # 근디 우리 막내는 애기때 내가 그때 고창으로 나가가지고 이쑤서, 그때는 싸래기를 파라다 머견쑤요, 또, 싸래기. 쌀지비서 싸래기를 파라다가. 그리도 보리마늘 해멍는눔보다 나승게, 인저 보리허고 싸래기허고 그누머고 썩꺼서. 그리도 그거시라도 끼니는 안 거르고 바쁜 머궁게.{그러나 우리 막내는 애기때 내가 그때 고창으로 나가 있으면서, 그때는 싸래기를 사다 먹었어요, 또, 싸래기. 쌀집에서 싸래기를 사다가. 그래도 보리만을 해 먹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제 보리하고 싸래기하고 그것하고 섞어서. 그래도 그것이라도 끼니는 안 거르고 밥은 먹으니까.}

10201 # 우리 막내는 낭게, 애기가 이 키로쭈가 정량이얼쑤요. 병워네 가서 어디 키로쭈나 재봐요? 그럴 틈도 업찌. 근디 이 팔뚜기랑 토도록토도록 허더라구요.{우리 막내는 낳으니까, 아기가 이 키로수가 정량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어

디 키로수나 재봐요? 그럴 틈도 없지. 그런데 팔뚝이랑 포동포동 하더라구요.}

10201 # 근디 우리 재성이 그 크내는 낭게요, 가주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해요. 엄마 배소에서부터 영양실종 되야가지고 이르게 이르게. {그런데 우리 재성이 그 큰애는 낳으니까요, 가족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영양실조 되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10201 # 그래가지고 너를 제대로 엄마 배소에서부터 머기들 모더고 영양실종 걸려가지고 니가 지금도 힘든 이를 형게, 그기 뒀던 때는 오면 그르케 짜내요.{그래가지고 너를 제대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먹이들 못하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네가 지금도 힘든 일을 하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오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10201 # 짜내서, 망내보다 뭐시라도 더 하고, 주고잡꼬. 하이구 그런 세상을 사랑썬요.{마음이 아파서 막내보다 무엇이라고 더 하고, 주고싶고. 하이고,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10201 # 그래썬도, 그런 세상을 사랑썬도 애기드리 그런 거슬 아라서 그러는지 어썬는지 안직까지는 눈 한번 부릅뜨고 이르고저러고 말대답하는, 허고 뒀더고 허는 애기드른 업썬요.{그랬어도, 그런 세상을 살았어도 아이들이 그런 것을 알아서 그러는지 어썬는지 아직까지는 눈 한 번 부릅뜨고 이르고저러고 말대답하는, 하고 뭐하고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10201 # 궁게 나는 그거슬 참 감사하게 알썬요.{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참 감사하게 알썬요.}

10201 # 으디 가서 썬박썰해서 지비로 돈 뜨드러 오는 놈 읍꼬, 읍썬요.{어디 가서 썬썬해서 집으로 돈 뜯으러 오는 놈 없고, 없어.}

10201 # 근디 시썬야들 그, 그거슬 인자 공부를 허야는디, 중학교를 가서 인자 고등학교를 가야 허는디, 고등학교 갈 도니 업썬요.{그런데 세썬야들 그,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하는데, 중학교를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고등학교 갈 돈이 없어요.}

10201 # 고등학교 갈 도니 업썬게 인자 지비서 공부를 해요. 영성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디. 지비서 공부를 허더니 어치게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자격썬을 따더라고요.{고등학교 갈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해요. 영성고등학교를 가야하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더니 어떻게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자격썬을 따더라고요.}

10201 # 그러더니 인자 군대 갈썬기 되얀는디, 오토캐썬 예비구니로 빠썬썬요. 그래인자 무장 지서에서 인자 예비 군무를 나썬데도 허고, 바메 허는 때도 이꼬 나썬데 허는 때도 이꼬 인자, 교대가 이떠만요.{그러더니 이제 군대 갈 썬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군으로 빠썬었어요. 그래 이제 무장 지서에서 이제 예비군 군무를 낮에도 하고, 밤에 하는 때도 있고 낮에 하는 때도 있고 이제,

교대가 있더만요.}

10201 # 그르케 하면서 인자 공부를 지가 해썬요. 책 싸다가 노력글 해서 공부를 허더라고요.{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자기가 했어요. 책 사다가 노력을 해서 공부를 허더라고요.}

10201 # 저는 인자 꾸미 대학교 갈 꾸므로 인자 공부를 해요. {저는 이제 꿈이 대학교 갈 꿈으로 이제 공부를 해요.}

10201 # 그때만 해도 내가 교회를 안 대닝게, 하도 애통 터지거든. {그때만 해도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하도 애통 터지거든.}

10201 # 어디 인자 이루 글레로 푸러서 현다는 사람 인자, 그 글로 보는 사라미 이썬썬. 거기를 가서 봉게. 아이고 이 학생이 대학교 불기는 부터요. 근디 노적뻔노리 시 개면 시 개, 두 개면 두 개, 이 사람 똥꾸녀그로 다 드러가야 허요. 그라나고는 이 푸러머글 기리 업썬. 그래요.{어디 이제 이루 글레로 풀어서 현다는 사람 이제, 그 글로 보는 사람이 있었어. 거기를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 학생이 대학교 불기는 불어요. 그런데 노적뻔노리 세 개면 세 개, 두 개면 두개, 이 사람 똥구멍으로 다 들어가야 해요. 그렇게 안하고는 이 풀어먹을 길이 업소. 그래요.}

10201 # 이누무 소리를 어치케 허꼬, 지네 아빠하고 두리 가서 무러봉, 드러봉게 그러케 허니 어치켜꼬. 그러머는 그리도 인자 최서늘 다헨썬.{이 소리를 어떻게 할고, 저희 아빠하고 둘이 가서 물어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할고. 그러머는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헨썬.}

10201 # 최서늘 다하고 도니 거시건다허면 무장 거그, 즈그 아빠 살던 지베 방이 세 카니어요, 가게 딸린 방이. 그렇게 두 카는 인자 사글썬으로 내놔요. {최선을 다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무장 거기, 자기 아빠 살던 집에 방이 세 칸이 예요, 가게 딸린 방이. 그러니까 두 칸은 이제 사글썬으로 내놔요.}

10201 # 사글썬으로 내놔가꼬 아그들 거그서 쪼까썬 꺼서 먹꼬 그놈 될 대주고, 인자 그러고 그러고 어즈게 해가꼬, 인자 성제 가네 또 돈 쪼까썬 모태서 거두고 해가꼬 인자 부튼 거시 법때를 부터썬요. 하냥대 법때를. {사글썬으로 내놓아가지고 아이들 거기서 조금씩 꺼서 먹고 그놈 뒤 대주고, 이제 그러고 그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형제 간에 또 돈 조금씩 모아서 거두고 해갓고 이제 붙은 것이 법대를 붙었어요. 한양대 법대를.}

10201 # 그리서 인자 거그를 학교를 다님서, 그르케 인자 힘들게 학교를 다녔썬요.{그래서 이제 거기를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학교를 다녔썬요.}

10201 # 학교를 다녔는디, 그거이 그르케 안될라고 그런가. 거시기를 보머는, 시허를 보머는 학꺼글 모대요. 고시셔를 보머는.{학교를 다녔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려고 그런가. 거시기를 보머는, 시험을 보머는 합격을 못해요. 고시 시험을 보머는.}

- 10201 # 그러머는 지가 인자 미테 인자 딴 사람드를 데리꼬 갈친 사라믄 합껴글 허는디 야는 합껴글 모대요.{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데리꼬 가르친 사람은 합격을 하는데, 이해는 합격을 못해요.}
- 10201 # 그렇게 지비 식꾸가 총 기대를 걸기를 가 하나이다 거러쨌요. 가 하나에 다가, 니가 그래도 법때래도 나와서 고시 합껴거고 저거 허고 허머는 그리도 안 거식 허건냐. 느그 형제가는 어치게, 다 히믈 피고 안 사건냐.{그러니까 집 의 식구가 총 기대를 걸기를 그애 하나에다 걸었지요. 그애 하나에다가, 네가 그래도 법대라도 나와서 고시 합격하고 저거하고 하면은 그래도 안 거시기 하겠느냐, 너희 형제간은 어떻게 다 힘을 피고 안 살겠냐?}
- 10201 # 돈 물질쨌그로 힘 피는 거뿐다도 사라미 어깨 피고 사는 거시 큰 힘잉게, 안 살건냐 헐는디, 그거슬 모대쨌요.{돈 물질적으로 힘 피는 것보다도 사람이 어깨 피고 사는 것이 큰 힘이니까, 안 살겠냐 했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 10201 # 아이 그러더니 인자는 어디가 인는지 종문소시그로 소식조차 업써져 버려 쨌요, 지금.{아이 그러더니 이제는 어디 가 있는지 종무소식으로 소식조차 없 어져 버렸어요, 지금.}
- 10201 # 비시 지고, 무어슬 어치게 하다가 비시 쥘똥가 바요. 그렇게 그 비슬 지 고 두째 성이 암당을 해쨌요. 즈그 두째 성은 먼저 대우자동차 회사에 가 이 쨌쨌요.{빛이 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빛을 쥘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빛 을 지고 둘째 형이 감당을 했어요. 자기 둘째 형은 먼저 대우자동차 회사에 가 있었어요.}
- 10201 # 그 회사에 드리갈 쨌게, 엄마 이러구이러구 헐디 회사에를 드리가야는디 내가 도니 피료헐디 어쨌, 허고 고창까지 쫓차와떠라구요.{그 회사에 들어갈 적에, 엄마 이러고이러고 하는데 회사에를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돈이 필요한 데 어떻게 해, 하고 고창까지 쫓아왔더라고요.}
- 10201 # 그리서 얼마면 피료허냐 형게, 얼마를 이쓰야는디, 나 장으 가꼬 땡기는 돈 쥘마니를 다 터러도 그 도내서 쫓까 모지래쨌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하니까, 얼마가 있어야 하는데, 나 장에 갖고 다니는 돈주머니를 다 털어도 그 돈에서 조금 모자랐어요.}
- 10201 # 아나, 시번짜리까지 이눔 이르게 다 터리중게 이눔 가꼬 가서 어트케 해 라.{아나, 십원짜리까지 이거 이렇게 다 털어주니까 이것 갖고 가서 어떻게 해라.}
- 10201 # 내가 이꼬 안 주는 걸 아니고, 내 힘꼇 이르게 해도 이르게 땡게, 인자 나는 힘꼇 너한테 도와쥬쨌게 너는 너 힘꼇 어치게 해 봐라 해떠니, 어트케 해가꼬 그 대우자동차 회사로 드리가더라고.{내가 있고 안 주는 것 아니고, 내 힘꼇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는 힘꼇 너한테 도와쥬었으니까 너 는 네 힘꼇 어떻게 해 봐라 했더니, 어떻게 해서 그 대우자동차 회사로 들어 가더라고.}

- 10201 # 그래가꼬 도늘 버러가꼬 아빠트도 사고, 어찌고 행는다. 그때 대우자동차 회사에 또 뭘 큰 베랑 마저짜나요, 날리 나썰짜나요. 그때 거그서 또 찰러버 려썬썬요.{그래서 돈을 벌어갖고 아파트도 사고, 어찌고 했는데. 그때 대우자동차 회사에 또 무슨 큰 벼락 맞았잖아요,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또 찰 러버렸어요.}
- 10201 # 그래가꼬는 선운산 풍천장어를 헌다고, 여과늘 헌다고 뭘슬 어찌고 어찌 고 허더니, 뭘시 안되안는가봐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 빔 떠안꼬, 워찌고 해가 꼬는 시방, 거시기 거가 도미니카? 인도라거덩가 도미니카라거덩가, 시방 외 구게 나가서 이썬썬요.{그래서 선운산 풍천장어를 한다고, 여관을 한다고, 무엇 을 어찌고 어찌고 하더니, 무엇이 안 되었는가봐요. 그래서 제 동생 빔 떠안 고, 어찌고 해서는 시방, 거시기 거기가 도미니카? 인도라고 하던가 도미니카 라고 하던가, 시방 외국에 나가서 있어요.}
- 10201 # 아이고, 그렇게 사람사는 거시. 쌍둥이 두른 그대로 여그서 살고 인는다, 또 막둥이 쌍둥이는 애기랑 남매 난는다, 거그도 또 이 여자가 나가버리고. 그르케 얌전허던 거시, 내 누네 그르케 들고, 칭찬을 헌 메누리가 그르케 나 가버려썬썬요.{아이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이. 쌍둥이 둘은 그대로 여기서 살 고 있는데, 또 막둥이 쌍둥이는 애기랑 남매 났는데, 거기도 또 이 여자가 나 가버리고. 그렇게 얌전하던 거시, 내 눈에 그렇게 들고, 칭찬을 한 며느리가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 10201 # 큰아들 메누리 업씨, 무장 또 그 아저씨 큰아들 메누리 나가버려썬. 아그, 딸 슌, 아들 하나 노코, 나코 나가버려썬.{큰아들 며느리 없이, 무장 또 그 아 저씨 큰아들 며느리 나가버렸지. 아이, 딸 셋, 아들 하나 놓고, 낳고 나가버렸 지.}
- 10201 # 또 쌍둥인디, 막둥이 쌍둥이가 아들 딸 남매 나노코, 아 세상에 어느 남 자허고 바람 나가꼬,그러코 땡기등갑뜨만. {또 쌍둥이인데, 막둥이 쌍둥이가 아들 딸 남매 낳아 놓고, 아 세상에 어느 남자하고 바람 나갔고 그렇게 다니 는가보더만.}
- 10201 # 아드른 이 생수 배다를 행때요. 이르케 새파란 물통 요마는거, 거그다 해 가꼬 배다를 허머는, 에르벨타 인는디는 에레베타로 가는디 에레베타 음는디 는 한나 여그다 영꼬 한나 들고 그 계다늘 올라댕기고 내려댕기고.{아들은 이 생수 배달을 했대요. 이렇게 새파란 물통 요만한 거, 거기다 해갖고 배달을 하면은,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 하나 여기다 었고 하나 들고 그 계단을 올라다니고 내려다니고.}
- 10201 # 새벽 나가서 그르케 허머는 뭘던 때는 저너게 두로머는 업씨머는 애기들 뽀고 엄마 어디 간냐? 허면, 엄마 직장 가따경게 그런 줄만 아라매요. 그래떠 니 바람 나가꼬 그러고 땡겨땡가봐요.{새벽 나가서 그렇게 하면은 어떤 때는 저녁에 들어오면은 없으면은 애기들보고 엄마 어디 갔냐? 하면,— 엄마 직장

갔다고 하니까 그런 줄만 알았대요. 그랬더니 바람 나갔고 그렇게 다녀던가봐요.}

10201 # 그리고 버리서 인자 아파뜨랑 산네티. 그리고 이씨도 몰란네티, 그 바람난 남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 사라마 자네는 살리물 어치케 허간디 자네 마누라 바람 난지도 모링가.{그렇게 벌어서 이제 아파뜨랑 샀는데. 그리고 있어도 몰랐는데, 그 바람난 남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살림을 어떻게 하기에 자네 마누라 바람 난 줄도 모르는가?}

10201 # 우리 아드러고 이르고 이르고 해서 바람 나서 우리 메누리가 나가게 생겨 씨니 이거 어찌할 꺼신가. 자네 마누래 단속 쪼까 허소.{우리 아들하고 이렇고 이렇고 해서 바람 나서 우리 며느리가 나가게 생겼으니 이거 어찌할 것인가? 자네 마누라 단속 좀 하소.}

10201 # 그거시 발각 땡게 기양, 두리, 우리 메누리허고 그 남자하고 그양, 어디로 간지온지 모르게 나가버려때요.{그것이 발각되니까 그냥, 둘이, 우리 며느리하고 그 남자하고 그냥 어디로 간지온지 모르게 나가버렸대요.}

10201 # 그렇게 애기드리 시방 남매거뜨리 인는데, 머시마가 그래요. 즈그 엄마가 승이 유씨대요. 근데 유씨는 어찌고어찌고 한다거먼. 할머니, 유씨 말도 하지 마세요. 유씨 징그러요. 즈그 엄마 성짜도 내노치 마라개요, 가는 또.{그러니까 아이들이 시방 남매가 있는데, 남자애가 그래요. 자기 엄마가 성이 유씨래요. 그런데 유씨 어찌고어찌고 한다고 하면, 할머니, 유씨 말도 하지 마세요. 유씨 징그러워요. 자기 엄마 성 자도 내놓지 말라고 해요, 그 애는 또.}

10201 # 궁게 지금 세상이, 지금 여우, 겨론식 해서 올려서 보내는 거시 아니라, 사능게 문제예요. 예, 사능게.{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결혼식 해서 올려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게 문제예요. 예, 사는 게.}

10201 # 궁게 우리 목싸님 밤나 지금 시대가 막창 시대가 와씨요, 와씨요, 그러더니. 지그믄 너무나 여자가 민주화가 되야가꼬 남자를 이겨먹는 세상이라 {그러니까 우리 목싸님 밤나 지금 시대가 막창 시대가 왔어요, 왔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너무나 여자가 민주화가 되어서 남자를 이겨먹는 세상이라.}

10201 # 옛날가치 여자가 어디 추렴또 안허고 사는 세상이 도라와야 할랑가배.{옛날같이 여자가 어디 출입도 안 하고 사는 세상이 돌아와야 하는가봐.}

10201 @ 아이고 참.{아이고, 참.}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4 @ 여기 아래 미륵땅 얘기는? 미륵, 미륵. 미륵땅 얘기는 어트게 되는 거예요.{여기 아래 미륵당 얘기는? 미륵, 미륵, 미륵당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104 # 거그는유, 제가, 아까 다설쌀 머거서 여기 와딱 해짜나요. 이리 강경서.

인자 그 모르고 사란는데,{거기는데요, 제가, 아까 다섯 살 먹어서 여기 왔다고 했잖아요. 이리 강경에서. 이제 그 모르고 살았는데.}

10104 # 그 자연산 미르기어요. 미릉님이. 미르기 인제 자연사닌디. 미테가 기냥 이르게 큰 바위가 이썬요.{그 자연산 미륵이에요, 미륵님이. 미륵이 자연산인데, 밑에 그냥 이렇게 큰 바위가 있어요.}

10104 # 바위가 인는디서 도리 이러케 해져가지고 또 얼굴 모양이 이러케 이꼬, 위에 이르게 가슬 썬썬요. 돌가스로, 이르게 돌가스로. 그래 눈썹또 이르게 패여서 그려지고, 눈도 그려지고, 코도 그려지고, 귀도 다 이르게 이꼬. 이 사람 형상이 다 이썬요. 손도 이르게 해서 요로케 허고, 요로케고 이꼬.{바위가 있는 데서 돌이 이렇게 해져가지고 또 얼굴 모양이 이렇게 있고, 위에 이렇게 갓을 썬어요. 돌갓으로, 이렇게 돌갓으로. 그래 눈썹도 이렇게 패여서 그려졌고, 눈도 그려지고, 코도 그려지고, 귀도 다 이렇게 있고. 이 사람 형상이 다 있어요. 손도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있고.}

10104 # 그러는디, 거그 미릉님, 미륵 그 주인 하라버지 손지딸허고 저허고 친구예요. 나이도 동가베다가 청군디. 요 너맨마으레 사라썬요.{그랬는데, 거기 미륵님, 미륵 그 주인 할아버지 손주딸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나이도 동갑에다가 친구인데. 요 너머 마을에 살았어요.}

10104 # 그러고 지금 인쁜 저른 업꼬요. 거그 저테 집또 업꼬. 그래가지고 그리는 밤나무가 서썬썬요. 밤나무가, 뎡끄루가 기양 쪽 서썬썬요. {그리고 지금 있는 절은 없고요. 거기 곁에 집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밤나무가 썬었어요. 밤나무가, 몇 그루가 그냥 쪽 썬었어요.}

10104 # 이르게, 저 중덜 여그다 이르게 걸치고 이르게 목딱 치자나요. 그거슬 업꼬 저그서 할머니는 요마년 웅지리 시리에다가 떠글 썬가지고 으파가 쟁반 바쳐서 이르게 들고 오고, 하라버지는 이르게 목따글 침서, 또당또당 목따글 침서, 저가 잔등이 이썬는디, 그 잔등을 너머서 그 미릉님한테를 와요.{이렇게, 저 중들 여기에다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목탁 치잖아요. 그것을 업꼬 저기서 할머니는 요만한 웅기 시루에다가 떡을 썬가지고 어디에다가 쟁반 받쳐서 이렇게 들고 오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또당또당 목탁을 치면서, 저기에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을 넘어서 그 미륵님한테 와요.}

10104 # 그러머는, 지비 이르게 초가지비어썬요. 가시로는 옛날 판자 대고 흑노코 이르게 투던 흑땀, 뚜드려서 진 흑따므로 해가지고 이르게 방 한 칸, 거그다 북 땀는 뵙 한 칸.{그러면, 집이 이렇게 초가집이었어요. 가로는 옛날 판자 대고 흑 놓고 이렇게 두던 흑땀, 뚜드려서 지은 흑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방 한 칸, 거기에다 불 때는 부엌 한 칸.}

10104 # 미르긴는 님 방 한, 자리에 가서 방 한 칸, 그 부엌 한 칸, 그르케 이꼬. 궁게 옛날레는 농사덜또 작꼬 형게, 아 그 지병을 이르게 마람을 여껴서, 지푸라그로 마람을 여껴서 이야는디, 그 일 거시기가 읍썬. 읍썬서 그르케 근그

니 지내는다.{미륵 있는 님 방 한, 자리에 가서 방 한 칸, 그 부엌 한 칸,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들도 작고 하니까, 아 그 지붕을 이렇게 마름을 엮어서, 짚으로 마름을 엮어서 이어야 하는데, 그 일 거시기가 없어. 없어서 그렇게 근근히 지내는데.}

10104 # 유기오 때 무려베 즈그 친척간디 인저 피난 가다가는 술 먹꼬, 아 멜겁 씨, 그 안 되는 이리제. 이런 거시 뭘 느므 미러기여, 이런 거시 뭘 사라미여. 그러고는 가서 미령님 기양 빠마대기를 부쳐때요.{육이오 때 무렵에 저희 친척인데 이제 피난 가다가는 술 먹고, 아 맥없이, 그 안 되는 일이지. 이런 것이 뭘 미륵이여, 이런 것이 뭘 사람이여. 그러고는 가서 미륵님 그냥 뺨을 때렸대요.}

10104 # 이 그 도, 도글, 돌 미륵니를 이 짹 뺨 때리고 저 짹 뺨 때리고. 그 둥미 륵님 빠마대기를 부쳐댄는다, 자기가 요로코 부서버려써. 요로코 버를 바더 서.{이 그 도, 돌을, 돌 미륵님을 이 쪽 뺨 때리고 저 쪽 뺨 때리고. 그 돌미 륵님 뺨을 부쳐냈는데, 자기가 요렇게 부어버렸어. 요렇게, 벌을 받아서.}

10104 # 그러고는 거기 애기 부처라고, 이르게 쪼깐썩건 부체를, 돌로 만든 부체가 인는다, 그거슬 가따가 그 도로가애, 요만한 웅챙이 고 둥뎡 방죽 까튼 거시 인는다 거그다 미러 느버렘꼬.{그러고는 거기 애기 부처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부처를, 돌로 만든 부처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그 도로가애, 요만한 웅덩이, 그 둥뎡 방죽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 밀어 넣어버렸고.}

10104 # 그리가지고 인자 이 사라미 버를 바더서 이르게 부서가꾸 몬쌀게 생깁게 다덜 미륵님한테다 그랜따능겨. 가서 찬물로 모꼭 허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옥 해서, 물 찌크러서 모옥 허고 가서 잘못 했따고 비르라고, 미륵님 아 폐가 비르라고.{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벌을 받아서 이렇게 부어서 못 살게 생겼으니까 다들 미륵님한테 그랬다는 거야. 가서 찬물로 목욕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목욕해서, 물 뿌려서 목욕하고, 가서 잘못 했따고 빌라고, 미륵님 앞에 가 빌라고.}

10104 # 뭘 그까싱 거시 거시기양. 자네 미륵님한테 가서 안 빌면 은지까지 그러고 부서가꼬 고상히야여, 더 큰 고상히야여. 그렇게 어서 고집 내지 말고 가서 그러케 하라고 그렇게.{뭘 그까짓 것이 거시기 그냥. 자네 미륵님한테 가서 안 빌면 언제까지 그렇게 부어서 고생해야 해. 더 큰 고생해야 해. 그러니까 어서 고집 내지 말고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10104 # 인제 대쿤년 안 되거썩게 그러케 해서 사흘 된네, 이르게 부서가꼬 기양 몬 쓰게 생깁게, 가서 대쿤년 모옥 허고 그러고 가서 몰팍 풀코 비렘때요.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흘 뒤에, 이렇게 부어서 기냥 못 쓰게 생기니까, 가서 목욕하고 그렇게 하고 가서 무르팍 꿇고 빌었대요.}

10104 # 그리떠니, 큰 죄를 지어썩게 살려주라고 비러떠니, 아이 그게 짹 가셔썩 요. 거기. {그랬더니, 큰 죄를 지었으니 살려주라고 빌었더니, 아이 그게 짹

없어졌어요. 그것이.}

10104 # 그래도 모르는데, 여그서 말고 또 저그 저 송제가 또 미르기 이썬요. 동미르기. 거그는 농 까운데가 이썬요, 미르기.{그래도 모르는데, 여기 말고 또 저그 저 송제가 또 미룩이 있어요. 돌미룩이. 거그는 논 가운데 있어요, 미룩이.}

10104 # 근디 거그 미릉니믄 남자대요. 여그 미릉니믄 여자고. 그러는데, 송제 농 까운데가 인는 미릉니믄 이르게 도글 시어서 이르게 미릉니믄 나오게 해노머는, 아 그 마을 싸람드리 바라미 나, 여자드리. 저 송제리.{그런데 거기 미룩님은 남자래요. 여기 미룩님은 여자고. 그러는데, 송제 논 가운데 있는 미룩님을 이렇게 돌을 세워서 이렇게 미룩님을 나오게 해 놓으면은, 아 그 마을 싸람들이 바람이 나, 여자들이. 저 송제리.}

10104 # 그렇게 농 까운데 그 인는 미릉니믄 세우들 모더고, 그러코 뉘어그리고 기양 무더버런짜나요. {그러니까 논 가운데 그 있는 미룩님을 세우지를 못하고, 그렇게 뉘어버리고 그냥 물어버렸잖아요.}

10104 # 궁게, 거그 미릉님허고 여그 미릉님허고 이르게, 사람 가트면 부부대요. 부부.{그러니까, 거기 미룩님하고 여기 미룩님하고 이렇게, 사람 같으면 부부래요. 부부.}

10104 # 그러는데, 여그 인자 미릉님 인자 저그서 인자 목딱 치고 그르게 떡 히가 꾸 땡기던 양반드리 논도 읍꼬 형게, 그 열라면 여끄궁게 인자, 가난허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형게, 누가 와서 인자 그 미릉니믄 파르라고 소개를 해땡가 바요, 워디 서울 싸라미. {그러는데, 여기 이제 미룩님 이제 저그서 이제 목딱 치고 그렇게 떡 해갓고 다니던 양반들이 논도 없고 하니까, 그 열라면 이제,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누가 와서 이제 그 미룩님을 팔라고 소개를 했던가봐요, 어디 서울 사람이.}

10104 # 그렇게 열매 받기로 파라능고 허는고니, 나락 세 가마니 받기로 판닥 해 때요. 판다구 헐는다.{그러니까 열매 받기로 팔았는고 하는고 하니, 나락 세 가마니 받기로 판다고 했대요. 판다고 했는데,}

10104 # 그때는 우리 시숙또 안 되야 쏘리, 저 겨론 아내쫘게, 시숙또 안 되얀는디, 여그서 살던 그 양바니 이르게 장게, 꾸메 저그 아페서 먼 사람드리 기냥 끼리끼리 든 청년드리, 꾸메 오머는, 어쁜 사라미 그 양반 말로 그래요. {그때는 우리 시숙도 안 되어 소리, 저 결혼 안 했으니까, 시숙도 안 되었는데, 여그서 살던 그 양반이 이렇게 자니까, 꿈에 저기 앞에서 무슨 사람들이 그양 끼리끼리 든 청년들이, 꿈에 오면은 어떤 사람이, 그 양반 말로 그래요.}

10104 # 가라대, 가라대 소니로, 요로케 한 번만 하면 턱 꺼울러 지고, 요로케 한 번만 하면 턱 꺼울러 지고 그러더래요.{가라대, 가라대 손으로, 요렇게 한 번만 하면 턱 거꾸러지고, 요렇게 한 번만 하면 턱 거꾸러지고 그러더래요.}

10104 # 일트르면 내일 미릉니믄 파루 올 날잔디, 오늘 밤에 그르게 꾸를 꾸워써

요. 그 양반이.{이를테면 내일 미륵님을 파러 올 날자인데, 오늘 밤에 그렇게 꿈을 꾸었어요. 그 양반이.}

10104 # 그렇게 인자 그 양반이 이거시 보통 이리 아니라고, 이 동네 쏘가 될까승게, 이 보통 이리 아닝게 어트케 허면 쓰거냐고.{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 동네 소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10104 # 이 자연사네서 이르게 생긴 미륵니를, 이르게 팔라머는 그 독또 다 뜨려야 가져갈 꺼 아니냐, 파서. {이 자연산에서 이렇게 생긴 미륵님을, 이렇게 팔려면은 그 돌도 다 뚫어야 가져갈 것 아니냐, 파서.}

10104 # 그러는디 우리 동네 사람들 쏘가 되머는 한나 이르게 때리면 쓰러지고, 한나 때리면 쓰러지고, 그러케 해서 그 쏘가 다 쓰러져서 주그니 그 어치케 헐 이리냐? {그러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 소가 되면은 하나 이렇게 때리면 쓰러지고, 하나 때리면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그 소가 다 쓰러져서 죽으니 그 어떻게 할 일이나?}

10104 # 그렇게 우리가 다 십씨일바니로 지뿌랑 메 무씩 다 겐짜. 거더가지고 고 노를 이고, 지비 아무리 골란허다개도 나락 시 가마니 그 놈 받꼬 팔지 말고, 미륵니를 두자.{그러니까 우리가 다 십시일반으로 쥘 몇 못씩 다 겐자. 겐어가지고 그것을 이고, 집이 아무리 곤란하다고 해도 나락 세 가나미 그 놈 받고 팔지 말고, 미륵님을 두자.}

10104 # 그리가지고 그 미륵니를 안 파라쎄요. {그래서 그 미륵님을 안 팔았어요.}

10104 @ 자라신 건널 가트네.{잘하신 일 같으네.}

10104 # 예, 그 꾸므로 해서글 해서. 아이 안 팔고는 인자 거그서 인자 그 미륵님네 주인네가 인자 지비 업쥬게 그 아페다가 인자 그집 아드리 요마넨 트를 짜가꼬는 흙뽕또를 찌거쎄요.{예, 그 꿈으로 해석을 해서. 아이 안 팔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미륵님네 주인네가 이제 집이 없으니까 그 앞에다가 이제 그 집 아들이 요만한 틀을 짜서 흙벽돌을 찍었어요.}

10104 # 흙뽕또를 찌거가꼬 방 두개 허고 부엌 항 칸 허고 해서 지어가고 살다가, 아 이누무 저서기, 그르케 지비랑 지꼬 새미랑 파쎄요. {흙벽돌을 찍어서 방 두 개하고 부엌 한 칸 하고 해서 지어서 살다가, 아 이놈의 녀석이 그렇게 집이랑 짓고 샘이랑 팠어요.}

10104 # 이르게 그때는 기계로도 아니고, 이르게 도르래 시그로 해서 연신 파서, 바께쓰로 올라노머는, 흙 북꼬 또 내려주면 거그서 해서, 그르케 인저 새미랑 파서 무리랑 나고 그러는디.{이렇게 그때는 기계로도 아니고, 이렇게 도르래식으로 해서 계속 파서, 양동이로 올려 놓으면은, 흙 붓고 또 내려주면 거기서 해서, 그렇게 이제 샘이랑 파서 물이랑 나고 그러는데.}

10104 # 아이 그르케 해 노코는 워디로 돈 벌러 간다고 가드니, 멘너늘 종문소시

그로 오들 아녀요. {아이 그렇게 해 놓고는 어디로 돈 벌러 간다고 가더니, 몇 년을 중무소식으로 오지를 않아요.}

10104 # 그리서 어디가 주근줄 아라떠니 죽찌는 안코 사람때요. 살고 인때요. {그래서 어디 가 죽은 줄 알았더니 죽지는 않고 살았대요. 살고 있대요.}

10104 # 근디 그 거시기 큰아드 큰 뽕뽕으로 아파서 딸 하나 나코 어치케 서두려서 기양 즈그 부이늘 친정으로 보내고 죽어썰요. {그런데 그 거시기 큰아들은 폐병으로 아파서 딸 하나 낳고, 어떻게 설득해서 그냥 자기 부인을 친정으로 보내고 죽었어요.}

10104 # 근디 죽기 저네 인자 딸 하나 인는디 부이늘 보내놓게 얼마나 가시미 아프거썰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제 딸 하나 있는데, 부인을 보내 놓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10104 # 그렇게 가 노래가, 오은주 오은주 노래, 엄마엄마 도라와요, 어서 빨리 도라와요, 그 노래 그노를 계속 그 텡프만 트러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오은주 오은주 노래, 엄마엄마 돌아와요, 어서 빨리 돌아와요, 그 노래 그것을 계속 그 텡입만 틀어요.}

10104 # 그러다가 복 괴고 죽꼬, 지금도 그 미릉니미 인는디, 시방 그 지비랑 조케 해 노키는, 아 으서 똥금음는 남자 때깁썰이 오더라구요. 총각중이. {그러다가 복 괴고 죽고, 지금도 그 미릉님이 있는데, 시방 그 집이랑 좋게 해 놓기는, 아 어디서 똥금없는 남자 때깁중이 오더라구요. 총각중이.}

10104 # 총각중이 드러와가꾸는 거 미릉님 인는디 거그서 밥또 해먹꼬, 고 어찌고 어찌고 중 생화를 허더니, 아 거기서 도늘 버러썰요. 그 중이. {총각중이 들어와서 그 미릉님 있는 데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그 어찌고어찌고 중 생활을 하더니, 아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그 중이.}

10104 # 중이 도늘 버러가꼬는 인자 거그 절도 크게 지꼬, 중 단 종각또 지꼬, 한차물 기양 사라미 미어지게 땡기고 그랜는디, {중이 도늘 벌어서 이제 거기 절도 크게 짓고, 중 단 종각도 짓고, 한참을 그냥 사람이 미어지게 다니고 그랜는데.}

10104 # 그러케 돈 벌때 쪼꼬미라도 애그미라도 해노코 어찌고 해쓰면 허는디, 어따 막 노코 막 썬버러땡가봐요. {그렇게 돈 벌때 조금이라도 예금이라도 해 놓고 어찌고 했으면 하는데, 어디에 막 놓고 막 썬버렸던가봐요.}

10104 # 글 아티마는 술만 머그머는 기냥 아이구 팬티 빠라미고, 그양 빼알딱 번꼬 기양, 칼 들고 땡기고 기냥, 한차물 이 동네 싸람드리 얼마나 가스물 조이고 사란는지 몰라요. {그렇게 앓더니만 술만 먹으면은 그냥 아이구 팬티 바람이고, 그냥 훌딱 벗고 그냥, 칼 들고 다니고 그냥, 한참을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을 조이고 살았는지 몰라요.}

10104 @ 중이? {중이?}

10104 # 예, 지금 중 사라가꼬 시방 고창 뽕워네 이번해가꼬 이썰요. {예, 지금 중

살아서 시방 고창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10104 # 으디 안 나간다정계 내가 시방 이 얘기를 허네요. 테레비 가튼데 뒤에라도 어디 뭐시라도 나간다고면 안 되지 해서.{어디 안 나간다 하니까 내가 시방 이 얘기를 하네요. 텔레비전 같은 데 뒤에라도 어디 뭇이라도 나간다고 하면 안 되지 해서.}

10104 # 그러는디, 사라가꼬 인는다. 메락읍씨 기양 칼로 찢러 주긴다고허고 어쩐다고. {그러는데, 살아서 있는데. 맥없이 그냥 칼로 찢러 죽인다고 하고 어쩐다고.}

10104 # 근데 추서기 닥쳐서 우리 애기드리 와서 바테루 땅콩을 캐러 갈라구 허구 허는데, 누가 와서 그래요. 지베 땅콩 바테서 캐는 캐가 영글고 조용게 뒤 대 뻥 도라고, 사라고, {그런데 추석이 닥쳐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밭으로 땅콩을 캐러 가려고 하고 하는데, 누가 와서 그래요. 집에 땅콩 밭에 심은 캐가 영글고 좋으니까 두어 뒷박 달라고, 팔라고.}

10104 # 그래서는 그누를 살라고 소시랑 땅콩 캐는 연장을 가꼬 가다가, 그 끝막 크다 놔두고 와떠니, 위매 수리 취하능게 기양 그누물 가꼬 땡김서 찢코 어찌고 기양 그래가꼬는.{그래서는 그놈을 팔려고 소시랑 땅콩 캐는 연장을 갖고 가다가, 그 끝에다 놔두고 왔더니, 위매 술이 취하니까 그냥 그놈을 갖고 다니면서 찢고 어찌고 그냥 그래서.}

10104 # 우리 애기 인자, 우리 재성이가 즈그 친구드론 데꼬 와가꼬, 추서강게 땅콩 캔다고 바테서 캐고 인는다, 내가 인자 뒤에 따라서 강게, 아이 소시랑을 들고 내 뒤를 이르고, 이르고 들구 기양 따라와요. 내 뒤에를.{우리 아이 이제, 우리 재성이가 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추석이니까 땅콩 캔다고 밭에서 캐고 있는데, 내가 이제 뒤에 따라서 가니까, 아이 소시랑을 들고 내 뒤를 이렇게, 이렇게 들고 그냥 따라와요, 내 뒤에를.}

10104 # 내 뒤를 따라오는디 곰방 곰방 곧 찢거버릴 꺼 가터요. {내 뒤를 따라오는데 곰방 곰방 곧 찢어버릴 것 같아요.}

10104 # 아따 가시미 쿵닥쿵닥쿵닥 허더마는. 니가 어딘가는 모르게 미릉니미 지켜주고 부쳐니미 지켜 줄꺼 가트면 니가 이런 새리는 안 내린. {아따 가슴이 쿵닥쿵닥쿵닥 하더마는. 네가 어딘가는 모르게 미륵님이 지켜주고 부쳐님이 지켜 줄 것 같으면 네가 이런 살인은 안 내린.}

10104 # 그러고는 인저 지를 건너서 갈라정계. 또 가스를 놀래컬라고 아래에서 차가 올라오고 우게서 차가 내려가고. 그 차를 비킬랑게 인자 거가 서찌요, 저는 {그러고는 이제 길을 건너서 가려고 하니까. 또 가슴을 놀라게 하려고 아래에서 차가 올라오고 위에서 차가 내려가고. 그 차를 비키려니까 이제 거기에 섰지요, 저는}

10104 # 궁게 바테서 아그드리 봉게, 아이구 재성아 재성아, 크닐나따 저 소시랑 들고 느그 엄마 찢글라고 저러고 이쓰니 어쩐다, 야 크닐 나따, 크닐 나따.

{그러니까 밭에서 아이들이 보니까, 아이고 재성아, 재성아, 큰일났다, 저 소시랑 들고 네 엄마 찍으라고 저러고 있으니 어쩐다니?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10104 # 어어, 설마 그러까 힌는디, 그리도 참마 찍편 모더더라고.{어어, 설마 그럴까 했는데. 그래도 차마 찍지는 못하더라고.}

10104 # 그리서 지를 건너서 가서 이러고 완는디. {그래서 길을 건너서 가서 일하고 왔는데.}

10104 # 메라급씨 그르케 술 안 머글 찌게는 저레 손님도 그르케 마넌는디, 술 먹고 그럼서는 저레 손님도 싹 떠러지고, 인자는 당노로 합병쫘이 와가꼬 {맥없이, 그렇게 술 안 먹을 적에는 절에 손님도 그렇게 많았는데, 술 먹고 그러면서는 절에 손님도 싹 떨어지고, 이제는 당노로 합병증이 와서.}

10104 # 어저께 그 병 가는 사람 얘기를 드룽게요. 몬 쌀고 죽꺼대요. 인제 현소리까지 현대요. {어저께 그 병 가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요. 못 살고 죽겠대요. 이제 헛소리까지 현대요.}

10104 @ 뭇 싸리나 머건썬요?{뭇 살이나 먹었어요?}

10104 # 안죽 오십쌀 몬 머거썬 거여요. 우리 큰아들보담 들 머거썬요.{아직 오십살 못 먹었을 거예요. 우리 큰아들보다 덜 먹었어요.}

1.2. 일생 의례

1.2.6. 환갑잔치

10223 @ 엔나레 환가븐 어트게 하셔썬요?{옛날에 환갑은 어떻게 하셨어요?}

10223 @ 환가븐 엔나레 좀 상당히 큰, 큰니리언쥬?{환갑은 옛날에 좀 상당히 큰, 큰일이었쥬?}

10223 # 큰니리제, 큰 잔치제. 부모잔치로서는 환갑 잔치가 쥬 크지.{큰 일이지. 큰 잔치지. 부모잔치로서는 환갑 잔치가 제일 크지.}

10223 @ 그럼 이제 그거슨, 환갑 때는 무어슬 어떠케 준비를 하션나?{그럼 이제 그것은, 환갑 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

10223 # 트키 인저, 천째, 이 시고레서는 이 도냐지를 자버야제.{특히 이제 첫째, 이 시골에서는 이 돼지를 잡아야지.}

10223 # 도냐지를 두 마리나 자번썬. @ 그래요? {돼지를 두 마리나 잡았어. 그래요?}

10223 # 도냐지를 자버야, 도냐지 안 잡꼬, 한자깁, 시고레서 잔치라거면 도냐지 안 자브면 잔치가 아닝게.{돼지를 잡아야, 돼지 안 잡고, 환갑, 시골에서 잔치라고 하면 돼지 안 잡으면 잔치가 아니니까.}

10223 @ 상당히 크구나.{상당히 크구나}

10223 # 그럼. 큰 잔치제잉. {그럼. 큰 잔치지.}

10223 @ 돼지면, 동네 사람 전체를 다. 그리고요?{돼지면, 동네 사람 전체를 다. 그리고요?}

10223 # 그리고 젤 허는 거시 인자, 천째 이 절라도, 절라북도에서는 도냐지 자버 야허고, 인저 홍어 회평을 히야돼. 그게 빠지면 잔치가 안 도냐.{그리고 제일 하는 것이 이제, 첫째 이 전라도, 전라북도에서는 돼지 잡아야 하고, 이제 홍 어 무침을 해야 돼. 그게 빠지면 잔치가 안 돼.}

10223 # 도냐지 안 잡꼬 홍어 회를 아내며는, 홍어를 안 사며는 잔치가 안 도냐. 그인자 수리, 수리 뉘시고 첫째.{돼지 안 잡고 홍어 회를 안 하면은, 홍어를 안 사면은 잔치가 안 돼. 그 이제 술이, 술이 뉘이고 첫째.}

10223 # 술허고 그 안주, 인자 그 외에 과일 가튼 거 자여니 따라 가는 거시지. 인제 그건 드러가야더.{술하고 그 안주, 이제 그 외에 과일 같은 것은 자연히 따라 가는 것이지. 이제 그건 들어가야 돼.}

10223 # 잔치 허는디 수리 읍꼬 안주가 업쓰면 안 되제잉. 술. {잔치 하는데 술이 없고 안주가 없으면 안 되지. 술.}

10223 @ 홍어회를 홍어회평이라고도 하시는가요? 회평이라는 마른 무슨 뜨시여? {홍어회를 홍어회평이라고도 하시는가요? 회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여?}

10223 # 무칭게, 무칭게. 사쓰미라 허는 거슨 그냥 안 무치고 쓰러서 사쓰미라거 고 {무친 것, 무친 것이. 사시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무치고 썰어서 사시 미라고.}

10223 @ 그런 거슬 자제분들끼리 이러케 준비를 허는가요? 아니면 동네에서 뭐 게 가튼 거시 인나요?{그런 것을 자제분들끼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가요? 아니면 동네에서 뭐 게 같은 것이 있나요?}

10223 # 그걸 인자 자제덜, 아들뜨리 허제.{그것을 이제 자제들, 아들들이 하지.}

10223 # 그러면 인자 동네에서 그거또 계가 있제. 회갑잔치 하든지, 부모 회갑때 쓰는 그 인자 또 계가 이써.{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그것도 계가 있지. 회갑잔 치 하든지, 부모 회갑때 쓰는 그 이제 또 계가 있어.}

10223 @ 그런 계는 그 무슨 계라고 해써써.{그런 계는 무슨 계라고 했었어?}

10223 # 회갑계라는거 이써제. 부친 회갑계라고. 예, 크지.{회갑계라는 거 있었지. 부친 회갑계라고. 예, 크지.}

10223 @ 회갑계는 그저네는 어트게, 도늘 모아요?{회갑계는 그 전에는 어떻게, 돈을 모아요?}

10223 # 인저 추리비 이꼬, 추렴 헐 쯤게 그건 인자 계, 인자 계그미 이꼬. 추렴 얼마 인자. 어 대략 계그믄 거시기 안 쓰지.{이제 추렴이 있고, 추렴 할 적에 그건 이제 계, 이제 계금이 있고. 추렴 얼마 이제. 어 대략 계금은 거시기 안 쓰지.}

10223 # 약간, 그건 인자 회가비 닥철따, 나므에 회가비 닥철따 허면 추리믈 허

지.{약간, 그건 이제 회갑이 닳쳤다, 남의 회갑이 닳쳤다 하면 추렴을 하지.}

10223 # 추르믄 해서, 그때 인자 도느로 드린다든지, 엔나렌 그냥 나라그로 준다는지, 벼. 그러치 아르면 인자 술로, 술 땡땡씩 드린다든지 이런.{추렴을 해서, 그때 이제 돈으로 들인다든지, 옛날엔 그냥 나락으로 준다는지, 벼. 그렇지 았으면 이제 술로, 술 몇 동이씩 들인다든지 이런,}

10223 # 돈, 나라그로 거시험서는 보머는.{돈, 나락으로 거시기 하면서 보머는.}

10223 @ 지베서 다머가지고?{집에서 담아가지고}

10223 # 아니. 술 가튼 거슨 인자, 지베서 쓰는, 인자 그거슨 수를 도느로 줘 그냥. 술까브로 땡땡으깁{아니. 술 같은 것은 이제, 집에서 쓰는, 이제 그것은 술을 돈으로 줘 그냥. 술값으로 몇 동이 값.}

10223 # 썩 허며는, 지금 그 저네는 회갑잔치 허면 지비서 마니 해꺼등. 바드라 허는 잔치는 저거씨.{썩 하면은, 지금 그 전에는 회갑잔치 하면 집에서 많이 했거든. 받으라 하는 잔치는 적었어.}

10223 # 우리야두 인자 지비서 인자 공력때로 인자 가주러 만드러서 인자 잔치 지.{우리도 그양 집에서 이제 공력대로 이제 갖춰 만들어서 이제 잔치지.}

10223 # 가져다가, 주자에서 가따가 회갑잔치 허는 사람 드무런제.{가져다가, 주정에서 갖다가 회갑잔치 하는 사람 드물었지.}

10223 @ 어르시는 회갑잔치 하셧쎄요?{어르신은 회갑잔치 하셧어요?}

10223 # 어, 헐제.{어. 했지.}

10223 # 어디서 하셔, 여기 대게서 하셧쎄?{어디서 하셔, 여기 책에서 하셧어?}

10223 # 예. 지비서 헐제. 지금잉게 이자 예식짱이 가서 허고, 식당이 가서 허고 그러제. 다 지비서 잔치를 허고.{예. 집에서 했지. 지금이니까 이제 예식장에 가서 하고, 식당에 가서 하고 그러지. 다 집에서 잔치를 하고.}

10223 # 돼지 두 마리나 자바서 헤트라 낱떠니 겹나드라고.{돼지 두 마리나 잡아서 벌어놔더니 겹나더라고.}

10223 # 도ㅏ지 두 마리를, 한 마리는 그냥 거시기루 유기쳐서 먹꼬.{돼지 두 마리를. 한 마리는 그냥 거시기로 위기쳐서 먹고.}

10223 @ 유기 친다는 마리 무슨 마리여?{위기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여?}

10223 # 그냥 구기로만 인자 무쳐. 양념해서 무쳐.{그냥 국으로만 이제 무쳐. 양념해서 무쳐.}

10223 # 회, 유쾌, 유쾌. 예, 소 유쾌. 소고기 유쾌가 이꼬 도ㅏ지 유쾌가 이씨.{회, 육회, 육회, 예, 소 육회. 소고기 육회가 있고 돼지 육회가 있어.}

10223 @ 돼지 유쾌도 이씨요?{돼지 육회도 있어요?}

10223 # 그럼, 돼지 인자 산 놈 막 자바서.{그럼, 돼지 이제 산 놈 막 잡아서.}

10223 # 잘 머거요. 썩고기를덜 올매나 잘 멏는다고 동네 싸람덜. 판디는 안 자바도 그쪽 싸람드른 소 잡제.{잘 먹어요. 썩고기들을 얼마나 잘 멏는다고, 동네 사람들. 다른 데는 안 잡아도 그쪽 사람들은 소 잡지.}

10223 @ 그러니까, 소 가튼 건 유쾌가 이쉴 꺼 가튼데, 돼지도 유쾌가 인네.{그러니까, 소 같은 것은 육회가 있을 것 같은데, 돼지도 육회가 있네.}

10223 # 그럼. 도냐지는 마니 잡고, 소 잡는 거슨 인자 약간 드물고.{그럼, 돼지는 많이 잡고, 소 잡는 것은 이제 약간 드물고.}

10223 @ 소 잡는 건 진짜 큰 거다. {소 잡는 것은 진짜 큰 거다.}

10223 # 그럼, 무슨 소 자바서 잔치를 하고그려, 참 거스건 지비나 소 잡제, 소 못 짜벼요.{그럼, 무슨 소 잡아서 잔치를 하고그려. 참 거시기한 집이나 소 잡지, 소 못 잡아요.}

10224 @ 황갑쌍은 어뜨게 차려요? 상.{환갑상은 어떻게 차려요? 상}

10224 # 인자, 제사쌍 차리드끼 다 그러케.{이제 제삿상 차리듯이 다 그렇게.}

10224 # 삼실과 다 노코.{삼실과 다 놓고.}

10224 @ 삼실과를 놔요? 거기다가?{삼실과를 놓아요? 거기다가?}

10224 # 나, 나는 저 방으로 갈란디?{나, 나는 저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10224 # 상차림은 내가 몰라.{상차림은 내가 몰라.}

10224 # 과일 노코, 과일 노코.{과일 놓고, 과일 놓고.}

10224 @ 매나페다가 과일, 어떤 과일들 노으세요. 과일 놀 때는.{맨 앞에다가 과일, 어떤 과일들 노으세요. 과일 놓을 때는.}

10224 # 근 여태까지는 삼실과라는 걸 논는 거싱게.{그것은 지금까지는 삼실과라는 것을 놓는 것이니까?}

10224 @ 삼실과라는 거슨?{삼실과라는 것은?}

10224 # 삼실과는 초, 율, 이, 그거슬 삼실과, 인자 초라는 거슨 대추, 밤, 꼬감, 마라자면 감 시짜, 감, 꼬까미.{삼실과는 초, 율, 이, 그것을 삼실과, 이제 초라는 것은 대추, 밤, 곶감, 말하자면 감 시자, 감, 곶감이.}

10224 # 또 꼬감 놀 때는, 대칠 때는 인자, 여르메는 인자 가를 노턴지, 배, 이거시 삼실과라고 그리썬.{또 곶감 놓을 때는, 대칠할 때는 이제, 여름에는 이제 감을 놓던지, 배, 이것이 삼실과라고 그랬어.}

10224 # 그리고는 인자 그 외 꺼슨 별도로, 삼실과에 안 드러강게. 과일 가튼 건 별도로 인자 더 논는 거시지.{그리고는 이제 그 외 것은 별도로, 삼실과에 안 들어가니까. 과일 같은 것은 별도로 이제 더 놓는 것이지.}

10224 @ 그리고 과일 말고 또 뭘뭘 써요? 과일 말고.{그리고 과일 말고 또 무엇 무엇 써요? 과일 말고.}

10224 # 그거또, 인자 사과도 노코. 그건 과일잉게 해무를 노치.{그것도 이제 사과도 놓고. 그것은 과일이니까, 해물을 놓지.}

10224 @ 그 다으메 인제, 매나페다가 과일 노코, 그다으메 인제 해물 노코요.{그다음에 이제, 맨 앞에다가 과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물 놓고요.}

10224 # 해물 노코.{해물 놓고.}

10224 @ 해물 노면 대개 어떤 걸 노세요?{해물 놓으면 대개 어떤 것을 놓으세

요?}

10224 # 거시기거지. 논는 거슨 젤 아페다가이 과이를 노코, 그 다메 채소를 노코, 과일 다메, 채소를 노코, 그 다오메 인자 해무를 노치.{거시기하지. 놓는 것은 제일 앞에다가 과일을 놓고, 그 다음에 채소를 놓고, 과일 다음에 채소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물을 놓지.}

10224 # 또 전 가튼 거또, 부치기 가튼 거. 다 잔치쌍에 쓰는 거슨 다 논는 거싱게. 제일 큰 택 칭게. {또 전 같은 것도, 부치개 같은 거. 다 잔칫상에 쓴 것은 다 놓는 것이니까. 제일 큰 택 치는 것이.}

10224 # 돼지고기도 노코, 쌀마서. 돼지도 저꼬지 노아뚜가 어쩔뚜가 난 모르건네.{돼지고기도 놓고, 삶아서. 돼지도 적꼬치 놓았던 어쨌든가 난 모르겠네.}

10224 @ 채소는 대개 어떤 걸 노아야 돼요? 그 뭐 상관 업써요?{채소는 대개 어떤 것을 놓아야 돼요? 그 뭐 상관 업써요?}

10224 # 예. 채소하고. 콩나물 인자, 그런 거슨 너물감. 채소요.{예. 채소하고. 콩나물 이제, 그런 것은 나물감. 채소요.}

10224 # 제사쌍이나 마찬가지로, 산 제상게 그거시.{제삿쌍이나 마찬가지로. 산 제사이니까, 그것이.}

10224 # 그제 산 제사제, 산 제상게. 회갑잔치가 암 산 제사제.{그것이 산 제사이지, 산 제사이니까. 회갑잔치가 암, 산 제사이지.}

10224 @ 그러면 상당히 크젠네.{그러면 상당히 크겠네.}

10224 # 암, 제일 크지.{암, 제일 크지.}

10225 @ 그럼 인저 다른 사람 환가베 초대를 바드셔써요. 그런 때는 이제 어뜨케 하세요? 뭘 준비를 하셔? 초대를 바다서 가실 때는?{그럼 이제 다른 사람 환가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 때는 이제 어떻게 하세요? 뭘 준비를 하셔? 초대를 받아서 가실 때는?}

10225 # 초대를 바드면, 그 저네는 초대 바들 때는, 지그몬 지그미나 마찬가지로 인자. 추기그를 내지, 추카그를. 추카그를 가져가고.{초대를 받으면, 그 전에는 초대 받을 때는, 지금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축하금을 내지, 축하금을. 축하금을 가져가고.}

10225 # 동네에서는 엔나레는 인자, 아 너물 가튼 거또 인자 콩너물 가튼 거또 질러 가고, 아 그런 걸 히가썬는디 지그몬 그걸 야카고, 지그몬 다 도느로, 도느로 다 이르제.{동네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아 나물 같은 것도 이제 콩나물 같은 것도 질러 가고, 아 그런 걸 해었는데, 지금은 그걸 생략하고, 지금은 다 돈으로, 돈으로 다 이르지.}

10225 # 그 저네는 동네 허머는 호닌대사나 큰 잔치가 이쁜지, 향갑잔치 이따고 그러머는 가정에서인자 반찬, 인자 반찬 될 꺼슬, 묵도 쭈어가고, 쉽게 마래서 간장, 간장, 간장도 가쥬고 가고. 마니 수거땡게, 콩너물 질러서도 가쥬가고. {그 전에는 동네 하면은 혼인대사나 큰 잔치가 있던지, 환갑잔치 있다고 그러

면은 가정에서 반찬, 이제 반찬 될 것을, 묵도 쭈어가고, 쉽게 말해서 간장, 간장, 간장도 가지고 가고. 많이 수거되니까, 콩나물 길러서도 가지고 가고.}

10225 # 이제는 지그른 그 다 제하고. 쌀도, 쌀도 가주고 가고, 지그른 그런 거 다 제하고 인제 도노로 가져가제.{이제는 지금은 그 다 제하고. 쌀도, 쌀도 가주고 가고, 지금은 런 거 다 제하고 이제 돈으로 가져가지.}

10225 # 인제 그 지그른 돈 안 바더요. {이제 그 지금은 돈 안 받아요.}

10225 @ 지금 환갑잔치 안 받제.{지금 환갑잔치 안 받지.}

10225 # 예, 안 바더요. 나 칠순 때도 안 바더는디.{예, 안 받아요. 나 칠순 때도 안 받았는데.}

10225 @ 아, 그러서구나. 자라선네.{아, 그러셨구나. 잘 하셨네.}

10225 # 그렇게 칠순 때는 안 바다서 잘 허따구덜. 딸덜도 그러더라고.{그러니까 칠순 때는 안 받아서 잘 했다고들. 딸들도 그러더라고.}

10225 @ 자제분드리 오히려 그게 욕 안 멍는 이리여. 쪼끔 힘들긴 해도.{자제분들이 오히려 그게 욕 안 먹는 일이에요. 조금 힘들기는 해도.}

10225 # 돈 안 바더써요.{돈 안 받았어요.}

10223 @ 자라선네. 그러면 인제 환갑 잔치 때는 뭘 하시는가? 잔친날. 잔친나레는 이제 뭘 하셔?{잘 하셨네. 그러면 이제 환갑 잔치 때는 뭘 하시는가? 잔칫날. 잔칫날에는 이제 뭘 하셔?}

10223 # 잔친나레, 인자 그 때는 참 요새 말로인저 인는 사람드론 구가긴 노래 자러는 사람도 초청도 허고, 초청도 허고.{잔칫날은 이제 그 때는 참 요새 말고 있는 사람들은 국악인 노래 잘 하는 사람도 초청도 하고, 초청도 하고.}

10223 # 지바니 또 그런디 땡이는 사라미 또 이써. 뽕드를 가튼, 지바니 그런 사람도 이꼬, 그런 사람 데려다인자 놀기도 허고. 근자 가족끼리인자 객똥도 와서 일촌싸람드리 와서 노래도 부르고 {집안에 또 그런디 다니는 사람이 또 있어. 뽕드를 같은, 집안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데려다 놀기도 하고. 그 이제 가족끼리, 객들도 와서 일촌 사람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10223 # 거스건 지본인자 가수덜, 구가기를 어디서, 지방 구가기를 초청하다가 불고. 하루 종일 그냥 잔친나레 먹꼬 노는 거시여, 밤에까지.{거시기 한 집은 가수들, 국악인을 어디서, 지방 국악인을 초청해다가 부르고. 하루 종일 그냥 잔칫날은 먹고 노는 것이야, 밤에까지.}

10223 # 인젠 지금, 지금하고 옛날하고 쫘 달버진 거시 인는가요? 똑까튼가요?{이제 지금, 지금하고 옛날하고 쫘 달라진 것이 있는가요?}

10223 # 지그른 지바네서 허들 안네, 안내기때무네 인자 식땅이, 식땅이 가서 형게, 식짱이 가서 형게 먼 씨간 지정이 이꺼덜. 뭘 네시까지하든 다설씨까지. 뎡씨부터 뎡씨까지 하느니 이러구는인자. 그러구 갈려고 허는거여.{지금은 집안에서 하들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식당에, 식당에 가서 하니까, 식당에 가서 하니까 몇 시간 지정이 있거든. 뭘 네 시까지 하든 다섯 시까지. 몇 시

부터 몇 시까지 하느니 이리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야.}

10223 @ 예나레는요?{옛날에는요?}

10223 # 예나레는, 아 기양 바미 되더락까지.{옛날에는 아 그냥 밤이 되도록까지.}

10223 @ 아 궁게 워디서 어트케 노는 거요? 놀 때.{아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노는 거요? 놀 때.}

10223 # 마당이서인자, 마당이서인자 모닥불 피워노코.{마당에서, 마당에서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10223 @ 그럼 아무라도 막 노래를 불러?{그럼 아무라도 막 노래를 불러?}

10223 # 암, 아무라도 술 잡쭈머는, 술 치머는, 우순 사라미 썰버려썰. 지금도 식당이 가서도 식장이 가서도 아무고 노래를 부르는 거시지. 가족뜰또 부르고, 친구들또 와서 부르고.{암, 아무라도 술 잡수면은, 술 취하면은 우스운 사람이 많았어. 지금도 식당에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아무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가족들또 부르고 친구들도 와서 부르고.}

10223 @ 그럼 계속 노래 부르고 춤 추고 술 마시고 그러시겐네.{그럼 계속 노래 부르고 춤 추고 술 마시고 그러시겠네.}

10223 # 그러제. 나중에는인자 술 찌메들. 식장에 가서는인자 예의저그로다 불르고 나오지마는, 늦게까지 인는가 술끼메 그냥 부르지.{그러지. 나중에는 술 김에들. 식장에 가서는 예의상으로 부르고 나오지마는, 늦게까지 있는가? 술김에 그냥 부르지.}

10223 @ 지그른 노래방 기계라도 이쓰니까 그런데 예나레는 노래방 기계도 업짜나.{지금은 노래방 기계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노래방 기계도 없잖아.}

10223 # 노래방 기계라는 거슨 그건 재미가 읍제. 그건 와서 마이크다 대고 노래 부르는데 그저네는 기양 뛰고 그냥.{노래방 기계라는 것은 그건 재미가 없지. 그건 와서 마이크에다 대고 노래 부르는데. 그전에는 그냥 뛰고 그냥.}

10223 @ 재미써써요?{재미있었어요?}

10223 # 지바니인자 장구라도 이씨면 장구를 두드리고, 장구, 두드리는 장구. 한 번씩 가따노코.{집안에 장구라도 있으면 장구를 두드리고, 장구, 두드리는 장구. 한 번씩 가져다놓고.}

10223 # 그럼인자 찰째 그러면 그러니 저레 처메, 처메. 채려노코 현수로 현 술 드리제. 자식뜨리 다. 사진 찍꼬 그러고는 인자 손님들 대접 허고 인자 또 놀지.{그러면이제 찰째 그러면 그러니 절해 처음에, 처음에. 차려놓고 현수로 한 술 드리지. 자식들들이 다. 사진 찍꼬 그러고는 이제 손님들 대접 허고 이제 또 놀지.}

10223 @ 오저네는 좀 사진 찍꼬 저러고 인제, 그르케 허고. 점심때부터는 인제 재미께 노셔서 밤새도록 노시는거네.{오전에는 좀 사진 찍꼬 절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점심때부터는 이제 재미있게 노셔서 밤새도록 노시는 거네.}

10223 # 그렇게 엔강치 장만해가꼬는 그날 못, 인저 모지랴요.{그러니까 웬만치 장만해 가지고는 그날 못, 모자랴요.}

10223 @ 그러건네, 그러게써. 그럼 인자 환갑 당하신 분들도 함께 이르게 노시는 거야?{그러겠네, 그러겠어. 그럼 이제 환갑 당하신 분들도 함께 이렇게 노시는 거야?}

10223 # 암, 함께 노라야지. 가족덜도 항꼬 놀고. {암, 함께 놀아야지. 가족들도 함께 놀고.}

10223 @ 그날 아주 정말 큰 잔치네.{그날 아주 정말 큰 잔치네.}

10223 # 그럼, 켈 큰 잔치지. 항갑잔치는.{그럼, 제일 큰 잔치지, 환갑 잔치는 .}

10223 @ 조은 이리고, 또.{좋은 일이고, 또.}

10223 # 암, 마주막 지내는 거시 산 지사라겨, 산 지사.{암, 마지막 지내는 것이 산 제사라고 해, 산 제사.}

10223 @ 근디 지그문저 환갑뜰 아너지지?{그런데 지금은 환갑들 안 하시지?}

10223 # 잘 아너지. 잘 안코 인자 칠쑤, 팔쑤.{잘 안 하지. 잘 앓고 이제 칠쑤, 팔쑤.}

10223 @ 여기서도 칠쑤, 팔쑤 그르케 지베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여기서도 칠쑤, 팔쑤 그렇게 집에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10223 # 이제는 더러 허는 사람 인제. 돈쑤 쪼개 즉께 들고.{이제는 더러 하는 사람 있지. 돈 쑤 조금 적게 들고.}

10223 # 머 네 칠쑤 때도 저 서누사서 헐는디 육백마냥 드러가따고더라고 우리 아 그드리.{뭐 네 칠쑤 때도 선운사에서 했는데, 육백만 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10223 @ 육백마냥니면 마니 드러간네.{육백만 원이면 많이 들어갔네.}

10223 # 시고레서는 마니 드러간쪼.{시골에서는 많이 들어갔쪼.}

10223 @ 어디 어디 회관? 식당? {어디 어디 회관? 식당?}

10223 # 식당, 서누사 식, 아 저 식당이지아니, 거그가 어디지 홀, 호테리라고 허 대. 호테리라고.{식당, 선운사 식, 아 저 식당이 아니라, 거기가 어디지? 홀, 호텔이라고 하대. 호텔이라고.}

10223 # 또 다 선무를, 우산 선무를 또 주고.{또 다 선물을, 우산 선물을 또 주고.}

1.2.7. 장례 절차

10226 @ 이런거 여쭙보기가 쑤 그러타만, 또 사라미 도라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되자나요. 근데 그건 또 마을마다 쑤 다르고 지반마다 쑤 다르고 그러지요? {이런거 여쭙보기가 쑤 그렇지만, 또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 아요. 그런데 그건 또 마을마다 쑤 다르고 집안마다 쑤 다르고 그러지요?}

10226 # 달브쥬. 거개 갇지만.{다르쥬. 거의가 갇지만.}

10226 @ 여기는 어뜨케 하세요?

10226 # 거지바는 가틀 꺼여.{거의 같을 것이여.}

10226 @ 옌나레 장레 치르실 때는 어뜨게 하셔썬.{옛날에 장레 치르실 때는 어떻게 하셔.}

10226 # 인저 장레 치를 때. 일판 상을 당허면 인자 부서를 다녀야지.{이제 장레 치를 때. 일단 상을 당하면 부서를 다녀야지.}

10226 @ 여기서 지봉 위에 올라가서 이르게 하고.{여기서 지봉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10226 # 어, 그거 일쥬.{어, 그거 있지.}

10226 @ 그걸 뭐라고 하셔썬요? 어뜨게 하셔썬요? 그런 거슬?{그걸 뭐라고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그건 것을}

10226 # 그걸 인자, 오슬 올리지. 주그니 오슬 올리지.{그걸 이제 옷을 올리지. 죽근 사람 옷을 올리지.}

10226 # 그러면 상 당헌 질 알고.{그러면 상 당한 줄 알고.}

10226 @ 지봉이다 오슬 올린다는 말씀, 어뜨게 하시는 거예요? 지봉에 사라미 올라가요?{지봉에다 옷을 올린다는 말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봉에 사람이 올라가요?}

10226 # 아뇨, 아뇨, 땡기지. 땡기지, 온만.{아뇨, 아뇨, 당기지, 당기지 옷만.}

10226 @ 아무 말씀도 아나시고?{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0226 # 주근 양반 온만 땡겨.{죽은 양반 옷만 당겨.}

10226 @ 온만, 온만 올려놔?{옷만, 옷만 올려 놓아?}

10226 # 그러면 인자 그 지비 사람 주걸따고 허는 거여.{그러면 이제 그 집에 사람 죽었다고 하는 거야.}

10226 @ 근디 그 다으메는 어뜨게 해여? 그제 맨 처으메 그거부터 하는 거여?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그제 맨 처음에 그것부터 하는 거야?}

10226 # 처으메 그거 허지.{처음에 그거 하지.}

10226 @ 처으메 온뿌터 올리고, 그 다으멘저 어뜨게 하는 거야?{처음에 옷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10226 # 인자 주근 사람, 거시기를 허지, 사자빠블 허지. @ 바로? # 음, 바블 히서.{이제 죽은 사람, 거시기를 하지, 사자밥을 하지. 바로? 음. 밥을 해서.}

10226 # 사자빠블 히서 인자 바께다가. 인자는 나난 그런 거또 이저머걸썬. 인자 그저네는. 지그른 안 형게.{사자밥을 해서 이제 밖에다가. 이제는 나는 그런 것도 잊어버렸어. 이제 그전에는. 지금은 안 하나까.}

10226 @ 지금 안 하지만, 옌날 옌날 풍스브로. 사자빠블, 사자빠븐 뭇 주기 위해서.{지금 안 하지만, 옛날 옛날 풍습으로. 사자밥을, 사자밥은 뭇 주기 위해서?}

10226 #꼴막채에다가 바배노코 신 사면서, 신 세커리 사면서 노코, 밥 해서 맨끄
 릅 노코. 그러코는 사자빠비라고 해놔써.{꼴막채에다가 밥 해 놓고 신 삼아서,
 신 세 켈레 삼아서 놓고, 밥 해서 몇 그릇 놓고. 그렇게 하고는 사자밥이라고
 해 났어.}

10226 @ 시는? 시는? # 집썬. @ 집씨는 왜 세 커리를 삼는 거야? 먼, 멀리 간다
 는 뜨신가?{신은? 신은? 쥘신. 쥘신은 왜 세 켈레를 삼는 거야? 멀리 간다는
 뜻인가?}

10226 # 모르겠쎄요. 그거슨 어찌 된 건지. 세 커리란 마른 두커리는 아이, 두 사
 람건 놀 수 인썬. 세 커리는 세 커리랑게. 세 커리여?{모르겠어요, 그것은 어
 찌 된 건지. 세 켈레란 말은 두 켈레는 아니, 두 사람 것은 놓을 수 있어요.
 세 켈레는, 세 켈레라니까. 세 켈레여?}

10226 @ 그 밥븐 뭇 뭇, 밤만 논는 거여? 아니면 반차니랑 가치 논는 거여?{그
 밥은 뭇 뭇, 밥만 놓는 것이여? 아니면 반찬이랑 같이 놓는 거여?}

10226 # 보통 반찬. 그때야 은븐 반찬 인칸디, 저 인는 반찬 그저 너물 가튼 거
 히서. 그, 그러케 해서 노썬.{보통 반찬. 그때야 으레 반찬 있간디? 저 있는
 반찬 그저 나물 같은 거 해서. 그, 그렇게 해서 놓썬.}

10226 @ 그 사자빠븐 어이따 놔요? {그 사자밥은 어디에다 놓아여?}

10226 # 꼴막키다 인자.{꼴막에다 이제.}

10226 @ 그 꼴막키다 메치리나 논는 거야, 사자빠븐? 상 끈날 때까지?{그 꼴막에
 다 며칠이나 놓는 거야, 사자밥은? 상 끝날 때까지?}

10226 # 암, 암, 그럼 인자 개, 그저네는 짐승드리 머거버리지. 읍써져 버리지.{암
 암, 그럼 이제 개, 그전에는 짐승들이 먹어버리지. 없어져 버리지.}

10226 @ 사자뺨 올리고 그 다으메 어트게 해요?{사자뺨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226 # 그 다메 인자 신체 인자 오슬 이피고, 이베다가 뭇 떠는다는 거, 그거시
 뭇시여. 싸를 당가놔따가 세 번 떠미기드만.{그 다음에 이제 시체 옷을 입히
 고, 입에다가 뭇 떠넣는다는 거, 그것이 무엇이여. 쌀을 담가 놓았다가 세 번
 떠먹이더만.}

10226 @ 아, 싸를 당귀따가?{아, 쌀을 담갔다가?}

10226 # 애. {예.}

10226 @ 이거시 시가 이썬? 시가니 이썬요?{이것이 시가 있어? 시간이 있어요?}

10226 # 그러한 시가는 읍꼬.{그러한 시간은 없고.}

10226 @ 시가는 읍꼬. 사자뺨 노코, 그리고 다마 이르케. 그 다으메 어트게 해썬
 요?{시간은 없고. 사자뺨 놓고, 그리고 담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요.}

10226 # 온 니피고.{옷 입히고.}

10226 @ 오슬, 오슬 이피기 저네 씨서내기도 하는가요? {옷을, 옷을 입히기 전에

씻어내기도 하는가요?}

10226 # 암, 인자 인자 온 니필 때 거시기 행구고 입파늘 히야지. 입판. 입파는 시간두 읍꾸인자 자식뜰 오들, 오드락까지, 자식뜨리 오며는 바로 입파늘 히제. {암, 이제 이제 옷 입힐 때 거시기 행구고 입판을 해야지. 입판. 입판은 시간도 없고 자식들 오들, 올 때까지, 자식들이 오면은 바로 입판을 하지.}

10226 # 그래도 놔따가, 준비 히놔따가. {그대로 났다가, 준비 해 났다가.}

10226 @ 오슨 이필 때는 어떤 오슬 이피세요?{옷은 입힐 때는 어떤 옷을 입히세요?}

10226 # 마포. 수의. 마포 수의.{마포. 수의. 마포 수의.}

10226 @ 수의는 대개 어떤 걸 준비하셔쨌요? 옐나레.{수의는 대개 어떤 걸 준비하쨌어요? 옛날에.}

10226 # 옐날렌? 옐나렌자 마포 오시지. 옐날 마포 오싱게. 지그몬 지그몬 올또 마너. 당모고스로도 히고 깨뜨던 오스로 이피제. 대양 마포 오슬 이핀다 그래.{옛날엔? 옛날에는 마포 옷이지. 옛날 마포 옷이니까. 지금은 지금은 옷도 많아. 당목옷으로도 하고 깨끗한 옷으로 입히지. 대개 마포 옷을 입힌다 그래.}

10226 # 수의는 마포 오슬, 마포 오슬 이버땅개요. @ 마포오슨? # 삼베. 지금 어티게 허든지가네 율래 삼베를 이피는 거시지.{{수의는 마포 옷을, 마포 옷을 입었다니까요. 마포 옷은? 삼베.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율래 삼베를 입히는 것이지.}}

10226 # 그러구서는 입판 할 때는 어뜨게 하세요?{그러고서는 입판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10226 # 입파는 인자 옐 한다고 그러지. 그거슨 인자 어뜨게 허는 거보단도.{입판은 이제 옐 한다고 그러지.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보다도.}

10226 # 손툽 발툽 다 찢라, 다 찢라서. 헐 찢 아는 사라미 허는 거이고.{손툽 발툽 다 잘라, 다 잘라서.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10226 @ 음, 여머는 거슨? {음, 옐하는 것은?}

10226 # 암, 그건 아무고 허는 거시 아닝게.{암, 그건 아무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니니까.}

10226 # 손툽 발툽 다 찢라서 저기 히고, 주머니 지어서 느코, 오른소는 오른손끼리 느코, {손툽 발툽 다 잘라서 저기 히고, 주머니 지어서 넣고, 오른손은 오른손끼리 넣고.}

10226 @ 아, 주머니를 만드러서요? {아, 주머니를 만들어서요?}

10226 # 암, 다 만드러서. 다 만드러서 손툽 발툽 다 찢라서.{암, 다 만들어서. 다 만들어서 손툽 발툽 다 잘라서.}

10226 @ 발도? 바레도? {발도? 발에도?}

10226 # 그 여먼하도 그러지. {그 옐 한다고 그러지.}

10226 @ 모를 시서내는게 여미 아니고 오슬 이피는 게 여민가요? {몸을 씻어내는 게 염이 아니고 옷을 입히는 게 염인가요?}

10226 # 입판 헐 때, 입판 허는 거슬 여미라구 혀. {입판 할 때, 입판 하는 것을 염이라고 해.}

10226 @ 그거또 소려미 이꼬, 대려미 이꼬. {그것도 소렴이 있고, 대렴이 있고.}

10226 # 소려미꼬, 대려미꼬. {소렴 있고, 대렴 있고.}

10226 @ 소려믄 어떤 걸 소려미라고 허신가요? {소렴은 어떤 걸 소렴이라고 하신가요?}

10226 # 소려믄 인자 와서 허는 거시고, 대려믄 인자 깍 무꺼가지고 가늘 딱 인자. 거시기를 마려자면 우그까지 마리, 깍 모찌래서 딱 인자. 소렴 해쓸 때는 인자 온 니피고 허는 거슨 다 볼 쭈가 인는디, 한 번 대렴 히버리믄은 인저 딱 물뽀는 거시지 인자. {소렴은 이제 와서 하는 것이고, 대렴은 짝 묶어 가지고 관을 딱 이제. 거시기를 말하자면 위에까지 말이지, 짝 못질 해서 딱 이제. 소렴 했을 때는 이제 옷 입히고 하는 것은 다 볼 수가 있는데, 한 번 대렴 해버리면은 이제 못 보는 것이지 이제.}

10226 @ 그러면 대려믄 언제 해요? {그러면 대렴은 언제 해요?}

10226 # 아, 그건 현 후에 차차차 소렴 대렴 다 허게 되는 거시지. 인저 자손더리 다 온 연해. {아, 그건 한 후에 차차차 소렴 대렴 다 하게 되는 것이지. 이제 자손들이 다 온 연후에.}

10226 @ 스븐 언제? 스비라는 거또 인나요? {습은 언제? 습이라는 것도 있나요?}

10226 # 스븐 모리겐네. {습은 모르겠네.}

10226 @ 그럼저 대렴 하고 나머는 인제 상주가 오슬 임는가요? {그러면 대렴 하고 나머는 이제 상주가 옷을 입는가요?}

10226 # 암, 그러치 그러치. 인자 완진자 상주 노르슬 허진자. {암, 그렇지 그렇지. 이제 완전히 상주 노릇을 하지 이제.}

10226 # 세수 허고, 다 손발 썬꼬, 가라입꼬 인자, 상보글 입찌. 머리 까머 빔꼬, 다 그러케 허고. 그때부터 인자 완저니 상, 상주가 돼. {세수 하고, 다 손발 씻고, 갈아입고 이제, 상복을 입지. 머리 감아 빗고, 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상주가 돼.}

10226 @ 근디 대려믄 해쓸 때는 신체를 어디다 모셔요, 대개 엔나레는. {그런데 대렴을 했을 때는 시체를 어디에다 모셔요? 대개 옛날에는.}

10226 # 대략 보며는 운모기다 모시제. 큰방 운모기다. {대략 보면은 옷목에다 모시지. 큰방 옷목에다.}

10226 @ 그때는 인제 입파늘 허신 상태고? {그때는 이미 입판을 하신 상태고?}

10226 # 암 그러제. 그때는 아무도 볼 쭈가 읍찐자. {암 그러지. 그때는 아무도 볼 수가 없지 이제.}

10226 @ 그럼데 병풍 가튼 걸 쳐 논데? {그러면 병풍 같은 것을 쳐 놓은 데?}

10226 # 예, 예, 병풍 다 치고.{예, 예, 병풍 다 치고.}

10226 @ 그러면제 그 그때 상주가 인제 여쭙게 안자 인는거야?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그 그때 상주가 이제 옆에 앉아 있는 거야? 그때부터?}

10226 # 그때 인제 안저서 손님 오면 손님 받꼬.{그때 이제 앉아서 손님 오면 손님 받꼬.}

10226 @ 그때, 그러면 인제, 옛날가치, 지그문저 다 장례식장에서 허니까 그러치만, 옛날레 지베서 헐 때는 방까지 사람들 드러와서 하는 거야? {그때, 그러면 이제, 옛날같이, 지금은 다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그렇지마는 옛날에 집에서 할 때는 방까지 사람들 들어와서 하는 거야?}

10226 # 안 그러제. {안 그러지.}

10226 @ 그럼 어디서? {그럼 어디서?}

10226 # 지금 이루고이루고 생기따허머는자 바게서 손니를 보고, 시체는 인제 아네가 이꼬. 인자 친척되는 사라문 시체 빠러 오고, 저런데 시체에서 절충이 하거든,{지금 이려고이려고 생겼다고 하면은 밖에서 손님올르 보고, 시체를 이제 안에 있고. 이제 친척되는 사람은 시체 뵈러 오고, 절 하는데 시체에서 절충이 하거든.}

10226 @ 그러쵸. 그러면 어트게 해야돼?{그렇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

10226 # 인제 방에 드러와서 인제 저를 허제, 시체.{이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절을 하지. 시체.}

10226 @ 그냥 보통 사람드른 바게서 그냥 허고?{그냥 보통 사람들은 밖에서 그냥 하고?}

10226 # 으응. 바게서 인자 산 사람허고 가치. 그거또 인자 내관상이 이꼬, 외관상이 이꺼든. 여자가 이꼬 남자상이 이꼬 그러는거 때무네, 내관상은 저를 안, 생인게다만 저러지 멍인게단 절 안는 거시여. 드러들 모대 여자 주거쥬 때는.{응. 밖에서 이제 산 사람하고 같이. 그것도 이제 내관상이 있고, 외관상이 있거든. 여자가 있고 남자상이 있고 그러는 것 때문에, 내관상은 절을 안, 생인에게만 절하지 멍인에게는 절 안는 것이여. 들어오들 못해, 여자 죽었을 때는.}}

10226 # 그럼 월래 인자 장례식장 가며는 생인만 보제 내관상은 월래 원 규칙기 나간게단 절 안는 거시여. 생인허고만 저러지. 여자 상사 이쥬 때는.{그럼 원래 이제 장례식장 가면은 생인만 보지, 내관상은 원래 원 규칙이 낙인에게는 절 안는 것이여. 생인하고만 절하지. 여자 상사 있을 때는.}

10226 @ 그럼 인제 천나른 그러케 해서 지나가요? 천날바메 며 특빠리 하는 거 업써요?{그럼 이제 첫날은 그렇게 해서 지나가요? 첫날밤에 뭐 특별히 하는 것 없어요?}

10226 # 암. 천날바메는 특빠리 허는닐 읍제. 장만들 허고인자.{암, 첫날밤에는 특별히 하는 일 없지. 장만들 하고 이제.}

10226 @ 대개 메치리나 상을 치러요? {대개 며칠이나 상을 치러요?}

10226 # 대략 사미리제.{대략 삼일이지.}

10226 @ 그럼 인저 도라가신 날.{그럼 이제 돌아가신 날.}

10226 # 이틀 찌넉 짜지, 이틀 찌넉 자제.{이틀 저녁 자지, 이틀 저녁 자지.}

10226 @ 아, 천나른 엄 허고, 대렴까지 허고, 그리곤제 상주가 손님을 받는단 마
리야? {아, 첫날은 엄 하고, 대렴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상주가 손님을 받는
단 말이야?}

10226 # 그 이튼나른 인자.{그 이튼날은 이제.}

10226 @ 그 이튼나른 어트게 해요?{그 이튼날은 어떻게 해요?}

10226 # 그 이튼나른 인자, 그저네는 그 손님, 마라자면 동네 싸람드리 짝 오지.
천나른 별찌기 아노지마는 그 이튼나른 막 짝 와. 오게 되면 인자, 그저네는
그냥 도개비, 도개느리라 켜. 도개늘.{그 이튼날은 이제, 그 전에는 그 손
님, 말하자면 동네 사람들이 짝 오지. 첫날은 별로 안 오지만은 그 이튼날은
막 짝 와. 오게 되면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도개비, 도개널이라고 했어. 도개
널.}

10226 # 그 도개느리라는 건 기양 저 늘 만드는 디 가서 사다 한느디, 지그몬, 아
니 지그몬 사다 다 허지마는, 인는 사라몬 다 관모글 다 히놔. 관 찰 꺼슬, 지
비서 그거를 만드러. 그리기 복잡히제.{그 도개널이라는 것은 그냥 저 널 만
드는 데 가서 사다 했는데, 지금은, 아니 지금은 사다 다 하지마는, 있는 사람
은 다 관목을 다 해 놔, 관 찰 것을. 집에서 그것을 만들어. 그러니까 복잡했
지.}

10226 # 동네 사람드리 와서 목쭈 대다가 다 느를 찰쎄. {동네 사람드리 와서 목
쭈 대다가 다 널을 찼어.}

10226 @ 한 쪼게서?{한 쪽에서?}

10226 # 한 쪼게서.{한 쪽에서.}

10226 # 그리고 이제 인는 지븐 사일 출쌍도 허고 오일 출쌍도 허고. 그런걸 다
짜가지구 인자.{그리고 이제 있는 집은 사일 출상도 하고, 오일 출상도 하고.
그런 걸 다 짜가지고 이제.}

10226 @ 그러면 그 느리, 그 느리 도개느리예요? {그러면 그 널이, 그 널이 도개
널이에요?}

10226 # 아니.{아니.}

10226 @ 도개느른 뭐여?{도개널은 뭐야?}

10226 # 그냥 사다.{그냥 사다.}

10226 @ 사다 쓰능거? {사다 쓰는 거?}

10226 # 사다 쓰는 거시 도개느리라그 그러지.{사다 쓰는 것이 도개널이라고 그러
지.}

10226 # 지그몬 인저 석판가따 허고 그렇게, 지그몬 안 되는 거시 읍서.{지금은

이제 석관 가져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것이 없어.}

10226 @ 도젠느른 그러면 이거슨.{도갯널은 그러면 이것은.}

10226 # 싸고. 음는 사라미 그냥 사다 하는 거시고.{싸고. 없는 사람이 그냥 사다 하는 것이고.}

10226 @ 그 날 입파늘 모더거꼬만.{그날 입관을 못하겠고만.}

10226 # 아 그 날 모대. 입파늘 그날 모더는 거시여.{아, 그날 못해. 입관을 그 날 못하는 것이여.}

10226 @ 아까 지금 대렴 할 때가 인제 입파니 끝나면 대려미라고 말씀하셧잖나 요? 일단 소렴만 해노코 파늘 저조게서 인제 짜거나.{아까 지금 대렴 할 때가 이제 입관이 끝나면 대렴이라고 말씀하셧잖아요? 일단 소렴만 해놓고 관을 저 쪽에서 이제 짜거나.}

10226 # 그러치요.{그렇지요.}

10226 @ 그러면 대략 대렴 허는 시기는 어느 때쯤 돼요?{그러면 대략 대렴 하는 시기는 어느 때쯤 돼요?}

10226 # 마라자면 그 이튼나리나 되제.{말하자면 그 이튿날이나 되지.}

10226 @ 그 이튼날 밤? 바메 허는가요? 나제 허는가요?{그 이튼날 밤? 밤에 하는 가요? 낮에 하는가요?}

10226 # 나제 시가니는 상관 읍제.{낮에 시간은 상관 없지.}

10226 @ 형편 따라서 그냥.{형편 따라서 그냥.}

10226 @ 그럼 그 느리 도젠늘도 이꼬 다른 늘도 이써?{그럼 그 녀이 도갯널도 있고 다른 녀도 있어?}

10226 # 다른 느른 지비서 짬.{ 다른 녀은 집에서 짬.}

10226 @ 그건 이르른 뭘여? 그건 뭘라고 불려요? 지베서 짬 거를?{그건 이름은 뭘여? 그건 뭘라고 불려요? 집에서 짬 것을?}

10226 # 그냥 느리제. 사다 한 거슬 도젠느리라 그러거든.{그냥 녀이제. 사다 한 것을 도갯널이라 그러거든.}

10226 @ 왜 도젠느리라 그래요? {왜 도갯널이라 그래요?}

10226 # 그저, 도젠느른 그양 조각조각 맞춰서 그냥, 마라자면 드린 저 거시기서, 저 타는 디가 이써. 지금 목쭈드리 만드려 파는 거시 이꼬. 지비서 느리라는 거슨 자기가 그 판자 내려다가 두텁게, 두 파니 이꼬 언파느로, 언파느로, 니 쪼가지 허는디 도젠느른 조각조각 부치는 데 이써. 궁게 안 조타고.{그저, 도갯널은 그냥 조각조각 맞춰서 그냥, 말하자면 들인 저 거시기서, 저 타는 데가 있어. 지금 목수들이 만들어 파는 것이 있고. 집에서 녀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판자 내려다가 두껍게, 두 판이 있고, 원판으로, 원판으로, 네 조각이 하는데. 도갯널은 조각조각 붙이는 데 있어. 그러니까 안 좋다고.}

10226 # 근디 지그른 상파니 업제잉. 그리고 또 그저니는 다 히노코션 느를 죽끼 저네. 다 죽끼저네 다 히논는 거시여.{그런데 지금은 상관이 없지. 그리고 또

그전에는 다 해놓고서, 널을 죽기 전에. 다 죽기 전에 다 해놓는 것이여.}

10226 # 또 느른 안 만들쩍정 그, 풍자를 다 지비서 소를 키워따가 내다 다 지른 놔 두지. 미리 준비를 하놔. {또 널은 안 만들지언정 그, 풍자를 다 집에서 소를 키웠다가 내다, 다 길은 놔 두지. 미리 준비를 해 놓아.}

10226 @ 그러면 상 당해따 허면 바로 실코 와서 인자 제재소에 가서 미러가지고, 아주 여그 와서 인자 만들지. {그러면 상 당했다 하면 바로 실고 와서 이제 제재소에 가서 밀어가지고, 아주 여기 와서 이제 만들지.}

10226 @ 거기다가 못 까튼 거 안 치죠? {거기다가 못 같은 것은 안 치죠?}

10226 # 암, 모슨 안 치지. 우구, 안 다 만는디, 우구다가 인자 천판만 모슬 치지. {암. 못은 안 치지. 위, 안 다 맞는데, 위에다가 이제 천판만 못을 치지.}

10226 @ 그 판자도 이르미 각각 인는가요? {그 판자도 이름이 각각 있는가요?}

10226 # 지금 지판, 미트로 가는 건 지판. {지금 지판, 밑으로 가는 건 지판.}

10226 @ 지파니고 위에는 천파니고, 요 여폐는? {지판이고 위에는 천판이고, 요 옆에는?}

10226 # 그건 엽떼기라고 그러지. {그건 옆떼기라고 그러지.}

10226 @ 여픈 따른 말 엽꼬요? 지판하고 천판만 인는 거네요? 이르미? {옆은 다른 말 없고요? 지판하고 천판만 있는 거네요? 이름이?}

10226 @ 그러케 해노코 나면 그 다옴에는 어트게 하는 거여? {그렇게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10226 # 그리가지곤자 입판허면 그 이튼나르닌자 동네서 아라긴자 생예를 놀리 제. {그리고 이제 입판하면 그 이튼날은 이제 동네서 알아서 이제 상여를 놀리지.}

10226 # 인자 궁게 지그른 바로 인자 그 또 장례 인자 그, 하다늘 만들지. 그 생애를, 막 쏜, 꼬슬 만드러가지고. 그저네는 또 동네에서 마려 절른 사لامي 만날 꼬슬 만들어찌. 중가네는 그양 만드라 논는 걸 사오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이제 그 또 장례 이제 그, 화단을 만들지. 그 상여를, 막 쏜, 쏜을 만들어갖고. 그 전에는 또 동네에서 말이야, 젊은 사람이 늘 쏜을 만들었지. 중간에는 그냥 만드러 놓은 것을 사오지.}

10226 @ 쏜 만들기도 쉽쨌 안컨네. {쏜 만들기도 쉽지 않겠네.}

10226 # 암, 그렇게 인자 동네 싸라미 절라가지고 그양 쏜 만드니라고 욱 뽕제, 궁게 그양 종일 복썩꺼리지. 지그른 초상 나따거면 조용허제. {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그냥 쏜 만드느라고 욱 보지. 그러니까 그냥 종일 복작꺼리지. 지금은 초상 났다고 하면 조용하지.}

10226 @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10226 # 막 쏜 만들고, 늘 만들, 늘 짜야제. {막 쏜 만들고, 널 만들, 널 짜야지.}

10226 @ 한 쪼게선 쏜 만들고, 한 쪼게선 음식 장만하고, 사람들 대접하고. 동네 싸람드리 다 가치 이르게 합썩해서. # 그럼 다, 다 와야지. 썩 오제. {한 쪽에

서는 꽃 만들고, 한 쪽에서는 음식 장만하고, 사람들 대접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그럼, 다, 다 와야지. 짹 오지.}

10226 @ 그 안팎으로 다 와서 해야 되겠네요? {그 안팎으로 다 와서 해야 되겠네요.}

10226 # 그리고가지곤자 생애를 가따가 빈 생애를 놀리지. 저녕내. {그리고 이제 상여를 갖다가 빈 상여를 놀리지. 저녕내.}

10226 @ 빈 생애를 올린다는 마른 어뜨게 허시는 거여? {빈 상여를 올린다는 말은 어떻게 하시는 거여?}

10226 # 놀랴. {놀려.}

10226 @ 놀려. 어뜨게 놀려요? {놀려? 어떻게 놀려요?}

10226 # 인자 소리 주어감서. 생애 나갈 때 허드끼. 인자 쭈르르 인자 생애틀에 다 안꼬 인자, 그 생애 놀리는 사람, 인자 소리 주는 사람 이꼬. {이제 소리 주면서, 상여 나갈 때 하듯이. 이제 쭈르르 이제 상여틀에 다 얹고 이제, 그 상여 놀리는 사람, 이제 소리 주는 사람 있고.}

10226 # 아 그저네는 그 소리 주는 사람 팔려 댕이고, 부자찌븐 사 와써. 다 사다, 사다가도 어디어디 소리꾸니 이따 허며는 다 오라고 해. 시험을 봐. {아 그전에는 그 소리 주는 사람 팔려 다니고. 부잣집은 사 왔어. 다 사다, 사다가도 어디어디 소리꾼이 있다고 하면은 다 오라고 해. 시험을 봐.}

10226 # 아무거시 아니라 시험 바가지고 제일 자러는 사람, 그 사라를 다오메 출쌍 할 때, 생애 나갈 때 그 사라를 써. {아무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그사람을 다음에 출상할 때, 상여 나갈 때 그 사람을 써.}

10226 @ 그 사라를 뭐라고 불러요? 뽕핀 사라를.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뽕힌 사람을?}

10226 # 소리꾸니라고 히, 소리꾼. {소리꾼이라고 해, 소리꾼.}

10226 @ 아, 이거 보통니리 아니구나. {아, 이거 보통일이 아니구나.}

10226 # 각처에서 나오지. 부잣집 초상 나따 허면 인그네서 다 불러서. {각 처에서 나오지. 부잣집 초상 났다 하면 인근에서 다 불러서.}

10226 # 인제 그 사라븐 인자 그날 마치면 인자 돈도 마니 주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날 마치면 이제 돈도 많이 주고.}

10226 @ 초상 나따는 거슬 이제 널리 그 원근가네 알릴라면 어뜨게 알려야 돼요. {초상 났다는 것을 이제 널리 그 원근 간에 알리려면 어떻게 알려야 돼요.}

10226 # 부서를 쓰제, 부서. {부서를 쓰지, 부서.}

10226 @ 부서를 누가 다, 누가 가따 주는 거여? {부사는 누가 다, 누가 가져다 주는 거여?}

10226 # 그난 그저넨 우체를 아니써. {그난 그전에 우체를 안 있어.}

10226 @ 그러면 어뜨게 해써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10226 # 다 동네 사는 사람 시켜서, 다 시면이면 시면, 고창이면 고창, 각각 배다를 히가지고. 그 먼 디는 자고 오는 수도 이꼬 그러지. 참 그거시 안 조치.{다 동네 사는 사람 시켜서, 다 심원이면 심원, 고창이면 고창, 각각 배달을 해가지고. 그 먼 데는 자고 오는 수도 있고 그러지. 참 그것이 안 좋지.}

10226 @ 부서 돌리기도 쉽지가 아나젠네.{부서 돌리기도 쉽지가 았았겠네.}

10226 # 어디가 거러다니고, 어디가면 자동차 타고 댕이고, 어디면 싸이카 타고 댕겨? 순전 거러다녔제.{어디 걸어다니고, 어디가면 자동차 타고 다니고, 어디 싸이카 타고 다녀? 순전히 걸어다녔지.}

10226 # 아 그러면 가따가 오시는, 오실라면 상이 다 끈날 쭈도 이견네. 부서 돌리, 가따가 주그면.{아 그러면 갔다가오시는, 오시려면 상이 다 끝날 수도 있겠네. 부서 돌리, 갔다가, 죽으면.}

10226 # 아 그러니까 어, 그르케 먼 집까지는 안 가는데, 이서 한 하로길 가튼 거슨 새보게 가가지고.{아 그러니까 어, 그렇게 먼 집까지는 안 가는데, 여기서 한 하로길 같은 것은 새벽에 가서.}

10226 @ 그 인제 그 빈 상에, 빈 생에를 그 놀릴 때는 그날 저녁때 출상 하기 전 나래? # 전날. @ 밤에? # 밤에.{그 이제 그 빈 상여, 빈 상여를 그 놀릴 때는 그날 저녁때 출상 하기 전날에? 전날. 밤에? 밤에.}

10226 @ 그때 놀릴 때 부니기는 어떤가요? {그때 놀릴 때 분위기는 어떤가요?}

10226 # 부니기? 아 부니기가 조치. 그양 인자 호상이꼬 인자, 불쌍하게 주근 절른 사라미나 죽꼬 그러면 별겔또 아닌디, 그거또 아닌딘자, 아 나이 머거서 마니 죽꼬 그른 사라민 인자 생에 놀리고.{분위기? 아 분위기가 좋지. 그냥 이제 호상 있고, 이제 불쌍하게 죽은 젊은 사람이나 죽고 그러면 별겔또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아, 나이 먹어서 많이, 죽고 그런 사람은 이제 상여 놀리고.}

10226 @ 상주가 막 슬퍼하거나 그러진 안는가요? {상주가 막 슬퍼하거나 그러지는 안는가요?}

10226 # 그럼 슬퍼라 안치.{그럼. 슬퍼라 았지.}

10226 @ 그냥 보통 인는 이리니까요.{그냥 보통 있는 일이니까요.}

10226 # 슬픈 사람도 인제. 쉽게 마래 절른 사라미 주건따든지, 상처, 상처를 해따든지. 상배를 당해따든지, 상배 히따든지, 생에는 놀라도 쭈 슬픈 가미 만체들.{슬픈 사람도 있지. 쉽게 말해 젊은 사람이 죽었다든지, 상처, 상처를 했든지, 상배를 당했다든지, 상배 했다든지, 상여를 놀려도 쭈 슬픈 감이 많지들.}

10226 @ 그럼 연세 드셔가지고 가는 분드른 그르케 팬찬탄 말쓰미쥬? {그럼 연세 드셔가지고 가는 분들은 그렇게 팬찮다는 말씀이쥬?}

10226 # 부니기가 조코.{분위기가 좋고.}

10226 @ 그거를 밤새도록 하지는 아늘꺼 아녀? {그것을 밤새도록 하지는 았을 것

아녀?}

10226 # 암 그러제.{암 그렇지.}

10226 @ 언제까지나 혀.{언제까지나 해.}

10226 # 열두시 거의 가서 .{열두 시, 거의 가서.}

10226 # 그리 지그몬 그거또 읊써져 버리고.{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10226 @ 그러고 나면 인제 그 다으메는 다음날 아치메 바로 출쌍하는가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상하는가요?}

10226 # 암 출쌍하지. {암, 출상하지.}

10226 @ 출쌍하기 저네는 뭘 해야 되는가요? {출상 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는가요?}

10226 # 근자 생에 땀 싸라든 생에 매고, 또 그외 인자, 그거뽕고 유대구니라고 혀 유대군. 또 인자 면명 또 사네 가서 산닐 헐 싸람들.{그래서 이제 상여 땀 사람은 상여 매고, 또 그 외 이제 그것 보고 유대군이라고 해, 유대군. 또 이제 몇 명 또 산에 가서 산일 할 사람들.}

10226 @ 유대구니라는 마른 생에 매는 사람들? # 예.{유대군이라는 말은 상여 매는 사람들? 예.}

10226 @ 이거또 자격기 이썬요. 아무나 매도 팬차나요? {이것도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매도 팬찮아요?}

10226 # 응, 아무나 매도 팬차너.{응, 아무나 매도 팬찮아.}

10226 @ 아무나 매도 팬찬코.{아무나 매도 팬찮고.}

10226 @ 그 유대본, 유대군. 혹시 상여 나가기 저네 아페다가 이르게 글씨 쓰는 걸뜰 이썬자나요?{그 유대본, 유대군. 혹시 상여 나가기 전에 앞에다가 이렇게 글씨 쓰는 것들 있었잖아요?}

10226 # 만사. 조기라고지, 조기. 그걸 만사라고 혀.{만사. 조기라고 하지, 조기. 그걸 만사라고 해.}

10226 @ 그 만사는 하나만 하는가요? 아니면 여러 개를 하는가요?{그 만사는 하나만 하는가요? 아니면 여러 개를 하는가요?}

10226 # 월래 규정이 인자 만사가 이꼬, 저 뭐시냐. {원래 규정이 이제 만사가 있고, 저 무엇이냐.}

10226 # 그 만사는 여러 장이제. 이제 친구지가니나, 먼디서 인자 요새 화원 그거 보내드끼.{그 만사는 여러 장이지. 이제 친구지간이나, 먼 데서 이제. 요새 화환 그거 보내듯이.}

10226 @ 그거다고 또까꾸나. # 그거더고 갈째.{그것하고 똑같구나. 그것하고 같지.}

10226 @ 그러면 인제 친구드리 썬 가지고 걸기도 하고. 그럼 여러 장 이썬 쭈 이 켜네요. # 아, 여러 장 인제.{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썬 가지고 걸기도 하고.

그럼 여러 장 있을 수 있겠네요. 아, 여러 장 있지.}

10226 # 그렇게 참 거시기한 간지가 다라가지고 그양 수십명이 들고 가는 수가 이
 찌.{그러니까 참 거시기한, 간지가 달아가지고 그양 수십 명이 들고 가는 수
 가 있지.}

10226 @ 아, 그 만사를? {아, 그 만사를?}

10226 # 써 가지고 인자 대에다 꼬자가지고 인자, 그 보며는 아 저 참 호상이다,
 이르케.{써 가지고 이제 대에다 쫓아가지고 이제, 그 보며는 아 저 참 호상이
 다, 이렇게.}

10226 @ 그 사라미 위세도 인자.{그 사람의 위세도 이제.}

10226 # 글로써 인자 나타나지.{글로써 이제 나타나지}

10226 @ 그 만사를 보고?{그 만사를 보고?}

10226 @ 그럼, 만사가 맨 아페 가는 거여? 나갈 때?{그럼, 만사가 맨 앞에 가는
 거여? 나갈 때?}

10226 # 암, 그러제, 만사. 대신 그인자 그를 지어서 인자, 써서 인자 다 각각.{암,
 그러지, 만사. 대신 그 이제 글을 지어서 이제, 써서 이제 다 각각.}

10226 @ 아, 그래요? 그 만사에다가 자기가 쓰고 시픈 마를 쓰는 거예요? # 암.
 @ 주로 어떤 내용드를 써요? 만사에다가?{아, 그래요? 그 만사에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암. 주로 어떤 내용들을 써요? 만사에다가?}

10226 # 어, 대부분 호천망그기라든지 뭘. 여러말 조은 마를 쓰지.{어, 대부분 호
 천망극이라든지 뭘. 여러 말 좋은 말을 쓰지.}

10226 @ 그 호천망그기라고 쓰고 자기 친구 이름을 쓰는가요? 자기 이름도 쓰는
 가요? {그 호천망극이라고 쓰고 자기 친구 이름을 쓰는가요? 자기 이름도 쓰
 는가요?}

10226 # 자기 이름만 쓰제. 자기 이름만 써.{자기 이름만 쓰지. 자기 이름만 써.}

10226 @ 그 만사, 만사를 만든 사람 이름? {그 만사, 만사를 만든 사람 이름?}

10226 @ 그러면 인제 그 만사가 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상여가 뒤따라가는 거여?
 # 그러제.{그러면 이제 그 만사가 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상여가 뒤따라가는
 거여? 그러지.}

10226 @ 상여가, 상여는 인제 소리꾸니 위에 서고 유대구니 뒤에서 메고 가고 #
 메고 가고.{상여가, 상여는 이제 소리꾼이 위에 서고, 유대군이 뒤에서 메고
 가고.}

10226 # 그 다음 뒤에 인자 상주더리 따르고. {그 다음 뒤에 이제 상주들이 따르
 고.}

10226 @ 그 다음에 상주들 따르구요? {그 다음에 상주들 따르고요?}

10226 # 그 다음에 인자 조객떠리 뒤따라오고.{그 다음에 이제 조객들이 뒤따라오
 고.}

10226 @ 그르케 해서 장지까지 가는거여? 그르케 해서?{그렇게 해서 장지까지 가

는 거여?}

10226 @ 대개 장지가 동네에서 쫘 멀쭈도 이짜나요? {대개 장지가 동네에서 쫘 멀 수도 있잖아요?}

10226 # 그러지.{그러지.}

10226 @ 어, 그럼 거기까지 가치 가는 거여? # 암, 가치 가지. {어, 그럼 거기까지 같이 가는 거여? 암, 같이 가지.}

10226 # 지그른 차로 가지만.{지금은 차로 가지만.}

10226 @ 아, 그러네. 아이 이걸 상당히 큰, 큰니리구나.{아 그러네. 아이, 이걸 상당히 큰, 큰일이구나.}

10226 @ 그럼 거의 동네 전체가 다 가치 움직기젠네. 동네 싸람들.{그럼 거의 동네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겠네. 동네 사람들.}

10226 # 아 거개 인자, 거개 가치 움직이지.{아, 거의 이제 거의 같이 움직이지.}

10226 @ 사라메 따라 쫘 다를 쭈는 이젠네요.{사람에 따라 쫘 다를 수는 있겠네요.}

10226 # 누구는 가다가 인자 거릿째라질 또 지내지.{누구는 가다가 이제 거릿째라는 걸 또 지내지.}

10226 # 거리에서인자 또 제사를 또 지내. 노제라고 히가지고. 노제라고, 거릿째를 지내, 거그서 인자 또 제사를 또 지내, 가다가. 쉬어가는 퍼니제.{거리에서 이제 또 제사를 또 지내. 노제하고 해가지고. 노제하고, 거릿째를 지내. 거기에서 이제 또 제사를 또 지내, 가다가. 쉬어가는 편이지.}

10226 @ 노제는 지낼 때는 어트게 지내는 거여요? 상에다가, 거리다가 상을.{노제는 지낼 때는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상에다가, 거리에다가 상을.}

10226 # 어, 상 노코, 거그도 똑가치. 인자 간단히만 허제.{어, 상 놓고, 거기도 똑같이. 이제 간단히만 하지.}

10226 @ 상주한테 지내는 건가요? 상, 아니 저기 멩인한테 지내는 건가요? {상주한테 지내는 건가요? 상, 아니 저기 멩인한테 지내는 건가요?}

10226 # 어, 멩인한테 지내지. 질 허고. 그거슨 인자 또 미차 손님들 늦게 온 사람 인나 가따 손니를 보고.{어, 멩인한테 지내지. 질 하고. 그것은 이제 미처 손님들 늦게 온 사람 있나 갖다 손님을 보고.}

10226 @ 그 다으메는 인제 장지에 도착하면 그 다으메는 어트게 하는 거여? {그 다으메는 이제 장지에 도착하면 그 다으메는 어떻게 하는 거여?}

10226 # 도착 허면 인자, 발써 산닐 히논거 이썰꺼 아녀? 인저 하과늘 허제. 하관 시가니 이꺼든, 대략 열두 시, 하관 시간.{도착하면 이제, 벌써 산일 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녀? 이제 하관을 하지. 하관 시간이 있거든, 대략 열두 시, 하관 시간.}

10226 @ 하과는 또 어떤 절차로 하는 거예요? {하관은 또 어떤 절차로 하는 거예요?}

10226 # 하과니라는 거슨 인저 절차가 읍씨 그냥 가늘 느코 봉허제.{하관이라는 것은 이제 절차가 없이 그냥 관을 넣고 봉하지.}

10226 @ 혹시 그 상여소리 가튼 거 지금 하실 만한 부니 여기 계셔? 소리꾸니, 여기 하실 뿌니.{혹시 그 상여소리 같은 거 지금 하실 만한 분이 여기 계셔? 소리꾼이, 여기 하실 분이?}

10226 # 예, 우리 근방은 일제.{예, 우리 근방은 있지.}

10226 @ 지금도 계세요? # 응, @ 아, 그래요?{지금도 계세요? 음. 아, 그래요?}

10226 # 바로 이 위, 바로 이 엽집 싸는 분 자제.{바로 이 위, 바로 이 옆집 사는 분 자제.}

10226 @ 아, 그래요?{아, 그래요?}

10226 # 그사라민저 이 글동이서 팔려 다녀.{그 사람이 이제 이 근동에서 팔려 다녀.}

10226 @ 지금도? {지금도?}

10226 # 어 오라고는 사람 이쌍게.{어, 오라고 하는 사람 있으니까.}

10226 @ 그분 노금 좀 해야되겐네. 상여, 상여소리. 언제 한 번 그 소리 쯔 노금 좀 해쓰면 조겐네.{그 분 녹음 좀 해야되겠네. 상여, 상여소리. 언제 한 번 그 소리 좀 녹음 좀 했으면 좋겠네.}

10226 @ 그 분 성하미 어트게 되세요?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10226 # 정남근.{정남근.}

10226 @ 바로 요 위집 싸셔? # 예.{바로 요 윗집 사셔? 예.}

10226 @ 연세가?

10226 # 지금 이른하나. {지금 일흔하나.}

10226 @ 음, 절르시구나 아직. 야.{음, 젊으시구나 아직. 야.}

10229 @ 그 장례 치를 때 읍시근 또 어떤 거뜨를 준비하세요?{그 장례 치를 때 음식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세요?}

10229 # 장례 치를 때, 평생이야 그 때는 삼실과. 그때는 언제 장마널 지회가 저 꺼등. 그래 간단해. 그저 어물 가튼 거슬 시장이가 사다 허면.{장례 치를 때, 평소야 그 때는 삼실과. 그때는 언제 장만할 기회가 적거든. 그래 간단해. 그저 어물 같은 것을 시장에서 사다 하면.}

10229 @ 오히려 그 환갑쌍에 비해서는 더 간단난.{오히려 그 환갑상에 비해서는 더 간단한.}

10229 # 아, 간단히야지. 언제 장만 헐 새가 업쫑게.{아, 간단해야지. 언제 장만할 새가 없으니까.}

10226 @ 이제 그러케 하고 나면, 그 봉분 만들고 나면 이제 끝나는가요?{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봉분 만들고 나면 이제 끝나는가요?}

10226 # 어 그거시 인저 또 평토제라는 거시 지내지, 평토제.{어 그것이 이제 또 평토제하는 것을 지내지, 평토제.}

10226 @ 평토제라는 거슨 어떤?{평토제라는 것은 어떤?}

10226 # 평토제라는 거슨 거운 인자 땅허고 가치 완전 봉무늘 낀, 는 거시 아니라. 히 노면 또 인저 생일, 생이를 보내양게 지브로 보내양게, 혼백 상자가 들려서 보내양게 거따 인자 평토제라고, 어느 정도 인자 평지허고, 평토제라고면 평지허고 비방하게 인자 이를 해썬 때 거따인저 또 제사를 또 지내.{평토제라는 것은 거의 이제 땅하고 같이 완전 봉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해 놓으면 또 이제 상여, 상여를 보내야 하니까, 집으로 보내야 하니까, 혼백 상자를 들려서 보내야 하니까 거기에다 이제 평토제라고, 어느 정도 이제 평지하고, 평토제라고 하면 평지하고 비슷하게 이제 일을 했을 때 거기에다 또 제사를 또 지내.}

10226 # 지내고, 그 혼백쌍, 혼배글 아페 들고 가는 사람 아페 따라서 온 길로 아주 지브로 와서 인자 영위를 만들지 아녀? {지내고, 그 혼백상, 혼백을 앞에 들고 가는 사람 앞에 따라서 온 길로 아주 집으로 와서 이제 영위를 만들지 아녀?}

10226 # 그러면 인자 나머지 싸람드리, 동네싸람드리 참 인자 완저니 봉무늘 다 만들제.{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동네사람들이 참 이제 완전히 봉분을 다 만들지.}

10226 @ 아 그럼 산닐 허는 부드러운 거기서 산닐을 하시고, 가치 평토제 지내고.
{아 그럼 산일 하는 분들은 거기서 산일을 하시고, 같이 평토제 지내고.}

10226 # 생인들 오고, 생인들.{생인들 오고, 생인들.}

10226 @ 생인들만 오는 거예요? 지브로?{생인들만 오는 거예요? 집으로?}

10226 # 암. 생인들만 오지.{암. 생인들만 오지.}

10226 @ 그럼 조문객뜨른 거기서 호터져?{그럼 조문객들은 거기서 흠어져?}

10226 # 암, 진자기 호터지지, 거그서 호터지지.{암, 진작 흠어지지, 거기서 흠어지지.}

10226 # 그리고 가치 가가지고 점시를 면는 수도 이찌.{그리고 같이 가서 점심을 면는 수도 있지.}

10226 @ 음, 가치 오셔가지고?{음, 같이 오셔가지고?}

10226 # 그 저네 감 싸라몬 가고, 그러다 사네 가치 이쁜 사람드른 허고.{그 전에 갈 사람은 가고, 그러다 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하고.}

10226 @ 그럼 인제, 그 다으멘. 그러민제 상례는 다 끝난거죠히? {그럼 이제, 그 다 음에는. 그러면 이제 상례는 다 끝난거죠히?}

10226 # 인저 영위를, 영위를 인자 지브로 모시고.{이제 영위를, 영위를 이제 집으로 모시고.}

10226 @ 영위를 모실 때는 어뜨게 모셔야 돼요? 옴나레는?{영위를 모실 때는 어떻게 모셔야 돼요? 옛날에는?}

10226 # 어 영위를, 거뜰짜 거진 지븐 지블 또 다시 낀는 지빈찌, 인는 지븐.{어

영위를, 그것도 이제 어떤 집은 집을 다시 짓는 집이 있어. 있는 집은.}

10226 @ 지블 다시 저요? {집을 다시 지어요?}

10226 # 지블 쪼만허게 이제 지프라그로, 지브로 히서 나무로 씨워가지고 토막 씨워가지고 별또로 치루는 집또 이꼬, 또 허청 이씨면 허청이다도 허고.{집을 조그만하게 이제 지프락으로, 짚으로 해서 나무로 세워서, 토막 세워서 별로로 치르는 집도 있고, 또 허청 있으면 허청에다도 하고.}

10226 # 그럼 대개 큰방 무나페다 만드러서 인자 그 카튼 으로, 카튼 치고 거탄자 암반 상 하나 노코 거탄자 혼뱅만 지방을 부쳐노면 인자.{그럼 대개 큰방 문앞에다 만들어서 이제 그 커튼으로, 커튼 치고 거기에다 이제 암반 상 하나 놓고 거기에다 이제 혼백만 지방을 붙여 놓으면 이제.}

10226 @ 그럼 인제 이, 이건 그 이러케 만드려 논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셔쨌요?{그럼 인제 이, 이건 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10226 # 빈소라고지 지그믐. 귀 영우여 영우, 영위. 영위. 지금 빈소라간해? 빈소? 영우여 영우, 영위라고제.{빈소라고 하지 지금은. 그게 영위여 영위, 영위.영위. 지금 빈소라고 안 해? 빈소? 영위여 영위. 영위라고 하지.}

10226 # 모시뤄짜 영을 모신다 그 마리지.{모실 위 자 영을 모신다 그 말이지.}

10226 @ 그럼 인저 거 빈소나 영위에다가는 어트게 해요? 날마다날마다 뭘 하시는가?{그럼 이제 그 빈소나 영위에다가는 어떻게 해요?}

10226 # 암 그러체. 그저네는 상서글 올려제잉. 아침 저녁그로, 나제네는 사네. 아침 저녁그로 밥쌍을 언제나, 아침 저녁그로 언제나.{암 그렇지. 그 전에는 삼식을 올렸지.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산에.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언제나, 아침 저녁으로 언제나.}

10226 @ 그럼 그 바블 진짜 다 차려서 올려논는거여? {그럼 그 밥을 진짜 다 차려서 올려놓는 것이여?}

10226 # 암, 상이다 히서.{암, 상에다 해서.}

10226 @ 그 다음메. 그러면 이제 그냥 아침메 노코 일 나가따가 저녁 때 거뒀서?{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냥 아침에 놓고 일 나갔다가 저녁 때 거뒀서?}

10226 # 아니. 바로 걷제. 놔따가 바로. 바로 놔따가 바로 거더선자 식싸를 허제. {아니. 바로 걷지. 놓았다가 바로. 바로 놓았다가 바로 거더서 이제 식사를 하지.}

10226 @ 그럼 인제 거더서, 거든 그 음식근 우리가 머거도 되는 거여? {그럼 이제 걷어서, 걷은 그 음식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여?}

10226 # 암. 머그먼 먹찌 다.{암, 먹으면 먹지, 다.}

10226 @ 그럼인자 잠깐 식싸, 우리가 밥먹기 저네 인저 먼저 드시게 하고.{그럼 이제 잠깐 식사,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이제 먼저 드시게 하고.}

10226 # 먼점 히서 드리고 인자 준비해서 우리가 먹꼬.{먼저 해서 드리고 이제 준

비해서 우리가 먹고.}

10226 @ 이거슬 먼녀니나 허시는 거여? 먼 개월, 먼 주? 얼마나 하시는가요?{이것을 몇 년이나 하시는 거여? 몇 개월? 몇 주? 얼마나 하시는가요?}

10226 # 그걸 일 년 간 허는거여, 일 년 간. 초상때까지. 인제 소상때까지.{그것을 일 년 간 하는 것이여, 일 년 간. 초상 때까지, 이제 소상 때까지.}

10226 @ 그러면 그 일 년 후에 인제 다시 하는 거슬 소상이라고 해요? # 소상. {그러면 그 일 년 후에 이제 다시 하는 것을 소상이라고 해요? 소상.}

10226 @ 그 소상 때 다시 조문객뜨리 오는가요? {그 소상 때 다시 조문객들이 오는가요?}

10226 # 암, 소상때 전부 모이지. 삼년상을 다 다니지. 초상 날 때하고, 소상 때하고, 또 탈쌍.{암, 소상때 전부 모이지. 삼년상을 다 다니지. 초상 날 때하고, 소상 때하고, 또 탈상.}

10226 @ 초상, 소상, 탈쌍, 그러케 허는가요?{초상, 소상, 탈상 그렇게 하는가요?}

10226 # 초상은 주거썰 때 초상이고, 그 이드매 제사가 소상이고, 인자 탈쌍, 보글 번는다 그 마리여, 또 그 이드매 탈쌍, 탈보걸 때, 월래 조무늘 세 번 헌다는 거싱게.{초상은 죽었을 때 초상이고, 그 이듬해 제사가 소상이고, 이제 탈상, 복을 벗는다 그 말이야. 또 그 이듬해 탈상, 탈복할 때, 원래 조문을 세 번 헌다는 것이니까.}

10226 @ 아이고 복짜버네.{아이고, 복잡하네.}

10226 # 근디 지그른 참 조체. 그 자리서 그냥 그거스로 인자 기년 탈보글 허고. 기년나라거면 일년간 탈보개라, 뭇 뭇, 개일 탈보시 이쓰면 칠칠 탈보길썰, 칠칠세부터. 또 삼, 삼일 탈보기 되야되면 그날 사네서 마라자면, 장례 지내고는 거그서 탈보개 버리고.{그런데 지금은 참 좋지. 그 자리에서 그냥 그것으로이제 기년 탈복을 하고. 기년이라고 하면 일 년 간 탈복이라. 뭇 뭇. 개일 탈복이 있으면 칠칠 탈복일세. 또 삼, 삼일 탈복이 되면 그날 산에서, 말하자면, 장례 지내고는 거기서 탈복해 버리고.}

10226 @ 예빠비 마니 달라전네. # 그러치.{예법이 많이 달라졌네. 그렇지.}

10226 # 그러고나면 인제 탈쌍 하고나면 그때부터는 인제 제사를 지내시는거죠? # 응, 제사지.{그리고 나면 이제 탈상 하고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사를 지내시는거죠? 응. 제사지.}

1.2.8. 제사에 대한 이야기

10230 @ 그때부터 제사라고 하는 거야? # 암. @ 처으메 지내는 제사는 뭐라고 하세요? {그때부터 제사라고 하는 거야? 암. 처음에 지내는 제사는 뭐라고 하세요?}

10230 # 기제사. 기제사. 천 방안짜사라고 그러제. 천 기제사.{기제사. 기제사. 첫

방안 제사라고 그러지. 첫 기제사.}

10226 @ 이거슬 방안제사라고 하셔? # 응, 방안제사.{이것을 방안 제사라고 하셔? 응. 방안 제사.}

10230 @ 그리고 나면 그 다투메 기제사 다투메 또 어떤 제사가 이썬요?{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기제사 다음에 또 어떤 제사가 있어요?}

10230 # 그 다투메? 어 그야 인자 기제사를 계속 지내제잉.{그 다음에? 어, 그야 이제 기제사를 계속 지내지.}

10230 @ 기제사는 인제 해마다 지내고? {기제사는 이제 해마다 지내고?}

10230 # 인자 묘에 가서는, 그 저네는 율년 후, 마라자면 육때 되야면 세앙을 모시자녀.{이제 묘에 가서는. 그 전에는 육년 후, 말하자면 육 대 되면 시향을 모시잖아.}

10230 @ 육때부터? {육 대부터?}

10230 # 어, 육때부터.{어, 육 대부터.}

10230 @ 내 우그로 육때까지? {내 위로 육 대까지.}

10230 # 어, 육때. 진저 마라자면 육때조부터 지낸다 그마리여.{어, 육 대. 말하자면 육대조부터 지낸다 그 말이여.}

10230 @ 육때조부터는 인제 묘에 가서. 그거슬 뭐라고래썬요. {육대조부터는 이제 묘에 가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10230 # 시제.{시제.}

10230 @ 육때조 아래로는?{육대조 아래로는?}

10230 # 아래로는 평생 지베 방아네서 지내는다, 지그믐 말여, 여래 복짜버다고 참 묘제를 지내버리더만.{아래로는 평소에 집에 방안에서 지내는데, 지금은 말이야, 여러 복잡하다고 참 묘제를 지내버리더만.}

10230 # 자기 부모도 묘제 지내버리데. 지바니 방아네서 지사를 안 지내고.{자기 부모도 묘제 지내버리데. 집안에 방안에서 제사를 안 지내고.}

10230 @ 방안 지사는 업꼬 묘제로만? {방안 제사는 없고 묘제로만?}

10230 # 묘에 가서 그양 지내버리는 사람 더러 이떠라 그마리여.{묘에 가서 그냥 지내버리는 사람 더러 있더라 그 말이여.}

10230 @ 묘제라고 하는 거슨 이거슨 그림 추석때? 설랄? {묘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림 추석때? 설날?}

10230 # 아녀. @ 그날? # 날 바더서, 그 제산날 날 바더서 하고, 묘제 지내고, 또 날도 받고, 안 도냐도. 그 자손들 펼리헌 날 수짜를 바더서.{아녀. 그날? 날 받아서, 그 제산날 날 받아서 하고, 묘제 지내고, 또 날도 받고, 안 되어도. 그 자손들 펼리헌 날 숫자를 받아서.}

10230 @ 지브로 다 안 모이고 그냥 거기 가서 모신다 이마리쥬? 옰나레는 그런 거 업썬쥬?{집으로 다 안 모이고 그냥 거기 가서 모신다 이 말이쥬?}

10230 # 업썬제.{업썬지.}

10230 @ 틀리덱씨 기제사를 지내고? # 아, 그제사 지내지.{틀림없이 기제사를 지내고? 아, 그제사 지내지.}

10230 @ 그리고 인제 설랄 아치메도.{그리고 이제 설날 아침에도.}

10230 # 암 설랄 아치멘 인자 지베서 제사를 지내지. 근 합똥이제, 설라른, 명저른 합똥이제.{암, 설날 아침에는 이제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그건 합동이지, 설날은, 명절은 합동이지.}

10230 @ 그 설라레 지내는 제사는 뭐라고 하셔썬요?{그 설날에 지내는 제사는 뭐라고 하썬어요?}

10230 # 그 인저 설랄, 지내는 건 제사제, @ 다른 이름 업썬꾸요? # 엄, 뭘 추서게도, 추서게도 마찬가지로.{그 이제 설날, 지내는 건 제사지. 다른 이름 없었꾸요? 응, 뭘 추석에도, 추석에도 마찬가지로.}

10230 # 그저네 합똥으로 지내는 거시여. 인자 수짜대로 인자 메만 수짜대로 지어노코, 메만 올리지.{그전에 합동으로 지내는 것이여. 이제 숫자대로 이제, 메만 숫자대로 지어놓고, 메만 올리지.}

10230 # 차례 지낸다고 그러지, 차례 지낸다고.{차례 지낸다고 그러지, 차례 지낸다고.}

10230 @ 기제, 아, 차례? 차례라고 하는 거슨 추성명절 그 차례 지낸다고해도 괜차는가요?{(기제, 아, 차례? 차례라고 하는 것은 추석 명절 그 차례 지낸다고해도 괜찮은가요?)}

10230 # 암. 설 명저를 차례 지낸다고 해.{암, 설 명절을 차례 지낸다고 해.}

10231 @ 그럼 인저 기서서, 기제사를 지낼 때는 도라가신 날로 치는가요? 아니면 그 다음날로 치는가요? {그럼 이제, 기제사, 기제사를 지낼 때는 돌아가신 날로 치는가요? 아니면 그 다음날로 치는가요?}

10231 # 그 안날로 쳐.{그 안 날로 쳐.}

10231 @ 그 안날로 쳐?{그 안 날로 쳐?}

10231 # 산, 산 날로.{산, 산 날로.}

10231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느리, 오느리 이십사이런데 오늘 도라가셔썬.{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이, 오늘이 이십사 일인데 오늘 돌아가썬어.}

10231 # 그럼 어젠날로. @ 어젠날짜로 지내신다는 마리썬? {그럼 어젯날로. 어젯날짜로 지내신다는 말이썬?}

10231 @ 기제사 지내실 때는 어떤 절차로 지내세요? 어떤 순서로?{기제사 지내실 때는 어떤 절차로 지내세요? 어떤 순서로?}

10231 # 순서라면, 평생 제사 지내는 순서는 다 또까통게. 예 새양 모시는 지사나.{순서라면, 평소에 제사 지내는 순서는 다 똑같으니까. 예, 시향 모시는 제사나.}

10231 # 이걸 채려노코, 삼실과 채려노코. 지방 썬 부치고.{이걸 차례노코, 삼실과 차례노코. 지방 썬 붙이고.}

10231 @ 음. 지방 써 부치고.{음. 지방 써 붙이고.}

10231 # 축찌방, 마라자면 충늬꼬, 자손덜 절 하고, 월래 또 제사는 또 언제 지내냐면 새보게 다루룸 새 지내거든.{축지방, 말하자면 축 읽고, 자손들 절 하고, 원래 또 제사는 또 언제 지내냐면 새벽에 닭울음 새 지내거든.}

10231 @ 예. 그러니까 가령 이십싸일랄 도라가션씨. 그 이드매 기제사 지낼 때는 이십싸밀랄 새보게 지내는 거여? 아니 이십싸일랄 새벽? 온제 지내는 거여? {예, 그러니까 가령 이십사일 날 돌아가셨어. 그 이듬해 기제사 지낼 때는 이십삼일 날 새벽에 지내는 거여? 아니 이십사일 날 새벽? 언제 지내는 거여?}

10231 # 지금 마려.{지금 말이야.}

10231 @ 예 이십싸일 랄 도라가셔씨. 그러면? {예, 이십사 일날 돌아가셨어. 그러면? }

10231 # 그 안날 새보기지.{그 안날 새벽이지.}

10231 @ 그 안날 새보게? 그 결구근 이십싸일랄 그날 아치미구나.{그 안날 새벽에? 그 결국은 이십사 일날 그날 아침이구나.}

10231 # 그러치.{그렇지.}

10231 @ 그러니까 이십사밀랄 지낸다고 허드래도 그 안날 새보기며는 이십싸일랄 새보기, 새벽 아니예요?{그러니까 이십삼일 날 지낸다고 하드래도 그 안날 새벽이면은 이십사일 날 새벽이, 새벽 아니예요?}

10231 # 이, 이십사밀랄 주거쨩게.{이, 이십삼일 날 죽었으니까.}

10231 @ 아니, 아니, 이십싸일랄 도라가셔씨. 이십싸일랄 도라가셔쓰면 그 안날.
응, 이십싸밀랄 새보게.{아니아니, 이십사일 날 돌아가셨어. 이십사일 날 돌아가셨으면 그 안날. 응, 이십삼일 날 새벽에.}

10231 @ 이십싸밀랄 새벽? {이십삼일 날 새벽?}

10231 # 음.{음}

10231 @ 그럼 이십 이일랄 밤 새우고 그 다음날 지낸다구요? # 그러제.{그럼 이십이일 날 밤 새우고 그 다음날 지낸다고요? 그러지.}

10231 # 공계 평소에 새보기란게 이십사밀라링게.{그러니까 평소에 새벽이라는 것이 이십삼일 날이니까.}

10231 @ 도라가시기는 이십싸일랄 도라가션는데, 제사는 그 전날 지내네?{돌아가시기는 이십사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사는 그 전날 지내네?}

10231 # 그 전날 져야돼.{그 전날 지내야돼.}

10231 @ 아. 왜 그래요? 도라, 도라가신날 안 지내고?{아, 왜 그래요? 돌아, 돌아가신날 안 지내고?}

10231 # 산 날로 지내야혀.{산 날로 지내야 해.}

10231 @ 산 날로 지내는 거야? 도라가신 나리 아니고? {산 날로 지내는 거야? 돌아가신 날이 아니고?}

10231 @ 아, 그러쿠나.{아, 그렇구나.}

10231 # 도리나 지그른 오늘 주거쓰면 오늘 즈녀기 지사거든? {더구나 지금은 오늘 죽었으면 오늘 저녁이 제사거든?}

10231 @ 음, 그러쵸. 오늘 새벽에라.{음 그렇쵸. 오늘 새벽이라.}

10231 # 오늘 새벽이면 오늘 쪼녀긴디, 쉽게 마려면 어제, 어제 저녁글 지내야 한다 그마리여. 아 어제 즈녀글 지내능게 그게 평여 오늘 새벽이나 마찬가지로 제.{오늘 새벽이면 오늘 저녁인데, 쉽게 말하면 어제, 어제 저녁을 지내야 한다 그 말이여. 아 어제 저녁을 지내는 것이 그게 평소에 오늘 새벽이나 마찬가지로 지지.}

10231 # 그게 바메 지내는 거시제, 새벽에 지내는 거슨 아니거든.{그게 밤에 지내는 것이지, 새벽에 지내는 것은 아니거든.}

10231 # 오늘 주거따 그마리여. 그러면 오늘 쪼녀그 지내는 거시 아니라 어제 쪼녀게 지낸다 그마리여. 그게 평생 새벽에.{오늘 죽었다 그 말이여. 그러면 오늘 저녁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지낸다 그 말이여. 그게 평소에 새벽에.}

10231 @ 마치는 거다 이 마리쵸 # 아, 새벽에 되는 거시여. @ 도라가신 날 새벽이 된다는 이 마리쵸?{마치는 것이다 이 말이쵸? 아, 새벽이 되는 것이여. 돌아가신 날 새벽이 된다는 이 말이쵸?}

10231 @ 그러면 그, 그 기제사 지내는 시가니 몇 씨야? 뎡씨에 대충 지내요? {그러면, 그, 그 기제사 지내는 시간이 몇 시야? 몇 시에 대충 지내요?}

10231 # 어 대충 지내는 거슨 열두시 너머서, 한 다굴림 새 지낸다는 거시여.{어 대충 지내는 거슨 열두 시 넘어서, 한 닭울음 새 지낸다는 것이여?}

10231 @ 닥 울기 저네?{닭 울기 전에?}

10231 # 아 닥 울기 저네. 그럼 쉽게 마라자면 자 축 인 계명 축시라고 안해? 그럼 새 인시 경이나 지내야지.{아 닭 울기 전에. 그럼 쉽게 말하자면 자 축 인 계명축시라고 안해? 그럼 새 인시 경이나 지내야지.}

10231 @ 자 축 인, 그럼 한 세너 시, 세 시나 네 시 되건네.{자 축 인, 그럼 한 서너 시 세 시나, 네 시 되겠네.}

10231 # 아, 그러지. 근디 그때까지 이슬구 읍꺼덩.{아, 그러지. 그런데 그때까지 있을 수 없거든.}

10231 @ 그러니까 그냥 열두 시 너르면 바로 지내는구나. 아 그래서 그래꾸나.{그러니까 그냥 열두 시 넘으면 바로 지내는구나. 아 그래서 그래꾸나.}

10231 @ 이러케 할때 인제 제, 제물을 채려, 채려노코 지방 부치고, 그 다음에 인제 어트게 해요? 바로? 천뽕째.{이렇게 할 때 이제 제, 제물을 차려, 차려놓고 지방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첫번째.}

10231 # 그러니까, 그 채려노키는 초저녀기 채려노췌잉. 한 열씨경이나 채려노치 안해. 인자 저러고 인자 그, 메 올리고 혈 때는 인자 열두 시 너머서 어 두시 세 시경이 인자, 인자 허고.{그러니까 그 차려놓기는 초저녁에 차려놓지.

한 열 시경이나 차려놓지 않아? 이제 절하고 이제 그, 메 올리고 할 때는 이제 열두 시 넘어서 어, 두 시 세 시경에 이제, 이제 하고.}

10231 # 다굴기 저네. 다굴먼 귀시니나 모든다는 거시 인제. @ 그러치그러치. # 마리, 올기 저네 제사를 끝나쳐야지. 가시라고.{닭 올기 전에. 닭 올면 귀신이나 모든 것이 이제. 그렇지 그렇지. 말이, 올기 전에 제사는 끝마쳐야지, 가시라고.}

10231 @ 지방 부쳐노코 그 다오메 천뽀째 저를 하는가요? 제사 기제사 지내는 순서가? {지방 붙여놓고 그다음에 첫번째 절을 하는가요? 제사, 기제사 지내는 순서가?}

10231 # 순서가 채려눌 때 지방 처제는 부쳐와양게, 부쳐노코 거따이제 채리제. {순서가 차려놓을 때 지방, 첫째는 붙여놓아야하니까, 붙여놓고 거기에다 차리지.}

10231 @ 지방 부쳐노코 인제 음식 채려써. 그 다오메 어트게 해요? 그 다오메.{지방 붙여놓고 이제 음식 차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10231 # 그 다오메는 인자 자손드리 안저서 얘기하고 인자.{그 다음에는 이제 자손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이제.}

10231 @ 아이 근제 순서대로 한다면 처오메 저를 한 번만 허고 끝나는게 아니자나요. 그러니까 지방 부치고 제물 채린 다오메 어트게 해요? 그 다오메 바로.{아 그 이제 순서대로 한다면 처음에 절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붙이고 제물 차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바로.}

10231 # 어 그 다오메는 채려만 봐.{어 그 다음에는 차려만 봐.}

10231 @ 채려만 봐? 그러다가?{차려만 봐? 그러다가?}

10231 # 인자 저럴때는 인자 맨, 맨찐지.{이제 절 할때는 이제 멧, 멧찐지.}

10231 @ 바로 진지를, 맨찐지를 올려요?{바로 진지를, 멧찐지를 올려요?}

10231 # 나중에 혈찐 이따가, 제사 지낼 때 맨찐지를 올리는 거시여. {나중에 혈찐 있다가, 제사 지낼 때 멧찐지를 올리는 것이여}

10231 @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맨 처오메 무어슬 해요?{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맨 처음에 무엇을 해요?}

10231 # 처음에 인자, 어 제사 지낼 때? 지낼 때는 인자 메를 올려노코.{처음에 이제, 어 제사 지낼 때? 지낼 때는 이제 메를 올려놓고.}

10231 @ 처음부터 메를 올리는 거여? 절 하기, 절도 아너고 메부터 올려요? {처음부터 메를 올리는 거여? 절 하기, 절도 안 하고 메부터 올려요?}

10231 # 절 허고 나중에 메를 올리제. 저리란 거슨 말여잉 인자 자소니 다 저를 허고 메 올리고 인자, 크나들, 인자 제주가 주간똥께, 언제나 제주가 크나드령게 인자 제주가 제사를 모시제잉.{절 하고 나중에 메를 올리지. 절이란 것은 말이야 이제 자손이 다 절을 하고 메 올리고 이제, 큰아들, 이제 제주가 주관

이 되니까, 언제나 제주가 큰아들이니까 이제 제주가 제사를 모시지.}

10231 @ 어,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저를 허고, 제주가 먼저 저를 하는가요?
{어.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절을 하고, 제주가 먼저 절을 하는가요?}

10231 # 아니, 다 인자. @ 다 한꺼번에? # 다 항꺼 하고 인자 제주가 허고.{아니
다 인자, 다 한꺼번에? 다 함께 하고 이제 제주가 하고.}

10231 # 제중이 크나드리 허고, 다오메 인자 두채아들또 허고, 수를 여러 올링랑
게 잉, 차례차례인자.{제주인 큰아들이 하고, 다음에 이제 두째아들도 하고,
술을 여러 올리려니까 차례차례 이제.}

10231 @ 그때는 이미 메가 올라가 인는 상탕가? # 암, 메가 다 올라가야돼.{그때
는 이미 메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 암, 메가 다 올라가야돼.}

10231 # 근디 그거시 가가례라고 조금 풍속또가 달븐 수도 이썸.{그런데 그것이
가가례라고 조금 풍속도가 다른 수도 있어.}

10231 @ 인제 제주라고 하는 사라미 인제 안자서 동생드리 수를 따르면 이르게
가치 올리고 절 허게 하고, 그리고 인제 다 절 끝나고 나면 다 술잔 올리고
나면, 그 다음 어트게?{이제 제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앉아서 동생들이 술
을 따르면 이렇게 같이 올리고 절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절 끝나고 나
면, 다 술잔 올리고 나면, 그다음 어떻게?}

10231 # 거터다가 다 운가믈 허제, 운가믈, 마라자면 자손드리 다 그들 머거.{걸어
다가 다 음감을 하지, 음감을. 말하자면 자손들이 다 그것을 먹어.}

10231 @ 그걸 운가미라고 그래요?{그걸 운감이라고 그래요?}

10231 # 아, 운가믈 아니제. 그냥 머거 인자. 운가믈 귀시니 운가믈 하는 거시제
인자.{아, 음감은 아니지. 그냥 먹어 이제. 운감은 귀신이 음감을 하는 것이지
이제.}

10231 @ 아, 운가믈 인제 귀시니 하는 거고. 그 제사지내고 난 음시글 멍는 거슨
뭐라고 그래요?{아, 운감은 이제 귀신이 하는 거고. 그 제사 지내고 난 음식
을 먹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10231 # 음복. 음복떨 히야제. 술도 먹꼬. 음보글 다 하제.{음복, 음복들 해야지.
술도 먹고. 음복을 다 하지.}

10231 @ 음복 허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네.{음복 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네.}

10231 # 음, 철쌍을 히서 딱.{음, 철상을 해서 딱.}

10231 @ 그때 제사 지낼 때 충문 가튼 거또 일거요?{그때 제사 지낼 때 축문 같
은 것도 읽어요?}

10231 # 암 익제.{암, 읽지.}

10231 @ 추근 언제 일거요?{축은 언제 읽어요?}

10231 # 축? 인자 추근 인자 저 제주가 저럴 때.{축? 이제 축은 이제 저 제주가
절할 때.}

10231 @ 그 처음메 제주가 저럴 때? # 암, 제주 저럴 때 추글 익제.{그 처음에

제주가 절할 때? 암, 제주 절할 때 축을 읽지.}

10232 @ 제사, 제사 음식은 누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요? {제사, 제사 음식은 누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요?}

10232 # 인자 채리는 거시제? 준비야 식구가 다 준비허제잉. {이제 차리는 것이지? 준비야 식구가 다 준비하지.}

10232 @ 채리는 거슨 누가 해는 거예요? {차리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10232 # 그건 인자 장남, 장소니 채려야 돼. 근데 그건 상과니 업쓸 꺼 간네요. 채릴 켜. {그건 이제 장남, 장손이 채려야 돼. 그런데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채릴 켜.}

10232 # 장부가 채려야제, 큰메누리가. {장부가 채려야지, 큰며느리가.}

10232 @ 혹시 하지 마라야 할 꺼뜨리 인나요? 절때로 하면 안되는 거라든가. {혹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나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라든가.}

10232 # 아, 그건 좀 깨끄치 모던 사람. 쉽게 마라자면 어디 구즌디 가따 온 사람, 어디 상가에나잉, 녀 주거쓸때 가따 온 사람. {아, 그건 좀 깨끗하지 못한 사람. 쉽게 말하자면 어디 곳은 데 갔다 온 사람, 어디 상가에나 남 죽은 데 갔다 온 사람.}

10232 # 또 어리내 난 사람, 그 다레 어리내 나뻐 이. 그 사라믄 이 음식게다 소늘 안 대야 되지. {또 어리내 난 사람, 그 달에 어리내 났던 이. 그 사람은 이 음식에다 손을 안 대야 되지.}

10232 # 그리고 어느 상가에나 가따와따든지, 초상 가따온 사라믄 그 참서글 안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상가에나 갔다왔다든지, 초상 갔다온 사람은 그 참석을 안 해야 되고.}

10233 @ 옴나려고 지그하고 제사 지내는 방법또 좀 달, 달버져나요? {옴날하고 지금하고 제사 지내는 방법도 좀 달, 달라졌나요?}

10233 # 방버비 달라진 거시 아니라 아너지. 방버븐 그대로, 그대로지마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안 하지. 방법은 그대로, 그대로이지마는.}

10233 @ 사람드리 아너니까. {사람들이 안 하니까.}

10233 # 아너니까. 그 저니는 삼년 상을 지내뻐 거시 기년 탈보리고. 기년 탈보건 사라미 인저 삼년, 그날 당일 탈복 허고 {안 하니까. 그 전에는 삼년 상을 지냈던 거시 기년 탈복하고. 기년 탈복한 사람이 이제 삼년, 그날 당일 탈복하고.}

10233 # 또 어머님 아버지 별또로 마려잉 지넌, 날짜 바더 허는 게 기냥 합똥으로 지내버리고. 부모, 마라자면 부모 합똥으로. {또 어머님 아버지 별또로 말이야 지넌, 날짜 받아 하는 게 그냥 합똥으로 지내버리고. 부모, 말하자면 부모 합똥으로.}

10233 # 또 부모뿐만 아니라 그냥 그 지바네 제사를 그냥 다 그냥 한날 쯤녀게 지내버린다든지. {또 부모뿐만 아니라 그냥 그 집안에 제사를 그냥 다 그냥 한

날 저녁에 지내버린다든지.}

10233 @ 그러게따.{그러겠다.}

10233 # 그래 버리지. 방버비 다른 거슨 아니제. 시소기 따라서 그러제.{그래 버리지. 방법이 다른 것은 아니지, 시속에 따라서 그러지.}

10233 @ 예. 그러겐네요.{예, 그러겠네요.}

1.3. 생업활동

1.3.3.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10318 @ 아무튼 옛날에 그, 이버네 인제 그, 탈곡 할 때요, 옛날에 탈곡 할 때하고 탈고카는 방법또 옛날하고 지그머고 마니 달버전쥬? {아무튼 옛날에 그, 이번에 이제 그, 탈곡 할 때요, 옛날에 탈곡 할 때하고 탈곡하는 방법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쥬?}

10318 # 음, 마니 달버전쥬.{음, 많이 달라졌지.}

10318 @ 어, 어르신 맨 처음에 아주아주 어려쥬 때, 어르시니 아주 어려쥬 때 그 탈고카던 방법 혹시 기억나세요?{어, 어르신 맨 처음에 아주아주 어렸을 때 어르신이 아주 어렸을 때 그 탈곡하던 방법 혹시 기억나세요?}

10318 # 우리가, 내가 어려쥬 때 기억나는 거슨 판자홀테라긴쥬. 홀테. 가락 홀테가 말고, 판자홀테라긴쥬 가지고.{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판자홀테라고 있어. 가락 홀테 말고, 판자홀테라고 있어 가지고.}

10318 @ 어, 어르신 어려쥬 때 판자홀테를 쓰셨단 마리에요?{어, 어르신 어렸을 때 판자홀테를 쓰셨단 말이에요?}

10318 # 그럼, 인자 혼자 서서 자버댕겨서 홀룽거 그거 이쥬꼬. {그럼, 이제 혼자 서서 잡아당겨서 홀는 거 그거 있었고.}

10318 # 그 다으메는 기계홀테가 이쥬꼬. 인자 두리 인자 발로 눌러서 인자 이르게 돌리는 기계가 이쥬꼬. { 그 다음에는 기계홀테가 있었고. 이제 둘이 이제 발로 눌러서 이제 이렇게 돌리는 기계는 있었고.}

10318 # 그리고 또, 거기 또 뭐시냐, 그 위로는 그 기계가 뭇 거냐?, 나라글 비여가지고 막 기양 홀터 내는 거, 그건 뭇 기계냐. 중가니 한 주먹씩 느서 그냥.
@ 이르게 막 도라가는거. # 도라가는 거, 그걸뽀고 뭐시라긴냐? {그리고 또, 거기 또 뭇이냐, 그 위로는 그 계가가 뭇 거냐? 나락을 베어 가지고 막 그냥 홀어 내는 거, 그건 뭇 기계냐. 중간에 한 주먹씩 넣어서 그냥.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했냐?}

10318 @ 호룽기? 그거슬 호룽기라고 그래쥬냐?{호룽기? 그것을 호룽기라고 그랬었냐?}

10318 # 호롱기. 잉 탈곡끼. {호롱기, 아, 탈곡기.}

10318 @ 탈곡끼?{탈곡기?}

10318 # 잉, 탈곡끼, 탈곡끼가 이썬꼬. 인제는 마라자면 인저 이앙기, 이앙기가 아니라 저 뭐시제? 탈곡끼가 이썬꼬.{잉, 탈곡기. 탈곡기가 있었고. 이제는 말하자면 이제 이앙기, 이앙기가 아니라 저 무엇이지? 탈곡기가 있었고.}

10318 @ 옌나레는 인제 가락 홀테가, 가락 홀테라는 거슨.{옛날에는 이제 가락 홀테가, 가락 홀테라는 것은.}

10318 # 그건 보이나는 이르게 생겨가지고 쪽쪽 홀터내리는 거.{그건 이렇게 생겨가지고 쪽쪽 훑어내는 거.}

10318 @ 그거슨 머 얼마 안 될, 모델, 얼마 모델 꺼 가튼데. {그것은 뭐 얼마 단 될, 못할, 얼마 못할 것 같은데.}

10318 # 모다지, 모델제, 그거슨 참. {못하지, 못했지, 그것은 참.}

10318 @ 그러면제 그 가락 홀테 쓰실 때는 아주아주 어려쓸 때.{그러면 이제 그 가락홀테 쓰실 때는 아주아주 어렸을 때.}

10318 # 난 보들 모대제.{난 보지를 못했지.}

10318 @ 그럼 대개 인제 판자 홀테로. {그럼 대개 인제 판자홀테로.}

10318 # 판자 홀테로.{판자홀테로.}

10318 @ 판자 홀테 쓰실 때는 인제 그 자리에서 나라글 비여 가지고 인제 홀테로 그 어트게 허신다고, 홀튼다고 그러시는가요? 뭐라고, 뭐라고 허시는가요? {판자홀테 쓰실 때는 이제 그 자리에서 나락을 베가지고 이제 홀테로 그 어떻게 하신다고, 훑는다고 그러시는가요?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가요?}

10318 # 홀튼다고 그러, 홀튼다고, 홀튼다고 그러. {훑는다고 그래, 훑는다고, 훑는다고 그래.}

10318 @ 그거슨 인제 홀, 홀라서, 홀터서? 그 홀튼 다오메 어트게 해요? 그거슬 그 자리에서 인제 그 홀트면제 그 지푸래기는 지푸래기로 나오고 나라근 또 나락, 인저 나오고 그럴 꺼 아네요? {그것은 이제 홀, 훑어서, 훑어서? 그 훑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슬,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훑으면 이제 그 지푸라기는 지푸라기로 나오고 나락은 또 나락, 인저 나오고 그럴 것 아네요?}

10318 # 갈키로 인자 그 처진 건 입씩까지 다 글거내고.{갈퀴로 이제 그 처진 거 앞사귀까지 다 긁어내고.}

10318 @ 갈퀴로 무어슬 글거내요? {갈퀴로 무엇을 긁어내요?}

10318 # 뭐 그러면 인자 나라길만 떠러지는 거시 아니라 검브리 모다 떠러질 꺼 아냐? 그건 글거서 딱 치우고 나라근 모태가지고 인자 풍구지를 허제 잉.{뭐 그러면 이제 나락알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불이 함께 떨어질 것 아냐? 그건 긁어서 딱 치우고 나락은 모아가지고 이제 풍구질을 하지.}

10318 @ 다시 또 검브락 까툽거 풍구지를 하는 이유는 뭐여요? {다시 또 검불 같은 거 풍구질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10318 # 그 처진 거 쭈갱이 가통거 내비릴라고 그러제, 나가게.{그 처진 거 쪽정이 같은 거 내버리려고 그러지, 나가에.}

10318 # 그리곤자 가마니어다 인자 담찌.{그리고 이제 가마니에다 이제 담지.}

10318 @ 풍구질 끝난 다으메 바로 가마니다 담는다고요? 그럼 가마니다 다머가지고 어뜨게 하세요? 이거슨. 가마니다 다머가지고 어뜨게. {풍구질 끝난 다음에 바로 가마니에다 담는다고요? 그럼 가마니에다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이것은. 가마니에다 담아가지고 어떻게.}

10318 # 가마니다 다머서 인자 창곤자 고까니다.{가마니에다 담아서 이제 창고 이제 곳간에다.}

10318 @ 고까니다 너논는 거여요? {곳간에다 넣어 놓는 거예요?}

10318 @ 아직 안 말리쥬? {아직 안 말랐쥬?}

10318 # 안 말리쥬요. 그뎨 나중에 또 말리고. {안 말랐어요. 그때는 나중에 또 말리고.}

10318 @ 그러민제 지푸라근 어뜨게 해여? {그러면 이제 지푸라기는 어떻게 해요?}

10318 # 지푸라근? 어 누리지 인자. 반페누로 누리제, 무꺼서. {지푸라기는? 어, 누리지 이제, 판 편으로 누리지, 묶어서.}

10318 @ 이거시 인제 보통 그 나라글 탈곡, 나라글 인제 수화거는 거쥬? 그러면 보리는 어뜨게 해요? {이것이 이제 보통 그 나락을 탈곡, 나락을 이제 수확하는 거쥬? 그러면 보리는 어떻게 해요?}

10318 # 보리? {보리?}

10318 # 어, 보리는 어 인자 비여서 여다 어디는 메칠 간 말리면 인자 무끄제. {어, 보리는 어 이제 베어서 이어다 어디에 며칠 간 말리면 이제 묶지.}

10318 @ 보리를 벼서 그냥 열매채 그냥 말려요? {보리를 벼서 그냥 열매채 그냥 말려요?}

10318 # 대까정. 아 저 벼노면 그냥 썩, 나락또 물런, 나락또 벼서 묶끄제잉 그때는. 아 벼서 말려제. 말려가지고 묶끄제. 그냥 바로 무끄간디.{대까지. 아 저 베어 놓으면 그냥 썩, 나락도 물런, 나락도 베어서 묶지 그때는. 아 베어서 말려야지. 말려가지고 묶지. 그냥 바로 묶으간디?}

10318 @ 그때 말릴 때는 어뜨게 말려요? 그냥 그자리다가.{그때 말릴 때는 어떻게 말려요? 그냥 그 자리에다가.}

10318 # 그 자리다 놔둬. 그자리다 놔두면 말릴거 아녀? {그 자리에다 놔둬. 그 자리에다 놔두면 마를 것 아녀?}

10318 @ 넘드리 가져가거나 그러진 아녀? {남들이 가져가거나 그러지는 았아?}

10318 # 아 가져가진 안코. 아 더러 무꺼가는 수도 이썩썩. {아 가져가지는 았코. 아 더러 묶어가는 수도 있었지.}

10318 @ 그럼 일딴 보리를 벼서 말리면 메치리나 말려요, 보통? {그럼 일단 보리

를 베어서 말리면 며칠이나 말려요, 보통?}

10318 # 날씨 이저면 아마 삼사일 말려야.{날씨에 따라 아마 삼사일 말려야.}

10318 @ 아이고 그러구나.{아이고, 그렇구나.}

10318 # 삼사일 말려야 돼. 나락또 그러쿠.{삼사일 말려야 돼. 나락도 그렇고.}

10318 # 나락또 빌 삼사일 말려야 돼. {나락도 대략 삼사일 말려야 돼.}

10318 @ 말린 다으메 어트게 해요? {말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318 # 말린 다으미는 무꺼. 무꺼서 인저 숨주게 가리쳐 놔따가. {말린 다음에는 묶어. 묶어서 이제 숨죽게 가리쳐 놓았다가.}

10318 @ 예?{예?}

10318 # 숨 주겨야, 차분해야지 인자 눌러노면 인자 한 열따바리던지 머따발씩 딱 딱 눌러 노면 차분할 꺼. 인자 그느물 저다가 눌러 지리다.{숨 죽여야, 차분해야 이제 눌러놓으면 이제 한 열 다발이든지 몇 다발씩 딱딱 눌러 놓으면 차분할 것 아냐. 이제 그것을 저다가 눌러, 길에다.}

10318 # 인저 마당기다 눌러따가 보리, 나락뚜 그러케 허지마는 눌러따가 인자 보리는 한, 한 뜨건 때 아녀, 오뉴워렇게 인자 너러.{이제 마당에다 눌렀다가 보리, 나락도 그렇게 하지마는, 눌렀다가 이제 보리는 한, 한 뜨거운 때 아녀, 오뉴월이니까, 이제 널어.}

10318 # 인저 그느물 또 다 마당으다 까라 너러가지고 인자 도리깨로 두드려.{이제 그것을 또 마당에다 깔아 널어서 이제 도리깨로 두드려.}

10318 @ 이견 인제 도리깨질 허는구나. # 아, 도리깨질 허지.{이견 이제 도리깨질 하는구나. 아, 도리깨질 하지.}

10318 @ 그럼 도리깨로, 도리깨로 두들면 그러면제 어트게 되는거여?{그럼 도리깨로, 도리깨로 두드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거야?}

10318 # 두드려서 인자 마라자면 보리때는 다 글거 다 내서 누리구.{두드려서 이제 말하자면 보릿대는 다 굵거 다 내서 누리고.}

10318 @ 베눌 놀리, 누리드시? {벼누리 놀리, 누리듯이?}

10318 # 암. 인자 그건 때앙게. 연료로 쏹게. {암, 이제 그것은 때야 하니까, 연료로 쓰니까.}

10318 @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10318 # 보리는 보리대로 인자.{보리는 보리대로 이제.}

10318 @ 가마니다 녀요?{가마니에다 넣어요?}

10318 # 암. 그건 인자 그거또 드려야지. 그건 아직도 보리때는 또 드릴라면 아주 기여기여구신 처진 거신 마는 거시라. 꺼래기 만코.{암. 그거는 이제 그것도 들여야지. 그건 아직도 보릿대는 또 들으려면 아주 나빠, 처진 것이 많은 것이라. 까끄래기 많고.}

10318 @ 그럼 어트게 드려야 허는거여? 보리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하는거야? 보리는.}

10318 # 그건 또 그때는 또 바, 바라메 마니 드려제.{그건 또 그때는 바, 바람에 많이 드렸제.}

10318 @ 바라메 날리는 거여? # 날리는 거여.{바람에 날리는 거여? 날리는 거야.}

10318 # 그때는 보리가 머 나락찢긴 수화기 마는 거슨 아닝게.{그때는 보리가 뭐 나락이건 수확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10318 # 바라메 그때는 또 날씨를, 바라메도 불, 바라메 마니 드려제.{바람에 그때는 또 날씨를, 바람에도 불, 바람에 드렸지.}

10318 # 풍구에야 부치기도 허고, 풍구 이쓰면.{풍구에 부치기도 하고, 풍구 있으면.}

10318 # 바라메 드리거나 풍구에 부칭거나 바라메 드리구 그리찌. {바람에 들이거나, 풍구에 부치거나 바람에 들이고 그랬지.}

10318 @ 그러구 나면 인제 가마니다 지버넌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가마니에다 집어넣는 거야?}

10318 @ 콩이나 파슨, 팔까튼 거슨 어트게 하셔써요? {콩이나 팔은, 팔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10318 # 콩파슨, 콩팔뚜 평생 비여서, 가그 비여서 그건 쫘 말려야여.{콩팔은, 콩팔도 평생 베어서, 베어서 그건 쫘 말려야해.}

10318 # 말라서 거그서 그양 큰 콩똥으로 기양, 크게 콩똥으로 또 만들지. {말라서 거기서 그냥 큰 콩똥으로 그냥, 크게 콩똥으로 또 만들지.}

10318 @ 콩똥이라는게 뭐여?{콩똥이라는 게 뭐여?}

10318 # 콩똥. 동. 나라그로 허면 다바리나 마찬가지여 잉. 근디 다바른 안 되고 크게 콩똥을 만드려. 콩똥을 묶어, 묶어서.{콩똥. 동. 나락으로 하면 다발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다발은 안 되고 크게 콩똥을 만들어. 콩똥을 묶어, 묶어서.}

10318 @ 무꺼서요?{묶어서요?}

10318 # 무꺼서 그거슨, 무꺼서 거 바티다가 시어놔. 무꺼서 시어노면 인자 바로 인자 어느 정도 하니틀 이씨먼자 말리머는 그거또 저다가, 저다인저 까라노코 또 도리깨로 두드리야여, 마당이서.{묶어서 그것은, 묶어서 밭에다가 세워 놔. 묶어서 세워놓으면 이제 바로 이제 어느 정도 한 이틀 있으면 이제 마르면은 그것도 저다가, 저다가 이제 깔아놓고 또 도리깨로 두드리야 해, 마당에서.}

10318 @ 콩팔도 다? # 암.{콩팔도 다? 암.}

10318 @ 그러케 하고 나서 인제 그거또 다 가마니다 너서 너논는가요? {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것도 다 가마니에다 넣어서 넣어놓는가요?}

10318 # 적치레가지고. 콩파슨 얼마 안되는 거싱게, 마냥게 다 드리지. 다라메 드리고.{적치레가지고.콩팔은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많지 않으니까 다 들이지. 다람에 들고.}

- 10319 @ 그러면 이거슬 방아를, 인제 방애를 찌야 되는가, 나중에 머글라면? 보리나 쌀가튼 경우에는? 그때 방애는 어떤 어떤 방애드리 이썬썬요? {그러면 이것을 방아를, 이제 방아를 찌야 되는가, 나중에 먹으려면? 보리나 쌀같은 경우에는? 그때 방아는 어떤어떤 방아들이 있었어요?}
- 10319 # 그저네는 드들빵애가 이썬꼬, 드들빵애. 물레방애. 물레방애는, 드들빵애는 한 동네에 두서너 개 이썬. 더러 간가니 이썬고 물레방애, 물레방아는 인자 귀해썬꼬. 물레방애, 또 저 연자방아도 이썬꼬. {그전에는 디딜방아가 있었고, 디딜방아. 물레방아. 물레방아는, 디딜방아는 한 동네에 두서너 개 있어. 더러 간간이 있었고 물레방아, 물레방아는 이제 귀했었고. 물레방아, 또 저 연장방아도 있었고.}
- 10319 # 그리고 그 나중에 인자 기계빵애가 이썬썬. 기계방애.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기계방아가 있었어. 기계방아.}
- 10319 @ 디딜빵애, 물레방애, 연자방애, 기계방애? {디딜방아, 물레방아, 연자방아, 기계방아?}
- 10319 # 또 그 아네, 제일 나중에 뭘 무슨게 이썬. 도구지리 이썬, 도구질.{또 그 안에, 제일 나중에 뭘 무엇이 있어. 절구질이 있어, 절구질.}
- 10319 @ 이견제 지베서 허는 거여? {이건 이제 집에서 하는 거여?}
- 10319 # 응 지베서 도구통으다 메로 찢는 도구지를. 그거시 이썬야여, 참.{응, 집에서 절구통에다 메로 찢는 도구질을. 그것이 있어야 해, 참.}
- 10319 @ 보통은 다 그냥 도구질 히서.{보통은 다 절구질 해서.}
- 10319 # 암, 도구통으다 도구질로 히썬. 도구지를 마니 해썬. {암, 절구통에다 절구질로 했지. 절구질을 많이 했지.}
- 10319 @ 드딜빵애만 이썬도 그래도 조금 퍼너겔따. 수워러겔따.{디딜방아만 있어도 그래도 조금 편하겔다. 수월하겔다.}
- 10319 # 드딜빵아 이썬도 이자 조금 낱썬. {디딜방아 있어도 이제 조금 낱썬.}
- 10319 @ 그 드딜빵애 가튼 거슨 모양이 어트게 생겨썬요? 어트게 쓰는 거예요? 드딜빵애는? {그 디딜방아 같은 것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디딜방아는?}
- 10319 # 드들빵애는 모양이, 이게 방애 인는다, 공개 학 도글 만드려, 학또기 이썬. {디딜방아는 모양이, 이렇게 방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학 독을 만들어 학독이 있지.}
- 10319 # 두리서, 여리서 여그 서고. 이거시 여그서 누리머는 이게 올라가. 그럼 자연자 내티면 내려와서 찢어지고. {둘이서, 열이서 여기 서고. 이것이 여기서 누르면 이게 올라가. 그럼 자연히 이제 내치면 내려와서 찢어지고.}
- 10319 # 그럼 인자 우글 인자 천장으다 인자 꼬늘 매야지이. 자브양게, 사라미 잡꼬 한 발로 올려따 올려따 눌러따 올려따. {그럼 이제 위를 이제 천장에다 이제 끈을 매야지. 잡아야 하니까. 사람이 잡고 한 발로 올렸다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10319 # 발로 누리머는 이 올라가고, 방해꼬, 이거시 방해뽕게, 올라가고.{발로 누리머는 이케 올라가고, 방앗고, 이것이 방앗고이니까, 올라가고.}

10319 # 다시 이저 아니로 노머는 찌어지고.{다시 이제 안으로 놓으면은 찢어지고.}

10319 @ 힘들진 아나썬요? {힘들지는 았았어요?}

10319 # 아, 요거또 조금, 여러지 허면 시미 들 들제잉. 두리나 허면 혈만허제.{아 요것도 조금, 여럿이 하면 힘이 덜 들지.}

10320 @ 밀방애허고 보리방애 찌튼 과정이 또 다른, 달븐가요? {밀방아하고 보리방아 찢던 과정이 또 다른, 다른가요?}

10320 # 밀방애? 밀방애는 안 찢제. {밀방아? 밀방아는 안 찢지.}

10320 @ 밀방애는 안 찢? 그럼 보리방애만 찢? {밀방아는 안 찢어? 그럼 보리방아만 찢어?}

10320 # 보리방애 찢꼬. 미리란 거슨 가리를 빼는 거시라. 미른 가리로 멍는 거시여, 가리. {보리방아 찢고. 밀이란 것은 가루를 빼는 것이라. 밀은 가루로 먹는 것이여, 가루.}

10320 # 그 때는 매로 가라제. 가라썬. 도구통, 인저 돌매가 이썬.{그 때는 매로 같았지. 같았어. 절구통, 이제 돌매가 있어.}

10320 # 그건 거개 집짐마다 매가 이따기도 과언이 아니제. {그런 거의 집짐마다 매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10320 @ 그럼 보리는뇨? {그럼 보리는요?}

10320 # 보리는? {보리는?}

10320 @ 보리는 방애를 찢썬? {보리는 방아를 찢었어?}

10320 # 방애를 찢으지요. {방아를 찢지요.}

10320 @ 보리방애는 어트게 찢는거여? {보리방아는 어떻게 찢는거여?}

10320 # 이거이 여태 취지여썬. 나락뽕애나 가태. {이것은 지금껏 취재했어. 나락방아나 같아.}

10321 @ 그럼 인제 그거또 그 나라글 뽕, 방애를 찢코나면 인제 나라기 베껴지자나.{그럼 이제 그것도 그 나락을 벋, 방아를 찢고 나면 이제 나락이 벋겨지잖아.}

10321 # 아 꺾짜리 베껴지제. {아, 꺾질이 벋겨지지.}

10321 @ 그 꺾딱또 이르미 종류마다 이르케 이르미 달브썬? {그 꺾질도 이름이, 종류마다 이렇게 이름이 다르썬?}

10321 # 암, 뽕썬가 이꼬

10321 @ 나락 까툽거 뽕 처으메 뽕썬? # 처으메 꺼 뽕썬. {나락 같은 거 뽕 처으메 뽕겨. 처으메 것은 뽕겨.}

10321 @ 그 다으메가요? {그 다으메가요?}

10321 # 겨가 이찌, 겨. {겨가 있지, 겨.}

10321 @ 뽕찌 다으메 겨요? {뽕겨 다음에 겨요?}

10321 # 현미찌라고 잉 쌀겨, 현미찌. {현미겨라고, 쌀겨, 현미겨.}

10321 @ 현미찌가 이꼬. 두 가지뿌닌가요? 현미찌하고 저하고 {현미겨가 있고, 두 가지뿐인가요? 현미겨하고 겨하고.}

10321 @ 덩, 덩겨라고는거, 덩겨 가튼거 업썬요? {등, 등겨라고 하는 거, 등겨 같은 거 없어요?}

10321 # 덩겨, 덩겨하고 현미찌허고 그거실 티지. 요새 덩겨라는 마른 안혀.{등겨, 등겨하고 현미겨하고 그것일 테지. 요새 등겨라는 말은 안 해.}

10321 @ 업꾸요. 뽕찌하고 그냥 겨만 인는 거네요? {없고요. 뽕겨하고 그냥 겨만 있는 거네요?}

10321 @ 아주 아주 그 여러번 베끼면 몽근져 가튼거 안 나와요? {아주 아주 그 여러번 벗기면 등겨 같은 거 안 나와요?}

10321 # 그거이 몽근져여. {그것이 등겨야.}

10321 @ 몽근져가 어떤겨여? {등겨가 어떤 거야?}

10321 # 뽕찌 베껴내고, 뽕찌 베껴내고 자꾸 찌머는인자.{뽕겨 벗겨내고, 뽕겨 벗겨내고 자꾸 찢으면 이제.}

10321 @ 그럼 뽕찌하고 몽근져하고 이르게 두 가지가 인네요? {그럼 뽕겨하고 등겨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10321 # 암 그러제.{암 그렇지.}

10321 @ 보릿, 보릿, 보리도 이르게 겨가 나오나요? {보릿, 보릿, 보리도 이렇게 겨가 나오나요?}

10321 # 아 보리도 껍떼기 베껴지지. {아, 보리도 껍질 벗겨지지.}

10321 @ 그건 뭐라 그래, 보리는? {그것은 뭐라고 그래, 보리는?}

10321 # 보릿찌, 보리찌. {보릿겨, 보릿겨.}

10321 @ 보릿찌는 어따 썬요? {보릿겨는 어디에 썬요?}

10321 # 평쇠에 쌀저랑 마찬가지로. 짐승 메기져 뭐. 어따 쓸때가 업제. {평소에 쌀겨랑 마찬가지로. 짐승 먹이지 뭐. 어디에 쓸 데가 없지.}

10321 # 쌀겨도 평소에 짐승 머기는 거시제. {쌀겨도 형소에 짐승 먹이는 것이지.}

10321 @ 짐승이라면 돼지 가튼 거. {짐승이라면 돼지 같은 거?}

10321 # 돼지, 소, 닭가튼 거.{돼지 소, 닭 같은 거.}

10322 @ 그 타작 끝나고 나머지는 그거뜨를 보관할 할라면뇨, 보관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쥬? 나락 까튼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세요? 대개. {그 타작 끝나고 나면 그것들을 보관할 하려면요, 보관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쥬? 나락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세요? 대개?}

10322 # 나락뜨른 평쇠 가마니에 다머서 이 고까니다 쟁이지. 창고에. 창고, 고까

니지, 농촌 창고는 고까니지. {나락들은 평소에 가마니에다 담아서 이 공간에다 쟁이지. 창고에. 창고, 공간이지, 농촌 창고는 공간이지.}

10322 @ 마당에다가 이르게. {마당에다가 이렇게.}

10322 # 두지, 두지. 교수님도 봐선는가? {뒤주, 뒤주. 교수님도 보셨는가?}

10322 @ 보지는 모타고 채그로만 봐썬요. {보지는 못하고 책으로만 봤어요.}

10322 # 나락두지, 마라자면 마라를 여껴서 두지를 만들지. {나락뒤주, 말하자면 마를 여껴서 뒤지를 만들지.}

10322 # 궁게 언짜 언짜헌냐며는 바로 언젠 가매니다 다머서 차걸 쭈가 업썬게 타자기선 그냥 처으멘 두지에다 그냥 쟁이제. {그러니까 언제, 언제 하느냐면 바로 언제 가마니에다 담아서 쌓을 수 없으니까 타작해서 그냥 처음에 뒤주에다 그냥 쟁이지.}

10322 # 또 두지를 허러서 인자 디려. 디려가지고는 인자 고까느로 드러가지. {또 뒤주를 헐어서 이제 들여. 들여가지고는 이제 공간으로 들어가지.}

10322 # 막 홀타가지고는 언제 다머가지고, 깨끄시 시서비 히야허는디 그 시가니 업썬게 그냥 두지를 만드러서 두지에다 쟁이지. {막 훑어서는 언제 담아가지고, 깨끗이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쥐주를 만들어서 뒤주에다 쟁이지.}

10322 # 두지 저녁 이따가 인자 틈 나는 대로, 타자기 틈나는 대로 인자 풍구에다 부친다든지 인자 발로 이르기이르기 부친다든지 히서 나라글 다머가지고 인자 그때 고까느로 가지. {뒤주에 저장해 있다가 이제 틈나는 대로, 타작이 틈나는 대로 이제 풍구에다 부친다든지 이제 발로 이렇게이렇게 부친다든지 해서 나락을 담아가지고 이제 그때 공간으로 가지.}

10322 @ 나락뚜지를 마람 여껴가지고 허는 방법또 이꼬, 또 이케 그 판자로 이르게 해서 허는 방법또 인는가요? 집처럼 만드러가지고? 두지를? {나락뒤주를 마람 여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그 판자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가요? 집처럼 만들어가지고, 뒤주를?}

10322 # 그런 수도 이제. {그런 수도 있지.}

10322 # 그건저 허기메이꾼네, 그거또. {그건 저 하기 나름이네, 그것도.}

10322 # 마니 마람 여껴서 마당에다 두지를 만들제. {많이 마를 여껴서 마당에다 뒤주를 만들지.}

제2편 어 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벼
20102	이삭	이을, 모개
20103	벼씨	종자, 썬나락, 벼씨, 나락, 나락종자, 나락씨
20104	못자리,	물못자리, 못짜릴, 못자리파늘
20105	모판	모파닐, 모파늘 만들아노코
20106	쟁기	쟁기질
20107	보습	보십
20108	벗	벗
20108-0-1	-이	베시고
20109	극쟁이	쟁기
20110	써레	써우리질
20111	번지	써우리디, 미레
20112	모내기	모심는데, 찌제, 이양, 모심는다, 모내기
20113	흙덩어리	베떼이
20114	고무래	당그레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당그래고
20114-2	고무래(채 용도)	구부렁구
20114-3	고무래(흙 용도)	평생 소시랑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눈:까래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당그래
20115	쇠스랑	소시랑
20116	곡괭이	빨깨이라고, 황새깨이
20117	괭이	깨~이, 갱:이
20118	삽	사비고, 삽
20119	호미	호매이, 호미
20120	농기구	농기구제
20121	김	지심
20122	김매다	초벌매기
20123	애벌 매다	초벌

20123-1	두벌 매다	두벌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만두리
20124	논두둑	논두럭
20124-1	논두렁	갈게, 갈게 맨다고
20125	밭둑	*
20126	밭두둑	두룩
20127	밭고랑	골
20128	밭이랑	*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고를 친다, 두룩 친다
20128-2	이랑밟기	보리밟는다, 보리밟끼
20129	보리	보리
20129-1	가을보리	보리
20129-2	봄보리	춘모, 춘몬종자
20130	보리쌀	찢보리, 쌀보리, 꺾보리, 통보리, 보리쌀
20131	가을갈이	추갱이
20132	감부기	감뵈기, 나락감뵈기
20133	두엄	뒤엄
20134	거름	거름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가실, 가실헌다
20202	벧단	나락따발
20202-1	벧단(한 줌정도)	나락문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나락따발
20202-3	벧단(한 아름정도)	줄가리
20203	가리(積)	가리
20204	가리다(積)	가리친다
20205	벧가리	베눌
20206	날가리	나락까리, 줄가리, 베눌
20207	타작	타작, 들타주
20208	벼훅이	가락훅테, 판자훅테
20208-1	그네	훅테빨
20209	개상	*
20209-1	자리개	*
20209-2	자리개질	*
20210	도리깨	도리캔디

20210-1	도리꺄장부	도로꺄어시, 도리꺄
20210-2	도리꺄열	도리꺄이을
20210-3	도리꺄꼭지	도리꺄어시, 도리꺄꼭찌
20211	벗짚	집따발, 집, 지비고, 벗찌비제 그거시
20211-0-1	-을	집다바를, 지푸라그로
20211-0-2	-에	지푸라게다 동 뉘따 그러지
20212	새 꺄기	지푸락
20213	쭈정어	쭈게어
20214	티	검불
20215	까끄라기	꺼시락
20216	풍구	풍구
20217	원두막	원두막, 외막
20218	허수아비	허세비
20219	흥년	흥년
20220	머슴	머심 딜고
20221	놉	놉
20221-0-1	-을	놉 어드로 간다
20222	폼앗어	폼아시
20223	폼삿	쌈꾼산다, 폼쌈
20223-0-1	-으로	폼쌈글 주얼다
20223-0-1	-으로	폼쌈글 바달따

2.1.3. 방아 찰기

20301	방아	방아
20302	디딜방아	디딜뺑아
20303	방앗공어	방안고
20304	방아확	학도이고
20305	물레방아	물방아
20306	연자방아	연자방아
20307	절구	절구통, 도구통
20308	절구통	나무 도구통, 독 도구통
20309	절긔공어	도긔대
20310	절구질	도긔때질
20311	겨	맷저, 겨
20312	보릿겨	보린저
20312	보릿겨	꼭기

20313	왕겨	맷저
20314	등겨	쌀겨, 현민겨, 현민저
20315	검불	묵찌
20316	겹질	겹짚, 겹데기

2.1.4. 곡물

20401	곡식	곡씨근
20402	찹쌀	찹쌀, 맷쌀
20403	맷쌀	모쌀
20404	쌀보리	쌀보리, 찰보리, 꺾보리
20405	조	서숙
20406	차조	차수수기
20407	메조	모수수기
20408	좁쌀	스숙알, 스숙, 스숙쌀
20409	작다	잘지
20410	조이삭	스송모개
20411	수수	수수, 쭈시
20411-1	붉은색 수수	쭈시
20411-2	장목수수	쭈시비, 쭈시빔목
20411-3	찰수수	찰쭈시가 일꼬
20411-4	메수수	모쭈시가 일꼬 그러지
20412	수수짱	단수수, 단수수 대, 단수싹대
20413	옥수수	강내~이
20413-1	찰옥수수	찰강내~이
20413-2	메옥수수	강내~이
20414	귀리	귀리라고 그러지
20415	메밀	메밀
20416	콩	콩
20417	콩깍지	콩깍때기제, 콩깍찌,
20418	메주	메주콩이고, 메주
20419	매달다	달아매제, 달아매가지고
20420	떡우다	떠워, 뜨제
20421	곰팡이	곰패~이
20422	강낭콩	강낭콩
20423	콩기름	콩기름
20424	깨	꽤

20424-1	참깨	참깨, 찬기름
20424-2	들깨	들깨, 들지름
20425	고소하다	고수런 내가, 고순 내가 나

2.1.5. 채소

20501	채소	채소
20502	나물	너물
20502-1	"나물(발 재료)"	돈:너물, 나송개
20502-2	"나물(발 반찬)"	달룽개
20502-3	"나물(들 재료)"	그냥 너무리라고 허제 너물
20502-4	"나물(들 반찬)"	너무리라고 허제 너물
20502-5	"나물(산 재료)"	고사리 너물
20502-6	"나물(산 반찬)"	산:너무리제, 산:너물, 산채
20503	푸성귀	푸중가리
20504	다듬다	다듬는다
20505	반찬	반찬
20506	무	무
20507	썰다	썰제
20508	무청	무수:입싸기여, 무시입싸글
20509	시래기	실가루라고, 실가리로
20510	무말랭이	무김치, 각:뚜기, 무채지, 생차지, 무생채지
20511	장다리무	장다리, 짱다리를 문제
20512	배추	배추
20513	고갱이	배추속짱
20514	오이	오이
20515	오이지	오이너물, 오이김치
20516	오이소박이	오이김치국, 오이김칠죽
20517	가지(茄子)	까:지, 까:지너물
20518	호박	호박
20520	감자	감자
20521	우엉	우엉이라고 인썸제
20522	파	파
20523	고추	고추럴
20524	시금치	시금치
20525	미나리	미나리

20525	미나리	돌:미나리, 물:미나리
20526	부추	술, 정구지, 부:추라구려
20527	상추	상추
20528	마늘	마늘
20529	생강	생강, 새양, 세양도
20530	냉이	냉이, 나송개
20531	달래	달롱개
20532	도라지	도라지
20533	더덕	더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쌀밥또 인꼬
20602	찬밥	시근밥, 찬바비 시근바비지요
20602-1	더운밥	뜨근바비여, 뜨근밥
20603	조밥	수:숙빠비라고 한꺼등요, 조:바비, 쭈시밥
20604	누룽지	깜:밥
20605	눌은밥	누룽지, 누름밥
20606	송늬	송늬
20607	뜨물	뜨물, 쌀:뽄물 가끄는
20608	김(蒸氣)	김
20609	갱죽(羹粥)	김치주기라고 한제, 김치중
20610	싱겁다	싱겁조
20611	국수	국쭈로도 먹꼬
20612	칼국수	칼국쭈도 인꼬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국쭈
20613	건더기	건데기
20613-1	국물	궁물
20613-1	국물	멸국
20614	고명	고명
20615	꾸미	*
20616	미역	미역:쭈
20617	김(海苔)	*
20618	수제비	수제비도 해먹꼬

20619	끼니	끄니
20620	미음	미:미야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끄리쪼
20621	엿기름	연찌름
20622	식혜(食醢)	감:주럴 해먹어, 시캐
20623	식해(食?)	*
20624	달다(甘)	달다
20625	가루	가루고, 떡가루
20625-0-1	-에	가루에다가
20625-0-2	-을	가루럴
20625-0-3	-도	밀까리도 읊는디 부친다고 허제, 가리도 업씨
20626	밀가루	밀가루 갠꼬는, 밀:까루
20627	밀기울	밀:찌울, 밀:껍쫄
20628	미숫가루	미숙가루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간:장
20702	된장	된장, 덴장
20703	고춧가루	꼬친까루넌
20704	고추장	꼬치장
20705	소금	소그므로
20706	김치	김치, 짐:찐꼭
20707	김장	짐장
20708	깍두기	깍뚜기
20709	나박김치	물김치는
20710	담그다	당군다, 간장언 당군다거제, 김장헌다
20710-0-1	-고	김장헌다고 그러제
20710-0-2	-어라	김장해라
20711	양념	양념 느코, 양념
20712	버무리다	버물고
20713	버섯	버선포
20713-0-1	-이	버서시 만타 그러지
20714	콩나물(재료)	콩나물
20714-1	콩나물(반찬)	콩:너물 국또
20714-1	콩나물(반찬)	콩:너물 무침도 허고,

20714-1	콩나물(반찬)	콩:너물 밥또 허고
20714-2	숙주(나물)	콩:너물 죽또 쭈고
20715	두부	녹뚜채도, 녹뚜채, 녹뚜너물
20716	비지	두부
20716-1	비지떡	비지
20717	달걀	비지떼기라고 그러지
20718	가래떡	계란, 달걀, 다가리고도 허고
20719	시루떡	떡싸실
20720	송편	시리떡
20721	빻다	송편도 해먹꼬, 씩:페너로
20722	흰떡	만든다고 허제
20723	고물	흰떡
20724	팔죽	콩꼬물
20725	새알심	폰:쭈인꼬
20726	백설기	새:알심
20727	튀밥	백설기
20728	술	튀밥
20729	막걸리	술
20730	소주	막걸리
20731	부침개	소주도 내리고
		점:부친다고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수막
20802	가마솥	육철, 소시라고, 가마솥
20802-0-1	-을	소설
20802-0-2	-에	소시다 만들제
20803	아궁이	부석짜
20803	아궁이	부싯짜기라고
20803	아궁이	부싯짜
20803-0-1	-이	부석짜기 크다
20803-0-1	-이	아궁이가 크다
20804	그을음	끄시름, 끄시름 찼다고,
		꺼시름, 꺼시름 찼다고
20805	불쏘시개	쏘:시개, 쏘:시개라구려
20806	연기	연:기라고, 내:라구려제

20806-1	내(煙氣)	낸내
20806-1	내(煙氣)	불내
20807	그을리다	끄시럼 쫘따, 꺼시ړ따, 꺼실ړ따
20808	부지깽이	부지땅이
20809	부삽	불쑈
20810	넙다	내웁따
20811	냄비	냄:비
20812	그릇	그륄
20812-0-1	-을	박끄르슬 신는다 허지, 박끄르슬
20813	뚜껑	뚜:경
20814	주발 뚜껑	뽀개, 뽀개뚜껑
20815	사발 뚜껑	사발
20816	술뚜껑	술뚜껑, 소두랑
20817	밥주걱	주걱, 나무주거기, 쇠주거기
20818	숟가락	수저, 수제, 수제통, 수제그르션
20819	젓가락	저뽄그리제
20820	종지	각찌, 장:짜찌
20821	보시기	보세기
20822	뚝배기	투가리
20823	접시	접시
20824	조리	조:레이
20825	이남박	쌀뽀데기라 허는디
20826	바가지	바가지, 나무바가지
20827	행주	행:기
20828	행구다	행긴다 그러지
20829	설거지	귀영친다고
20829	설거지	설거지
20830	개숫물	귀영물
20831	찌꺼기	찢꺼리제, 찢꺼리
20832	화로	화론티
20833	화롯불	하:롵뽀, 하:롵뽀
20834	부젓가락	부지개~이, 불찌개
20834-0-1	-이	불찌개가 업따고 그제
20834-1	불숟가락	불쑈
20835	다리쇠	*
20836	석쇠	적쑈, 적쑈
20837	도시락	도시라기제

20838	바구니	대바구리
20839	뒤주	찬뚝, 뒤지도
20840	찬합	다지, 단:스
20841	강판	채칼, 강파니라고
20842	개다리소반	개다리소반, 소반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안뽕, 큰방, 작은방, 골:방, 정진뽕
20902	벽	벽, 베랑뽕, 담뻐라기라고
20903	다락	공:상이제, 다락뽕
20904	벽장	벽장
20905	감추다	감춘다
20906	흙	흙:
20907	돌쩌귀	돌:쪼구,
20907-1	암짜	암똥쪼구
20907-2	수짜	수똥쪼구
20908	미단이	밀:창
20909	여단이	쌍창무니라고
20909	여단이	여다지
20910	덧문	바칸무니라고, 바칸문
20911	열다	여:리라그러지, 열고
20912	문고리	문꼬리, 문꼬리
20913	자물쇠	자물통, 자물쇠
20914	갈히다	가쳐인는거시지, 갈철따
20915	열쇠	쇠통, 열:쇠
20916	잠그다	쇠통열 장군다
20917	구멍	뜯코
20917-1	쥐구멍	쥐구녀글내놔
20918	찢다	찌저지고
20919	구들	방짜, 방구들, 고래
20920	흙받기	흑빠지
20921	흙손	쇠손
20922	흙칼	쇠손제 평생히야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흑손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20923	바르다	바리머는, 보리제, 바리고
20924	장판	장파닌디
20925	종이	종우때~이, 종이
20926	도배	도배허고
20927	구석	구석, 구석찼디, 구석때기
20928	굽도리	흠때라고
20929	깨끗하다	깨끗헌디, 깨끗다다
20930	문지방	문턱, 문터기 문찌방이지, 문찌방
20930-0-1	-에	문턱에 스른 안 된다고
20931	틈	문틈
20932	가장자리	(가장자리)
20933	가운데	방까운데
20934	시렁	시:렁이, 시렁까래
20935	살강	살강
20936	선반	선반
20937	서랍	농, 압따지
20938	경대	경대
20939	거울	거울이
20940	걸다	건:다, 거런따
20941	호룽	호룽불, 호룽뿔, 등잔, 등잔뿔, 호룽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을 헐나면
21001-0-1	-에	지붕에 올라간다
21002	기와	지와를, 기와로
21003	기와집	기:와집, 기:와집
21004	수키와	순끼와가 일꼬
21005	암키와	암끼와가 일째
21006	대들보	들뽕, 들뽕넌, 들보
21007	서까래	서까래, 서꿀, 서까래, 서끄릴 다허제
21008	추녀	추녀, 추녀끄시라고 그러제 추녀끝
21009	처마	처매
21010	오두막	오막찌비라고 그러제 오막찹, 오막싸리집, 오두막찹
21011	초가집	초가집

21012	이영	영:얼 영넌다, 마라미제, 마람 영넌다 그러제
21012-0-1	-에서	마람짱에서 놀지 말라고 그래야제
21013	용마름	용:마라믈, 용:마람틀어서
21014	기스락	가:세~이, 지시랑얼 또 껌며, 지시랑
21015	낙숫물	낙:수믈, 집시랑믈
21015-1	기스락믈	집시랑믈
21016	사닥다리	사드래
21017	용마루	용:마람, 용마라미제, 용마라므로 허제, 용마라므로 허제
21018	토방	퇴:라고, 퇴:렐, 토방이라고
21019	땃돌	축:또리라고
21019-1	섬돌	신방또기라고, 심방뚝
21020	마루	마루, 마:루에도, 마루렐, 마리라고 그러제 마리
21020-0-1	-에	마리서 논다고 하제
21021	땃마루	퇴, 퇴:가튼
21022	기둥	지둥, 지둥을 세워야제
21023	주춧돌	주춧뚝
21023-0-1	-을	주치를, 주치렐
21024	굴뚝	굴:뚝, 귀:뚜기라구

2.3.3. 마당

21101	뜰	뜨:런
21102	마당	마당이
21103	넓다	넬롭따
21103-0-1	-어서	넬뤄야 조타
21104	넓히다	넬러라, 넬퍼라
21105	곶간	고까너고
21106	외양간	외양:까니랑기, 외양:쨍지
21107	마구간	마부까니, 마:부까넌
21108	광	광
21109	헛간	허청, 쨌깐도
21110	쓰레기	쓰렝이
21111	장독대	장뽕이, 장뚝
21112	장독 뚜껑	소두랑깨, 소두랑뚜껑, 솔뚜껑이라구

21113	변소	칙칸
21113-1	똥장군	소매통, 장군
21114	울타리	후타리라구
21115	담	담:, 다무라기지, 다:면, 다:무라건, 돌다무락, 다미고
21115-0-1	-에	다무라게 올라갈따고 그러제
21115-0-2	-도	다무락또 무너절제
21116	사립문	문간채가 이씨야허
21117	뒤꼐	뒤:어다, 뒤:아니라고, 뒤:아니고
21117-0-1	-에	뒤아네서 놀고 일따고
21118	바깥	바까시라고 그러지 바깥
21118-0-1	-에	바게서 놀고 일따
21119	모퉁이	귀테~이라고 그러제, 모퉁이, 짐 모테~이, 모퉁아리
21120	모서리	귀:, 모서리란 마털 마니쓰제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마을, 동네, 우아랜동네, 건네동네
21202	윗마을	운동네
21203	이웃	이우짚, 이우제 사람
21203-0-1	-이	이우:시 조아야
21203-0-2	-에	이우제
21204	마을가다	마실간다
21205	우물	쪽밥새미지
21206	두레박	두루막샘
21207	샘(泉)	샘:, 새:암, 새:미라고 허지 샘:
21208	가(邊)	샘까시라고 허고, 가시라고 마니 쓰제
21208-0-1	-을	농까시 갈따오라구, 농까슬 다녀왓따
21208-0-2	-에	*
21209	물지게	질통, 무지개, 고다리
21210	가게	점빵이라는
21211	싸다	싸:다
21212	비싸다	빈싸다
21213	홍정	홍정
21214	중매인(거간꾼)	거가니, 거간
21215	잔돈	잔전

21216	에누리	외누리
21217	거스름돈	거스름똥, 나머지라 그러제 나머지
21218	거스르다	나머지, 나메기, 거시렁똥을 달라, 거시렁똥을 받는다, 거실러 받는다
21219	꾸다(借)	취어쓴다
21219-0-1	-어야	빌려주소, 취어주소
21220	구두쇠	진지뽕재기, 야뽕쟁이
21221	맡기다	물겨늘 맨긴다
21222	나머지	나머지, 나메기
21223	덤	운수, 개평
21224	몫	내 목씨, 목씨라
21224-0-1	-을	내 목씨를 챙겼다
21225	빚	비슬, 빚전따
21225-0-1	-을	비슬 마니 절따
21225-0-2	-에	비세
21226	이자(利子)	이자
21227	심부름	신부름
21228	두름	한 두름, 한간, 두 가슬 가따가
21228-1	축	한 축
21228-2	쾌	한 쾌
21228-3	접	한 접
21228-4	쌈	한 쌈
21228-5	두름	한 다발
21228-6	단/몫(작은 묶음)	한 다발, 한 평
21228-7	단/몫(서너 개 묶음)	한 다발, 한 단
21228-8	툇	한 툇
21228-9	모습	한주머글 갠따, 한주먹, 함모스미라, 함모슴
21229	컬레	한컬레
21230	마지기	두락, 한마지기 두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이백평, 한필지, 한배미
21231	꾸러미	한 줄
21232	그루	한 그루 두 그루, 한 냥구 두 냥구
21233	포기	한 폭 두 폭, 한포기, 포기수
21234	저울	저울로, 장척, 방짐뱅이 저울
21235	자루(包袋)	자루, 섬, 가마니, 차대이
21235-0-1	-을	쌀 자루를 가져오라

21235-0-2	-에	쌀짜루
21236	하나	하나
21236-1	한-개	한개
21236-2	한-되	한되
21236-3	한-말	한말
21237	둘	두울
21237-1	두-개	두개
21237-2	두-되	두되
21237-3	두-말	두말
21238	셋	세엔, 서이
21238-1	세-개	세개
21238-2	세-되	서되
21238-3	세-말	서말
21239	넷	네엔, 너이
21239-1	네-개	네개
21239-2	네-되	너되
21239-3	네-말	네말, 너말
21240	다섯	다선
21240-1	다섯-개	다선개
21240-2	다섯-되	다선되
21240-3	다섯-말	단말
21241	여섯	여선
21241-1	여섯-개	여선개
21241-2	여섯-되	여선되, 연되
21241-3	여섯-말	연말, 연마래
21242	일곱	일곱
21242-1	일곱-개	일곱개
21242-2	일곱-되	일곱되
21242-3	일곱-말	일곱말
21243	여덟	야달
21243-1	여덟-개	야달개
21243-2	여덟-되	야달되
21243-3	여덟-말	야달말
21244	아홉	아홉
21244-1	아홉-개	아홉개
21244-2	아홉-되	아홉되
21244-3	아홉-말	아홉말

21245	열	열, 여열
21245-1	열-개	열개
21245-2	열-되	열뵈럴
21245-3	열-말	열말
21246	스물	스물
21246-1	스무-개	수무개
21246-2	스무-되	수무되
21246-3	스무-말	수무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개	서룻개
21247-2	서른-되	서른되
21247-3	서른-말	서른말
21248	마흔	마흔
21248-1	마흔-개	마응개
21248-2	마흔-되	마흔되
21248-3	마흔-말	마흠말
21249	쉰	쉬흔
21249-1	쉰-개	쉬은개
21249-2	쉰-되	쉬운되
21249-3	쉰-말	쉬운말
21250	예순	예순
21250-1	예순-개	예순개
21250-2	예순-되	예순되
21250-3	예순-말	예순말
21251	일흔	이른
21251-1	일흔-개	이른개
21251-2	일흔-되	이른되
21251-3	일흔-말	이른말
21252	여든	야든
21252-1	여든-개	야든개
21252-2	여든-되	야든되
21252-3	여든-말	야든말
21253	아흔	아흔
21253-1	아흔-개	아흔개
21253-2	아흔-되	아은되
21253-3	아흔-말	아은말
21254	백	백

21254-1	백-개	백
21254-2	백-되	백뵈
21254-3	백-말	뱅말
21255	이백	이백
21256	한둘	*
21256-1	한두-개	한두개
21256-2	한두-되	한두되
21256-3	한두-말	한두말
21257	두셋	*
21257-1	두세-개	두서너개라 그러지
21257-1	두세-개	두어개
21257-2	두세-되	두서너되
21257-3	두세-말	두어마리라는 거슨
21258	두서넛	*
21258-1	두서너-개	두서너개
21258-2	두서너-되	두서너되
21258-3	두서너-말	두세네말, 두서너말, 두세말
21259	서넛	*
21259-1	서너-개	서너개
21259-2	서너-되	서너되
21259-2	서너-되	서너더 되라는
21259-3	서너-말	*
21260	네댓	*
21260-1	네댓-개	너넨개
21260-1	네댓-개	너넨개
21260-2	네댓-되	너넨뵈
21260-3	네댓-말	너넨말, 너넨말
21261	대여섯	*
21261-1	대여섯-개	대여섯개, 대여섯개
21261-2	대여섯-되	대여섯되, 대여섯뵈
21261-3	대여섯-말	대여섯말, 대여섯말
21262	예닐곱	*
21262-1	예닐곱-개	여닐곱개
21262-2	예닐곱-되	칠팔뵈
21262-3	예닐곱-말	칠팔말
21263	일여덟	*
21263-1	일여덟-개	칠팔개

21263-2	일여덟-되	칠팔되
21263-2	일여덟-되	여나무되
21263-3	일여덟-말	칠팔말
21263-3	일여덟-말	여남말
21264	여덟아홉	*
21264-1	여덟아홉-개	팔구쟁디
21264-2	여덟아홉-되	*
21264-3	여덟아홉-말	*
21265	여남은	*
21265-1	여남은-개	여남개
21265-2	여남은-되	여남되
21265-3	여남은-말	여남말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매, 치매 적삼
21302	길이	지러기, 기리
21303	저고리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까치저구리라고, 깐:치동
21305	두령이	*
21306	무늬	무니지 무니지, 무니가 인따
21307	고쟁이	고재~이가 인꼬
21308	바지	바:지, 바지, 바지넌
21309	두루마기	두루마기, 두루매기털 이벌제
21310	의복	의복
21311	구겨지다	꾸겨진다고
21312	옷고름	온꼬름
21313	단추	단초가, 단초, 실단초
21314	동정	동전
21315	겉	서비라고 허제 섭, 질 판다
21315-0-1	-에	지세가 뭐 무던따고 그러제, 지시 인는디
21315-0-2	-을	지설 바뀌야제
21316	홀옷	홀겹때기고, 혼겹
21317	겹옷	겹겹

21318	잠방이	잠뱅이랑 거시 일제, 등지기
21319	누더기	두둑빠지나
21320	거지	거지는, 거:지오시라고, 그:지
21321	구걸	동냥, 동냥다닌다고 허지
21322	조끼	조깨, 조끼
21323	내의	실로 내보걸 짜서 입꼬
21324	껴입다	껴:임는다 그러지, 끼:임는다
21325	소매	소매만, 소매끝또
21326	주머니	주머니, 개와침
21327	호주머니	주머니가 일얼찌
21328	허리띠	허:리끈, 허리편
21329	댕기	댕기지르고
21330	도포	도포는
21331	삿갓	사까시제
21331-0-1	-에	사:까세 무리 먹지
21332	고깔	꼬:까리리고, 살까시 일썌꼬
21333	사모	사:무간대
21334	유건	*
21335	대님	단:님, 댄님, 댄니먼
21336	감발	*
21337	짚신	집씨가 일꼬
21338	미투리	미투리가 일제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결다	삼년다고 해야제
21339	나막신	나마깨신 가통거, 나막썌
21340	설피	설피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명지배로도 만들고
21401-1	명주실	명주실
21402	목화	모과, 모카, 미영, 미영나무
21402-1	목화다래	미영따래, 모카따래
21403	무명	미영:배
21403-1	무명실	미영씨:
21404	씨아	씨아시
21405	자새	실패가 일꼬, 꾸리감띠끼
21406	물레	물레가 일제

21407	베	베:라고 그러제, 미:영베, 삼:베
21408	질쌈	질쌈자리고, 질:쌈해서
21409	골무	골:무, 골:매도, 골:미
21410	반진고리	바늘쌍재
21411	가위	가:위, 가새, 가우
21411-0-1	-을	가새럴 가져온너라
21411-0-2	-에	가새에다 비엀따
21412	마르다(裁)	몬다고 그러제
21412-0-1	-고	몰고 있따
21412-0-2	-어라	모라라
21413	형겅	흔겅또, 형:거부로 인자, 현:겅
21413-0-1	-을	현:거블 가져온나
21413-0-2	-에	형거베
21414	바늘	바:널, 바늘
21415	꺾다	꼬민다
21415-0-1	-고	꼬매능거선
21415-0-2	-어라	잘 꼬매라
21416	바느질	바너질 아치, 바느질 아치라고
21417	재봉틀	재봉트런, 재봉침까지, 재봉치무로
21418	끈	끄니제, 끈타발, 끈따발
21419	노끈	노끄~이지, 노끄니고, 노끈
21420	참바	바:고
21421	매듭	이시매, 매:두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매드벌지어라, 매드벌진다
21422	보자기	보재기라고도, 상:포, 책뽀
21423	이불	이불도, 이부런, 여름니불, 이부런
21424	숨	숨:놔서
21425	포근하다	푸근하다
21426	호이불	호창, 호창이제 그거시
21427	겹이불	저부로, 겹니부리제
21427-1	숨이불	숨니불
21428	누비이불	뉘:비이불
21429	베개	베:개
21430	베갯잇	호창, 비개호창
21430-0-1	-에	호창에
21431	목침	몽:치미 인꼬, 퇴치미 인꼬
21433	방석	자부동

21434	담요	담:뇨
21435	빨래하다	힘빨래는
21436	빨랫방망이	방망이
21437	빨래터	빨래 샘:메서 허거나
21438	빨랫줄	빨랜줄
21439	다리미	손 때리미로, 대리미로 요로케
21439-1	다림질	다리미지럴, 대림질 쪽쪽
21440	인두	인:두도, 인두가 인꼬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듬방망이가 인꼬
21442	다듬잇돌	다듬또게도, 다듬뚝 인제
21443	다듬이질	다듬질해서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날
21502	설	설날, 설명절
21503	선달 그믐날	서:딸 그믐, 서딸 그믐날
21504	묵은세배	*
21505	올해	오래, 금년
21505-0-1	-는	올해는
21505-1	작년	작년
21505-2	재작년	그러께, 그그러께
21505-3	내년	내년
21505-4	후년	내명년
21505-5	내후년	내후년, 훈내명년
21506	작은설	*
21507	윷	윷
21507-0-1	-을	윷설 던지지
21507-0-2	-에	윷세 마잖따 그제 윷
21507-1	윷놀이	윷노리
21507-1	윷놀이	윷노리제
21508	윷가락	윷짝
21508-1	도	토
21508-2	개	개
21508-3	걸	겔

21508-4	웃	웁
21508-4	웃	수시라고, 순
21508-5	모	모
21509	단동	단동, 한동, 단동날따 그러제
21509-1	외동무니	막간다, 막동세이
21509-2	두동무니	두동간다, 독난다, 두동세이다
21509-3	석동무니	석간다, 석난다, 석똥세이다
21509-4	넉동무니	막동세이, 막똥세이다 그러지
21509-5	막동	막
21509-6	단동무니	단동이고, 단지간다, 단동날따
21510	보름	보름이, 정월보름, 보름
21510-1	삭망	초하레 보름, 정월 초하레 보름
21511	추석	추서걸
21512	망월	열난날
21513	취불놀이	취불노리가 아니고
21514	자치기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
21514-2	긴막대	자:여
21515	수수께끼	준추께끼
21516	호미씻이	머심날
21517	뽕과리	쨌시기
21518	장구	장구, 방구
21519	결두리	참꺼리, 새꺼리
21520	무당	당골
21520-1	박수	재이나
21521	고수레	무랍
21521	고수레	고시레
21521-1	고수레!	고시레
21522	점쟁이	점재~이
21523	상여(喪輿)	상에, 상여
21524	굴건	건, 굴건
21525	제사	기제사, 방안지사, 탈상
21526	제기	제기
21527	귀신	귀신
21528	도깨비	도깨비, 임뿔, 도깨비불, 도채비불, 도채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호린바, 소끈, 꼬삐
21602	굴레	굴레
21603	멍에	멍에
21604	길마	*
21605	부리망	망, 입망
21606	구유	구시가
21607	작두	작두
21608	꼰	꼰: 뜨더다, 소 꼰: 뜨더다
21609	여물	여:물, 초
21610	쇠죽	소죽 쭈는 소시 이쥬
21611	쇠죽바가지	소죽 쪽박, 쇠쪽바기라, 소주걱
21612	수레	구루마럴, 구루마
21613	꼰다	끈는다구레
21613-0-1	-고	꼰:코 인따, 꼬진꼬 인따
21614	바퀴	발통
21615	새끼(繩)	새나크니제, 새나끈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 망아지, 송아지, 강아지
21616	망태기	구덕, 쇠꼰 구더건
21617	떡둥구미	망태기
21618	꺼적	꺼적, 꺼적 친다고, 꺼저걸
21619	가마니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가마니틀
21620	돛자리	돛:짜리, 자리, 왕:굴짜리
21621	자리틀	자리틀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	자리 짠다
21622	왕골	왕골
21623	삼태기	소코리, 재소코리랑겔
21623-1	짚 삼태기	소코리, 재소코리
21623-2	짜리 삼태기	산태미
21624	멍석	멍:서기
21625	어레미	열:메~이구나, 열:맹이
21625-1	고운체	밴:체입
21625-2	굵은체	드문체
21626	대장장이	성냥쟁이
21627	대장간	불무간, 대장간, 성냥간

21628	풀무	불무가
21629	모루	마:치가
21630	모루채	*
21631	갈퀴	갈쿠
21632	집게	찍게
21633	장도리	장:도리
21633-1	노루발	*
21634	툽	툽, 거:두
21634-0-1	-에	툽나레
21635	도끼	도끼, 도치제
21636	자루(柄)	난자루, 호매~인 짜루
21636-0-1	-을	도친짜리
21636-0-2	-에	도친짜리에
21637	갈고리	갈:쿠리
21638	썰기	쇠악
21639	송곳	소룬, 송:곤
21639-0-1	-에	송고세 찢런따
21640	뽕죽하다	뽕죽허먼, 날카머다, 날캄허다, 무드러졌다, 무테다
21641	숫돌	숫돌다가, 쉬뜰
21641-0-1	-에	쉬뚜레다
21642	맷돌	맷또레다, 맷뜰
21642-1	수쇠	중쇠, 순쇠
21642-2	암쇠	암쇠
21643	지게	지게털
21644	발채	바:작
21645	지게 작대기	지켄따리, 지켄개비, 작:대기
21646	막대기	막까지
21647	몽둥이	몽:되~이를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비짜룬디
21702	광주리	광:주리, 강:주리털
21703	소쿠리	소코리라구, 대바구리제
21704	함지	*
21705	폴비	벤솔

21705-1	귀알	풀빠
21706	독	항아리 독
21706-0-1	-에	오가리
21707	물독	황아리
21708	항아리	물황
21709	단지	단지
21710	물동이	동우, 물뚱우, 물뺨대기도 일꼬
21711	짜리	뚱아리, 또가리
21712	웅기	웅구그른
21713	표주박	쫑구라기 바기라, 쫑구래기 박
21714	키(箕)	척:
21715	떡살	떡:싸리랑거시
21716	다식판	떡:싸리고
21717	시루	시룻가보다, 시리
21717-0-1	-을	시리렐 가져온나
21717-0-2	-에	시리에다
21718	시룻밑	시리밑
21718-0-1	-에	시리미세
21719	시룻번	시리뻘넬 부치고
21720	부싯돌	부싯돌
21720-0-1	-을	부싯돌 갇꼐너라
21721	부시	부시제 부시
21722	부싯깃	부시진
21723	담배	담:배
21724	담뱃대	담뱃때, 곰방대도 일꼬
21725	담배설대	설때도 일꼬
21726	담배통	대통
21727	물부리	빨:찌, 담배뿌리
21728	담배쌈지	담배쌈지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제 토시
21731	벼루	벼:루, 벼루
21732	가락지	까락찌, 웅까락지, 가락찌
21733	비녀	비:녀꼐꼬, 비네, 비녀(+ 신), 냥:자(+ 구)}
21734	참빗	참빈, 냥:자
21734-0-1	-을	참비설 가져오라 그러던지

21734-0-2	-에	챔비세
21735	얼레빗	어리비션, 어리빈
21736	세숫대야	세순때양, 세:순때양
21737	비누	비누, 세순비누, 빨랜빠누
21738	도투마리	도투마리고, 도토마리
21739	활대	할:때
21740	잉앗대	잉:어, 잉:에
21741	부티	*
21742	도롱이	둥:쿠리제, 둥구지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마
21802	이마빠기	이마빡
21803	눈자위	눈까시라그러제
21803	눈자위	눈:깁
21804	검은자위	망자라 그러제
21805	흰자위	흰자
21806	눈꺼풀	눈꺼풀
21807	거적눈	거정누니제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썹비 빠절따
21809	속눈썹	송:눈썹
21809-0-1	-이	송눈썹비 빠절따
21810	눈두덩	눈똥이라 그러제 눈똥
21811	안경	안:경
21812	안경집	안:경집
21813	돋보기	돋보기
21814	주름살	주름살
21814-0-1	-이	주루미
21815	엷되다	절머보인다 그러제
21815	엷되다	엷뵤보인다 허고
21816	수염	쉬:염, 위염
21817	구레나룻	귀:알쉬어미라고 허지
21817-0-1	-을	귀알쉬여물 가절따 그러제

21818	코	콧빠기
21818-0-1	-이	코가
21819	콧수염	코밑쉬에미라 그러고
21820	코딱지	코딱찌
21821	콧구멍	콧꾸녕
21821-0-1	-을	코구녀글 마가라 그러지
21821-0-2	-에	코에서 난다 그러지
21822	콧물	콧물
21823	입술	입쓸
21823-0-1	-에	입쭈레다 발려
21824	다물다	입쭈를 오문다, 다머러라
21825	어금니	아금니
21826	덧니	빠드렁니
21827	휘파람	휘파람
21828	침	취미 돈다 그러제
21829	삼키다	생킨다 그러지 추멀 생킨다
21830	가래(痰)	가래
21831	빨다	뵤터라
21832	혀	혈빠다기제, 설빠다기라 그러지
21833	혓바늘	섄빠늘
21834	콧볼	*
21835	귀고리	귀고리
21835-1	귀걸이	귀마개지
21836	귀지	귓뺨
21837	귀이개	귀:지개
21838	소리	마:리, 음성이
21839	엇듣다	열:뜯는다 그러제, 열:뵤다
21840	귀청	귀창이 떠라진다 그러지
21841	귀밑	귀:민
21841-0-1	-을	귀미테쉬어미
21842	관자놀이	*
21843	기미	기미
21844	주근깨	주근끼
21845	턱	터기제 턱
21846	턱수염	턱쉬어미제
21847	뺨	뺨, 뺨
21847-1	볼	양볼, 볼

21848	가름하다	개름:허다
21849	보조개	보지:개
21850	머리카락	머릿크락
21851	비듬	지개미
21852	기계총	돈:뚝, 돈:배짐
21853	정수리	쥐구멍
21854	대머리	이마빠기 벌깨저따
21855	고수머리	뽑쓸머리
21856	가르마	가리매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가리매탄다 그러지
21857	가마	가:매럴, 가매
21857-1	가마(鼎)	가마솥, 가마소시, 가매솥
21857-2	가마(轎)	가매라 그러지, 가:매
21857-3	가마(질그릇)	가마라 그러제, 가매
21857-4	가마(가마니)	나락 가마니
21858	뒤통수	뒤꼭찌, 뒤통시넌
21859	뒷덜미	머리끄시 스트라 그러제
21860	목	목:, 모가지
21861	먹살	먹:싸린디, 멕:싸리라 그러지 멕살

2.6.2. 상체

21901	어깨	억:깨쭉지
21902	밀치다	억깨를 친다든지, 어깨럴 민다든지
21903	저드랑	저탈민, 저드렁얼
21904	등	등
21905	가슴	가슴
21906	결리다	담 절린다 그러제
21907	갈비뼈	갈빈대
21908	허파	허파로
21909	썰개	썰개제
21910	콩팔	콩파시, 콩판시라는 거시 인제
21910-0-1	-에	콩팍씨 아프다는 소리는 별소리 업제
21910-0-2	-을	콩파세 뭇
21911	팔	팔:, 폴뚝
21912	팔꿈치	폴꿈데~이
21913	팔짱끼다	폴짱찐다 그러제

21914	손툽	손툽
21915	오른손	오린작
21916	왼손	외약:작, 외약:쑤
21917	다르다	다르게 입푸다, 틀리게 입푸다, 틀린디가 인따, 달부다
21917-0-1	-아서	*
21917-1	틀리다	달부다, 틀린다, 틀부다 쓰제
21918	왼손잡이	좌:대쟁이라 허는디, 왼:손재~이, 외~약때제
21919	엄지손가락	앵:기
21920	집게손가락	곤지
21921	가운뎃손가락	중:지
21922	약손가락	양:지, 약찌
21923	새끼손가락	깨끼
21924	생인손	생손까락
21925	사마귀	사:마귀털
21926	손아귀	아구니, 소나구니가
21927	손목	숨목
21928	뺨	뺨
21929	허리	허리허고, 허리라 그제
21930	지팡이	지팡이, 주렁:막때기
21931	옆구리	여:꾸리
21932	간지럼다	가림질, 가림질친다
21933	간지럼	간지럼, 간지럼 텐다고
21934	잔허리	*
21935	근육	그뉴기제 그거시(+ 신)
21936	배꼽	배꼽
21937	목물	등물

2.6.3. 하체

22001	복사뼈	복송씨
22002	발가락	발꼬락
22003	발바닥	발빠닥
22004	발톱	발트벌
22005	냄새	냄새
22006	고린내	고랑내 난다 그러지

22007	굳은살	몬:빼겐따 그러지, 구든사리 만타
22008	정강이	정개~이
22009	종아리	장:판지고, 장:판지럴, 종아리가 여기여
22010	장딴지	장:판지
22011	회초리	회초리
22012	무릎	물팍, 무릅
22012-0-1	-을	무르블 다천따, 물파글 다천다
22012-0-2	-에	무르파게 상처가 날따
22013	오금	오금재~이
22014	엉덩이	음벅지, 음벅찌
22015	궁둥이	음벅찌제
22016	볼기	볼:기라 그러제
22017	명	청기, 명:절따
22018	명울	알뻔따 그러제, 몽울
22019	가랑이	가리재~이
22020	사이	인:사이넌 인싸이
22021	살	산:시제 산, 산태:이
22021-0-1	-이	사태미가 부설따고 그러지
22021-0-2	-을	사태~이럴 조시머라 해야제
22022	사타구니	사태:이라고
22023	가래뚝	가래설따고, 가릴때
22023-0-1	-을	몽오리여
22024	허벅다리	허벅찌, 허벅판지
22025	넙적다리	넙적따리라는 말 쓰제
22026	가부좌(跏趺坐)	발갸다 허지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감:기인디
22102	기침	기침, 지침 하는 거슬, 곱뿔
22103	재채기	재치기
22104	사레	사:레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사레 들런따고 그러제
22105	딸꾹질	포깅쩔
22106	트림	트름
22107	곰보	억:빼기라고

22108	천연두	장질부사, 염:병
22109	여드름	이드름
22110	학질	초:하기라 그린썬, 학썬
22110-1	하루거리	하리거리
22110-2	이틀거리	메느리시헤미라고도
22110-3	매일 앓는 학질	*
22111	홍역	홍진
22112	볼거리	*
22113	땀띠	땀때기
22114	두드러기	뚜드럭, 두드러기
22115	버짐	돔:베짐
22115-1	마른버짐	마린베지미라고 허지
22115-2	진버짐	돔:베지미고
22115-3	도장 버짐	돈버짐, 돈버짐
22116	문둥이	용친배기
22116-1	문둥병	용친뽕
22117	부스럼	썤썤
22117-1	종기	종기라고
22118	고름	고:름
22119	곰기다	공기다 그러지, 공겐따, 골만따
22120	난쟁이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
22122	언청이	얼체~이
22123	소경	봉:사
22123-1	당알봉사	당알봉사
22124	애꾸	애꼬누니라고 허제
22125	눈곱	눔:꼽
22126	다래끼	다라끼, 다라꾸
22126-1	다래끼(눈 위쪽)	*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
22127	절름발이	절룩빠리, 찰룩빠리
22128	곱사등이	꼽싸제 곱싸
22129	귀머거리	먹:뽕,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서잘른소리 험다고
22131	병어리	반병어리
22132	잠꾸러기	잠추~이
22133	줄리다	줄:린다 그러제

22134	하품	하품, 아염썌다고, 아여밍개
22135	줄음	자미 쏘다진다 그러지
22135	줄음	조름, 조르미라고 허지, 줄:린다
22135-0-1	-을	조르멀 참지 모타고
22135-0-2	-에	*
22136	잠꼬대	잠뜯, 잠꼬대

2.7. 육아

22201	입덧	입더시라고 그래요
22201-0-1	-을	입떠설 심히 헨다
22202	갓난아이	간난애기는, 간난아이
22203	어린아이	어리내는 조름, 어리내기고, 간난애기, 떡애기제, 간난이는, 애:기
22204	경기(驚氣)하다	정:끼, 정:끼 이쓰먼은
22205	눅히다	뉘어노코, 뉘어노코 해라
22206	계집아이	가시내들이라고 헐써, 기집아라고는, 기지배는
22207	예쁘다	예쁘다고 그러쥌
22208	사내아이	머시마
22209	아우 타다	아:시 탄다헛찌
22209-1	아우보다	남동생 여동생 받따고 그러지, 동생 받따고
22210	야위다	야:우다 그렇쥌, 야우다고, 야왈따
22211	쌍둥이	쌍:둥이쥌
22212	오줌	오:짐
22213	똥	똥:
22214	기저귀	지지구
22215	뉘다(排便)	오줌 누라고 허쥌
22216	방귀	똥: 끼는거, 방:구라고 허는디
22216-1	뀌다	똥: 편다고
22217	구렁내	구룡내
22218	구리다	구룡내가 지독허게 난다고
22219	포대기	보닥지, 보대기
22220	기지개	지지기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지지기 켜다고 그르제, 지지기 쓴다고
22221	거짓말	거진말

22222	남부끄럽다	넘:부끄럽다고 그리쥬
22223	겹쟁이	겹째~이다, 겹쟁이
22224	불쌍하다	불쌍허다
22225	죄암죄암	취암취암
22226	곤지곤지	지깨지깨지깨
22227	따로따로	섬마섬마
22228	도리도리	도레도레
22229	짹짹	판데판데판데
22230	부라부라	방아야 방아야
22231	걸음마	거름마
22232	아장아장	한:발 두발
22233	넘어지다	너머절따고 허제
22234	곤두박질	곤두박질친다
22235	안기다	달라들어요, 앵겨
22236	바람개비	팔랭개비
22237	호드기	피리
22238	숨바꼭질	숨박꼭질
22239	소꿉놀이	바꿈새기, 빠꿈새기라고 헐써
22240	사금파리	새:금치
22241	연	연:날린다고
22241-1	방패연	방패연 아닌가
22241-2	가오리연	가오리연도 일꼬
22242	걸리다	걸려
22243	고누	꼬누
22244	땅뽕기	땅뽕끼
22245	팽이	팽이
22246	딱지치기	양기친다 그릴째, 뽕친다구그러는디
22247	구슬	다마, 다마치기라고 그릴써
22248	그네	그네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그네 타능거
22249	밀신개	깎파니제 깎판
22250	굴렁쇠	동테, 둥굴친다
22251	굴리다	둥굴친다, 둥글친다고
22251-0-1	-고	둥굴치고 일따
22251-0-2	-어야	둥굴쳐
22252	자전거	자전차, 자진거
22253	목말	목매

22254	말타기	그게 말타기일 꺼시여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다름박질
22256	썰매	썰게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쭈꾸름을 타고
22256-2	송곳	송고시제
22257	엄살	엄살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엄살 핀다고 허제
22258	부아	부아난다 소리제 인자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님, 선친, 선고, 부친께서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이요
22302	어머니	엄마, 어머니, 선:모, 자당, 자친, 모친께서
22302-1	어머니(호칭)	어머니
22303	할아버지	하나씨
22303-1	할아버지(호칭)	우리 하나씨가
22304	할머니	할:매
22304-1	할머니(호칭)	할:매가
22305	남편	애기아빠라고
22305-1	남편(호칭)	여보
22306	아내	여보
22306-1	아내(호칭)	여보
22306-1	아내(호칭)	자네
22306-1	아내(호칭)	어이
22307	형	성:, 행:니미라구레야제, 성니미라구
22307-1	형(호칭)	형니미라 부르제, 성: 성: 허지마는
22308	아우	동:생
22308-1	아우(호칭)	(이름을 부름)
22309	누나	누나, 누:님, 누님
22309-1	누나(호칭)	그전 매씨 그러제
22310	누이	누이라고 허제
22310-1	누이(호칭)	누님
22311	자식	자식
22312	만아들	크나드리라구 허제

22313	만딸	큰딸
22314	막내	막똥이라구
22315	오빠	오빠라고
22315-1	오빠(호칭)	오빠라 부르제
22316	언니	언니언니 그러제
22316	언니	형님
22316-1	언니(호칭)	성님
22317	아비	애비라고, 애비는 잘 인냐
22317-1	아비(호칭)	애비야하고 불러야제
22318	어미	에미
22318-1	어미(호칭)	에미야 에미야, 자부야
22319	손자	손지럴
22319	손자	손지
22320	손녀	솔려
22321	사위	사:오라 그러지, 사우, 서방
22321-1	사위(호칭)	김서방 이서방
22322	외손자	외손자
22323	외손녀	원솔려
22324	꾸짖다	혼내야제, 꾸진는다 그러제
22324-0-1	-고	혼내고 일따 그러제
22324-1	나무라다	나무래, 나무룬다
22325	총각	총가기라고
22326	처녀	처:녀라고, 애기씨 허며는
22327	혼인	호니나라고 허제 호닌
22327-1	혼인식	호닌식
22328	혼인 잔치	호닌잔치
22329	장가가다	장가간다 그러제
22329-1	시집가다	시집칸다
22330	혼숫감	혼수
22331	함	하:매다, 함
22332	겹사돈	사돈, 접사돈, 쌍두~이
22333	새색시	새대기라 그러지, 새각씨
22333-1	새색시(호칭)	새대기여
22334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아부이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버님
22335	시아머니	시아머니, 시어매라
22335-1	시아머니(호칭)	어머님

22336	비위	비우:꺄라면, 비위꺄 잘 만꺄야제 비위
22337	아주버니	시송니미라고 그꺄제
22337-1	아주버니(호칭)	시송님
22338	서방님	서방니미라 형 꺄시고
22338-1	서방님(호칭)	시아재라고, 도꺄님
22339	도꺄님	도꺄니미라고, 꺄꺄님
22339-1	도꺄님(호칭)	도꺄님
22340	형님	성님
22340-1	형님(호칭)	성님
22341	시누이	시누라고 해야제
22341-1	시누이(호칭)	형니미라고
22341-2	아가씨	애꺄씨
22341-3	아가씨(호칭)	고모라고 부꺄제
22342	올꺄	올꺄
22342-1	올꺄(호칭)	올꺄
22343	매형	매:형이라 그꺄제
22343-1	매형(호칭)	매양:
22344	매제	매제라 부꺄고, 매제꺄던
22344-1	매제(호칭)	꺄서방 이서방
22345	큰아버지	크나버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빠, 크나부지
22345-2	(아버지의 꺄째 형)	작은크나부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인자 꺄째 크나버지라 꺄고
22346	큰어머니	크너머니, 크넙마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넙마라 꺄제, 크너머니
22346-2	(아버지의 꺄째 형의 아내)	자꺄크넙마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자꺄너머니라
22347	큰꺄	크나빠네꺄, 크넙마네꺄, 큰꺄
22348	작은아버지	자꺄아부지제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꺄아부지
22349	작은어머니	자꺄엄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자꺄어머니라 꺄야제
22350	삼촌	삼꺄니라고해 삼촌
22350-1	삼촌(호칭)	삼꺄니라고 부꺄제
22351	아저씨	당:수꺄디
22351-1	아저씨(호칭)	당:숙
22352	아주머니	송:모라고꺄제이

22352-1	아주머니(호칭)	당:숙모
22353	조카	우리 조카라그러지
22354	조카딸	질년디, 조카라그러제
22355	고모	고모
22355-1	고모(호칭)	고모님
22356	고모부	작:쑥
22356-1	고모부(호칭)	고수긴디
22357	고종	내:종
22357	고종	내:종가니라 그러거든
22358	이모	이모
22358-1	이모(호칭)	이모
22359	이모부	이:숙
22359-1	이모부(호칭)	이숙 이숙 그러지
22360	이종	외종가니라 그러지
22361	외삼촌	외삼촌, 외송님
22361-1	외삼촌(호칭)	외삼추니라 그러지, 외숙
22362	외숙모	외송모
22362-1	외숙모(호칭)	외송모라 그러지
22363	외종	외사촌가니제
22364	외할아버지	외하나씨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하나씨
22365	외할머니	외할머~이
22365-1	외할머니(호칭)	할머~이
22366	장인	장:인, 빈장씨라
22366-1	장인(호칭)	장인어른 장인어른 그랜제
22367	장모	장:몬님 그랜제
22367-1	장모(호칭)	장모니미제, 어머니라고(+ 신), 처모씨라고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처나미제
22369	처남댁	처나무덕
22369-1	처남댁(호칭)	처나무덕 그러지
22370	홀아비	호래비
22371	홀어미	호레미
22372	계모	제모거등
22372-1	계부	이부
22373	아저씨	아재라고 그러제

22373-1	아저씨(호칭)	아무개 낭반
22374	아주머니	아짐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지미라고 허고
22375	사나이	사내, 사나이
22376	영감	영감 영감도 허고, 늘그니, 영감태기
22376-1	할망구	망:탕구라 허지
22377	나이	나이
22377-0-1	-를	나이를 멩는다고
22378	환갑	환갑
22378-1	환갑 잔치	항:갑짬치
22379	사투리	사토리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바단고기
22402	민물고기	물고기
22403	피라미	피라미, 눈타리가, , 송:아리(小), 피래미(大), 눈타래(더작음)
22404	지느러미	지느러미, 비뉴리라구
22405	아가미	아가미라고 허제 아가미
22406	창자	창시가통거
22407	송사리	송사리, 송:사리가
22408	헤엄	시엄친다
22409	메기	미기
22410	자라	자:래
22411	거북	거:부기라구,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미:꼬라지제
22413	개구리	개고리, 참개구리, 머:구리가
22414	올챙이	올챙~이
22415	두꺼비	두꺼:비가, 두꺼:비, 뚜꺼비구나, 뚜꺼비
22416	거머리	거:마리, 실:거마리, 왕거마리
22417	다슬기	고동
22418	우렁이	우렁
22419	고둥	*
22420	달팽이	달:꽤~이

22421	새우	새비, 물:새비라고
22421-1	새우(민물 대)	찢룩새비
22421-2	새우(민물 소)	물:새비, 물새비, 물새우
22421-3	새우(바다 대)	*
22421-4	새우(바다 소)	*
22422	새우젓	새비젓, 새:비저슬
22422-0-1	-이	새비저시라고 그러지 새비젓
22423	가재	가:재
22424	갈치	갈치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가오리
22427	가자미	간:재미
22428	멸치	멸:치, 멸치저시
22429	명태	명태
22429-1	동태	동태
22429-2	황태	황태
22429-3	노가리	노가:리, 노가리
22429-4	북어	부:거
22429-5	생태	생태, 생명태
22430	조기	조기, 조구
22431	도미	도미 마른 쓰제
22432	뱀장어	장어, 민물장어, 바단장어, 풍천장어
22433	낙시	낙끼질허는데는
22434	미끼	고기바벌 만든다
22435	낙싯대	낙긴때릴, 낙긴때
22436	얼레	자새
22437	조개	조개, 조개가
22438	소라	소라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레
22502	날벌레	날벌레지
22503	파리	포리
22503-1	쉬파리	쉬포리
22504	쉬슬다	쉬실른다
22505	가시	벌레라구제, 고자리

22506	진딧물	뜨:물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뜨물찼다
22507	잠자리	잠자리, 왕:잠자리가
22508	방아깨비	땅:개비
22508-1	암컷	땅개비
22508-2	수컷	때때시
22509	매뚜기	맨뚜기
22510	여치	여:치가, 여치
22511	사마귀	사:마기라고
22512	벌	오빠시, 나나리벌, 땅:벌, 대:추벌, 왕벌, 꿀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벌 친다고
22513	땅벌	땅빠리제
22514	나비	나:비가, 나:비, 나부
22515	하루살이	하리사리
22516	풍뎅이	핀두~이, 핀둥이
22517	모기	모:기, 모:구, 구정모구가
22518	장구벌레	고자리
22519	매미	매:미, 왕:매미, 뿔:래미가
22520	개똥벌레	반딧뿔, 반디뿌리라고, 개똥부라구, 개똥불(+ 다)
22521	반딧불	그기도 개똥부리고
22522	거미	거:미, 거무
22523	굼벵이	굼베~이
22524	구더기	구데기, 구더기, 고자리
22525	노래기	사:네기, 사너기, 사:내기
22526	그리마	거지매, 거리매
22527	지네	지네
22528	개미	개:미, 왕:개미
22529	바구미	바:개미
22530	진드기	진두기
22531	벼룩	벼룩
22532	이	이:
22532-1	서캐	서카리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썩에기
22534	귀뚜라미	귀뚜라미, 귀뚜래미

22535	누에	뉘에
22536	고치	꼬치
22537	번데기	뻥데기
22538	지렁이	그시랑
22539	회충(蛔蟲)	촌충이, 회
22540	소금쟁이	소금재~이, 소금장사
22541	방개	물뺑구

2.9.3. 가축

22601	가축	가추기라구
22602	암소	암소, 소
22603	송아지	송아지, 쇠양치, 송아치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메::미
22605	황소	부사리, 황소라고
22606	길들이다	길들여야제, 길들인다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서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아)	이리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아)	자라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물러물러
22607	쇠고기	소고기
22608	고기(肉)	고기가
22609	둘치	이리제이
22610	꼬리	꼬리, 꼬랑지
22611	망아지	망아지
22612	당나귀	땅나귀
22613	갈기	쉬어미
22614	돼지	뒤야:지
22614-1	멧돼지	맨되아지
22615	주둥이	주데~이
22616	돼지 머리	되아지 머리
22617	돼지우리	되아지막
22617-1	오래오래	도르르르레 도르르레
22618	개(犬)	개
22618-1	수캐	수캐, 수캥아지
22618-2	암캐	암캐, 암깡아지

22619	강아지	깡아지
22620	염소	염소, 땀세~이
22621	고양이	고양이, 귀앵이
22621-1	수고양이	수뀌앵이
22621-2	암고양이	암뀌앵이
22622	토끼	산:토끼
22622	토끼	집토끼, 퇴끼
22623	거위(鵞)	떼까우
22624	암탉	암탁, 장:닥
22625	병아리	병아리, 암뺑아리, 순뺑아리, 뺑아리
22626	모으다	모인다 그리야제, 불리 가둔다
22627	수탉	수탁
22627-0-1	-이	수타기
22628	벼슬(鷄冠)	베실
22629	부리	주둥이라
22630	모이	모이, 모시
22630-0-1	-을	모시럴
22630-1	모이다	모이제
22631	닭털	터럴 뜨더, 닥털
22632	닭똥	달:기똥
22633	어리	달:기가리
22634	닭장	닥집, 닥짱
22635	둥우리	통어리
22636	날개	날:개, 풍기
22637	깃	풍지라고, 풍지를 뺀다, 닥질
22637-0-1	-을	지스리라고 그러제, 지슬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호랑이
22702	살쾡이	살가지
22703	여우	여:우도, 여우, 여:시라고
22704	원숭이	원:세~이
22705	사슴	사슴아녀
22706	노루	노:루, 노:리
22706-0-1	-이	노:리가 마니인따
22706-0-2	-를	노루럴, 노리를 자버라

22707	고슴도치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두지:기
22709	족제비	족제비, 족찌비
22710	뱀	사주, 독사, 화사, 꺾뺨암, 능:사, 간:치독사
22711	도마뱀	동애비아멸
22712	구렁이	구렁이, 구렁이
22713	살모사	독싸라고 마니 허지, 살무사도
22714	생쥐	새앙쥐, 쇠앙쥐
22715	박쥐	박:쥐
22716	거꾸로	꺼꾸로 매달린따
22717	다람쥐	다람쥐
22718	새(鳥)	새
22719	꿩지	꿩:지라 그러제
22720	솔개	솔:개는, 솔개이, 방다리
22721	독수리	독쭈리
22722	제비(燕)	제:비
22723	두루미	황:새가
22724	소쩍새	소작새
22725	뽕	꾸엥
22726	장끼	쟁:끼
22727	까투리	까:투리라고
22727-1	꺼병이	*
22728	종달새	종달새
22729	빼꾸기	빼꼭새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뜸부기	뜸벽새
22732	올빼미	오빼미
22733	까치	까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
22735	덧	치:, 치, 돋, 텃 돋 노치
22735-0-1	-을	노리치, 노리치 노로가자 그러지
22736	올가미	올:개미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진달래
22802	철쭉꽃	철쭉꼰
22803	민들레	민들레꼰
22804	맨드라미	맨:드래미
22805	봉선화	봉숭아꼰도, 봉:숭아, 봉숭아꼰
22806	파리	때알, 때왈, 때팔
22807	해바라기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꼰뽕오리, 봉오리
22809	시들다	꼬치 절다 그러지, 시든다
22810	질경이	질:경이구만, 질:갱이, 뽕재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뽕뿌쟁이라고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뽕쟁이꼭
22811	뽕기	뽕비
22812	비름	비리미 인써
22813	쇠비름	쇠비럼, 쇠비름
22814	썸바귀	썸바우, 썸바우제, 싸랑부리는 (땅에 붙어서)
22815	고들빼기	꼬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
22816	고사리	꼬:사리
22817	고비	해침
22818	도깨비바늘	지개깨비, 지개깨비는
22819	도꼬마리	우술뿌리라고, 우술뿌리
22820	억새	억:새, 억쌀, 워새
22821	갈대	갈때고만, 갈때
22822	이끼	잉끼, 이끼, 바우온도
22823	아주까리	피마자 보고, 피마주라고, 피마주 너물
22824	담쟁이	*
22825	수세미	쭈성거리, 쭈세미
22826	덩굴	녕:쿠리지, 쭈세미
22827	덤불	덩쿨바시라고, 덤불받
22827-1	가시덤불	까시덤풀 그러제, 까시덩쿨
22828	잔디	잔되, 잔디, 잔디씨털, 뽕, 뽕털 떠다가, 잔디뽕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소나무, 해:송이라 그러제, 향장목 인꼬, 육송, 조선쏘리
22902	솔방울	솔방울
22903	관솔	송:진, 송:진지름, 간:솔
22904	솔가리	갈쿠나무
22905	그러모으다	손쳐가지고
22906	뽕나무	뽕 열매, 산뽕은 인제
22907	오디	오두개
22908	도토리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도토리나무
22910	상수리	상:소리 나무도 인제, 상소리나무
22911	웃	온나무, 온:나무, 거매나무(야생)
22911-0-1	-으로	*
22912	버드나무	버드나무, 능수버들 인꼬, 개밥
22913	느티나무	느티나무
22914	그림자	그림자
22914-1	그늘	그늘
22915	숲	숲속, 수비 지털따고, 수비랑거선
22915-0-1	-을	수블 태원따
22915-0-2	-에	수베
22916	시원하다	시언허다 그러제, 시원허다
22917	찢레	찢래꼐
22918	칭	척뿌리가, 칭:녕:쿠털, 칭녕쿨
22918-0-1	-에	칭:녕쿠레 걸려서
22919	가지(枝)	가:지, 나물까지
22920	끝	꼭때기
22920-0-1	-이	끄시
22920-0-2	-을	끄설
22920-0-3	-에	나무 끄테, 나무 끄세 안절따
22921	삭정이	자장개비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자장개비 딸라며넌
22922	나무	나무가
22922-0-1	-을	나무를 히와라 그러제
22922-0-2	-에	나무에 걸려서
22923	나무하다	나무간다, 나무허러 간다

22924	그루터기	끄렁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끝:텅이라고
22925	등걸	끝:텅, 끝:텅얼
22926	장작	장작개비, 끝:텅쫓가리라 그러제
22927	패다	뽀개기도, 뽀깐다, 장작 뽀깐다
22928	부스러기	지복:쪽
22929	숯	수시라고, 참나무 숯
22929-0-1	-이	수시되아
22929-0-2	-을	수시로, 수설
22929-0-3	-에	수세
22930	불잉걸	잉글잉글허다
22931	쌈	쌈기
22932	잎	입사구
22932-0-1	-을	*
22932-1	잎사귀	이파리제, 입쌈구
22933	가랑잎	가랑이비, 가랑이븐
22934	뿌리	뿌리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금, 능금받
23002	돌배	명감
23003	복숭아	개:복쑹이, 참복송, 복송인자
23004	곶감	꼬감도 허고
23005	홍시	홍시, 시:자
23006	고욤	뜯:까미
23007	살구	살구나무
23008	앵두	앵두나무
23009	자두	자:두나무
23010	오얏	오얏나무허고는 달버
23010-0-1	-을	*
23011	석류	성노
23012	모과	모개, 마:개, 모개나무, 모과라그러제
23013	과일	과:실, 과:시리 실과제
23014	꼭지	꼬투리, 꼬투래기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밤송이

23015-2	꽃밤	푼뺨
23015-3	알밤	바마:리, 밤알, 쌍알
23015-4	쌍동밤	쌍바미이라고 허제
23016	보늬	비닐
23017	호두	호:두
23018	가래(楸子)	*
23019	개암	정:금
23020	머루	머루, 산머루
23021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명감나무
23023	으름	어름
23024	참외	수통차되라고, 수통차메라 그러지
23025	딸기	때왈
23025	딸기	딸:기라고
23025-1	"딸기(밭 재배)"	딸기제
23025-2	"딸기(밭 야생)"	*
23025-3	"딸기(들 재배)"	*
23025-4	"딸기(들 야생)"	딸:기나무
23025-4	"딸기(들 야생)"	때왈나무
23025-5	"딸기(산 재배)"	복분자허고
23025-6	"딸기(산 야생)"	산딸기
23026	뱀딸기	비암딸
23027	마름(菱)	*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산꼭떼기, 산뽕오리, 산뽕떼기
23102	기슭	산지시락, 산기슬
23102-0-1	-에	산기슬기 가라
23103	골짜기	산꼬랑, 산꼬랑이라지, 고라당, 산꼬라당
23104	메아리	산울리미고 그러제
23105	고함	악쫌다, 소리지른다 그러지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고암:지른다
23106	묘	묘:라구러지, 몬:똥이라구, 무덤

23107	뿔자리	뿔:짜리, 뿔:짜리는
23107-1	광중	광정
23108	구덩이	구덩이제, 구데~이 파서
23109	비탈	깔크막찌다, 깔크막
23110	가파르다	깔크막지다 그러제
23111	언덕	엉:터건, 야산
23112	낭떠러지	낭:떠러진다, 낭:떠러절따, 낭:떠러지
23113	들(野)	들판
23113-0-1	-에	들파네 간다
23114	별	별:판
23115	갈림길	센:끼리, 센길, 갈림길
23116	헤어지다	헤어져따
23117	바위	바우라구려
23117-0-1	-을	바우를 드리 올린다
23117-0-2	-에	바우에
23117-0-2	-에	바우에 걸터 양저서
23118	돌(石)	독, 돌:, 도:리, 들:또기
23118-0-1	-을	도:글
23118-0-2	-에	도겐
23119	자갈	자:갈
23120	모래	모새, 모새를, 모래라 만히혀
23120-0-1	-를	모레털 퍼오라 그러제
23121	진흙	지:르기제
23121-1	찰흙	차:르기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무:레
23202	거품	버큼
23203	개운하다	개웁다 그러제, 개웁다, 개완허다
23204	도랑	또:랑, 꼬랑
23204-1	붓도랑	보매기라, 보:라고 허고
23205	둑	뚝 쌓는다
23206	잠기다	쟁겨따, 쟁긴거슬
23207	개울	내깔, 개울
23208	내(川)	내시제
23208	내(川)	넌

23209	미역 감다	멕깜넌다고, 멕깜넌다, 멕깁긴다
23210	발가승이	피복는다, 피복짱구
23211	목욕하다	멕깜능거시여
23212	수채	수채구녁
23213	개골창	개골창
23214	시궁창	시금창
23215	웅덩이	웅덩이
23216	수렁	수랑, 수랑꼴, 수랑매미
23217	늪	진제이
23217-0-1	-에	수랑에 빠절따
23218	배(船)	배라고 허제
23219	나루터	나루터
23220	돛	*
23220-0-1	-에	*
23221	돛대	돈때라고 그러제 돈때
23222	돛배	*
23223	돛 줄	*
23224	돛 줄	*
23225	거루	*
23226	상앗대	*
23227	개(필)	*
23228	물	무테사람이라고 무테
23228-0-1	-으로	무테로
23229	밀물	들무리제, 드론다구 그러제
23230	썰물	쨌다구 그러제, 쨌무를 나가는 거슬
23231	가라앉다	가란는다
23232	그물	그물
23233	해녀	해:너

2.11.3. 시후

23301	새벽	새복, 새벽
23302	새벽밥	새복빔
23303	아침	아침
23304	아침밥	아침빔
23305	점심	점:시미제
23306	저녁	저녁, 초지녁

23307	설핏하다	설푼:허다
23308	노을	북새라 그리제, 북쌔, 노리고
23308-0-1	-을	해지는 노리털 보고 인따고 그러지
23309	불그레하다	빨:거제이
23310	해거름	해질무려베
23311	땅거미	땅꺼미진다
23312	봄	보미제 봄
23313	여름	한 여르메, 여르메
23314	더위	더위가 오래간다
23315	추위	추위라 그리제
23316	가을	가실, 가:으레
23316-0-1	-에	가:으레
23317	겨울	겨:을도, 겨울
23317-0-1	-에	겨으레
23318	얼음	어:름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내일
23321	모레	모:레
23322	글피	글페
23323	그글피	그글페
23324	어제	어저께
23325	그저께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그끄적께
23327	훗날	훈나리라는 거슨 인자
23328	하룻날	초하루
23329	이튿날	이튿날
23330	사흘날	사흘날
23331	나흘날	나흘날
23332	닷셋날	단쌔날
23333	엿셋날	연쌔날
23334	이렛날	이렌날
23335	여드렛날	야드렌날
23336	아흐렛날	아흐렌날
23337	열흘날	초열흘날
23338	하루	하루제
23338	하루	하레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흘
23341	나흘	나흘
23342	닷새	단새
23343	엿새	연새
23344	이레	이레
23345	여드레	야드레
23346	아흐레	아흐레
23347	열흘	열흘
23348	한나절	한:나잘
23348-1	반나절	반나잘
23349	그믐	그믐날
23349-1	그믐께	금정께
23350	지금	지금허자
23351	아직	아직, 아지기라고 그러제
23352	이제	인자 머글라 한다 그러지 인자
23353	이미	이무
23354	요즈음	요새, 요즈음
23355	금방	금방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벼치
23401-0-1	-이	해빈치, 햐벼치, 햐뵤치
23401-0-2	-을	햐뵤슬 쩌다
23402	따스하다	*
23403	아지랑이	*
23404	응달	응:다리쪼기제
23405	양달	양:다리쪽
23406	비(雨)	비:가 온다
23407	가랑비	가랑비
23408	이슬비	이슬비
23409	안개	양:개 쩌다고
23410	눈개	*
23411	무지개	무지개
23412	소나기	쏘나기
23413	갑자기	갑짜기 쏘나기
23414	홍수	홍:수 날따 그러제

23415	번개	번개, 병개 친다고
23416	천둥	천둥, 우렘소리
23417	벼락	베랑마저따
23418	무섭다	무서워서, 무섭따
23419	함박눈	함박눈
23420	싸락눈	싸래기눈
23421	발자국	발짜국
23422	진눈깨비	진두깨비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고드름
23425	햇무리	헛머리
23426	달무리	달머리
23427	둥글다	둥굴고
23428	은하수	으나수라구제
23429	금성	썬뽕, 초저녁 썬뽕
23430	가뭄	가뭄, 가문다
23431	마르다	잘 마른다
23431-0-1	-어서	잘 말라서 조타
23432	위	상 위에
23433	아래	상 미테
23433	아래	아래
23434	왼쪽	외약쪽
23435	오른쪽	오륜쪽
23436	결	여부로 와라
23436-0-1	-에	여페 안전따 그러지
23437	회오리바람	회소리 바람, 소소리 바람
23438	북풍	썬빠람
23439	남풍	마파람
23440	동풍	하누바람
23441	서풍	뿔:빠라미라고

제3편 음운

3.1. 음운 체계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양경테고, 양경테
31001-0-2	테(輪)-보다	*
31002-0-1	태(胎)-이/가	태
31002-0-2	태(胎)-보다	탄쭈
31003-0-1	떼(群)-이/가	떼
31003-0-2	떼(群)-보다	*
31004-0-1	때(時)-이/가	때:마닥
31004-0-2	때(時)-보다	*
31005-0-1	틀(機)-이/가	틀
31005-0-1	틀(機)-이/가	트:리라루
31005-0-2	틀(機)-보다	*
31006-0-1	털(毛)-이/가	털
31006-0-2	털(毛)-보다	*
31007-0-1	글(文)-이/가	그리야 머
31007-0-2	글(文)-보다	*
31008-0-1	결(옷)-이/가	꺄, 꺄:
31008-0-2	결(옷)-보다	*
31009-0-1	기(旗)-이/가	기맹기가
31009-0-2	기(旗)-보다	*
31010-0-1	귀(耳)-이/가	꺄, 꺄:
31010-0-2	귀(耳)-보다	*
31011-0-1	시(生時)-이/가	생일 생시
31011-0-2	시(生時)-보다	*
31012-0-1	쉬(蠅卵)-이/가	쉬
31012-0-2	쉬(蠅卵)-보다	*
31013-0-1	쇠(鐵)-이/가	쇠제
31014-0-1	외:국(外國)-이/가	외국
31014-0-2	외:국(外國)-보다	*
31015-0-1	왜국(倭國)-이/가	웨:눔, 웨국
31015-0-2	왜국(倭國)-보다	웨구기지

31016-0-1	쉬:다(休)-더라	쉬:라고
31016-0-2	쉬:다(休)-어서	*
31017-0-1	쇠:다(설을~)-더라	설 원:다, 설 원:다고
31017-0-2	쇠:다(설을~)-어서	*
31018-0-1	배(布)-이/가	배:
31018-0-2	배(布)-보다	*
31019-0-1	배(船)-이/가	배:허고 가튼까
31019-0-2	배(船)-보다	*
31020-0-1	배(腹)-이/가	배고, 배
31020-0-2	배(腹)-보다	*
31021-0-1	(떡)메-이/가	떡 멌디, 떡:매
31021-0-2	(떡)메-보다	*
31022-0-1	매(鞭)-이/가	매고
31022-0-1	매(鞭)-이/가	그거슨 매고
31022-0-2	매(鞭)-보다	*
31023-0-1	메:다(擔)-더라	*
31023-0-2	메:다(擔)-어서	*
31024-0-1	매:다(繫)-더라	등에 맨:다
31024-0-2	매:다(繫)-어서	*
31025-0-1	떼:다(分離)-더라	뎌:다 그레야지
31025-0-2	떼:다(分離)-어서	*
31026-0-1	때:다(炊)-더라	뎌:다
31026-0-2	때:다(炊)-어서	*
31027-0-1	베:다(切斷)-더라	비:능 거시고
31027-0-2	베:다(切斷)-어서	*
31028-0-1	배:다(孕胎)-더라	베:넌 거시고
31028-0-2	배:다(孕胎)-어서	*
31029-0-1	세:다(算)-더라	샌다
31029-0-2	세:다(算)-어서	*
31030-0-1	새:다(漏泄)-더라	센:다
31030-0-2	새:다(漏泄)-어서	*
31031-0-1	뒤(後)-이/가	뒤
31031-0-2	뒤(後)-보다	*
31032-0-1	되(升)-이/가	되
31032-0-2	되(升)-보다	*
31033-0-1	게:(蟹)-이/가	기라 그러거덩
31033-0-2	게:(蟹)-보다	*

31034-0-1	개:(犬)-이/가	개
31034-0-1	개:(犬)-이/가	개지 뭐
31034-0-2	개:(犬)-보다	*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여러시 간다
31035-0-2	여럿(多)-보다	*
31035-0-3	여럿(多)-을/를	*
31036-0-1	물결(波)-이/가	물결
31036-0-2	물결(波)-보다	*
31036-0-3	물결(波)-을/를	*
31037-0-1	예:의(禮儀)-이/가	예이럴 지켜안다
31037-0-2	예:의(禮儀)-보다	*
31037-0-3	예:의(禮儀)-을/를	*
31038-0-1	계:획(計劃)-이/가	개획
31038-0-2	계:획(計劃)-보다	*
31038-0-3	계:획(計劃)-을/를	*
31039-0-1	규칙(規則)-이/가	규칙
31039-0-2	규칙(規則)-보다	*
31039-0-3	규칙(規則)-을/를	*
31040-0-1	휴일(休日)-이/가	휴일
31040-0-2	휴일(休日)-보다	*
31040-0-3	휴일(休日)-을/를	*
31041-0-1	교통(交通)-이/가	교통이
31041-0-2	교통(交通)-보다	*
31041-0-3	교통(交通)-을/를	*
31042-0-1	효:자(孝子)-이/가	효:너
31042-0-2	효:자(孝子)-보다	*
31042-0-3	효:자(孝子)-을/를	*
31043-0-1	웬일(何事)-이/가	웬:니리냐
31043-0-2	웬일(何事)-보다	*
31043-0-3	웬일(何事)-을/를	*
31044-0-1	궤:(猨)(櫃)-이/가	돈:궤
31044-0-1	궤:(猨)(櫃)-이/가	철궤
31044-0-2	궤:(猨)(櫃)-보다	*
31044-0-3	궤:(猨)(櫃)-을/를	*

31045-0-1	왜란(倭亂)-이/가	웨이치미이라고
31045-0-2	왜란(倭亂)-보다	*
31045-0-3	왜란(倭亂)-을/를	*
31046-0-1	헛대(鷄架)-이/가	헛때
31046-0-2	헛대(鷄架)-보다	*
31046-0-3	헛대(鷄架)-을/를	*
31047-0-1	원망(怨望)-이/가	웜망
31047-0-1	원망(怨望)-이/가	원망
31047-0-2	원망(怨望)-보다	*
31047-0-3	원망(怨望)-을/를	*
31048-0-1	권:투(拳鬪)-이/가	건투
31048-0-2	권:투(拳鬪)-보다	*
31048-0-3	권:투(拳鬪)-을/를	*
31049-0-1	의논(議論)-이/가	으논
31049-0-2	의논(議論)-보다	*
31049-0-3	의논(議論)-을/를	*
31050-0-1	무늬(紋)-이/가	무니
31050-0-2	무늬(紋)-보다	*
31050-0-3	무늬(紋)-을/를	*
31051-0-1	왕(王)-이/가	왕
31051-0-2	왕(王)-보다	*
31051-0-3	왕(王)-을/를	*
31052-0-1	과자(菓子)-이/가	가자도
31052-0-2	과자(菓子)-보다	*
31052-0-3	과자(菓子)-을/를	*

3.1.3. 장모음·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일
31053-0-2	일(一)-보다	*
31054-0-1	일:(事)-이/가	일:
31054-0-2	일:(事)-보다	*
31055-0-1	매(鞭)-이/가	매:
31055-0-2	매(鞭)-보다	*
31056-0-1	매:(鷺)-이/가	매:고
31056-0-2	매:(鷺)-보다	*
31057-0-1	밤(夜)-이/가	바미고

31057-0-2	밤(夜)-보다	*
31058-0-1	밤:(栗)-이/가	바:암
31058-0-2	밤:(栗)-보다	*
31059-0-1	눈(眼)-이/가	누니고
31059-0-2	눈(眼)-보다	*
31060-0-1	눈:(雪)-이/가	누:니고
31060-0-2	눈:(雪)-보다	*
31061-0-1	말(馬)-이/가	마리고
31061-0-2	말(馬)-보다	*
31062-0-1	말(斗)-이/가	마리고
31062-0-2	말(斗)-보다	*
31063-0-1	말:(言)-이/가	마리고
31063-0-2	말:(言)-보다	*
31064-0-1	손(客)-이/가	손님
31064-0-2	손(客)-보다	*
31065-0-1	손(手)-이/가	손:
31065-0-2	손(手)-보다	*
31066-0-1	손:(孫)-이/가	손지
31066-0-1	손:(孫)-이/가	손자
31066-0-2	손:(孫)-보다	*
31067-0-1	배(梨)-이/가	배
31067-0-2	배(梨)-보다	*
31068-0-1	배:(倍)-이/가	배:가 만타
31068-0-2	배:(倍)-보다	*
31069-0-1	벌(罰)-이/가	버리고
31069-0-2	벌(罰)-보다	*
31070-0-1	벌:(蜂)-이/가	버:리고
31070-0-2	벌:(蜂)-보다	*
31071-0-1	솔(松)-이/가	소울, 솔
31071-0-2	솔(松)-보다	*
31072-0-1	솔:(刷)-이/가	소리고
31072-0-2	솔:(刷)-보다	*
31073-0-1	줄(鉉)-이/가	주리고
31073-0-2	줄(鉉)-보다	*
31074-0-1	줄:(연장)-이/가	주:리고
31074-0-2	줄:(연장)-보다	*
31075-0-1	돌:(石)-이/가	도:리제

31075-0-2	돌:(石)-보다	*
31076-0-1	담(牆)-이/가	다미고
31076-0-2	담(牆)-보다	*
31077-0-1	담:(膽)-이/가	담:
31077-0-2	담:(膽)-보다	*
31078-0-1	들:(野)-이/가	들:
31078-0-2	들:(野)-보다	*
31079-0-1	달-(懸)-고	단:다
31080-0-1	달-(甘)-고	달고
31081-0-1	달:-(熱)-고	달다
31082-0-1	갈-(換)-고	갈고 일따
31083-0-1	갈-(磨)-고	나슬 갈때
31084-0-1	갈:-(耕)-고	바슬 갈다
31085-0-1	걷-(收)-고	걸꼬일따
31086-0-1	걸:-(步)-고	걸꼬인는거신디
31087-0-1	적-(書)-고	적:꼬 일따
31088-0-1	적:-(小)-고	적:따

3.2. 음운 과정

3.2.1. 활용

1)기초 항목

32001-0-1	막-(防)[ㄱ]-지	막찌
32001-0-2	막-(防)[ㄱ]-고	막꼬
32001-0-3	막-(防)[ㄱ]-더라	막뜨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그니까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마걸따
32002-0-1	흐르-(流)[ㅡ]-지	흐르지
32002-0-2	흐르-(流)[ㅡ]-고	흐르고 일따
32002-0-3	흐르-(流)[ㅡ]-더라	흐르드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
32003-0-1	오-(來)[ㅁ]-지	오지마라
32003-0-2	오-(來)[ㅁ]-고	오고일뜨라
32003-0-3	오-(來)[ㅁ]-더라	오드라

32003-0-4	오-(來)[ㄴ]-으니까	옹개
32003-0-5	오-(來)[ㄴ]-아/어(왔/었다)	왈따
32004-0-1	듣-(聞)[ㄷ변]-지	듣찌마라
32004-0-2	듣-(聞)[ㄷ변]-고	듣꼬인따
32004-0-3	듣-(聞)[ㄷ변]-더라	듣떠라
32004-0-4	듣-(聞)[ㄷ변]-으니까	들룽게
32004-0-5	듣-(聞)[ㄷ변]-아/어(왔/었다)	드런따
32005-0-1	많:-(多)[ㄴᄃ]-지	만치
32005-0-2	많:-(多)[ㄴᄃ]-고	만:코
32005-0-3	많:-(多)[ㄴᄃ]-더라	만터라
32005-0-4	많:-(多)[ㄴᄃ]-으니까	마느니, 마:느니, 마:느니까
32005-0-5	많:-(多)[ㄴᄃ]-아/어(왔/었다)	만타, 마날따
32006-0-1	말-(任)[ㅌ]-지	만찌마라
32006-0-2	말-(任)[ㅌ]-고	만꼬 일따
32006-0-3	말-(任)[ㅌ]-더라	만떠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마털따
32007-0-1	알:-(知)[ㄹ]-지	알:지 묻한다
32007-0-2	알:-(知)[ㄹ]-고	알:고 일따
32007-0-3	알:-(知)[ㄹ]-더라	*
32007-0-4	알:-(知)[ㄹ]-으니까	*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
32008-0-1	감:-(閉眼)[ㄱ]-지	감:찌마라
32008-0-2	감:-(閉眼)[ㄱ]-고	감:꼬 일따
32008-0-3	감:-(閉眼)[ㄱ]-더라	가멸뜨라
32008-0-4	감:-(閉眼)[ㄱ]-으니까	*
32008-0-5	감:-(閉眼)[ㄱ]-아/어(왔/었다)	가멸따
32009-0-1	벗-(脫)[ㅍ]-지	벗찌마라
32009-0-2	벗-(脫)[ㅍ]-고	벗꼬인따
32009-0-3	벗-(脫)[ㅍ]-더라	벗뜨라
32009-0-4	벗-(脫)[ㅍ]-으니까	버스니
32009-0-5	벗-(脫)[ㅍ]-아/어(왔/었다)	버섄따
32010-0-1	옴-(可)[ㅍ]-지	올치안타
32010-0-2	옴-(可)[ㅍ]-고	*
32010-0-3	옴-(可)[ㅍ]-더라	올트라
32010-0-4	옴-(可)[ㅍ]-으니까	오룽게
32010-0-5	옴-(可)[ㅍ]-아/어(왔/었다)	*

32011-0-1	입-(着衣)[ㅂ]-지	입찌마라
32011-0-2	입-(着衣)[ㅂ]-고	입꼬일따
32011-0-3	입-(着衣)[ㅂ]-더라	입뜨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
32011-0-5	입-(着衣)[ㅂ]-아/어(왔/었다)	이별따
32012-0-1	바꾸-(換)[ㅌ]-지	바꾸지 마라
32012-0-2	바꾸-(換)[ㅌ]-고	바꾸고일따
32012-0-3	바꾸-(換)[ㅌ]-더라	바뀔더라
32012-0-4	바꾸-(換)[ㅌ]-으니까	바꿈게
32012-0-5	바꾸-(換)[ㅌ]-아/어(왔/었다)	바뀔따, 바뀐다, 바뀐따
32013-0-1	덮-(覆)[ㅍ]-지	덮찌마라
32013-0-2	덮-(覆)[ㅍ]-고	덮꼬자라
32013-0-3	덮-(覆)[ㅍ]-더라	*
32013-0-4	덮-(覆)[ㅍ]-으니까	*
32013-0-5	덮-(覆)[ㅍ]-아/어(왔/었다)	더뀔따
32014-0-1	묻:-(問)[ㄷ 변]-지	묻찌마라
32014-0-2	묻:-(問)[ㄷ 변]-고	묻꼬일따
32014-0-3	묻:-(問)[ㄷ 변]-더라	*
32014-0-4	묻:-(問)[ㄷ 변]-으니까	*
32014-0-5	묻:-(問)[ㄷ 변]-아/어(왔/었다)	물어라
32015-0-1	낫:-(癒)[ㅅ 변]-지	낫:찌 안넌다
32015-0-2	낫:-(癒)[ㅅ 변]-고	낫:꼬 일따
32015-0-3	낫:-(癒)[ㅅ 변]-더라	낫:떠라
32015-0-4	낫:-(癒)[ㅅ 변]-으니까	*
32015-0-5	낫:-(癒)[ㅅ 변]-아/어(왔/었다)	낫:따, 나설따
32016-0-1	닫-(閉)[ㄷ]-지	닫찌 마라
32016-0-2	닫-(閉)[ㄷ]-고	닫꼬 일따
32016-0-3	닫-(閉)[ㄷ]-더라	다덜따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드니까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다더라
32017-0-1	쫓-(追)[ㅈ]-지	쫓찌 마라
32017-0-2	쫓-(追)[ㅈ]-고	쫓꼬 일따
32017-0-3	쫓-(追)[ㅈ]-더라	쫓뜨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
32018-0-1	베:-(枕)[ㅂ]-지	비:지 마라
32018-0-2	베:-(枕)[ㅂ]-고	비:고 일따

32018-0-3	베:-(枕)[배]-더라	비고 일뜨라
32018-0-4	베:-(枕)[배]-으니까	빙:개
32018-0-5	베:-(枕)[배]-아/어(왔/었다)	비어라
32019-0-1	깨:-(破)[해]-지	깨:지 마라
32019-0-2	깨:-(破)[해]-고	깨:고 일따
32019-0-3	깨:-(破)[해]-더라	*
32019-0-4	깨:-(破)[해]-으니까	*
32019-0-5	깨:-(破)[해]-아/어(왔/었다)	깨:절따
32020-0-1	피:-(伸)[니]-지	피:지 마라
32020-0-2	피:-(伸)[니]-고	피:고 일따
32020-0-3	피:-(伸)[니]-더라	피:고 일드뜨
32020-0-4	피:-(伸)[니]-으니까	핑:개
32020-0-5	피:-(伸)[니]-아/어(왔/었다)	피:얼따
32021-0-1	밖:-(明)[?]-지	박찌안타
32021-0-2	밖:-(明)[?]-고	박꼬
32021-0-3	밖:-(明)[?]-더라	박떠라
32021-0-4	밖:-(明)[?]-으니까	발궁게
32021-0-5	밖:-(明)[?]-아/어(왔/었다)	발간따
32022-0-1	쌈:-(烹)[?]-지	쌈찌마라
32022-0-2	쌈:-(烹)[?]-고	쌈:꼬 일따
32022-0-3	쌈:-(烹)[?]-더라	쌀먼드라
32022-0-4	쌈:-(烹)[?]-으니까	쌀몽게
32022-0-5	쌈:-(烹)[?]-아/어(왔/었다)	쌀먼따, 쌀만따
32023-0-1	읍:-(吟)[을]-지	읍찌마라
32023-0-2	읍:-(吟)[을]-고	읍꼬일따, 읍꼬 이떠라
32023-0-3	읍:-(吟)[을]-더라	읍떠라
32023-0-4	읍:-(吟)[을]-으니까	을풍게
32023-0-5	읍:-(吟)[을]-아/어(왔/었다)	을편따
32024-0-1	뵤:-(踏)[?]-지	뵤찌마라
32024-0-2	뵤:-(踏)[?]-고	뵤꼬 일따
32024-0-3	뵤:-(踏)[?]-더라	*
32024-0-4	뵤:-(踏)[?]-으니까	볼브니
32024-0-5	뵤:-(踏)[?]-아/어(왔/었다)	볼받따
32025-0-1	하:-(爲)[하 변]-지	허지마라
32025-0-2	하:-(爲)[하 변]-고	허고 일따
32025-0-3	하:-(爲)[하 변]-더라	허드라
32025-0-4	하:-(爲)[하 변]-으니까	형게

32025-0-5	하-(爲)[ㅏ 변]-아/어(왔/었다)	헨따
32026-0-1	맺-(結)[ㅈ]-지	맺찌 말어라
32026-0-2	맺-(結)[ㅈ]-고	맺꼬일따
32026-0-3	맺-(結)[ㅈ]-더라	맺절뜨라
32026-0-3	맺-(結)[ㅈ]-더라	맺뜨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맺증게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맺절따
32027-0-1	없:-(無)[?]-지	*
32027-0-2	없:-(無)[?]-고	업:꼬
32027-0-3	없:-(無)[?]-더라	업:떠라, 업:뜨라
32027-0-4	없:-(無)[?]-으니까	업:쓰니, 업:증개
32027-0-5	없:-(無)[?]-아/어(왔/었다)	업:씨
32028-0-1	앉-(坐)[ㄴ]-지	안찌마라
32028-0-2	앉-(坐)[ㄴ]-고	안:꼬일따
32028-0-3	앉-(坐)[ㄴ]-더라	안뜨라
32028-0-4	앉-(坐)[ㄴ]-으니까	아능개
32028-0-5	앉-(坐)[ㄴ]-아/어(왔/었다)	안저라, 안절따, 안:저라, 양:거라, 양:꺼라
32029-0-1	비비-(刮)[ㅣ]-지	비비지 마라
32029-0-2	비비-(刮)[ㅣ]-고	비비고 일따
32029-0-3	비비-(刮)[ㅣ]-더라	비비더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비비고 이쓰니, 비붕게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비뵤따, 비뵤따
32030-0-1	끄-(消)[ㅡ]-지	끄지마라
32030-0-2	끄-(消)[ㅡ]-고	끄고 일따
32030-0-3	끄-(消)[ㅡ]-더라	끄뜨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부를 끄게
32030-0-5	끄-(消)[ㅡ]-아/어(왔/었다)	꺼라 그리제
32030-0-5	끄-(消)[ㅡ]-아/어(왔/었다)	부를 꺾따
32031-0-1	꺾-(折)[ㄱ]-지	끈찌마라
32031-0-2	꺾-(折)[ㄱ]-고	끈꼬일따
32031-0-3	꺾-(折)[ㄱ]-더라	끈뜨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끄능게
32031-0-5	꺾-(折)[ㄱ]-아/어(왔/었다)	끄넨따
32032-0-1	신:-(履)[ㄴ]-지	신:찌 마라
32032-0-2	신:-(履)[ㄴ]-고	신:꼬
32032-0-3	신:-(履)[ㄴ]-더라	신:뜨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시:능개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시:넌따
32033-0-1	보-(視)[ㄴ]-지	내다 보지 마라
32033-0-2	보-(視)[ㄴ]-고	내다 보고 일따
32033-0-3	보-(視)[ㄴ]-더라	내다 보더라
32033-0-4	보-(視)[ㄴ]-으니까	내다 봉개
32033-0-5	보-(視)[ㄴ]-아/어(왔/었다)	내다 봤:따
32034-0-1	추-(舞)[ㄷ]-지	추:지 마라
32034-0-2	추-(舞)[ㄷ]-고	추:고 일따
32034-0-3	추-(舞)[ㄷ]-더라	추:드라
32034-0-4	추-(舞)[ㄷ]-으니까	춤을 춤:게
32034-0-5	추-(舞)[ㄷ]-아/어(왔/었다)	추얼따
32035-0-1	피우-(吸煙)[ㅍ]-지	피지 마라
32035-0-2	피우-(吸煙)[ㅍ]-고	피고 일따
32035-0-3	피우-(吸煙)[ㅍ]-더라	피드라
32035-0-4	피우-(吸煙)[ㅍ]-으니까	핑개
32035-0-5	피우-(吸煙)[ㅍ]-아/어(왔/었다)	피얼따
32036-0-1	서-(立)[ㅅ]-지	스:지 말라
32036-0-2	서-(立)[ㅅ]-고	스:고 일따
32036-0-3	서-(立)[ㅅ]-더라	스:드라
32036-0-4	서-(立)[ㅅ]-으니까	승:게
32036-0-5	서-(立)[ㅅ]-아/어(왔/었다)	설:따
32037-0-1	기-(匍腹)[ㄱ]-지	기:지 마라
32037-0-2	기-(匍腹)[ㄱ]-고	기어가고 일따
32037-0-3	기-(匍腹)[ㄱ]-더라	기:드라
32037-0-4	기-(匍腹)[ㄱ]-으니까	강:게
32037-0-5	기-(匍腹)[ㄱ]-아/어(왔/었다)	기얼따
32038-0-1	이-(戴)[ㅇ]-지	이:지 마라
32038-0-2	이-(戴)[ㅇ]-고	이:고 일따
32038-0-3	이-(戴)[ㅇ]-더라	이:드라
32038-0-4	이-(戴)[ㅇ]-으니까	잉:게
32038-0-5	이-(戴)[ㅇ]-아/어(왔/었다)	이:얼따
32038-0-5	이-(戴)[ㅇ]-아/어(왔/었다)	열:따 그러제
32039-0-1	아니-(否)[ㅇ]-지	아니지
32039-0-2	아니-(否)[ㅇ]-고	아니고
32039-0-3	아니-(否)[ㅇ]-더라	아니드라
32039-0-4	아니-(否)[ㅇ]-으니까	아:닝개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아니얼따
32040-0-1	되-(升)[니]-지	되지 마라
32040-0-2	되-(升)[니]-고	되고 일따
32040-0-3	되-(升)[니]-더라	되더라
32040-0-4	되-(升)[니]-으니까	똥:게
32040-0-5	되-(升)[니]-아/어(왔/었다)	되얼따
32041-0-1	있-(有)[쓰]-지	인:찌
32041-0-2	있-(有)[쓰]-고	인꼬
32041-0-3	있-(有)[쓰]-더라	인:뜨라
32041-0-4	있-(有)[쓰]-으니까	인:승개
32041-0-5	있-(有)[쓰]-아/어(왔/었다)	인썰따 업썰따
32042-0-1	놓-(放)[ㅎ]-지	노치 마라
32042-0-2	놓-(放)[ㅎ]-고	노코 이끄라
32042-0-3	놓-(放)[ㅎ]-더라	논트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노:응개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노안따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노왈따
32043-0-1	훔-(扱)[ㅌ]-지	홀찌 마라
32043-0-1	훔-(扱)[ㅌ]-지	홀찌 마러라
32043-0-2	훔-(扱)[ㅌ]-고	홀른다
32043-0-2	훔-(扱)[ㅌ]-고	홀코 일따
32043-0-3	훔-(扱)[ㅌ]-더라	홀트라
32043-0-5	훔-(扱)[ㅌ]-아/어(왔/었다)	홀턴따
32044-0-1	굽:-(麗)[ㅂ 변]-지	굽:찌
32044-0-2	굽:-(麗)[ㅂ 변]-고	굽:고
32044-0-3	굽:-(麗)[ㅂ 변]-더라	굽:뜨라
32044-0-4	굽:-(麗)[ㅂ 변]-으니까	고:응개
32044-0-5	굽:-(麗)[ㅂ 변]-아/어(왔/었다)	고왈따
32045-0-1	쥐:-(握)[ㄱ]-지	쥐:지 마라
32045-0-2	쥐:-(握)[ㄱ]-고	쥐:고 일따
32045-0-3	쥐:-(握)[ㄱ]-더라	쥐:더라
32045-0-3	쥐:-(握)[ㄱ]-더라	쥐드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쥬:게
32045-0-4	쥐:-(握)[ㄱ]-으니까	쥬게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쥐얼따
32046-0-1	가-(去)[ㅏ]-지	가지 마라
32046-0-2	가-(去)[ㅏ]-고	가고 일따

32046-0-3	가-(去)[卜]-더라	가드라
32046-0-4	가-(去)[卜]-으니까	강:게
32046-0-5	가-(去)[卜]-아/어(왔/었다)	갈썰따
32046-0-5	가-(去)[卜]-아/어(왔/었다)	갈따

2) 일반 항목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바블 먹고 인따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거라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뜯꼬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뜯지마라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더라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가:따 그러제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트더라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탈따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털따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야:트다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야:참따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차서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흐터진다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흐터지고 인따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흐터진다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나르더라 해야제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나라가고 인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날고 인따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날라간다, 나라간다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고 인따고 해야제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고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울:고 이써서, 울:고 인썰다
32054-0-1	"일:-(淘)-지 -고 -더라"	이룬:다 그러제
32054-0-1	"일:-(淘)-지 -고 -더라"	이루고 인따
32054-0-2	"일:-(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이썰따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얼:고 인따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ړ따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넘:꼬 인따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먼따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순:꼬 인따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숨:떠라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먼따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하기가 쉽:따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얼따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누얼 뜨라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어 인따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첩꼬 인따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쥐얼따
32061-0-1	"밋:-(憎)-지 -고 -더라"	미웁떠라
32061-0-2	"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웁따
32061-0-2	"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월따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놉따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판따 야참따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지:꼬 인따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얼따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섀따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블 지섀따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부얼뜨라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부섀뜨라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부꼬이따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섀따 그러제 부섀따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즐:겍게 온꼬 인따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섀따
32066-0-1	"짓:-(咲)-지 -고 -더라"	지:꼬 이따
32066-0-1	"짓:-(咲)-지 -고 -더라"	지:떠라
32066-0-2	"짓:-(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섀따
32067-0-1	"꽃:-(插)-지 -고 -더라"	꼬꼬인따
32067-0-1	"꽃:-(插)-지 -고 -더라"	꼴:지마라
32067-0-2	"꽃:-(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바따
32067-0-2	"꽃:-(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자따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나:코 이따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낱:따
32069-0-1	"땅:-(?) -지 -고 -더라"	따:코다닌다
32069-0-2	"땅:-(?)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딸따
32070-0-1	"끓:-(切)-지 -고 -더라"	끈코 인따

32070-0-2	"끓-(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끄:넌따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괜찬꼬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괜차너다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익:꼬 인따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일:겂따
32073-0-1	"뺨-(澁)-지 -고 -더라"	뜨:러서
32073-0-2	"뺨-(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떠:럽따
32073-0-2	"뺨-(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뜨:겂따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옴기고 인따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옴겂따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올만따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뜰코 인따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뜨런따
32076-0-1	"끓-(?) -지 -고 -더라"	끓:코
32076-0-2	"끓-(?)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꾸런따
32077-0-1	"달-(? 연필 심이)-지 -고 -더라"	달른다
32077-0-2	"달-(?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라절따
32078-0-1	"달:-(煎 술에서 장이)-지 -고 -더라"	달:런다
32078-0-2	"달:-(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라절따
32078-0-2	"달:-(煎 술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대려절따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다리지면 짜지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짜서 못 묵겂따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물:고 인따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점는다 몬다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쓰고 인따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썸:따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오르고 인따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올라가고 인따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 올라갠따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올란따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바뿌다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바빠서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고푸다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배가 고파서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쏘지 마라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쏘안따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꾸고 일따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꾸언따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꾸언따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머물고 일따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머무런따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다듬꼬 일따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두먼따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견디고 일따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 견덜따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몰:고 일따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 모란따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찌고 일판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앙개가 찼따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마시고 일따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셜따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시미 시:다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시미 시:고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미 시어서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포개고 일따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 포갠따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뚜들고 일따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 뚜드런따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쓰고 인따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썰따
32097-0-1	"썰:-(바람을)-지 -고 -더라"	썰고 인따
32097-0-2	"썰:-(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옰따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쇠:지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쇠:안따
32099-0-1	"쉬:-(?)-지 -고 -더라"	쉴:다
32099-0-2	"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어따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히구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색까리 히어서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보꾸고 인따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까따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양꼬 인따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양꼬 달랜다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날따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무더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덜따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불:고 인따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ړ턴따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빨고 인따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랏따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죽:꼬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라 주겸따고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거러가고 인따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러가드라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물더라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ړ턴따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졸리드라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졸ړ턴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쓸:고 인따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ړ턴따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감:꼬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몸따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더듬꼬 인따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드먼따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국:꼬 인따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구:꼬 이따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굽:찌마라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얼따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무겁따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거서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인:꼬 인따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서
32116-0-1	"빋-(梳)-지 -고 -더라"	빋:꼬 인따
32116-0-2	"빋-(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선따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검:따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검:꼬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먼따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늘:따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너코 인따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따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대리고 인따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곱꼬 인따고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대련따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왈따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영:꼬 인따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영거따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흙철따
32121-0-1	"귀찮-(?)-지 -고 -더라"	귀찬트라
32121-0-1	"귀찮-(?)-지 -고 -더라"	치고
32121-0-1	"귀찮-(?)-지 -고 -더라"	지드라
32121-0-1	"귀찮-(?)-지 -고 -더라"	귀찬트라
32121-0-2	"귀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차넌따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볼라내고 인따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보르고 인따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 아/어서 -왔/었다"	볼란따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무리 막따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갸따
32124-0-1	"굵:- (臙)-지 -고 -더라"	곰:꼬 인따
32124-0-2	"굵:- (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골마따 그러지
32125-0-1	"굵:- (太)-지 -고 -더라"	국:다 그러지
32125-0-2	"굵:- (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거서
32126-0-1	"얇:- (薄)-지 -고 -더라"	얹께
32126-0-2	"얇:- (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얹바서
32127-0-1	"쫘-(?) -지 -고 -더라"	찌코 인따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일:코이따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어버린 거시고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런따
32129-0-1	"활-(?) -지 -고 -더라"	할른다
32129-0-1	"활-(?) -지 -고 -더라"	할:코 인따
32129-0-2	"활-(?)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할뎡따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잘롭떠라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화서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르고 인따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라고 인따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련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고 인따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물 잘 잔따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모탄다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모타더라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댄따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리더라
32134-0-2	"모르-(不知)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란따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풍거시고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푸재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푸다게야제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미 아퍼서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다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큰:썰따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꼬:고 일따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꼬알따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쭈:고 일따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쭈:얼따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마추고 일따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맞췌따
32140-0-1	"데우-(?)-지 -고 -더라"	던다
32140-0-1	"데우-(?)-지 -고 -더라"	데:고 일따
32140-0-2	"데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디언따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이:고 일따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이:얼따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갈기고 일따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궤따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궤따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지두리고 일따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기두리고 일따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들련따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들련따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세:고 일따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시:고 일따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세:얼따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얼따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고 일따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뺄따
32146-0-1	"켜-(툼을)-지 -고 -더라"	*
32146-0-2	"켜-(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되:다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되아서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쉬:고 인따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쉬언따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할퀴고 인따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할퀴언따
32150-0-1	"눌:-(?)-지 -고 -더라"	눌코 이따
32150-0-2	"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ړ따
32151-0-1	"깨달-(覺)-지 -고 -더라"	깨달코 인따
32151-0-2	"깨달-(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ړ따
32151-0-2	"깨달-(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랴따
32152-0-1	"마ړ-(오줌이)-지 -고 -더라"	마ړ뜨라
32152-0-2	"마ړ-(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라서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부끄럽뜨라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끄러서
32154-0-1	"가잡-(近)-지 -고 -더라"	가잡따
32154-0-2	"가잡-(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차와서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깊따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퍼서
32156-0-1	"긱:-(劃)-지 -고 -더라"	긱떠라
32156-0-2	"긱:-(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어따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씻:꼬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씻서따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처따라고 허는디
32158-0-1	"쨍-(搗)-지 -고 -더라"	쨍:코 이따
32158-0-2	"쨍-(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쨍:얼따
32159-0-1	"꺅-(搔)-지 -고 -더라"	꺅꼬 인따
32159-0-2	"꺅-(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꺅꺅따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굶꼬 인따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굶먼따
32161-0-1	"닻:-(似)-지 -고 -더라"	달만뜨라
32161-0-2	"닻:-(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만따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싫뜨라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63-0-1	"끓-(?)-지 -고 -더라"	끓:더라
32163-0-2	"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끓따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부:꼬 일따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얼따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섰따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고 일따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고 간다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탈따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잘 마르더라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말랴따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쓰더라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썸:따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슬푸더라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슬핀따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기뿌다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뻐다
32170-0-1	"쏘-(? 별이)-지 -고 -더라"	쏘:드라
32170-0-2	"쏘-(? 별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안따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주더라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얼따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키우더라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윰따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고 일다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두얼따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붙꼬 일따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섰따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섰따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나누고 일따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나주고 일파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소기고 일파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결파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끼:고 다닌다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얼파: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튀드라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튀얼파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괴:고 일파
32179-0-2	"괴:-(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괴안파
32180-0-1	"여위-(?)-지 -고 -더라"	여우드라
32180-0-2	"여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여월파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매웁꼬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매웁뜨라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완파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월파
32182-0-1	"뀌:-(?)-지 -고 -더라"	뀌:드라
32182-0-1	"뀌:-(?)-지 -고 -더라"	뀌:고 일파
32182-0-2	"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뀌얼파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고치고 일파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철파
32184-0-1	"싯:-(載)-지 -고 -더라"	싯:코 일파
32184-0-2	"싯:-(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싯:ړ넨파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얻:꼬 이파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던파
32186-0-1	"뽕-(粉碎)-지 -고 -더라"	뽕수고 일파
32186-0-2	"뽕-(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뽕썰파
32187-0-1	"파랳-(碧)-지 -고 -더라"	퍼ړ넨타
32187-0-1	"파랳-(碧)-지 -고 -더라"	퍼러트라
32187-0-2	"파랳-(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러서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달부더라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번파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부다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품:꼬 인따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푸먼따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누:고 이따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쌀:따고 해야제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얼따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더럽다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러서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걸:꼬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건넌다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걸:꼬 인따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뒀드린다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끓코 인따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ړ넨따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기더라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결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부시고 현다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셔서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빠지드라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절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이라친다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이르키고 이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이라치다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라컬따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댕기고 인따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댕결따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버리더라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렐따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훔치더라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철따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고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드라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절따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외드라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언따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사귀고 일따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견따 사겨
32204-0-1	"썩-(腐)-지 -고 -더라"	썩:꼬 이따
32204-0-2	"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견따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질:드라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땅이 지러서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쌀 까불더라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부럴따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물더라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주러든다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러드런따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승기고 일따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승견따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쓰다듬꼬 일따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다드먼따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그 집 개가 싸:납뜨라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 왔/었다"	싸:나어서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개법째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법따
32213-0-1	"젓:-(?)-지 -고 -더라"	절꼬 일따
32213-0-2	"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선따
32214-0-1	"두텁-(厚)-지 -고 -더라"	두텁따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두껍따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꺼워서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물러진다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너무 무르더라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러져따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물런따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런따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부질고 인따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지런따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지런따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그를 배우고 인따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웠따
32218-0-1	"다리-(?)-지 -고 -더라"	대런 거시고
32218-0-1	"다리-(?)-지 -고 -더라"	그건 대리질 허는 거시고
32218-0-1	"다리-(?)-지 -고 -더라"	대리질 허고 인따
32218-0-2	"다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대리지를 했:따
32219-0-1	"후비-(? 귀를)-지 -고 -더라"	코를 쭈시고 인따 귀를 쭈시고 인따 그러지 뭐
32219-0-1	"후비-(? 귀를)-지 -고 -더라"	쭈시고 인따
32219-0-2	"후비-(?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설따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애리는 거시고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르파기 애려서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그리고 인따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그럴따
32222-0-1	"저리-(癡)-지 -고 -더라"	저리다
32222-0-2	"저리-(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파기	저려서 몬 니러날따 그러지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부르라고 당구는 거시지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부르라고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당관따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당곶따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다습따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뜨시다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따습따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뜨대서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무를 끼려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끄려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끄리고 일따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ړ따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누비고 일따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빈다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누별따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꾸질꼬 일따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지저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비:고 일따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언따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시:쿠고 일따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퀵따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매:고 일따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맬:따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멤미고 일따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멤면따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뛰고 일따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뛰어 간다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담:꼬 인따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머서
32234-0-1	"가렵-(?)-지 -고 -더라"	가:랍뜨라
32234-0-2	"가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라서
32234-0-2	"가렵-(?)-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뤄서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쌔리고 인따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쌔련따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어둡따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뤄진다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꼬 인따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벌따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차고 인따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발로 찰따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찰:따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모지래드라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지 랐따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부르고 인따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련따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딸:고 인따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란따
32242-0-1	"조:-(啄)-지 -고 -더라"	조:꼬 이따고 그래야지
32242-0-2	"조:-(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살따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두:고 완따도 되지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얼:따 히야제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시키고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기고 왁:따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채리고 인따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채:련따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던지고 인따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던:절따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이고 일따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모열따
32248-0-1	"만지-(?)-지 -고 -더라"	만지고 일따
32248-0-2	"만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절따
32249-0-1	"찌:-(?)-지 -고 -더라"	찌:고 일따
32249-0-2	"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안따
32249-0-2	"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찢:다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비틀고 일따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트런따
32251-0-1	"돕:-(-助)-지 -고 -더라"	돕:꼬 일따
32251-0-2	"돕:-(-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왈따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씹:꼬 일따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벌:따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끄럽:떠라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끄럽:따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다:뜨라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안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누리고 일따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런따
32256-0-1	"주무르-(?)-지 -고 -더라"	주:물고 일따
32256-0-2	"주무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무런따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메:우고 일따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월따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꼬습떠라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습따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수왈따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내리고 일따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런파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구리고 일파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러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만들고 일파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드런파
32262-0-1	"늡-(老)-지 -고 -더라"	능는다
32262-0-1	"늡-(老)-지 -고 -더라"	늘거뜨라
32262-0-1	"늡-(老)-지 -고 -더라"	늘거가드라
32262-0-2	"늡-(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늘거간다
32263-0-1	"알-(痛)-지 -고 -더라"	알코 일파
32263-0-2	"알-(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어파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잘 따르고 일파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란파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사:고 일파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살:따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우고 일파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얼파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뿌러지더라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러절파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다첼뜨라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첼파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리더라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려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무치고 일파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쳐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죄:고 일파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죄얼파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내고 일파 그러지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팔고 인따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란따 허고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콩을 래:따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꼬 인따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뽑:받따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뒤지고 인따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뒤고 인따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절따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어따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뒤절:따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마치고 인따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철따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정구고 인따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정곶따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휘어지고 인따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휘어절따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주:꼬 이따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선:따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빼꼬 인따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서따 하는 거슨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선따 해야지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지울고 인따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우러절따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깝따 해야제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제 쓴거시 아까워따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까웁:따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방갑뜨라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가워따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고 이따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누러타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노라타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러서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푸러드라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푸러다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서둘더라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서툴드라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투러서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게우리드라 하지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울런따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뜨하드라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수안따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춡:뜨라고 해야제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추와서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뜨:겁따 해야제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거서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미지근허더라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지근해서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드라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서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부:럽뜨라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워서
32295-0-1	"얄밋-(憎)-지 -고 -더라"	얄:밋뜨라

32295-0-2	"알밋-(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알미워서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비:스타다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스대서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새:롭뜨라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새로워서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새로워따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서럽게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서:럽게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서러윰따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까시랍따고 그러지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까:시럽따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까시러서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외:롭뜨라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외로윰따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아습따 하는 거시고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수아서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단단하드라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단단험따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늦찌마라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느저따
32304-0-1	"남:- (餘)-지 -고 -더라"	바비 남뜨라
32304-0-2	"남:- (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나:멀따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냉기드라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냉결따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너머뜨리드라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머뜨릴따

32307-0-1	"쭈그리뜨리-(使凹)-지 -고 -더라"	오굴칠따
32307-0-2	"쭈그리뜨리-(使凹)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굴쳐따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견:주고 인따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견:쥬따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외:드라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왈따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대고 인따
32310-0-2	"문지르-(摩)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덜따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가리치고 인따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리첼따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가리키고 인따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리첼따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리켈따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고누고 인따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날따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견주고 인따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견:쥬따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리고 인따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련따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리고 인따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본:받꼬 인따
32316-0-2	"본받-(效)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본바덜따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어질고 인따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지ړ따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다름질 허고 일따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마리 달리고 일따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렐따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위기고 일따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위:결따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두선두선허다 그러제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두런두런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두렁거리고 일따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렁거렐따
32321-0-1	"지결이-(騷)-지 -고 -더라"	떠들고 일따
32321-0-2	"지결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떠:드렐따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다니고 일따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녔따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떠러치고 일따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떠러첼따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우고 일따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얻따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제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어서
32326-0-1	"숫-(湧)-지 -고 -더라"	속:꼬 일따
32326-0-2	"숫-(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사난다
32327-0-1	"좋:- (好)-지 -고 -더라"	조:트라
32327-0-2	"좋:- (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아따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빨가트라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빨:개서
32329-0-1	"끌:- (曳)-지 -고 -더라"	끌:꼬 간다
32329-0-2	"끌:- (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세따
32330-0-1	"넓-(廣)-지 -고 -더라"	넙:떠라
32330-0-1	"넓-(廣)-지 -고 -더라"	넙롭뜨라
32330-0-2	"넓-(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넙버서 시원허다 히야제

32330-0-2	"넓-(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널뤄서
32331-0-1	"하얏-(白)-지 -고 -더라"	히드라
32331-0-1	"하얏-(白)-지 -고 -더라"	하야트라
32331-0-2	"하얏-(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하:애서
32331-0-2	"하얏-(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하애서
32331-0-2	"하얏-(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히어서 그러제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익꼬
32332-0-2	국(羹)-을/를	구:글
32332-0-3	국(羹)-에(서)	구:게
32332-0-4	국(羹)-으로	구그로
32332-0-5	국(羹)-도	국:또
32333-0-1	논(沍)-이/가	노:니
32333-0-2	논(沍)-을/를	노를
32333-0-3	논(沍)-에(서)	노네
32333-0-4	논(沍)-으로	노느로
32333-0-5	논(沍)-도	논도
32334-0-1	쌀(米)-이/가	싸리
32334-0-2	쌀(米)-을/를	싸:를
32334-0-3	쌀(米)-에(서)	싸:레
32334-0-4	쌀(米)-으로	쌀로
32334-0-5	쌀(米)-도	쌀도
32335-0-1	봄(春)-이/가	보미
32335-0-2	봄(春)-을/를	보:를
32335-0-3	봄(春)-에(서)	보메
32335-0-4	봄(春)-으로	보므로
32335-0-5	봄(春)-도	봄도
32336-0-1	집(家)-이/가	지:비
32336-0-2	집(家)-을/를	지블
32336-0-3	집(家)-에(서)	지베
32336-0-4	집(家)-으로	지브로
32336-0-5	집(家)-도	집:또

32337-0-1	옷(衣)-이/가	오:시
32337-0-2	옷(衣)-을/를	오슬
32337-0-3	옷(衣)-에(서)	오세
32337-0-4	옷(衣)-으로	오스로
32337-0-5	옷(衣)-도	온또
32338-0-1	방(房)-이/가	방이
32338-0-2	방(房)-을/를	방을
32338-0-3	방(房)-에(서)	방에
32338-0-4	방(房)-으로	방으로
32338-0-5	방(房)-도	방:도
32339-0-1	낮(晝)-이/가	나시
32339-0-1	낮(晝)-이/가	나:시라고
32339-0-2	낮(晝)-을/를	나슬
32339-0-3	낮(晝)-에(서)	나세
32339-0-3	낮(晝)-에(서)	나제
32339-0-4	낮(晝)-으로	나스로
32339-0-5	낮(晝)-도	날:또
32340-0-1	낮(顔)-이/가	나시
32340-0-2	낮(顔)-을/를	나슬 바타
32340-0-3	낮(顔)-에(서)	운는 나세
32340-0-4	낮(顔)-으로	그러한 나스로
32340-0-5	낮(顔)-도	날또
32341-0-1	부엌(廚)-이/가	부어기다
32341-0-2	부엌(廚)-을/를	부어글
32341-0-3	부엌(廚)-에(서)	부어게서
32341-0-4	부엌(廚)-으로	부어그로
32341-0-5	부엌(廚)-도	부엌또
32342-0-1	밭(田)-이/가	바시라고 그러제
32342-0-1	밭(田)-이/가	바시
32342-0-2	밭(田)-을/를	바슬
32342-0-3	밭(田)-에(서)	바테
32342-0-4	밭(田)-으로	바트로
32342-0-5	밭(田)-도	밭:또
32343-0-1	앞(前)-이/가	아:피
32343-0-2	앞(前)-을/를	아플
32343-0-3	앞(前)-에(서)	아페
32343-0-4	앞(前)-으로	아프로

32343-0-5	앞(前)-도	압:또
32343-0-5	앞(前)-도	아:폐도
32344-0-1	넋(魂)-이/가	넉씨
32344-0-2	넋(魂)-을/를	넉쓸
32344-0-3	넋(魂)-에(서)	너게
32344-0-4	넋(魂)-으로	넉쓰로
32344-0-4	넋(魂)-으로	너그로
32344-0-5	넋(魂)-도	넉:또
32345-0-1	흙(土)-이/가	토방은 흐기다
32345-0-2	흙(土)-을/를	흐글
32345-0-3	흙(土)-에(서)	흐:게
32345-0-4	흙(土)-으로	흐그로
32345-0-5	흙(土)-도	흑:또
32346-0-1	여덟(八)-이/가	여드리
32346-0-2	여덟(八)-을/를	여드를
32346-0-3	여덟(八)-에(서)	여드레
32346-0-4	여덟(八)-으로	여들로
32346-0-5	여덟(八)-도	여들또
32347-0-1	돌(週歲)-이/가	도리
32347-0-1	돌(週歲)-이/가	도리
32347-0-2	돌(週歲)-을/를	도를
32347-0-3	돌(週歲)-에(서)	도레서
32347-0-4	돌(週歲)-으로	돌로
32347-0-5	돌(週歲)-도	돌:도
32348-0-1	값(價)-이/가	갑씨
32348-0-2	값(價)-을/를	가:블
32348-0-3	값(價)-에(서)	가베
32348-0-4	값(價)-으로	갑쓰로
32348-0-4	값(價)-으로	가브로
32348-0-5	값(價)-도	갑:또
32349-0-1	속:(內)-이/가	소:기
32349-0-2	속:(內)-을/를	소글
32349-0-3	속:(內)-에(서)	소게
32349-0-4	속:(內)-으로	소그로
32349-0-5	속:(內)-도	속:또
32350-0-1	돈:(錢)-이/가	도:니
32350-0-2	돈:(錢)-을/를	도늘

32350-0-3	돈:(錢)-에(서)	도네
32350-0-4	돈:(錢)-으로	도느로
32350-0-5	돈:(錢)-도	돈:도
32351-0-1	발(足)-이/가	바리
32351-0-2	발(足)-을/를	바를
32351-0-3	발(足)-에(서)	바레
32351-0-4	발(足)-으로	발로
32351-0-5	발(足)-도	발:도
32352-0-1	짐(荷物)-이/가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지를
32352-0-3	짐(荷物)-에(서)	지메
32352-0-4	짐(荷物)-으로	지무로
32352-0-5	짐(荷物)-도	짐:도
32353-0-1	입(口)-이/가	이비
32353-0-2	입(口)-을/를	이블
32353-0-3	입(口)-에(서)	이베
32353-0-4	입(口)-으로	이브로
32353-0-5	입(口)-도	입:또
32354-0-1	낫(鎌)-이/가	나시
32354-0-2	낫(鎌)-을/를	나슬
32354-0-3	낫(鎌)-에(서)	나세
32354-0-4	낫(鎌)-으로	나스로
32354-0-5	낫(鎌)-도	낫:또
32355-0-1	강(江)-이/가	강이
32355-0-2	강(江)-을/를	강을
32355-0-3	강(江)-에(서)	강에
32355-0-4	강(江)-으로	강으로
32355-0-5	강(江)-도	강:도
32356-0-1	젖(乳)-이/가	저시
32356-0-2	젖(乳)-을/를	저슬
32356-0-3	젖(乳)-에(서)	저세
32356-0-4	젖(乳)-으로	저스로
32356-0-5	젖(乳)-도	젖:또
32357-0-1	꽃(花)-이/가	꼬시
32357-0-2	꽃(花)-을/를	꼬슬
32357-0-3	꽃(花)-에(서)	꼬세
32357-0-4	꽃(花)-으로	꼬스로

32357-0-5	꽃(花)-도	꼇:또
32358-0-1	팥(赤豆)-이/가	포시
32358-0-2	팥(赤豆)-을/를	포슬
32358-0-3	팥(赤豆)-에(서)	포세
32358-0-4	팥(赤豆)-으로	포스로
32358-0-5	팥(赤豆)-도	폰:또
32359-0-1	옆(側)-이/가	여피
32359-0-2	옆(側)-을/를	여플
32359-0-3	옆(側)-에(서)	여페
32359-0-4	옆(側)-으로	여프로
32359-0-5	옆(側)-도	염:또
32360-0-1	삯(賃金)-이/가	싸:기
32360-0-2	삯(賃金)-을/를	싸글
32360-0-3	삯(賃金)-에(서)	싸게
32360-0-4	삯(賃金)-으로	싸그로
32360-0-5	삯(賃金)-도	씩:또
32361-0-1	닭(鷄)-이/가	다기
32361-0-1	닭(鷄)-이/가	달기
32361-0-2	닭(鷄)-을/를	다글
32361-0-3	닭(鷄)-에(서)	다게
32361-0-4	닭(鷄)-으로	다그로
32361-0-5	닭(鷄)-도	닥:또
32362-0-1	밖(外)-이/가	박끼
32362-0-2	밖(外)-을/를	박끌
32362-0-3	밖(外)-에(서)	박께
32362-0-4	밖(外)-으로	박끄로
32362-0-5	밖(外)-도	박:또

제4편 문 법

4.1. 대명사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보닌, 나:
40101-0-1	내-가	내:가
40101-0-2	내	내:걸
40101-0-3	나-를	나
40101-0-4	나-에게	나한테 주얼따
40101-0-5	나-와	나허고 가따, 나허고
40101-0-6	나-는	나는
40101-0-7	나-도	나도 알고
40102	저/제-가	저, 제가
40102-0-1	저-가	제가
40102-0-1	저-가	제:가 다녀왓습니다
40102-0-2	저-의	제: 물거니라고
40102-0-3	저-을/를	저를 부르시오
40102-0-4	저-에게	저한테
40102-0-5	저-와/과	저허고
40102-0-6	저-는	저는
40102-0-7	저-도	저:도 알고
40103	우리	우리 아버지
40104	저희	제 아버지, 저희 아버지
40105	너	너:
40105-0-1	-가	네:가
40105-0-2	-의	니: 물게니라고
40105-0-3	-을/를	너:
40105-0-4	-에게	너:한테
40105-0-5	-와/과	너:하고
40105-0-6	-는	너:는 안다
40105-0-7	-도	너도 알고
40106	자네	자네
40107	당신	당신
40108	너희	느:끼 아버지, 너희 아버지,

40109	개	니끼라고 허제 니끼라고
40109-1	애	개가, 개:가
40109-2	재	야 야 허제
40110	자기	자:가
40111	당신	지:말만
		할아버지 방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구쇼:
40112-0-1	누-가	누:가 깐냐고
40112-0-2	누구-의	누구 도니냐고
40112-0-3	누구-를	누구를 만나러 왓쏘
40112-0-4	누구-에게	누구한테 드런냐고
40112-0-5	누구-와	누구허고 갈따왓써
40113	무엇-이냐/입니까	무어시냐
40113-0-1	무엇-이	무어시고
40113-0-2	무슨	지거비 뭐싱가
40113-0-3	무엇-을	뭇 짜실랑가
40113-0-4	무엇-과	무이더고, 뭇더고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어디를 잘 다니는가
40115	언제	어느 때나 오능가, 자네 언지 완는가
40116	어느	어떤 노미 조통가고 무러뵤야제
40117	왜	너: 왜 우냐
40118	얼마나	시가니 얼마나 걸리냐
40119	어떻게	어트케 잘 지내냐고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걸, 이거시고
40121	그것	그걸
40122	저것	찌가 인는거시 저거시고
40123	여기	여기
40124	거기	거기

40125	저기	저기
40126	이리	이리
40127	그리	그리
40128	저리	저리

4.2. 조사

4.2.1. 격조사

40201	-이/가	갑:씨가 비싸다 히야제
40202	-이/가	코:가 크다고 히야제
40203	-을/를	귀빤물 때턴따고
40204	-을/를	무를 줘야제
40205	-에게/게	하라버지게다가
40206	-보고/더러	눠게다 그러지
40206	-보고/더러	눠게다가
40207	-보고/더러	누구보고 반마리냐고
40208	-에	지베 가네
40209	-에	다으메 또 만나세
40210	-에서	큰지비서 지내제
40211	-에서	무장씨 만나자 그러제
40211	-에서	무장에서 만난다 그러제
40212	-에서	여기서 무장까지 약 사십키로 된다
40213	-으로	쌀로 과자를 만든다는 거슨 좀 드물제
40213	-으로	쌀로 만드던 거슨
40214	-으로	밀까리로 마니 만든다고
40215	-으로	새내키로
40216	-으로	어디 갇썬냐고
40216	-으로	판디로
40217	-와/과	사과랑 배랑 가꼬너라 그러제
40218	-와/과	사버고 갱이허고 가져온나 그러지
40218	-와/과	나랑 가치 가자
40218	-와/과	나허고 가치가자 허지
40218	-와/과	저허고 가치가자 그러는디
40219	-보다	형보다 더 크다
40219	-보다	성보다 그러제
40220	-처럼	돼지가치 생겔따

40220	-처럼	돼지보단 더
40221	-만큼	너만치 킌쓰면 쓰겄따 그러제
40222	-만큼	암 그러치 머글만치 떠가라
40222	-만큼	머을만치라 그러제 머을만치
40223	-아/야	복나마
40224	-아/야	복나미
40225	-아/야	영수야
40226	-아/야	누:니미라고 그러제
40226-1	-예	누:나
40227	-아/야	하라버지라 그러제 하라버지
40227-1	-요	하라부이 하라부이 그랜제
40228	-이랑	고기랑 수리랑 떠기랑 마니 머겄따
40229	-커녕	마너는 커녕은 천원도 업네

4.2.2. 보조사

40230	-은/는	수른 머거도 담배는 못 핀다 그러제
40231	-만	딸만 입빠헌다고 딸만
40232	-도	키도
40232	-도	얼굴도 잘 생겄따
40233	-마다	매일 술 멩는다 그러지
40233	-마다	날:마다
40234	-부터	오늘부터
40235	-까지	내일까지제 내일까지
40236	-조차	머글 물두 읍따 그러지
40236	-조차	머글 물조차 업따
40236-1	-할라	비 온디 뭇라고 가냐
40236-1	-할라	비할라 오는디 어찌 갈라 그러냐
40237	-이야/야	마:른 조타 그러지
40238	-을랑	그런 소릴랑 허지말라고
40238	-을랑	그런 소리넌 허지말라고 그러지
40239	-이라도	부:자지만
40240	-밖에	그 사람뿌니다
40240	-밖에	자:네 뿌니제
40240	-밖에	자네바께 음네
40240	-밖에	자네배끼 음네
40241	-가지고	싸갸꼬

40241	-가지고	싸가지고 가야혀
40242	오라-고 한다	이리 오라고 한다
40242	오라-고 한다	이리 오너라
40243	알았어-요	아란쏘
40244	했지-요?	누가 했쏘?

4.3. 종결어미

4.3.1. 명령법

40301	-아라	이리 와서 안저라
40302	-게	안:쏘
40303	-으오	안지십씨요
40303	-으오	안지쇼
40304	-으십시오	안지십씨오
40305	-세요	안지십씨오 그래야제 안지쇼

4.3.2. 청유법

40306	-자	가치 가자 그러제
40307	-세	가치 가세
40308	-으오	갑씨다
40309	-십시다	가십씨다 그러제
40310	-세요	갑씨다 해도

4.3.3. 의문법

40311	-니	비 오느냐?
40311	-니	비 오냐?
40312	-나	오능가?
40313	-오	비가 오요?
40314	-습니까	인자 비가 옵니까?
40315	-나요	비가 오요?
40316	-니	너 어디 가냐?
40317	-나	자네 어디 가능가?
40318	-시오	형님 어디 가요?

40319	-십니까	어디 가시요?
40320	-세요	어디 가시요?

4.3.4. 서술법

40321	-는다	멍는구나
40321	-는다	잘 멍는구나
40322	-네	잘 멍네이
40323	-오	자시우이
40323	-오	머급떠다
40324	-습니다	잘 자십니다
40324	-습니다	잘 드십니다 이르게 하는 거시
40325	-네요	잘 드십니다 잘 자십니다
40326	-다	적:따
40327	-네	장:네
40328	-소	적:쏘
40329	-으십니다	작:썸니다
40330	-으세요	작:쏘 그런데 장네요
40330	-으세요	장:네요

4.3.5. 반말

40331	-아	아풍가
40331	-아	아파
40332	-지	간따오소이
40332	-지	갈:꺼지?

4.3.6. -이다

40333	-이다	내이리 내 생이리다
40333	-이다	니 생이리다
40334	-이니	생이리냐
40335	-이네	생이리여
40335	-이네	생이리네
40336	-인가	생이령가
40338	-이오	생이리오
40339	-입니다.	생이릅니다

40339	-입니다.	아버님 생시니오
40340	-업니까	생시님니까
40341	-이시지요	생시님니다
40342	-이시지요	생시님니까
40342	-이시지요	장모님 생시니오
40343	-이냐?	뭐시냐?
40344	-인가?	무어싱가?
40345	-이오?	무어시요?
40346	-업니까?	무어심니까?
40347	-인가요?	무어시요?
40348	-이야?	무어싱가?
40349	-이어요?	무어시요?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만:네
40351	-습디다	마늑떠다
40352	-는구나/구나	잘 먹뜨라
40352	-는구나/구나	멍는구나
40353	-는구먼/구먼	잘 멍네
40353	-는구먼/구먼	멍는구만
40354	-일세	오래간마니네
40355	-으마	가푸마
40355	-으마	가폴란다
40356	-음세	가폼새
40356	-음세	가폴라네
40357	-을라	다칠라
40357	-을라	상할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바블 다 먹꼬
40401	-고/-고서	먹꼬서 봐라
40402	-으면서	봄서
40403	-어/-어서	추와서
40404	-으니 /-으니까	더와서 뜨거서
40405	-관데	문:니리 일땅가

40405	-관데	문닐 인칸디
40405	-관데	문:닐로 모연냐고
40406	-다가	오다가
40407	-거든	그 사람 만나면
40407	-거든	만나면
40407	-거든	보면
40407	-거든	만나거등
40408	-더라도	무슬 먹뜨라도 쪼금씩 머거라
40408	-더라도	떼를 써도
40409	-으려고	나와서 머글란다
40409	-으려고	나나 머글라고
40409	-으려고	나나머글라고 산다
40410	-도록	뼈가 녹도록
40410	-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40410	-도록	뼈빠지도록
40411	-을수록	나리 새도록
40411	-을수록	밤새도록
40412	-듯이	물쓰드끼 헨다
40413	-지	연속꿈만 보제

4.5. 주체 존대

40501	-셔	이리 오소 허든지
40501	-셔	이리 오쑤
40501	-셔	그러제 오쑤
40502	-쑤소	모 다 쑤겐능가 그러지
40502	-쑤소	일 다 헨능가 그러제
40502	-쑤소	헨쑤

4.6. 시제

40601	웃는다	잘 우서
40601	웃는다	운는다
40602	기어간다	긴:다
40602	기어간다	기어간다
40603	크다	눈 크다
40604	생일이다	생이리여

40604	생일이다	생이리다
40605	오고 있다	오고인따
40605	오고 있다	오고인네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밤 머건는가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잡싸쥬쏘
40607	왔었다	왈따간네
40607	왔었다	왈썬네
40608	먹더라	먹떠라
40609	먹더냐	잘 먹평가
40610	만나는 친구	만나넌 친구여
40611	만난 친구	어제도 만날뻔 친구
40612	만났던 친구	만날뻔 친구제
40613	만날 친구	내일 만날 친구
40614	큰 아이	크내여
40615	크던 아이	크던 애기는 언제나 크는 애기고
40616	컸던 아이	컸썬는디
40616	컸던 아이	컨는데
40616	컸던 아이	컨뻔 애기나
40617	마시지 않겠다	마시지 양컸따
40618	비가 오겠다	올겼간따
40618	비가 오겠다	오겼따 강제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아지근 안 머겼썬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먹찌 아넌따고도 허고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날씨가 안 조아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안 조컨네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안 조타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날씨가 안 조아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깨끗 안 하다	깨끗찌 몰다더면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깨끗 안 하다	앙깨끄더다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장가 안간네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몸만난네그레야지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암만나따구레이지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전또 안:먹꼬
40706-1	먹도 않고	암:먹꼬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암:마신다
40708	맞잖소?/안 맞소?	만네
40708	맞잖소?/안 맞소?	내마리 말씀니다
40708	맞잖소?/안 맞소?	말:쏘

4.8. 사동과 피동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렌따구레야지
40802	늘리다	늘:린다
40803	말리다1	말려라
40803	말리다1	말:린다
40804	말리다2	말긴다
40805	열리다	열린다
40806	녹이다	노킨:다
40807	신기다	싱킨:다
40808	보이다	보여준다
40808	보이다	보인다고
40809	알리다	알린다
40810	입히다	이핀다
40811	얹히다	안친다
40812	벗기다	베긴다
40813	웃기다	울긴다
40814	쓱히다	써:킨다
40815	숨기다	숨킨다
40816	굴기다	굴긴다
40817	깨우다	깨운다
40818	돈우다	도둔:다

4.8.2. 피동

40819	잡히다	재편따
-------	-----	-----

40820	깎이다	깨깎거션
40821	끼이다	짱결따
40822	떼이다	따:열따
40823	채이다	채:열따
40823	채이다	채:잉거시고
40824	닫히다	다철따
40825	들리다	잘들린다
40826	업히다	에편따
40827	바뀌다	배결따
40828	씹히다	씹핀다
40829	엎히다	언철따
40830	찍히다	찍켄다
40831	눌리다	눌:링거션
40831	눌리다	눌:ړ따
40832	실리다	실:려
40832	실리다	실려서
40833	끓기다	소시기 끈결따
40834	끓히다	글결따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받꼬 십따
40901	싶다	죽꼬 십따
40901	싶다	가고 십따
40902	싶다	시푸더니
40903	보다	이버바
40903	보다	이버 보십씨요
40903	보다	이버보세요
40904	버리다	머거 버런냐고 허지
40905	대다	우리 댜다
40906	-나/는가 보다	비가 올랑가부다
40907	-나/는가 보다	잠드런능가부다 그러제
40907	-나/는가 보다	자나부다
40908	-나/는가 보다	추옹가부다

4.10. 부사

41001	실컷	실큰 머거라
41001	실컷	실큰 자거라
41002	많이	마니 머거라
41003	너무	너무 마시거른
41003	너무	바블 너무 멍는다든지
41004	조금	조:꾸미라고 그러지 조꿈만 마셔도
41004	조금	조:꿈
41004	조금	쫘:만도 쓰쫘
41005	자주	자조
41006	빨리	빨리 왈따
41007	얼른	얼:른 머거라도 허제
41007	얼른	빨리 얼런
41007	얼른	후딱 머그라
41008	기어코	기:언시 갇따고 그러제
41008	기어코	기언시
41009	가끔	간:가니
41009	가끔	가:끄물 마니
41010	먼저	빨리 가그라
41010	먼저	너나 빨리 가그라
41010	먼저	먼저 가라
41010	먼저	너나 먼저 가거라
41010	먼저	너 몬저 가
41011	나중에	다으메
41011	나중에	천처니
41011	나중에	나중에 허고
41012	가득	가득
41012	가득	가뜩
41012	가득	가드기 채워라
41013	몽땅	온통이라고 그럴수 인제 온통
41013	몽땅	모다 가져온나
41013	몽땅	몽:땅 비는 거슨
41013	몽땅	다:라는 거슨
41014	모조리	모조리도 다: 비는 거시고
41015	혼자	나만 홀:로 나만따그지
41015	혼자	홀:로
41015	혼자	혼자
41016	항상	쉴새업씨 바쁘제

41016	항상	항상 바쁘다
41016	항상	언제나
41016	항상	늘: 바쁘다
41017	똑똑히	똑또기
41018	겨우	겨:우
41018	겨우	저우 차맏따 그러제
41019	늘	늘: 자고 인따
41019	늘	맨날
41020	저절로	저절로
41021	자꾸	자조 나온다 그러제
41021	자꾸	자꾸 나온다
41022	설마	설:마 그러제 설마
41023	하마터면	함바트라면
41023	하마터면	함바트면
41023	하마터면	함바트라면
41024	함께	가치
41024	함께	항께
41025	걸핏하면	까딱 허면
41025	걸핏하면	걸핀
41025	걸핏하면	걸피다면
41026	공연히	공연이
41027	그냥	그냥 간다
41027	그냥	그냥 간다 그러제
41028	매우	겁나게 세다 그러고
41028	매우	매우 세다
41028	매우	공장히 세다
41028	매우	히미 공장히 세다
41029	곧장	해찰허지 말라고
41029	곧장	빨리 가라 그러제
41029	곧장	곧짱 가라고 허는디
41030	벌써	벌:써
41031	가장	가장 박따 그러제
41032	가만히	가마니 일써라
41033	미리	미리
41034	이따금	이따금 온다 그러제

4.11. 관용적 표현

4.11.1. 관용구

41101	여보	여보라고 허는디
41101	여보	어이어이 그러제
41102	여보세요	여보라고 그러제
41102	여보세요	여보씨오
41103	들어가세요	오냐 드러가그라
41104	수고하세요	수고하심니다
41104	수고하세요	수고허네이~
41104	수고하세요	수고헨네(일 끝나고)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안녕허신가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오래감마니쇠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몸 건강하신가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안녕허신가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잘인썸능가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안녕이 지무썸썸요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안녕하심니까
41108	여기 있습니다	예씨요(여자)
41108	여기 있습니다	여깁썸니다
41109	예	예:예: 허제
41110	아니	앙갈라네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깐차네요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아몰치도 안네요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런치도 안네요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암시랑 아네요
41112	내버려 뒀	내비려뒀라
41112	내버려 뒀	나:뒀라
41112	내버려 뒀	그냥 뒀라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너나업씨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개 뒤야지도 다갈따 그리제

4.11.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빠진 도게 물 분끼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도두기 소도둑 된다
41116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라	아니뎌 굴뚜게 냉기나라
41116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라	아니뎌 굴뚜게 영기나라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위원회

위원장	이기갑(목포대학교)
위 원	강영봉(제주대학교)
위 원	김무식(경성대학교)
위 원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위 원	김정대(경남대학교)
위 원	박경래(세명대학교)
위 원	소강춘(전주대학교)
위 원	한영목(충남대학교)
위 원	최명옥(서울대학교)
위 원	곽충구(서강대학교)
위 원	홍윤표(전 연세대학교)